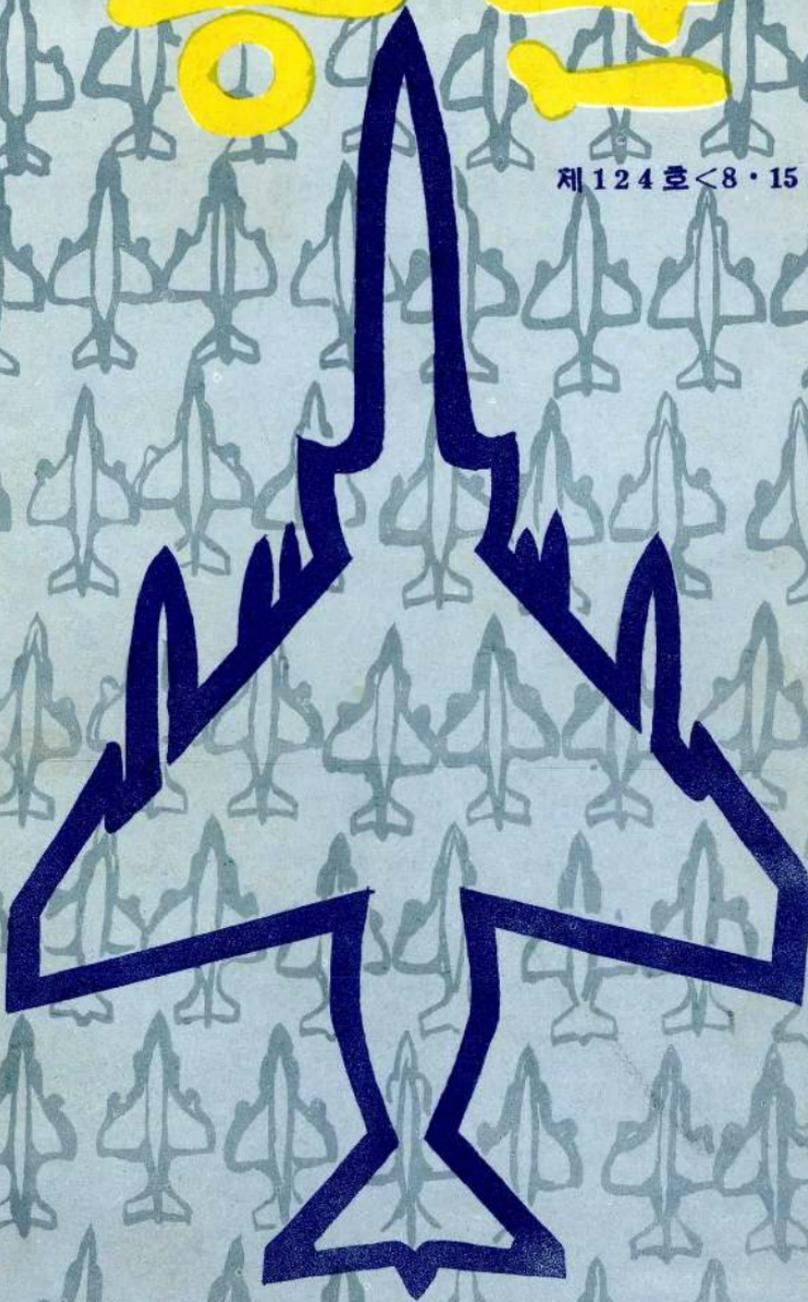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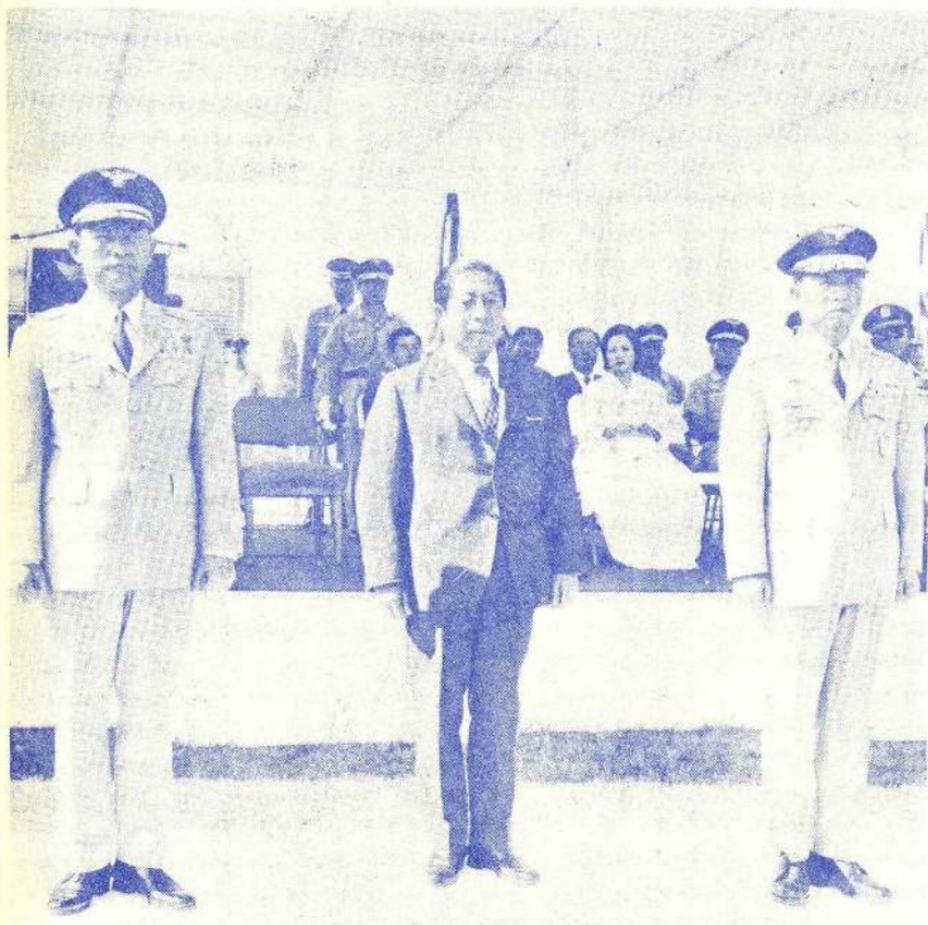
제 124 호 < 8 · 15 특집 >



1971

제 12대 참모총장 옥 만 호 중장 취임

옥 만호 신임 참모총장과 김 두만 전 참모총장의 이·취임식이 8월 28일 오전 10시 공군본부 광장에서, 유 재흥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군 참모총장, 마이켈리스 유엔군 사령관 내·외 휘빈 그리고 공군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흥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공군 승공 사진전시회 개최—

출전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군의 위용과 방공사상을 재차 집하는 공군 승공사진 전시회가 6월 19일부터 4일간 국립공보관에서 개최되었다.



김 총장, 공군 모범용사를 격려!—

공군 모범용사로 선발된 최 병길 상사의 3명이 6월 21일 김 두만 총장을 예방,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모범용사를 격려, 금일봉훈 수여하였다.



육 총장이 취임식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육 총장은 「공군력의 정예화 과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 하겠다」고 진세하고 「기강확립, 전술전기연마, 검소하고 경제적인 군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군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식





<권두언>.....정문갑 신 찬 (2)

자주 국방을 위한 공군의 지향.....정문갑 손 철 영 (4)

한국의 안전보장 = 본질적인 문제상황과 대응자세 = 한국일보논설위원 박 동 운 (14)

군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애 <공군의 테두리 안에서> 보라매회간사장 이 종 승 (24)

저축하는 마음.....한국은행총재 김 성 환 (84)

적극적인 참여의식 <자각적이고 의지적인 행동표현을>... 전우신문 취재부장 마 옥 (88)

숙녀론.....외국어 대학원장 정 인 섭 (96)

신사론.....이대 법정대교수 이 범 준 (100)

동양·TV·김 경 태.....(31)

시사통신 문 갑 용.....(34)

조선일보 이 현 구.....(36)

국제 관계에서의 소련과 중공.....합동통신 조사부장 이 영 희 (102)

일·중공의 대 아시아 정책.....동양통신 방송뉴스부장 고 명 식 (117)

부하 통솔과 인격 = 리더와 부하관계 = 심리사·사·교수 장 병 립 (38)

우리의 위치와 시대적 사명.....철학박사·동국대 불교대학장 서 경 보 (43)

명령과 복종의 미덕.....교육학박사·성대 교육연구원장 립 한 영 (48)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군의 아내에게 부치는 글>...중령 문 무 길 (123)

아내의 행복.....<조종사 부인> 박 경 자 (129)

한여름 광상곡.....대위 박 경 석 (132)

특 집 : 8·15해방 26주년에 부친다

소련의 군사전략 ⑩.....중령 이 종 학(135)

미국의 우위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모.....김 진 화(147)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전망.....중령 조 옥 찬 (160)

세계의 공군력 ②.....(172)

◇세계 위인 순례◇ 공자(孔子).....동양사상의 원조.....편 집 신 (190)

8·15와 민족적 명예.....작가·소아마비협회장 김 팔 봉 (56)

8·15와 우리의 결의.....울신문 논 원 김 진 복 (60)

8·15와 해방의 기쁨.....아동문학가 어 효 선 (67)

역사가 된 세월.....작 가 한 운 사 (71)

⑴ 조국 만세를 부르자.....시인·현양대교수 박 목 월 (75)

(군) (종) (특) (집)

여가와 향락주의.....군목·김 국 진 (197) 생활과 여가와 신앙.....군목·김 영 호 (202)

나의 친구.....군목·이 성 환 (207) 병영생활과 종교.....법사·이 인 수 (209)

좌담회(여가선용).....(212)

<단편> 신과 인간.....중령 김 병 로 (222)

분수에 맞는 생활 = 의·식·주·오락면에서 =평론가 유 한 철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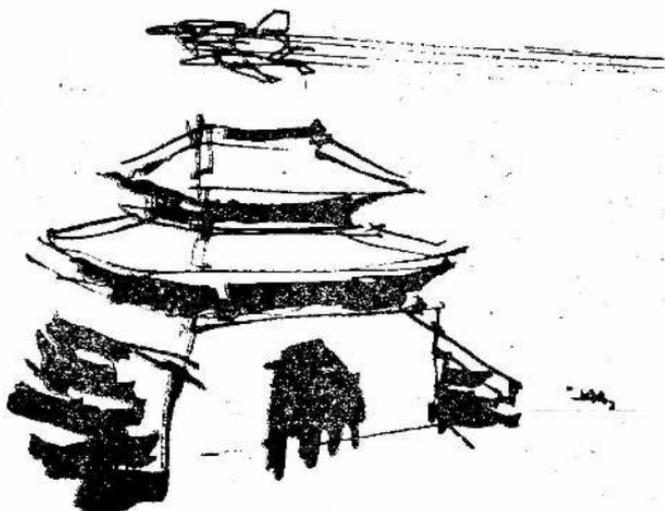
공군

<제 124호 : 1971년 제 4호>

<비 매 품 : 무 단 전 재 금>

발행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신, 찬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최금규
편집실 : TEL. 406-2204, 69-3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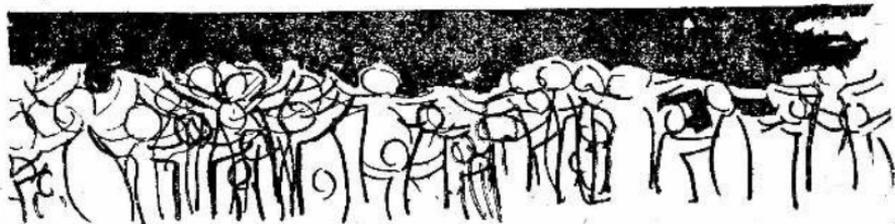
<8·15 특집>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제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omuth

8.15의 오늘의 뜻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4만세기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때의 기쁨과 감격에는 남녀의 구별도 없었고 노소의 가림도 없었으며 너와 내가 하나 되어 그 정겨움은 뜻을 헤아리기에 앞선 것이었다. 정녕 초것은 꾸밈이 없는 것이었다. 조국을 빼앗긴 억울함, 미서운 착취와 학대, 이름 석자마저 잃어버린 서러움, 웃음을 잃고 즐거움을 앗기고 희망이 꺾인 어둡고 지루한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이 겨레가 해방과 독립을 한꺼번에 맞았던 감격이고 보면 그 의의를 고르기보다는 기쁨에 도취됨이 우리도 아니었다.

광복과 더불어 우리 겨레는 새 공화국을 세웠고, 해마다 이 때를 맞이하면 새삼스러운 결의를 다져서 뒤졌던 걸음을 재촉해 왔다. 이 제는 경제적으로 자랐고, 군사적으로 강해졌으며, 정치적으로 굳어져



ornith

어엿한 성년국으로의 기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역사의 수레는 무상히 돌아서 우리 겨레의 원한을 샅던 일본은 어느 덧 선린 우방으로 자리를 옮겼는가 하면 내 나라 북한은 동족상잔의 피도 마다하지 않는 잔인한 괴뢰로 탈바꿈 돼 버렸다. 이런 정세변화에 따라 애초의 8·15 의의는 점차 흐려져 가는 것 같다. 하지만 매년 8·15를 맞으면 그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8·15의 의의를 되살려 온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26년 전 무턱대고 기뻐만 했던 8·15의 감격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깊은 사려의 여지를 던져주어서, 이제는 경제건설과 국방의 새로운 사명으로 귀납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8·15의 오늘의 의의요, 내적으로는 민족중흥의 대명제에 부응함이 되며 외적으로는 격변하는 세계조류에 적응함이 된다.

광복의 감명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우리 각자는 8·15가 준 오늘의 의의에서 저마다의 과제를 연역하여 전심 전력하여 정진함이 국민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된다.

— 자주국방을 위한 —

공군의 지향

중령 손철영

현대전에서의 공군의 중요성은 정부와 국민이 똑같이 인식해야 한다.

1. 강요된 “자주”

“70년대의 위기설”이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 되던 때가 있었다. 이미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차근차근하게 반성하여야 할 일이었다. 미국과 소련간의 세력균형 양상이 변질된다거나, 영국군이 스에즈운하의 동쪽으로부터 물러간다거나, 중공이 핵무기나 유도탄을 실전배치하고, 일본이 커지고, 그래서 극동에서의 역학관계가 중요한다거나, 또는 김 일성의 맹랑한 수작이나, 그가 처해있는 다급한 형편 따위들이 모두 하나같이 우리의 안전보장에 심상치 않은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라는 것은 이미 목은 이야기지만, 왜 우리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마치 남의 일인양 한낱 이야기꺼리로만 끄친 채 지나버린 것인가.

또 그 후에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니, 아시아의 비 미국화정책 등으로 알려진 「닉슨」 미국 대통령의 괌(Guam)도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미국이 아시아의 일선에서 그들의 전력을 전면적으로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한 미군만은 예외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꼭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였다기보다 주한

미군이 몰려난 다음의 우리의 국방이라는 것은 그때로서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 때문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단정하는 때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국방을 위하여 그 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량에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자원의 대부분을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가 남에게 의지하는 습성을 적지않게 지니게 되었으며, 대미 의존체제에 반성없이 서식하는 안일에 타락하였던 것이다.

또 1950년 7월에 우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국련군 사령관에게 위임한 일은 우리의 국가원수가 우리를 대표하여 당시의 우리국방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모할 길이 없었다는 자주적인 판단과 결심에서 택한 선택인 한 어쩔 수 없는 일이였고, 너무 오랫동안 그와 같은 우리의 국방태세가 가장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반성해볼 형편이 아니었던 까닭에 그러한 형편을 망각하고, 우리의 국방을 우리 스스로 경륜하는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향한 회귀(回歸)의 자세를 상실하였다는 부끄러운 일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21사태와 EC-121 피격, 또는 「푸에블로」호의 피납 등 일련의 복귀 도발을 겪으면서 일종의 배신당한 감을 품어야 했다. 1.21 사태 때의 미국의 반응과 EC-121이나 「푸에블로」호 사건 때의 반응의 차원이나 농도의 차이에서 우리와 미국은 필경은 “어쩔 수 없는 남”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과장하는 것은 영남없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한낱 약한 감상인 것이다. 그 후 주한 미군의 감축을 하나의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러한 감상을 털어버리고 국제협력의 실패 앞에 차츰 우리 스스로의 몸을 살피기 위하여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로서 오히려 펍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힘으로 국방하자는 이른바 “자력국방”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의 지향>

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이며, 국방을 위한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관한 개념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력국방”이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우리의 자주국방도 미국군과의 공동전열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면서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삼 천명하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사정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보낸 “외교 교서”에서 “급격한 변화는 특정한 지역이나 세계의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 “미국은 조약상의 모든 공약을 지킬 작정”임을 확인하는 한편, 핵무기에 의한 전쟁 외의 침략이 자행될 경우에는 “조약상의 공약에 따라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군사,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나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이 자위를 위한 전력을 공급할 일차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분쟁개입의 기준을 엄격히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의 가능성이 전무하게 될 것”임을 밝혀, 앞으로의 국제적인 분쟁에 미국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좀처럼 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요컨대 미국의 주요 관심은 우방 각국의 국방 의사 결정권의 소재에 보다는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책임의 분담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보다 많은 부분에서의 자력부담과 언젠가는 미국군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도 우리의 국방을 완수할 수 있는 태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아직은 이와같은 요구가 우리에게 힘겨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의 범위는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적응키 위한 체질개선의 방법론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 빨리 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 자체는 우리가 바랏셔야 할 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오늘까지 우리 국군은 미국의 전략과 선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장비되어 왔으며, 그 장비는 미국의 국

가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만 작전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전략과 선택에서 이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은 1950년에 작전권을 이양한 후 참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국군은 조국과 재회(再會)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되풀이 하지만, 이 첫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어두운 채, 아직도 대미의 존재체로부터의 자립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닉슨」이 지적하듯이 “자주체제를 구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이니시아티브」를 기대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에 대비하여 과거와 동일한 지상군 제일주의의 기초 위에서의 대책에 골몰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책의 설계는 여전히 미국이 감당할 것이냐?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2. 외로운 신념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력배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각종 형태의 도발을 물리치고 이기기에 앞서, 그러한 도발을 미리 억제할 수 있는 태세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비록 궁극적으로는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치적, 지리적 특성상 개전 초기에 우리가 피땀 흘려 건설한 모든 실적이 수포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이 억제된 상태라는 것은, 적대관계에 있는 양편이 싸우면 어느 편도 일방적인 승리를 자신할 수 없으며, 다른 편을 공격할 때, 그 이상의 또는 적어도 그만큼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할 때에 형성되는 상태이다.

오늘날 분명히 북괴의 전면남침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북괴가 남침을 기도할 때 그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들의 나름의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의 지향>

그러나 북괴에게 이와 같은 판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3군을 위시한 국력의 총화와, 주한 미군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그중의 핵심은, 북괴의 심장부에 가장 효과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항공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가령 북괴가 단시간 내에 우리의 후방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항공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그들의 후방에 효과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항공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북괴는 개전 초기에, 지상전선에서 상당한 범위의 후퇴를 감수하더라도 또는 당분간의 해안 봉쇄를 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남침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후방없는 전전이나 제공권 없는 해안 봉쇄는 오래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후방을 마비시키고 제공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지상이나 해안에서의 일시적인 패색(敗色)을 만회하기란 쉽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전쟁억제의 핵심인 항공세력의 역할을 미국의 항공력에 의존하고 안심할 수 없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단시간 동안에 적의 후방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항공력의 특성 때문이다. 북괴가 전면적인 공중기습을 퍼할 경우에 일각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에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심각한 국력의 마비를 면하기 어려운데 이와 같이 중요한 개전 초기의 긴박한 상황에서 차후의 전국(戰局)을 좌우할 항공전에서의 승리를 “천법절차”를 밟아가며 재 진주할 미 공군세력의 투입으로 기약할 수 없음은 상식적인 사리(事理)인 것이다.

물론 미 공군의 재 진주가 보장되는 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는 자신하여도 좋겠으나 이러한 형편이나 자신이 북괴의 전면도발을 억제할 충분한 요건은 못되는 것이다.

북괴가 미국군이 본격적으로 재 진주하기 이전에 우리의 후방을 단 몇 시간 동안에 마비시킨 후 휴전을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빠져가고 있는 김 일성이가 이와 같은 일을 획책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반론의 근거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가장 확실한 방안도 한국공군력의 증

강 외에 달리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의 증강은 한국군이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군사력이기 위하여서도 긴요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타국에 강요하거나 반대로 그러한 강요를 거부할 필요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필요는 어느 편이나 하면 나라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한 수준에서 정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다 오늘의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히 성장하고 해외로의 진출이 활발한 나라 일수록 더욱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자주적인 국가정책의 추구를 뒷받침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군사력의 활동영역은 아무리 많은 미국군이 이 땅에 주둔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여줄 성질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진퇴(進退)여부와 관계없는 우리만의 배타적인 소임이며, 이러한 소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군력인 것이다.

전투기가 가지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군력은 때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자주국방을 위한 이와같은 공군력 증강의 필요성은 아직은 우리 공군만의 신념인 체 범(汎) 국가적인 공감의 터전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한국군의 전력구조를 형성하여온 기조로서의 미국의 전략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떤가?

공군력은 가장 비싼 전력으로 아직은 미국의 지원없이 우리만의 힘으로 장비할 수 없는 전력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국민이나 정부의 정책수립자들조차도 우리가 상당한 규모의 공군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체념하고, 미 공군의 지원이 언제까지나 보장되리라는 자위에 안주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사전문가들 까지도 주한 미군의 지상군은 철수해도 공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전망에서 6.25 때의 “자유로운 하늘”을 간단히 확신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군력을 제공해 주는 미국의 극동 군사전략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국가이익에서 형성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공군력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키 위한 충분한 소요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실 이상한 것은 공군력의 열세를 결과한데에는 우리나라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공군력도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과 정신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3. 질(質)에의 도전

시스템(System) 일반이 그렇듯이, 공군력이라는 것도 장비, 물자, 시설 등 유형(有形)의 성분(Hard ware)과 기술, 정신, 제도, 기구 등 무형(無形)의 성분(Soft ware)이 조합(組合)된 통합체이다.

이제 자주국방을 위하여 다급하게 서둘러야 할 우리 공군력의 증강이란 것은 이와같은 양면(兩面)으로부터의 접근을 요하고 있다.

그중 어느 것이고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되, 유형의 전력증강을 이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전혀 외부 여건에 달린 것이며, 후자(後者)의 경우는 비록 힘든 일이긴 하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이라 보겠다. 말하자면 장비니, 물자니, 시설이니 하는 따위들을 갖추자면 우리 나라나 미국의 정부 뿐만 아니라, 설지어는 우리의 육·해군까지도 우리의 소신에 공감하고 이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우리 공군력 증강의 긴급성은 아저은 우리만의 “외로운 신념”인 것이며, 이들 당사 요로의 공감하지 않는 마음들이 언제 우리의 소망대로 회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항공전력을 우리의 힘으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우리의 생리같이 되어 온 위탁실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그 싹집의 언저리에 걸 찍을 수는 있겠으나, 거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확정·요소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말하자면 실득이라는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이러한 노력이 언제 실결을 보게 될 것이냐는 것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설령 모든 여건이 우리의 소망대로 갖추어져서 전력의 양(量)적 증강을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존전력으로 전력화 될 때까지는 족히 수삼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현실적으로 복귀의 도발시기는 엄밀히 말해서 극히 유동적이며 어제 오늘의 복귀의 소규모 도발이 언제든지 속진속결을 위한 전면 공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력의 “양”적인 증강을 위한 실득만을 능사로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강 노력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한편, 우리의 무형의 전력을 개발하여, “질”적인 증강에 노력하는 일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인 것이다.

그것은 무형의 능력을 극한적으로 개발하여 장비, 물자, 시설이 가지는 잠재기능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향상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반 교범이나, 규정이나, 기술지시서에 명시된 “표준” 달성을 목표로 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향상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계획하여 “이상”에 접근하는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고도한 효율추구의 합리성을 견지하되, 기존 상식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우리만의 새로운 상식을 재정립(再定立)하는 의욕이 필요할 것이다. 돈 없으면 일이 안되는 상식이 아니라, 돈 없이도 일이 되는 상식을 하루 8시간 근무의 상식에서, 12시간 근무의 상식으로, CEP-150'의 상식이 아니라 CEP-75'의 상식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겸소한 기풍과 의타심을 뿌리 뽑고, 자주극방에 참여하는 의식과 요원 각자가 우리 영공방위에 불가결한 요소임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의 지향>

을 자각하는 사명의식에 충만한 정신자세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효율의 향상은 기구와 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체제정비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것"의 모색으로부터 현행체제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개선을 요한다.

그것은 또 유형, 무형을 불문코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을 증진하고 무기체제의 다양한 활용책을 궁리하며, 모든 자원을 전력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또 한편으로는 자원을 애용하여 수명을 늘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소극적인 일면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차츰 군원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 것이다.

요컨대 이 모든 것들은 「시스템」으로서의 공군의 통합전력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행동의 취사선택은 경제성과 임전태세 강화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인즉 인적요소의 자질개발과 그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명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거쳐, 분류, 활용하는 인력관리와 전과정의 합리화를 요하며, 교육훈련은 실전 내지 실기위주로 정통한 기술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차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신규자원이나, 현존자원이나, 예비자원을 가릴 것 없이 고루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투요원들의 훈련은 예상되는 전쟁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사격능력, 야간 작전능력, 항법 및 침투능력을 주입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일인 것이다.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되도록 한사람이 복수의 특기를 가질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요컨대 인적요소의 자질개발은 종합적인 전력배증의 기반이 될 개인능

력을 연마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들 개개의 전투요원들을 하나로 뭉친 종합전력으로 조직하고 이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원리 내지 우리의 철학이 될 저변(底邊)이 필요한 것이다. 전략, 전술, 전기 및 교리개발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다.

영공의 방위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획/계획제도의 자주화를 요한다.

미국과의 밀착이 불가피하나 그런대로 이 지역에서의 정세관이나, 그에 입각한 정책과 전력과 전술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군사력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태세를 갖추으로써 작전권의 환원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택하기에 앞서 하나의 필연으로서 우리에게 강요된 것인 까닭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의 전모에 어두운 채 대미 의존체제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미봉책만을 능사로 하는 한 더욱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안팎으로 공감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양”적인 공군력 증강의 “외로운 신념”관에 마냥 집착할 수 없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제 자주국방을 위하여 땀흘려 배워야 할 우리의 첫 과업은 “질”에의 도전인 것이다. 그것은 영광을 향한 “출애급”(出埃及)이라 하겠다.

너와 내가 힘을 합쳐

앞장서자 정예화로

한국의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상황과 대응자세—

박 동 운

<한국일보 논설위원>

1. 안보 개념의 특수성

한국의 안보는 단순한 영토, 주권의 보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옹호, 나아가서는 한국 주체, 북한 해방 방식의 통일 달성, 그를 위한 두 개의 체제간에 「선의의 경쟁」에서의 승리를 내다보아야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안보를 다짐하려면 우선 군사력이 든든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 국력이 성장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현 단계의 국방은 그러한 전설을 지키며 평화를 수호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1948년 전국 이후, 우리의 국가적 존립과 민족기초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의 근원은 공산권 북괴이다. 그런데 북괴의 침략과 파괴 활동은 ① 소위 「남조선 혁명」의 추진이전, ② 남한 지역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전쟁 도발이전 결국은 전국 공산화 즉, 적화통일을 노리는 것이다. 무장공비 남파도 북괴 나름의 통일정책 추구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에서도 한국에서는 안보와 통일의 논리적 일관성을 생각하게 된다.

70년대 한국의 안보 통일 정책은 ① 북괴의 당면한 무력 적화 통

일 시도를 예방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의 민주통일 역량을 배양하고
② 그 토대 위에서 7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통일 접근 노력에서 우리측
이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의 국제 정세 격동은 70년대 후반기 이전이라도 남북 교
류 같은 것을 국제 기구, 또는 강대국들이 중용할 수 있으리라는 시
사를 느끼게 한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북괴가 교류에 편승하여 파괴
세력을 침투시키거나 무력도발의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물론 독립 주권국가인 이상 우리나라는 제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지
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주 국방」은 결코 「단독 국방」을 의미하
지 않으며, 또 세계의 어떤 강대국이던 「집단 안보」를 떠난 단독 국방
을 논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서 우리 나름의 자유 우방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 북괴도 그 배경세력에 기대고 있다.

안보 체제에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은 ① 자주 국방력과 ② 집
단 안보라는 뒷받침의 배합이다.

통일 달성도 주체적 조건(민족의 자체준비)과 객관적 조건(국제 정
세의 유리한 전환)의 배합을 필요로 한다. 민족의 비원인 국가 목표
를 성취하려면 이러저러한 통일방안 논의가 아니라 주·객관적 조건
형성이 중요하다. 주체적 조건은 ① 배경 의존생리의 탈자 ② 체제
차의 완화(김 일성 퇴장 후의 북괴내부 변화=자유화) 통일 주체 역량
의 육성, 강화이다. 객관적 조건으로는 ① 동서·남북간의 긴장완화,
불안 해소 ② 한 반도를 에워싼 세력 균형, 제조정을 들게 된다.

크게 보아 국제정세의 흐름은 통일을 향해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지
만, 아직은 우여곡절이 적지않고 정신 차려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제관계와 세력균형

한국을 에워싼 국제 관계의 도식은 국토 양단선(후전선)을 사이에 둔

두 개의 3각관계 대치로 설명된다.

남방 3각관계는 한국과 그 배경국가들인 미국 및 일본간의 유대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미·일은 해양방면으로부터 「아시아」대륙을 향한 강대국들이다.

한편 북방 3각관계는 북괴와 소련 및 중공간의 유대를 말하는 데소. 중은 대륙으로부터 해양을 향한 강대국들이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반도의 매우 불행한 정치,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한반도는 대륙의 북풍과 해양의 태풍이 마주치는 고장이다. 동북 「아시아」의 교통 요충에 자리잡은 그리 크지않은 교량적 반도이기 때문에 해·륙 쌍방의 강대국들이 이 반도에서 마주치거나 또는 세력 균형을 이루게되는 것이다. 마주 칠 때는 전쟁이요 어느 일방이 독주하면 속국 신세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평화이고, 특히 열강간의 세력 균형이 국경 밖에서 이루어 지면 완전한 자주독립이 가능했다는 것, 그것이 엄연한 역사의 경험 교훈이다.

그런데 광신적이고 무지한 북괴 김 일성 도당은 주체넘게 국제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선봉대임을 자처하고 스스로 이른 바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조소」임을 자칭하는데서 무력 적화 통일의 망상에 집착해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김 일성 체제가 퇴장않는 동안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한국전쟁으로 북괴의 남한 정부 야욕이 파탄된 후 한반도에 위산 국제정세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또 계속 변천되어가고 있다. 첫째로 들 것은 한반도에서 자유·공산 양대 세력간의 세력 균형의 성립인데 이로 말미암아 북괴는 아직껏 본격적인 정규 전쟁 도발을 못하고 있다. 둘째로 들 것은 신흥 열강인 일본과 중공의 비중 증대이다. 세째는 전세계적 규모에 걸친 긴장완화 평화공존 「부드」의 파급과 미·소 양 초대강국들의 정책 변화 기운이다.

한반도의 세력균형에서 괄목할 만한 국면은 6.25 당시와는 전혀 판이

한 한국의 강화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대중에 반공 사상이 뿌리깊이 보급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군사력을 들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육군의 우세만이 지적되다가 금년부터 미국 원조로 착수된 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이 진행되는 마당에 해, 공군이 뚜렷이 강화되는 과정이고 벌써 우리에게는 있으나 복피에는 없는 새장비 도입이 눈에 띄는데 이르렀다. 끝으로 자유 우방들이 복피의 호전적 성향에 대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주한 미군의 감축 수요에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좋을 본질적인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북방 3각관계에서는 중·소 분규가 다시는 만회 못할 정도로 고질화된 것이다. 그들은 또 복피의 무모한 모험 때문에 자국의 세계정책에 차질이 초래될까 두려워하는 데서 적어도 정규전 도발은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중공은 7억 인구를 지배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핵무장에 광분하고 있는 「아시아」 현지의 강대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세계는 비록 중공의 호전적 노선을 빈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등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중공의 「유엔」 가입은 금년 아니라도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력과 기술면에서 뒤떨어져 있고 식량조차도 크게 부족을 느껴 「캐나다」나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기대는 꼴이다. 또 태동 체제의 운명도 일단 문화 혁명에 「승리」했다고는 하나 그 늙은 개인 미신대상이 사라지는 날이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일본은 미·소에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며, 공업 기술 발전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다. 경제력은 70년에 이미 중공의 2배였는데 75년에 가면 중공과 여타 「아시아」 제국의 국민 총생산 합계를 일본 단독으로 2배로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성립된다.

그래서 중공은 일본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일본 때문에 「아시아」 제패가 불가능하리라고 보아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했다는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기와 일본의 본격적인 재군비, 그 정치대국 내지 군사대국화는 시간문제시 된다. 1970년대 후반기 또는 1980년대 전반기선까지 일본이 본격적으로 재군비를 수행한다면, 국제적인 영향력에서 중공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을 것 같다.

애당초 미국은 중공의 등장에 맞세우기 위해 일본의 전후 부흥을 적극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미국의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서의 부담경감, 개입회피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종전에 미국만이 도맡았던 부담을 나눠 걸머지게 하려고 유도하는 중이다. 일본이 고분고분 응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거둬 철수 기미를 실천에 옮기면서 미·중공 접근 기운 같은 것을 시사해 나가면 일본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역할 분담을 보이게 되리라는 제산이다.

미국이 월남전쟁과 「달려」위기라는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면, 소련의 두통거리인 동 「유럽」의 자유화, 자주노선과 소련자신의 경제건설 실패라고 분석된다. 「크레믈린」 역시 부담경감을 필요로하며, 「아시아」에서는 중공을 일본과 대결시키도록 유도하는데 흥미를 느끼는 실정이다.

하기와 일본과 중공은 미·소의 이익을 위해 「일·중 대결」에 빠져들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조만간에 일본은 중공을 설득, 중공이 북괴 모험을 원조하지 말 것과 「주은래 4원칙」등 고자세로 일본 국민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시키지 말 것을 종용하게 되리라 내다 보인다.

이상과 같은 한국 안보의 국제적 환경 변화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감촉케 한다. 주체성 있게 정신차려 대응할 정세 변화이다.

3. 전환기의 문제점

미국은 69년부터 표방한 「닉슨 독트린」을 70년 들어 구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한국을 그 적용의 「모범적 케이스」로 선정하였다. 그

만큼 한국이 육성, 강화되었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 구체적 표현은 우선 군단 규모였던 주한 미군에서 1개 사단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감축분의 장비를 한국군에 인계하였고 국군은 휴전선 전역에 걸친 일선 방위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다음 조치는 73년선에 있을는지 모르며 75년선까지는 한국군 자체의 규모가 정예화하는 대신 약간 변동될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또 일본과 더불어 69년 11월의 「닉슨·사토키」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체의 안전에 진요」하다고 성명하였다. 한국을 위한 뒷받침에서 미국과 일본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지향이다. 앞으로 일조유사시, 이를테면 공산측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일본도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일본은 또 대만의 안전도 한국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성명은 북괴와 중공을 크게 자극시켜 그들은 공동반발 끝에 70년 4월 주 은태 중공수상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밀접한 유대를 다시 회복한 듯 하다. 그러나 중공은 66년 8월 김 일성 일당이 소위 「자주노선」을 핑계 삼아 63년초 이후의 중공 일변도를 청산하고 실지 추구차 소련에 다시 아부했었던 「배신」을 잊지 않는다. 게다가 중공 자신 그 국제지위를 향상하고 경제적 실리 추구를 시도할 형편에서, 70년 후반에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자유국가들이 중공승인 「봄」을 일으키자 중공 자신도 이른바 「해빙」의 교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중공도 마침내 그 세계정책이 북괴의 무모한 불작난으로 차질을 초래케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점차로 김 일성의 대남 모험정책을 감시, 견제하려는 눈치이다. 하기야 그들 공산대국들은 자신들이 직접 큰 싸움에 말려들거나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지만 않는다면야 북괴의 이른바 「혁명」책동과 비정규전 시도마저 굳이 반대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러한 정세변화를 감안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환경적응

자세를 재검토 하기 시작했다. 1970년 박 대통령이 발표한 「8·15선언」은 평화통일 접근의 대전제로서 북괴에 대해 긴장완화를 촉구하였다. 즉 북괴가 ① 무력사용 시도와 폭력혁명 기도를 포기하고 ② 한국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는 조건이라면, 한국은 ①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②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한 것이다.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선의의 경쟁)을 전개하자고 북괴에 호소하였다. 북괴는 1주일 후에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8·15 선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북괴도 김 일성 「스탈린」주의 체제 퇴장 후 결국은 세계의 조류를 외면못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초조한 김 일성 일당이 여하한 모험을 감행할는지 모른다는데 대비하고 우리의 평화와 건설을 굳건히 수호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한국 안보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마야호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형편인데 그 문젯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지만, 북괴를 「선의의 경쟁」상대로는 인정하는 셈이다.

② 반공은 물론 중요하지만 반공법 개정론도 여·야 정당이 거론하고 있다. 또 여당은 비척성 공산국과의 교역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구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야당 일부에서는 71년 선거에서 「4대국 보장론」도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③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존중하는 이념이지만 아직 불완전하고, 가끔 한국의 특수형태가 모색되기도 한다. 하기에 민주주의는 선진국에서도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④ 우리의 건설 성과는 뚜렷하지만 혜택이 고루미치지 못한 그늘진

구석이 아직도 적지않고 「부조리한 격차」와 일부 「부정 부패」 현상이 지적된다. 물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거래의 슬기를 믿어야 할 것이다.

⑤ 과거의 「의존 안보」는 「자주국방」으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면 막으려해도 무용할 뿐더러 시대 조류에 뒤떨어진다는 빈축을 초래하면서 손해를 크게 할 따름이다. 소극적 대응책을 맴돌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북괴의 단독 남침이라면, 우리 국민의 민주적 단합과 국군이 견재한 이상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공산권의 합동침략이란 중·소 분규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균열 때문에 불가능하며, 또 아무리 광신에 사로잡힌자라 해도 핵무기 응수를 동반한 세계대전을 도발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

4. 북괴 도발의 한계와 우리의 대응책

북괴의 김 일성 체제는 공산권 내에서도 날로 빈축의 대상으로 된 「스탈린」주의의 후진적 형태이다. 그 특징은 긴장을 먹고 살아야 하는 호전성, 개인 미신, 사상적 해국주의 유례없는 종교 말살, 주민의 생활 무시, 경제적 내핍 강요와 중노동, 경찰국가 체제 등이다.

원래 후진적 공산집단의 「스탈린」주의적 정치풍토란

① 중공업 우선주의 하의 생활필수품 공급의 결핍과 주민 복지의 무시

② 외자 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내자로 건설하자니 도시에서는 소위 「경제 절약」, 농촌에서는 농민 수탈을 위한 「농촌 경지 집단화」를 강행한다.

③ 이로 말미암은 불평, 불만을 억압하고자 경찰 「테러」 통치 및 부단한 숙청 소동

④ 대중의 주의를 밖으로 쏠리게 하기 위한 긴장 조성파 전쟁 「히스

테리]

⑤ 통제를 손쉽게 하기위한 상징으로서 특정 개인을 영웅화 하는 개인미신 체제의 고집

등으로 설명된다. 북괴의 경우는 설상가상격으로 국토양단으로 말미암은 초조감, 그 지층의 무자비한 공비적 인적 구성 때문에 더구나 말이 아니다.

그런데 6·25 남침 실패 후의 북괴 적화 통일 전략은 폭력 방식으로 소위 「남조선 혁명」을 조작하되, 남한의 혼란 상태에 편승하여 무장공비와 간첩 및 난동분자를 규합시키려는 망상에 입각해 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두 개의 공산정권을 평화적으로 통합시키겠다는 줄거리이다.

이 경우에 북괴는 모택동 전략 대신 쿠바의 「체·게바라」전략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눈치이다. 모택동 전략이란 유격대와 주민들의 관계를 이른바 「물과 고기의 관계」라고 형용하며 군중에 대한 사상선전과 지하당 조직을 선행시키려한다. 한편 「체·게바라」전략이란 지하당 건설의 보급을 기다리지않고 밖으로부터 「무장 정예분자」(즉 무장 공비)를 투입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포를 증대하며, 저항의 마비, 모순의 확대 속에 정권을 탈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한 공비 활동 과정에 소위 「지원 요청」을 북괴에 내게하고 북괴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식의 연극을 본격화 하다가 국제 정세의 추이를 보아 가능한 경우에는 괴뢰 「인민군」을 투입해 결론을 내보려는 따위의 망상이다. 북괴가 떠드는 소위 형명적 대사변]이니 「경정적 시기」니 하는 말투의 저의는 측정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과거와는 달라서 오늘날 한국의 대공연구는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좌표와 70년대의 조건 변화에 비추어 우리의 안보대응책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의 조류를 외면하지 말고 폭넓고 적극적인 환경 적응을 다

침해야 한다. 그러자면 복피를 고립시키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한국의 평화애호, 민주주의 「이미지」를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자유우방과의 유대와 대화를 유지하되, 옛날처럼 무작정 기대려 하지 말고, 한국의 자주국방, 자립경제 건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자유우방들은 비록 부담경감 또는 책임분담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라해도 그들 자신의 안보와 국제적 지위 때문에 절대로 한국 정세를 수수방관하지는 못할 처지이다.

③ 우리 국군의 자주 국방 능력을 더욱 육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육·해·공군의 균형있는 발전과 장비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그 밖에도 명기해 둘 것이 있다. 즉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전략·전술의 연구 발전과 공업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손에 의한 현리한 무기의 개발 제작이다.

④ 민주정치의 안정.

⑤ 기강 확립, 부패 퇴치, 격차 해소로 우리국민의 단결정신을 일깨워 나가야 한다.

⑥ 정직하게 일하고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민족성의 본바탕을 회복해야 하는 동시에, 정실 아닌 능력본위의 인사로 각계 지도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하 일치단결하면 안보가 문제없을 뿐더러 우리나라를 「아시아·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도 모범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통일의 길이다.



군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애



익

□ 공군의 테두리 안에서 □

이 종 승

<보라매회 간사장>

「사회」라는 말을 소사전에서 찾아보니 간단하게 「사람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그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다.

본을 따서 「군 사회」를 「군인이 모여서 군대생활을 하는 그의 집단」 이렇게 풀이하여 본다.

어떻게 생각할 것 없이 한마디로 「군인들 사회」하면 그뿐이지만…… 어떠한 「사회」이든, 「군 사회」이든, 인간들이 모인 집단의 상태를 말하는 것에는 틀림 없다고 하겠다.

사회라는 집단에서 인간생활을 영위 하는데 있어서 별의 별 규범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군 사회」에 있어서도 군이 지니는 특수한 환경과 임무로해서 이 사회만의 독특한 갖가지 규범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광범한 의미의 사회인과 구분해서, 군 사회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자들, 군인이

라고 한다면, 군인도 인간이니만큼 「군인사회에서의 인간애」 즉, 인간다운 군인, 군인으로서의 인간미, 특수한 조직속의 인간 관계 등은 군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군인으로서의 인간상호관계가 군 사회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군대특유의 존엄과 단결과 계율을 상실하게 되며, 그 군대는 일조 유사시에 하등 쓸모없는 오합지중(烏合之衆)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군 사회에는 계급의 구분이 엄격하다. 따라서, 계급관념에 치우치고 계급절대의식에 사로잡혀 왕왕이 인간관계가 등한히되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소홀하게 다루려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물론 군을 운용하는데 있어 계급의 권위나 존엄성이 절대 필요한 요소는 되

겠지만, 이 계급의식 속에는 군인으로
서 사람됨이 반드시 따라야 하겠다는 것
이다.

군대계급이 복무상의 지위나 책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인간의 전
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대에
계급이 엄격할 수록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상관에 대한 존경과 복종심, 동료간의
신뢰와 상호존중, 부하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이 오직 군 사회를 평탄하게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 ◇

요청받은 제목밖으로 정훈강좌의 소재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 제목
과 연관을 가지며, 공군의 테두리 안에
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
다.

공군의 예찬이 되지않겠나 해서 망서
려지지만, 나 자신이 공군출신이니 별도
리가 없지 않겠나 한다.

◇ ◇ ◇

육군의 일선지휘관들이 지휘봉을 한
손에 쥐고 도열한 수천의 휘하장병 앞에
그 늙은 자태를 나타내어 구령 일하로
일사불란한 부대경례를 받는 광경같은
것을 생각하면, 공군은 외면상으로 그렇
게 위풍당당하지가 못하다.

—비행복에 빨간 마후라로 단장하
고 금속성소리로 하늘을 자르며 창공을
퍼뜩어 치솟는 광경이나, 편대를 꼭 짜가
지고 친지를 진동시키며 눈감쪽할 사이
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광경같은 것은 위
풍이 당당하다기 보다는 참으로 멋 있는
광경이 아닐 수 없지만—

현대공군 운용의 특수성은 고도의 기
술적 숙달을 요구하며, 수다한 특기분야
와 지원요소를 갖추게 마련인데 우리 공
군 또한, 최 선예기를 보유하고 양보다
질에 치중을 한 막강 공군을 과시하고
있거니와 공군이 지니는 이와 같은 특
수성으로 하여 공군에는 몇가지 특이한
점과 자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군의 기간이 되는 구설장병의
획득이 전원 지원에 의존되고 있으며, 그
의 질적 수준이 훨씬 월등하다는 점이
다.

사병만 하더라도 최소 5:1 이상의 경
쟁을 치루고, 합격의 영예를 차지하고
있으니 “프라이드”를 느낄만한 일이라
하겠다.

밖에서들 흔히 공군은 수준이 높다.
공군은 신사다. 교양이 있어 보인다고
들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장병들의 질적
수준에서 풍기는 하나의 기풍을 들어 말
하는 것으로 안다.

공군의 창설 당시부터 급일에 이르기

◇ 군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애 ◇

까지 군의 통솔방침이 「단결」이라는 무
글자로 이어져왔고, 하나의 전통으로 굳
어져 왔으며, 공군사관학교의 교육방침
이 일류지휘관 되라! 일류신사 되라!
일류기술자 되라! 로 되어있던 것을 기
억하는데 펴 벗었고 적절한 표현이며
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거의 정
규사관출신이 공군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교육방침에서 배출된 그들인지
라 의당 신사라는 평을 들을 만도 하다
고 하겠다.

공군을 한 집안 같은 군이라고도 한
다.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뭉치듯이, 엄
격한 기율 속에서도 어딘가 훈훈하게 정
감이 오가고 상하의 신뢰가 두텁게 맺
어져 있는 것이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
는 이와같은 배경과 전통은 공군에서
가장 자랑하고 자부할 만한 일로서 오
늘날 막강공군의 정신적지주로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있다고 하겠다.

기실 공군에서도 종종 사소한 영내사
고나 밖에 나와서 험기에 치우친 나머
지 사고를 저지르는 일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60만 대군중의 극히 적
은 일부 물지각한 군인들로 해서 간혹 발
생되는 불균기 사건 등군의 위신을 손상
케하고 사회의 빈축을 사게 하는 사고
에 공군이 관련된 바가 없었다는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
론 여기에는 적절한 교육과 평상시의 엄
정한 군기가 작용된 것이라 하겠지만 무
엇보다도 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장병
의 질적수준 스스로의 자각과 자부, 상
하의 인간적인 신뢰와 상호존중에서 오
는 기풍의 발로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공군이 가족적이라는 점에서
요즘에도 느끼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은 본인이 보라매회 간사장 구실을 맡
아 보는 관계로 하루에도 몇 사람의 보
라매회원을 만나게 되는데 우선 대하면
무조건 반갑고 지난날 같은 부대나 가
까운 근무처에서 서로 지낸일이 없는 데
도 척 보기만 하면 윤곽이 낮에 익어 몇
년 지기를 오래간만에 만난 것처럼 서
로 정감이 오간다. 물론 이제 와서 현
역 당시의 직책이나 계급적인 편념 같
은 것은 손톱만큼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지난날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 감정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뿐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와같은 공군의 인격자질의 우월성과 가
족 분위기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발
생적으로 파생되는 인화단결과 상호신
뢰가 오늘날 공군의 병영생활을 정신적
으로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서 화기애애
한 가운데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완수케

하는 큰 바탕이 되고 있음을 재언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미군들의 근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을 때 눈에 거슬릴 때가 종종 있었다. 지나치게 자유로운 것 같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서 저러가지고 급할 때 율게 계구실들을 할까? 하고 알잡아 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웬걸, 그것은 결코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이지 그들의 실제 근무하는 자세나 책임감이 그 성과에 있어서는 조금도 해이(解弛)되거나 태만하거나 불실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겉으로 보아 혹은 동작이 뜨고, 자세가 고르지 못하고, 런닝샤쓰바람에 “끔”이나 질경 질경 찹고, 기성(奇聲)이나 지르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임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이 충실하며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성실함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친구들을 대했을 때 과거의 악명높은 일본 군대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서 진실로 강한 군대가 무엇이며, 강한 요인이 어디서 조성되었느냐 하는 점을 일단 숙고하게 되는 것이다.

◇ ◇ ◇

우리 공군 내의 그럴듯한 군인상(像) 몇몇을 여기에 그려본다. 공군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이라고 하겠는데 본 제

목인 「군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애」와 관련시켜 참고로 삼아주었으면 한다.

비행단장 K준장의 경우

비행단장 K준장은 공군내에서도 이름난 전투조종사이며 이름 석자만 들어도 말단 2등병까지 전군내에 모르는 자가 없다. 보직경력만 보아도 거의 작전 분야나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일관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받은 내외 무공훈장의 수는 대한민국에서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로, 순 전투기조종시간만도 이미 5,000시간을 헤아린다. K단장의 활달한 성품과 명석한 판단력 중호한 통솔력을 제치놓고라도 이 화려하고도 골수에 박힌 경력만으로 능히 부대를 지휘하고도 남았으며, 백전의 우락부락한 전투조종사들도 감히 단장 앞에서는 오금을 못 뿜고 장병들에게는 정말 외경적(畏敬的)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멋들어지게 비행복을 걸치고 생각내키는 대로 아무 때고 애기에 몸을 싣고 손구쳐 올라가는 비행단장. 유창한 영어로 미고문판을 설설기게 할 줄 아는 K단장, 한번 핏대를 올리면 전투부가 벌벌 떠는 날카로운 일면도 있지만, 하급장교와 사병들에게는 다 시없이 인자한 지휘관이었다.

불쑥, 예고없이 “콘서트” 내부만에 나타났고, 사병식당에 들러 아무 틈에

◇ 군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애 ◇

끼어서는, 달계 병식을 들곤한다.

비행사고가 있었을 때 손수 경비행기를 몰고 온종일 수색비행에 앞장섰고 행여나 소식을 기다려 단장실에서 비행복 차림으로 몇일 밤을 꼬박 세우는 K단장.

퇴근길에 영문에서 면회온 사병의 모친을 짐차 앞좌석에 모시고 사병과 나란히 뒤좌석에 앉아 가는 K단장.

K단장이 본부로 영전하게 되어 부대를 떠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서운한 것은 영내 사병들이었다.

대대장 S중령의 경우

S중령의 대대는 잡동산이 대대라고 할 수 있다. 비행장 전반의 시설면을 담당함으로 장병들의 특기도 다기다양한 데다가 사병 수도 제일 많고, 작업도 중노동에 가까운 그들이 말하는 “노가다” 판이었다.

공과대학을 나온 S대대장은 원래 집안도 좋은 데다 유산도 넉넉히 받았고, 특히, 부인이 미인으로 유명하였지만 정말 셋님 그대로의 성품이었다. 말도 고분 고분, 2등병 보고도 반말 한마디 안 쓴다. 이런 셋님이 이런 대대를 맡아 용케 이끌고 나간다는 싶었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군인정신이 충일한 모범군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S대대장이었지만 그에게 있어 유독, 딱 두가지만은 타의 모

범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하나는 늘 복장이 지나칠 정도로 단정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어릴 때부터의 가정교육과 깔끔한 부인의 탓인지도 모르겠다. 두번째는, 매주 토요일에 빠짐없이 내무반장회의를 자기방에 소집해 가지고는 그 조용하고 고분 고분한 말투로 꼭 형이 동생을 타이르듯 가르치듯 설득을 펴는 그 것이었다.

「내무반은 반장을 가장으로 한 한 가정입니다」 「내무반장은 반원들의 형이나 다름없으니 반원들의 동태는 물론, 개개인 배경, 성격, 집안환경까지 소상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반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반장에게 상의할 수 있도록 터 놓아야 하며 항상 엄한 것만 장평이 아니니 친형으로 알고 따르도록 하시오」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내십시오, 태만 하거나 규율을 어지럽히는 반원이 생길 때도 과격하게 다루지 말고 감화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쪼였다.

노련한 교합 반장급들이지만 보통 때와 다른 대대장의 이 겹지한 부탁조의 강의가 있을 때마다 늘 감동하였다.

덕분인지 이 고된일만 치루는 잡동산이 대대는 어느 대대보다도 어딘가 화기애애하였고 사고전수가 적어 모범대대로서 매년 부대창립기념일 때마다 표창

을 받았다. S 대대장은 표창장은 액자에 넣어 대대내의 모범내무반에 걸도록 하고 표창금은 영내 사병 외출 때에 일금 500원씩 나누어 주었다.

신임 소위 R의 경우

각종장교를 나와 신임소위로 부대에 배속된지 6개월, 팔단 보급장교지만 이제 겨우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자기 밑에 K상사와 사병이 3명이 있는데 배속 초엔 떡 버티고 앉아 있는 40이 넘는 K상사가 무섭기만 했다. 밑의 사병들이 틈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두꺼운 영문원서책이나 문학전집을 열심히 숙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장교 구실하기가 매우 힘들겠구나 싶어서 집을 접어먹기까지 하였다. 자기가 공군장교를 지원하기 전에 공군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지만, 사실 학력, 경력으로 보아 같은 방에 있는 사병보다 별로 자기가 낡은 것이 없는 것 같았다.

R소위는 은근히 방침을 세웠다. 우선 K상사와 빨리 친해지기로 하고 의식적으로 K상사를 깎듯이 추켜 올리며 슬도한잔 추하게 받았다. 급진적으로 K상사와 친해지면서 만 사병들과도 잘 어울렸다. 특히, 한 밤의 사병들과는 흥금을 터서 얘기할 수 있었고 얘기를 하는 편이 아니라 주로 들어주는 편이 되었다. 업

무가 밀려 야근할 때는 R소위는 서슴치 않고 봉급을 덜었다.

K상사가 동료들에게 R소위를 좋게 말한 것이 뻔 하였다. 만 소위보다도 자기에게 호감을 더 갖는 것 같았다.

점차로, 군대생활에 자신이 붙으며 사병들에게 답례하는 태도도 의젓해 갔다. R소위는 교육받을 때 판에 박은 내무교육이 고달프기만 했지만 신임장교로서 경험을 쌓으며, 군대 내의 인간관계를 하나, 둘 체득하면서 산 내무교육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공감하겠음 되었다.

R소위는 3년만기 전역을 원하고 있지만 더욱 인격도야에 힘써, 한번 멋 있는 군인, 장교가 되어 보자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내무반장 B하사의 경우

내무반장 B하사는 정말로 믿음직한 하사관이었다. 성격이 팔팔한 정의파였지만 그렇다고 자기 반원들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는다. 만 반장들이 반원들에게 심술을 부리거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같은 하사관이라도 정색으로 충고하기를 사양치 않는다.

반원들의 성격, 개성, 가족상황까지 잘 관찰하게 손안에 쥐고 있었다. 덕분에 누이동생이 있는 반원에게는 의식적으로 더 호의를 표시할 수 있었지만……

군무활당, 외출순위, 외박, 휴가 등은

◇ 군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애 ◇

절대로 무사공평하였다. 반원들에게는 B하사의 일거일동이 그대로 본보기였다. 꾀를 부리다가 호되게 당한 반원도 있지만 반원들은 별의별 개인 신상문제까지도 친형에게 상의하듯 털어놓을 수가 있었다. B하사는 곧 중사로 진급한다.

B하사 내무반 앞에는 언제나 모범내무반이라는 대대장 표말이 붙어 있었다.

◇ ◇ ◇
제목에 구애되어 칭설 수설 한 것 같다. 요는 「군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애」라고 하면 군대 내에서 여하히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병영 내에서 여하히 인간으로써의 상호신뢰와 사랑의 자태가 구현되어야 하는냐는 문제가 되겠기에 우리 공군의 현실을 소재로 하여 또한 본인이 과거 공군에 재직시 꽤 오래 정훈업무에 종사하였던 기억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 박 대통령 문언록 >

● 우리는 가난한 조국의 현실을 우리들 조상의 잘못이라고 원망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들 후손들에게 우리들 자신이 원망 듣는 조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세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선진국에 1세기 뒤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1세기를 지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자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능한 일이다.

● 조국의 근대화! 그것은 국토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며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이다.

샐러리맨의 멋

◆ 공동 제 목 ◆

샐러리맨의 멋



김 경 태
<동양·TV>

물 한 목음 없는 광야를 며칠 동안 해 매던 서부와의 사나이가 맑은샘 물을 발견하고 엎드려 두손으로 물을 담뿍 퍼마실 때 그 환희에 차던 영화의 한 장면이 보너스 봉투를 들고 있는 내 눈앞에 새삼스럽게 아련히 떠오른다. 이 순간을 위해 그 몇달을 참아 왔으며 가게부에 적힌 빨간 글자를 내 보이며 울상이 된 아내를 타이르기 그 몇 번이던가.

나는 곧잘 나 자신을 「OS맨」이라고 부른다. 「온리 샐러리 맨의 약자다. 돈 이라고는 월급 밖에 쥐어 보지 못하는 순 봉급쟁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주변 머리없는 「OS맨」인 내가 보너스 봉투를 들고 있는 이 순간이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봉투를 열었다. 백 2십프로 나왔다. 세금 제하고 2만 4천원이다. 두툼한 백원권 두 다발이 더욱 든든해 보인다. 5백원권 아니면 수표장보다는 얼마나 헤알 맛이 있느냐. 아무리 헤어왔자 한 장 더 늘어날리가 없건만 손가락에 칩까지 발라가며 두세번 헤이고 있을 때다.

『김형, 이것 좀 대필해 줘』

옆에 앉아 있는 「공 필우」가 어디서 구해 왔는지 백지 봉급명세서와 펜을 드러미는 것이 아닌가. 보너스를 백프로로 깎아서 기입해 달라는 것이다. 어느틈에 해 왔는지 백프로에 해당하는 세금을 포함한 공제액이 주도면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종이까지 내민다. 기막힌 아이디어다.

사실 아무리 튼튼한 차라도 바퀴에 아따금 기름을 칠하지 않으면 삐걱거리게

마련이 아닌가. 아내 모르는 돈, 이것이 있어야 남자들은 여터 모로 생활에 기름 끼가 볼게 마련이다.

공 필우에게 대필해 주는 대신 내 것도 부탁을 했다. 이래서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된다고들 말들 하는가 보다. 내 글씨체가 트위스트 형으로 비비 퍼져 나가는 반면 미스터 공의 필체는 왈스형으로 뭉글뭉글 돌아가니 아내가 제아무리 총명하기로 대필까지 시킨 이 치밀한 음모야 눈치챌 수 있겠느냐. 철두철미 완전 범 죄다. 다만 꺼림직한 것이 있다면 한동네에 사는 같은 회사 직원 조 두수의 처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오늘은 이왕 늦었으니 내일쯤 만나서 당부를 하면 그나마 정보가 제공될 유일한 루트까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이다. 보너스에서 2십 프로를 뎀 4천원을 지갑 속에 넣었다. 지갑의 불룩해진 뱃가죽이 희죽이 웃는다.

아내가 것처럼 먹고 싶다고 잠꼬대까지 할 정도로 즐라대는 그 통닭구이 한 놈을 사들고 택시를 잡아탔다. 거액(?)이 지갑에 있는데 궁상스럽게 버스가 무슨 버스나.

열려진 차창으로 불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힌다. 눈을 지긋이 감으며 다시 한 번 회심의 미소를 머금어 본다. 도시 세상에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리라 싶다. 재벌과 가난

뱅이의 차이는 불과 백원권 서른 다섯장의 차이로구나 생각하니 체신없이 짹짹 거리고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것이다.

어느덧 집에 이르렀다. 문을 여는 아내에게

『오래 기다렸지?』

은근한 말투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상냥을 떨었다.

『그럼요 난 또 무슨일이 있나 하구... 어머 이게 뭐예요?』

통닭 봉투가 눈에 띄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 진다.

『여보 당신 보너스 다 쓰신게로군요』 통닭을 보면 경탄부터 나올 줄 알았더니 보너스 액수에 더 큰 관심인가 보다. 다소 불안해지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역시 도둑질도 해보던 놈이라야 하게 마련인가 보다.

『한 톨이라도 아끼시지 이진 왜 사오세요』

돈 축난전 아까우면서도 닭다리를 뜯는 아내의 표정이 결코 싫진 않은 모양이다. 아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전형적인 또순이다. 월급이 봉투째 손에 들어 갔다하면 도무지 나올 줄 모른다. 이런 천하의 구두쇠도 역시 닭고기 앞에는 맥을 못추는 모양이다.

상을 물리고 난 다음.

『얼마 나왔어요?』

손을 훑치면서 들어 온 아내가 다구쳐 묻는다. 드디어 결단의 순간이 온 것이다.

『백프로』

봉투를 내밀며 조심히 대꾸했다.

『작년엔 백 2십프로였는데』

순간 나는 뒷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했다.

『천만에. 그때도 백 2이십프로 나온다고 말만 비추다가 백프로만 나왔지』

어쩌면 이런 뻔뻔스런 거짓말이 거침 없이 쏟아져 나오느냐. 내 자신에게 언제부터 이런 기막힌 임기응변술이 있는지 새삼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랬나……』

조금도 의심없이 내 말을 받아 주는 아내다. 감쪽같이 속아 주는 아내의 그 순진스러움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봉투를 대충 챙기더니 없는 사람에게선 신용이 제일이라면서 가게 외상 값값으러 나갔다. 이렇게 해서 내 작전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차례 넘긴 다음에 드디어 개가를 올린 것이다.

다음날.

아내가 차비라고 내주는 백원 한장을 그만두라고 하려다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서 받아 넣고 집을 나섰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고 병도 거의 낫을 무렵에 더 조심해야 하듯이 거짓말도

뒤끝을 잘 아무려야 후환이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절심 배다.

다정한 친구가 찾아 왔다. 서슴치 않고 설렁탕 집으로 데려갔다. 손님 대접을 구내식당에서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서다.

설렁탕 국물 한알한알이 그대로 피가 되어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같은 뿌듯한 기분을 느끼며 이를 무시면서 카운터 앞에 다가아섰다. 지갑을 열어 본 순간 내 눈은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 눈처럼 커졌다. 아무리 뒤져봐도 백원권 서른 녀장이 간곳이 없고 오직 한장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걸털……』

어안이 병병할 노릇이다. 지갑이 삼켜버렸던 말인가? 아니면 쓰리를 맞았던 말인가? 지갑을 발차 뒤집어 보니 흰 종이 쪽지가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황급히 펴 보니 아내의 글씨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가게 외상 값값으러 갔다가 마침 초 두수씨 부인을 만났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았죠. 당신 지갑을 보니 역시 증거물이 있더군요. 물론 판데 쓰실려고야 그러셨겠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겠어요. 미안. 당신의 아내 올림.』

머리가 멍하다. 큰 몽둥이로 뒷통수를

얼어 맞은 것 같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대할 일이 저승길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대접을 해야 할 친구에게 음식값을 물리고 터덜터덜 걸어나오는데 문득 프랑스 작가 「쌍드」의 말이 떠올랐다.

『참 기쁨은 기대와 추억뿐이다.』

샐러리맨의 멋



문 감 룡
 <시사통신>

내가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한지도 벌써 십오륙년이 됐으니 계층적인 면을 떠나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고참급은 못해도 아마 중견급은 될 것 같다.

새앙쥐새끼 쌀독만 찾듯 그동안 좀 낫

다는 곳을 찾아 몇군데 옮겨 보긴 했었지만——.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격으로 내 직업에 별다른 흥미를 느껴보지 못하면서 도 아직 여기에 내 목줄을 걸고 있으니 나도 마분한 존재임엔 틀림 없다.

아내는 그래도 내 남편 최고라는 듯이 나를 대견스레 하는 것을 보면 세상물정 모르는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친진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사실 월급쟁이라는 개념은 다양하다.

엄격히 따져 보면 위로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으젓한 회사의 중역으로부터 나 같은 초라한 말단 사원, 일반공무원, 급사에 이르기까지 고용주로부터 자기 노력의 반대급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카테고리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흔히 월급쟁이 하면, 월급만 갖고 생활하지 않는 이른바 높은 양반들은 제쳐 놓고 한달에 한번씩 고용주가, 이것도 싫거든 그만 두라는 식으로 내미는 알파한 봉투에 속쓸개까지 몽땅 빼서 맡겨버린 우리 같은 떠분한 족속을 총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실상가상으로 요즘의 물가고는 월급 상승률이 고속버스를 타고 쫓아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고만 있으니 월급쟁이의 고층은 영 말쑥이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월급쟁이라는 말이 경제적으로 생활 무능력자라는 말과 사돈의 팔촌쯤 되게끔 됐다.

외국 것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친구들이 월급쟁이라는 말대신 「셀러리맨」이라는 말로 살짝 「빠다」 냄새를 풍겨 보지만 역시 그 본질적 속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러한 무능력자들에게 멋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속된 유행어대로 「쫄코」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때도 이십대 시절엔 수입이야 적든 많은 총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술집엘 가면 가시베들 후리는 재미라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호박같은 작부라도 내수작을 먹여 주지 않으니 춘(春) 문자로 나도 이제 『춘(春)이 거(去)하고 동(冬)이 태(來)한』 모양이다.

어찌다가 나도 화가 나면 『야! 임마! 그렇게 사람 팔시 말아! 나도 이래봐도 왕년엔 여자끼나 울렀다구!』 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이 친구들 한다는 소리가 『뭐요! 그년들이 눈깔이 멀었지!』 한다.

이쯤되면 한 번 쥐어 박아주고 싶은 생각이 울컥하지만, 사실이 사실임엔 어

찌하랴. 특히 나 같은 신문기자들은 요즘 더욱 시세 폭락이다.

전엔 돈은 없어도 사회에서 지사(志士)적인 존경을 받고 재는 멋이라도 있었다는데——.

요새는 거뭇하면 권력자들한테 복날개 맞듯 얻어 맞거나 하고, 대학생들한테는 길거리에서 화형식(火刑式)이나 당하는가 하면 지식층으로부터는 「정신적 고자」라고 비웃음이나 당하고, 심지어는 술집 작부들한테서까지 공갈쟁이」라고 놀림을 당해야 하니 도대체 우리의 멋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말인가.

오징어다리 구워 놓고 소주잔 기울이며 쌓인 회포나 울분을 터뜨리는 멋밖에 없다면 너무 지나친 자학일는지 모른다.

콜트체 맨 자가용 폭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멋만이 꼭 멋은 아니겠지만 신문가자의 대표적인 멋이라고 할 수 있는 「후려까는 멋」마저도 전설이 되어 버린지가 오래다.

때문에 나의 경우 멋을 찾는다는 것은 교양이가 춘향전을 읽는 격이 아니겠는가.

샐러리맨의 멋



이 현 구
<조선일보>

「8년 동안 월급을 탔으면서 어쩌면 카메라 한대 장만 못했어요?」

결혼 초에 아내가 던진 첫 화살이라. 공군 유니폼 차림으로 자기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는 무척 멋쟁이 일꺼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속이 다르더라는 것이다. 실은 「장만 못한 것」이 아니라 「장만 안 한 것」이었다. 장만해야 겠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까짓거 술값 몇달치만 모아도 기쁘히 사고도 남았을 테니까 말이다. 내 일상생활에서 카메라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던 까닭이다. 얼마나 전조하게 살아왔으면 그랬겠

느냐는 아내의 일격(一擊)엔 반격(反擊)의 여지가 없었다.

봉급이 많고 적고,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생활을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같은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무언가 조금은 남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자기가 쓴 기사뿐만 아니라 남의 글이나 다른 신문의 컬럼까지 열심히 오려서 스크랩 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오거나 과실이거나 간에 잘못된 것만(아프리카주의 「비아프라」가 「비(非)아프라」로, 「古錢수집」이 「古鐵수집」으로 활자화된 적이 있다) 추려 모으는 사람이 있고 외국의 전문지까지 구입해 보면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일(職業)을 즐길 줄 아는 멋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동료 중에 누구가 괴로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으레 술집이나 다방으로 끌고 가 한잔 사교야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일이면 동료들을 모아 운동경기나 야외나 낚시터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고가 생기는 동료가 있으면 자전해서 대리근무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동료와 즐길 줄 아는 멋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점심시간이 되면 재빨리 식사를 마

치고 가까운 탁구장에라도 가서 단 30분이라도 운동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퇴근시간만 되면 쓸데없이 서성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단 사흘동안의 여름휴가 때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1년동안 5만원짜리 적금을 부어가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여가를 즐길 줄 아는 멋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비록 월부일 당정 가구나 가정용품을 부지런히 들여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베스트 셀러라는 신간서적은 빼놓지 않고 사 읽는 사람이 있고 유행한다는 넥타이나 T셔츠쯤은 남한테 빠지지 않게 갖추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자기 보급으로 즐길 줄 아는 멋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월급이 모자라 가불을 한다든가 보급날마다 월부값 받은 온 상인들을 피해 뒷문으로 내빼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끼리끼리 모이면 남의 험담이나 하고 사내(社內) 움직임이나 인사(人事)에 관한 정보를 캐려 드는 일은 절대 없다.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타사(他社)와의 경쟁에 지거나 일을 잘못해 뒷사람한테 꾸지람을 듣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전날 퍼 마신 술이 덜 깨 걸근을 한다든가 목하면 감기 몸살로 빌빌대는 일도 결코 없다.

사실 셀러리맨이라면 어느 한 단면에선 가장 안정된 부류의 사람들이다. 장사하는 사람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여별 시간 남짓한 직무시간만 빼면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으며 자기만 충실하면 승진이나 승급으로 장래가 보장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정신적인 여유도 있다.

그러니까 셀러리맨의 멋이란 그렇게 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제나름대로 꾸며내고 가꿔나가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 특유의 멋이 되는 것이다. 돈이 없고 틈이 없다는 것은 한갓 멋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남의 고용살이를 하는 「갈급쟁이」 주체에 뭐 말라 죽은 게 멋이냐는 것은 자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일수록 장래는 초라한 털털이로 끝나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고 보니 신혼 때는 물론, 꼬마녀석이 백날을 지나 똥이 가까와 오도록 아직까지 카메라를 장만 안 한 나야말로 정녕 멋이 없는 셀러리맨이 되고 말았다. 내 아내의 기준에 의하면 말이다.

□ □ □ □

부하통솔과 인격

□ □



— 리더와 부하관계 —

장

명

림

<심리학박사·서울대 교수>

지도에 대해서는 지도의 목표, 리더, 피지도자, 당면상황 등의 적어도 네가지 요소적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학자들이 일찍부터 주목하고 연구해온 것은 리더, 그 자체였다.

즉 리더란 어떠한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 특성은 언제 어떠한 리더에게도 불가결한 보편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유전적 생득적인 것인지?

사회심리학자들 중에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리더적인 특성이란 어떠한 것이며, 또 그 종류는 어느 정도 있는지를 논한 사람들이 있다.

리더적인 특성을 든다면

1. 높은 지능
2. 기선성(機先性)
3. 유모어(Humour)

4. 외향성(外向性)
5. 열심(熱心)
6. 공평(公平)
7. 진취성(進取性)
8. 통제력
9. 위엄
10. 관용
11. 우정(友情)
12. 공정(公正)
13. 침착
14. 자신(自信)
15. 동정심(同情心)
16. 대담성
17. 독창성
18. 자주성
19. 임기응변
20. 사교성
21. 암시성
22. 다변(多辯)
23. 활기(活氣)
24. 정적

25. 신뢰성

26. 자제(自制)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리더는 부하들의 평균지능보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높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도가 있는 법이다.

그 한도를 넘어서 너무 높은 지능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지도의 역할을 지니게 한다든가 유지케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I.Q. 160인 아동은 보통 지능의 아동들 집단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으며 130 내지 140 정도의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집단에서 리더가 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능의 한도라 고 하는 것은 부하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정해지는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어떤 사람의 지능이 집단의 평균 지능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리더가 될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지능이 평균보다 높을 때에도 반드시 이 사람은 리더로서 등장하게 된다고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뢰하여 리더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 특성을 열거케 한 다음 이것을 빈도별(頻度別)로 집계하여 보았댜자 어느 것이 정말 리더적인 특성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본능의 종류를 많이 들므로서 사람의 행동과 집단현상의 설명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본능론적 사회심리학자의 실패와 같은 것이다. 리더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방법은 그것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 타당한 특성을 구하려고 하는 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의 결점은 대체로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A. W. Gouldner가 가한 비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1. 리더의 제 특성을 열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중의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각각 10개 이상의 많은 특성을 들고는 각 List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특성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현실적인 지도는 때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다른 특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특성의 무게도 또한 고

<부하통솔과 인격>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2. 많은 학자들이 이때까지 보여준 모든 List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재치, 판단, 상식 등과 같이 서로 어느 정도 교차중복(交叉重複)된 제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재치와 판단은 결국 상식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 아주 별개의 특성으로서 열거되고 있다.

3. 리더적인 특성을 분석한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특성과 리더가 된 다음에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도와 피지도를 분화(分化)시키는 리더적인 특성이 그대로 리더의 지위유지에 쓸모 있는 것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특성은 리더가 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기록(既得)한 리더적 지위 유지에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4. 리더적 특성연구는 리더가 지닌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그리고 리더의 행동이 어떻게 체제화해 가는지를 연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더적 특성이 어떤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갖추어져 있으며

또 이러한 선천적 특성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게 하는 것이라는 사고 방식을 은근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종래의 연구 경향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리더로서의 지위에 놓인 다음에 이에 필요한 어떤 종류의 특성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종래의 많은 연구에 있어서는 이른바 리더적 특성의 전부 또는 약간이 어떤 사람에게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는지 혹은 또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리더가 된 다음에 발달하게 되는지가 문제되지 않았다.

5. 리더적 특성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리더의 인격을 연구하려고 할 경우, 리더의 인격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제 특성의 총화인양 간주되는 가정(假定)이 포함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가정은 인격의 근본적 속성의 하나인 체제의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향성(外向性)이라는 하나의 특성을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체제화되어 있는 제 인격에 있어서 달리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고로 동일한 몇 개의 특성이 있을 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배열방법(配列方法)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두지 않으면 리더의 인격이라는 하나의 체계적 전체(역동적 전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없다.

적어도 이삼 다섯가지의 점만으로서도 종래의 리더적 특성연구의 결함이 시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더적 제 특성을 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하에 놓여서도 리더는 누구냐,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른 바 일원적 특성설(Vnitary trait theory)이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이 확설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C. A. Gibb도 말하듯이

1. 한 집단에 있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인격적 특성은 다른 제 집단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다.

그리고 모든 리더는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속에 있어도 그러한 특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그러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리더 만이라는 것의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도는 피지도를 수반하는 상대적 관계이며, 양 당사자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內在的) 제 특성만

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리더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피지도자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리더는 부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부하의 행동(태도나 인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을 촉진시킨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리더가 현실을 의도(意圖)하고 부하가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목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목표는 리더 및 부하가 소속하고 있는 국가, 계급, 결사(結社), 조합, 동료, 기타 집단의 종류나 그들의 인격형성에 관계가 있는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서도 여러가지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지도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부하는 왜 리더에게 순종하여 그 목표달성을 도모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동조적(同調的)인 행동이 생기게 되는 이유로서 다음의 5항목은 그대로 부하가 순종하는 이유라고 간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일종의 동조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리더의 지시에 따라 혹은 동료들의 행동을 배우는 편이 자기 자신이 문

<부하통솔과 인격>

제해결에 임하는 것 보다도 훨씬 쉽다.

2. 많은 사람들은 단독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해결에 임하였다가 결국 리더에게 순종하는 편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따금 발견한다.

3. 대부분의 사회제도 속에서는 비동조 또는 비협조는 처벌을 받게 된다.

4. 우리는 커다란 집단과 자기와의 동일시(同一視)에 의하여 자아(自我)를 확대한다.

5. 우리 사회에서의 제도에 대한 동조는 조건화(條件化: 조건반응을 발달시키는 과정)의 한 요건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집단 속에서 자라나 여러가지의 일을 협력 일치적(一致的)으로 하여 왔다(놀이친구, 유치원, 국민학교, 여러가지 집회나 공공적 의식(儀式) 등에 의하여 우리는 이렇다 할 불평도 없이 리더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학습하였다.

이상은 동조적 행동이라는 면에서 보아 부하가 순종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밖에도 여러가지 사정이 현실의 경우 하나의 이유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경험, 안전, 피인식욕(被認識欲)의 충족 등을 구하는 원망(願望)도 작용한다고 한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지도는 지도를 받는 측의 조건이나 욕구와의 관련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지도는 리더의 인물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의 소산이 아니라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과의 대인적 상호작용의 소산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 특성의 정형(定型)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형이 그가 지도하고 있는 집단의 현재의 특수사정, 활동 및 목적에 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고 보면 리더, 부하, 집단 및 그때의 상황, 배경적인 제 관계 등의 모든 것에 걸쳐 고려할 필요가 생긴다.

더구나 그 중 어느 요인도 모두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될 여러가지 부분적 및 상호관계적 사정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면을 포괄할 수 있는 지도의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은 잠재의 과제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위치와



시대적
사명

서
경
보

△철학박사·동국대 불교대학장▽

☆ 피에 굶주린 복괴의 야욕과 책동
경제학에서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
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지적하고 있
다.

우리의 현상회를 돌이켜 보더라도 나
쁜 일은 좋은 일보다 더 자주 일어나서
선량한 민주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
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복괴
의 야만적 침략행위이다. 인류의 양심
을 기만하고 문화와 예술 등 정산적인
창조활동을 조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복괴의 무

모한 공산혁명 이론은 이제 동족애의 깊
은 유대를 파괴하고 있음은 재론할 필
요도 없는 일이거니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류를 향해 총구를 들이대고 있
는 것 같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불
쌍한 소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피에 굶주린 피수 김 일성은
북한 동포들을 사병화(私兵化)하고 노예
취급을 하면서 가혹한 노동으로 혹사하
는 등 천륜을 어기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여 맹종할 것을 강요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자유와 평등
이 있을 것인가.

최근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복괴는 한
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저공 경비행
전투기 수 백대를 보유하고, 계딜라들을
대량으로 양성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막강한 우리의 군사력 앞에 선불리 덤
벼들지는 못하고 가공할만한 그들의 야
욕은 세계 각처에서 민주우방국의 전복
과 혼란을 책동하는 등 무모한 침략 행
위를 계속하고 있음이 여실히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복괴의 침략 행위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류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음은 잘 아는 사실이며, 또한 남침의

<우리의 위치와 시대적 사명>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적 사태는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중대사이다.

국가의 정법(正法)을 넘보고, 다시 한술 더 떠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야만적 행동은 급기야 제가 만든 덫에 제 목을 집어넣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나, 예컨대 미친 개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며 쉬 죽어 쓰러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것을 방지할 수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를 분쇄할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 도전에 맞서야 할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현대전의 첨단 걷는 은의의 공격력

현대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지상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상군은 지형과 지세에서 받는 장애를 극복하기 곤란하여 전투가 장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희생이 큰데 비하여 공군은 자유로이 하늘을 날으며 시·공 중형무기로 적의 공격력을 분쇄하고 타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인하여 공군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으며,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전의 중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공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상전이나

해전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 형세는 가히 초라하여 승전을 가져올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막강한 공군의 지원을 받아 적의 병력에 타격을 가한다면 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 적을 섬멸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지상군이 진격을 감행하여 평양을 함락시키는 시간이 수주일일 소요케 된다면 공군은 불과 수분 이내에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공산 괴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정부와 군이 삼천만 애국 동포와 일치단결하여 승공대열을 굳히고 있는 현실점에서 공중 전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여력분들의 사명감은 중차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름과 바람 뿐 아무 것도 거치지거리는 것이 없는 하늘에서 적의 무리를 찾아 싸우고 격퇴시키는 이야기는 신화나 고대 소설 속에서 많이 접해온 바 있다.

아래에서 위로, 지상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우주로 향해 밀어가는 인간의 무궁한 꿈과 이상은 현실적인 국면에서 약진을 거듭해 나아가는 현대 과학의 초인적인 기능과 또한 이를 뒷받침해 온 인간의 허공계 제패의 꿈은 그 실천단계로 접어들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발전은 인간

의 오랜 꿈을 실현시켰고, 그리하여 마침내 땅을 박차고 하늘 높이 날아 올랐다.

오늘날, 그러나 피에 굶주린 김 일성이 북한땅에 그 마수를 뿌리박고 호시탐탐 한국의 번영과 비약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공군력의 배양과 아울러 제공력의 장악은 시급을 요하는 중대한 목표로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새 화랑 6계와 호국이념

한국의 젊은이들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조국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부정과 불의에 맞서 과감히 싸워온 역전의 열혈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화랑은 지금도 그 용맹과 호국이념을 높이 평가하고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신라 무사단의 지도자였던 화랑들은 귀족의 젊은 자제 중에서 중망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한다. 562년 가라(加羅) 정벌에 발군의 공을 세운 사다함이 화랑의 시초라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 기조는 진중보국, 용장의열의 정신이었고 그들은 명산승지를 두루 편력, 청유하며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국선(國仙)이라고도 하였다.

이들 화랑이야말로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 백제 등 3국으로 크게 분할되어 있던 국가를 사상 최초로 통일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바 임전무퇴의 용맹과 살생유택의 인도적 민주정신은 특히 가상한 일이었다.

1. 충성으로써 임금을 받든다(事君以忠)
2. 효도로써 부모를 모신다(事親以存)
3. 믿음으로써 친구를 대한다(交友有信)
4. 싸움터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臨戰無退)
5. 임신한 여자나 노인, 어린이들을 해치지 않는다(殺生有擇)

라는 5가지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 다섯가지 강령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스승을 모시고 배우는 데에 있어 예의가 얼마나 소중한 정신인가 하는 것이다. 예의가 없는 행동, 예의가 없는 생각이나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제자로서 정정당당하지 않다.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유신, 임전무퇴, 살생유택 그리고 사사이예(事師以禮)가 바로 나의 <새 화랑 6계>이다.

이와 같은 6가지의 강령과 자세로 대공전선에 임한다면 우리의 승리와 번영은 가장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리라는 것

<우리의 위치와 시대적 사명>

이 나의 소견인 것이다.

☆ 파사현정, 그리고 허공계의 장수들

불교는 인간의 개인적인 인격의 완성
과 평화를 추구함은 물론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온 이래 국가정법(國家正法)
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
고, 이 호국의 정신은 한국 불교의 한
특징을 이루기도 하였다.

사찰에 가면 한결같이 법당 문 양옆
에 서 있는 금강력사 신장(神將)을 보게
된다. 금강력사 뿐 아니라 사천왕(四天
王), 호세팔방천(護世八方天), 10나찰
녀, 12신장, 16선신, 28부중, 30번신
36신왕 등 불법(佛法)을 좋아하며 존중
하고 옹호하는 천인(天人), 귀신, 용왕
등 수많은 호법신들이 있다.

이들은 지상과 지하에서, 그리고 천
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즐거워
하며, 나쁜 마귀나 무리들의 침범을 격
퇴시키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뜬 채 사방
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특히 천룡팔부신장(天龍八部神將)은
하늘을 맡아 수호하는 신선 장수들이다.

오늘날 공군의 사명과 형태를 비교컨
대 마치 천룡부신장과 같은 소임을 담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
다.

☆ 공산타도는 인류평화의 지름길이다.

옛적부터 흰옷을 즐겨입는 한국인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였고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헌
신하는 희생정신이 강했으며 예술과 정
의를 사랑하는 뛰어난 민족이라고 본
다.

참으로 신라의 청년들은 겨레의 통일
을 이룩하기 위하여 뜨거운 피를 싸움
터에 바쳐, 은성한 문화와 번영을 이룩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스님들은 교
통수단이 극히 원시적이었던 당시에 중
국은 물론 인도까지 수륙 수만리에 달
하는 길을 떠나 수행하고 돌아와 고국
의 부모 형제와 이웃을 선도하였고 그
리하여 교해중생의 눈을 떠워 주었으며
암흑의 세계에 생기발달한 광명을 비쳐
주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몸바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였던 선
조들의 정열과 신념 앞에 삼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악화는 한때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악화는 자기 몸 속
에 뿌리박힌 독소 때문에 스스로 멸망
의 길을 재촉하고야 말 것이다.

정의에 대한 신념이야말로 오늘날 우
리들의 정신력의 밑받침이 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 만인평등의 낙원을 향한 행진곡

전쟁은 필요악(必要惡)인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일개 피괴집단에 불과한 길일성 일당을 상대로 하여 전쟁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실소(失笑)를 금치 못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불의와 부정을 뿌리뽑고 민족배신자들을 타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버섯처럼 육일승천하여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전쟁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나타내어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바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가르침이다.

총칼을 사용하지 않고 적의 항복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피는 채찍이 움직이는 그림자만 보고서도 제가 할 일을 알아차리는 말이 아니요 채찍을 맞아도

꿈쩍 않는 나쁜 말과 같아서 애초에 심성의 근본이 못되어 먹었고 더더구나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침략행위를 저지르는가 하면 인류의 영원한 꿈인 평화와 복지사회 건설을 저해하고 파괴하려 부단히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채찍을 높이 들어 불기를 치는게 마땅한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민족상쟁의 비극이 영원히 종식되고 한 마을 한 뜻으로 단결하여 만인 평등의 낙원을 건설할 때, 다시 한번 「전쟁은 필요악」이었다는 말을 입 속으로 되새기며 땀 흘려 일하게 되리라 믿는다.

하루 속히 복피의 악업(惡業)을 소멸시켜 평화 건설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부여하는 미덕과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다.

〈박 대통령 문언록〉

◇ 한 집안이 잘사는 길은 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주부의 현명과 현신에 달려 있듯이 조국 근대화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은 바로 공무원들의 성실과 박력있는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다.

◇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단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인격과 행동의 저변에 잠재하는 확고부동한 정신적 자세이다.



명령과 복종의 미덕

림 한 영

<교육학박사·성대 교육연구원장>

피랍의 유명한 철인 플라톤은 그가 쓴 「이상국가」라는 저서에서 국민의 의무와 책임한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세 가지 계층으로 만들었다.

첫째, 지도층으로 왕이나 현대말로 대통령이 이에 속한다. 지도층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은 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지도층에 있는 통치자는 명령하는 것이 이상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미덕이 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많은 교육을 받고 덕을 쌓고 인격을 형성해야 하며 따라서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게 된다.



둘째, 계층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계급이 있다.

국방계급은 유사시에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섹션한 군인들로 구성이 되고있다. 중요한 국방을 맡아보고 있는 군인은 용기가 그의 미덕으로 되어있다. 격을

물리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감하고 담대한 기세(氣勢)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군인은 용감하게 전쟁에 임해야 하며 또한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상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희랍시대의 군인의 미덕이었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은 군인 개인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싸워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요 나라가 왕성하여 이상국가로 발전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라고 플라톤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세제, 계층은 생산계급이다.

이 계층에 있는 사람은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나 노동자이며 농장에서 일하는 농사꾼이며 또한 일반 생산기업체에서 나라의 생산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생산업자들이 이 계급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나 농사꾼이나 생산업자들의 미덕은 나라의 부강과 번영을 위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인내력과 절제(節制)와 근면의 정신이다.



따라서 이 생산계급에 속한 일꾼은 왕이나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절차, 방법에 대한 일체의 훈련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플라톤이 설계한 이상국가에 있어서는 왕과 군인과 노동자는 각기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각기 시달린 명령에 따라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서 나라가 발전이 되고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는 부정이나 부패가 일소되며 정의(正義)가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 「헤에겔」이라는 철학자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와 상사와 부하 사이의 관계는 질서있는 주종(主從) 관계에서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는 그 민족과 국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통치자는 민족과 국민을 다스리며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소속된 국민은 마땅히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가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대에 있

◇ 명령과 복종의 미덕 ◇

어서도 상사는 군대의 규율과 권위를 확립시키며 부하를 지휘하기 위하여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소속된 군인은 명령에 따라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예겔」의 국가관에 비추어 보면 지휘관으로서 상사는 어디까지나 명령을 인간애(人間愛)와 관용심(寬容心)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하며 부하된 군인은 상사 개인에 대한 복종심에서가 아니라 군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큰 책임을 가진 지휘관으로서의 상사에 대하여 존경심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필자는 수년전에 서독을 방문했을 때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히틀러」가 진을 치고 독일 청년당을 권력으로 지휘했었던 「뮐렌」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독일 사람에게 「히틀러」가 나쁜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독일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독일 국민은 일단 지도자를 모시게 되면 그분을 존경하며 신뢰하며 복종하는 미덕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따라서 전쟁에 비록 패배는 했을 망정 독일 국민 대부분은 「히틀러」를 나쁜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왜 그런고 하니 『그분은 독일을 위하여 싸웠으며 독일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전쟁을 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독일 사람의 말을 듣고 독일 국민이 다른 국민에 비교할 때 그 얼마나 나라에 충성을 다하며 상사에게 순종하는 정신이 철저한가 하는 것을 느꼈다.

구라파에 있어 군대의 규율이 가장 엄격하게 형성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왜 그런고 하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볼 때 그들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강하며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이 철두철미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은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엄격한 규율 밑에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필자가 영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하루는 한국 대학교수 몇 분과 런던 거리에서 만나 밤 10시가 거의 다 되어 한 조그마한 맥주집을 찾아 갔었다. 한국 같으면 종업원들이 반갑게 맞이 하



는 것이었을텐 데 우리 일행에 대하여 전혀 본척만척 하는 것이었다. 나는 불쾌한 어조로 맥주 좀 가져오라고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그 영국사람은 대꾸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대체 맥주가 있는냐고 또 큰소리로 물었더니 나에게 당신 시계좀 보라는 것이다.

나는 더욱 이상히 여겨 나의 시계를 보았다. 10시 5분전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국사회에 있어서는 밤 10시가 되면 어떠한 음식점에서라도 절대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10시 10분전에는 술을 먹으러 오는 손님은 받지 않는 것이 영국사회의 통례이며 전통이 되고 있다. 이것은 영국 사람이 그 얼마나 준법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나는 런던대학에 있는 동안 런던대학 교수에게서 영국의 군인이 세계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명령 제통이 철저하여 부하 군인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국사람 전체가 「에리자베스」 여왕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 정진은 군대에 있어서 하사가 상사에 대하여 명령에 순종하는 정신과 일치되고 있다.

영국사람은 「에리자베스」 여왕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영국왕실을 대표하는 귀중한 상징적(象徴的) 존재로서 존경한다.

영국 백성이 영국왕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 할 것인가?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국민된도리이며 의무라고 영국 사람은 생각한다. 따라서 하사가 상사를 존경하고 명령에 복종할 때 그 군대는 발전하며 동시에 그 군대를 지휘하는 상사나 이에 지도를 받는 하사는 똑같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서로가 군대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될 때 일반국민들에게 군인은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영국 군인의 도의는 강한 규율에 있다. 상사는 자기의 인격

◇ 명령과 복종의 미덕 ◇

을 가지고 부하 군인을 지휘해야 하며 부하 군인은 용기를 가지고 명령에 복종하는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영국 군인은 미국 군인에 비하여 음식이나 잠자리가 그다지 호사스러운 것은 못된다고 한다.

그러나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주는 소식(素食)과 불편한 잠자리에도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도 없이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바쳐 유사시에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할 정신을 가지고 군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영국 군인의 군인정신을 나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다.

이러한 영국 군인의 일사 불란한 군인정신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정에서 특히 학교에서 강한 훈련을 통하여 발전되고 있다. 필자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제 1차대전 때 군인으로서赫赫한 공을 쌓은 「웬스턴 처칠」이 졸업한 이튼퍼브릭스쿨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때가 2월 초순 영하 10도를 상회하는 추운 날이었다. 그곳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 수용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오전 7시에 기상하여 5분동안 그 추운 겨울에 냉수마찰을 하는 것이었다. 한 반에 60명 중 두 명인 급장과 부 급장은 다른 학생들이 제대로 냉수마찰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일을 맡아 보는 나는 께이나 이상하게 생각하여 교사가 이를 지도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같은 반의 반장이 동료학생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반장이 아닌 직접 냉수마찰을 하고 나온 한 학생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반장이라고 해서 자기는 찬물에 들어가지 않고 당신네들만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또한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불평이 없는가』라고 학생편을 들어서 물었더니 도리어 그 학생은 나를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영국사회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교사의 명령은 물론이려니와 친구 사이에 있어서라도 일단 옳은 일이라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이를 지켜야 할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명령을 쫓는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



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구성원의 한 사람의 행복과 권익과 발전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 있어서나 군대에 있어서나 우리 친구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지도하는 반장은 자기의 개인의 편리나 감정을 초월하여 오로지 학교단체 생활의 질서와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군인은 학교에서부터 명령과 복종에 관한 단체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명령이 그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수단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복종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쾌히 인식하고 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명령과 복종은 그 정신에 있어서 표리일체(表裏一體)와 같은 것이다. 명령은 복종하는 사람이 없이는 명령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상사가 부하 군인에게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한 시까지 보초(步哨)를 서라고 명령했다고 가정하자. 이에 대하여 보초의 명령을 받은 군인은 추운 것과 졸린 것과 배고픈 것을 참고 명령받은 진지에 두려 세 시간 동안 그 위치를 꼭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상사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실천된 하사의 책임을 통하여 가치 있다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사는 자기 맡은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복종이라는 미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과 복종은 각각 맡은 바의 기능과 책임은 다르지만 군인으로서의 나라를 지킨다는 고귀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똑같은 차원(次元)의 것이다.

명령하는 자는 높고 복종하는 자는 낮다 먼가 하는 이원론적(二元論的)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명령하기는 수월하지만 명령을 받아서 이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실행면에 있어서 더욱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면으로 볼 때 복종하는 사람이 더 한층 높은 정신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나라를 위하여 상사의 인격을 받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군인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군인정신이 투철할 때 국방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



◇ 명령과 복종의 미덕 ◇

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 대하여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은 더욱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국방을 위하여 군인들이 용기있고 섧색한, 그러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국토를 방위해 줄 때, 우리 국민은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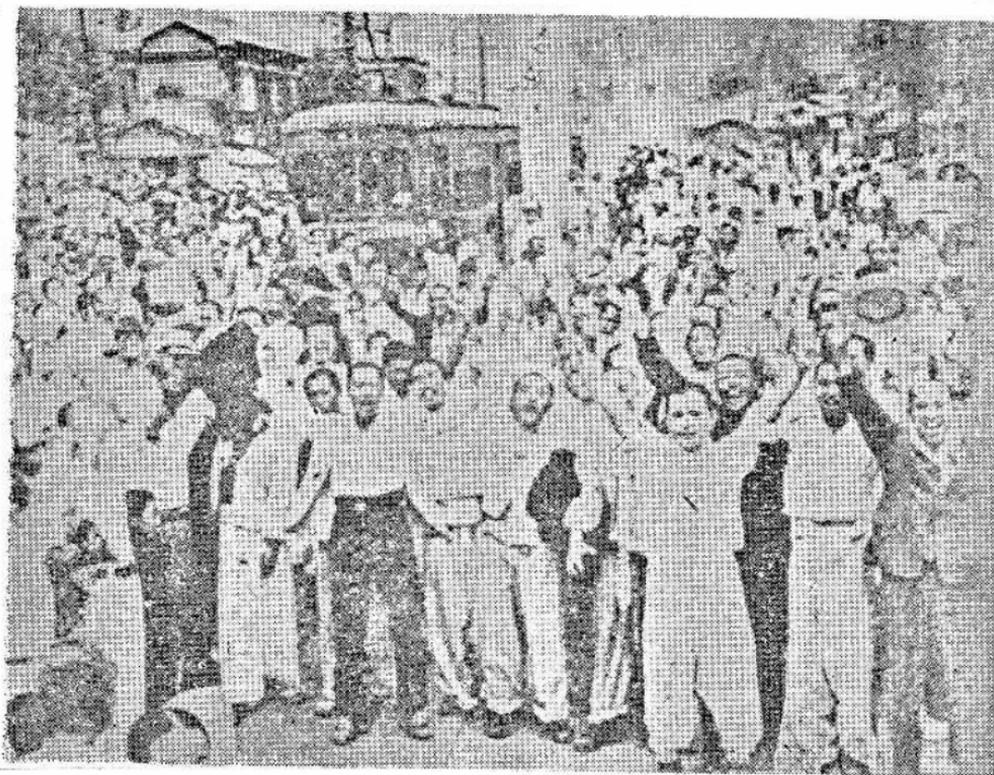
군인정신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뚜렷하게 구현되어 왔다. 신라시대의 화랑도의 정신이 곧 군인의 정신이요 이조시대의 이순신 장군의 혁혁한 승전(勝戰)의 정신이 곧 국방의 정신이요 일제 식민지하의 무서운 총칼 밑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쟁취한 삼일정신이 곧 우리나라의 거해와 자유의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명령이 수 많은 사람에게 질서있게 전달되어 아무런 거역이나 혼란없이 정의(正義)로서 타탄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수의 기분이나 의사에 불과한 것이 될지라도 다수의 행복과 생명을 위하여 그 결정된 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군대라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명령집단이며 그 집단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군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군인 전체의 행복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군인이 명령에 입각하여 그것을 수행할 경우 명령자에 따른다면 악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명령자는 법으로 볼 때에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에 쫓는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 그 전쟁이 우리들의 의견으로 볼 때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전쟁에서 싸우는 일이 조금도 부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조국이 승전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중대한 시점(時點)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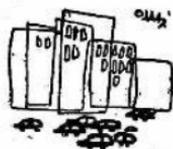




8.15 해방 26주년을 생각한다

- 1945년 8월 15일, 악랄하고 혹독하던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던 날 온 누
- 리는 감격의 도가니를 이루었고, 36년만의 웃음으로 감싸였다. 파리한 얼굴
- 로 옥문을 나선 독립투사는 이 웃음에 울었다. 태극기는 방방곡곡에 불결치
- 고 독립만세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과연 오늘의 현실은.....

8·15와 민족적 명예



김 팔 봉

<작가·소아마비협회장>

- 이다.....○
- 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 ○
- 아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때 ○
- 적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
- 1945년 8월 15일의 민족 ○

오래도록 자기 나라를 못 가졌던 우리들의 괴로움과 슬픔이 일본제국(帝國)의 패망과 동시에 일본인의 쇠사슬로부터 완전히 풀리어 가지고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온통 몸동아리 속으로부터 분수처럼 솟아올라 쏟아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기쁜 감격을 느껴보는 일이란, 타국의 압제 밑에서 굴욕을 받아가면서 겨우 생존하여 온 민족이 아니겠는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날 일본 천황이 미·영·중국·소련 등 연합군 앞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방송이 발표됨과 동시에, 들...셋...열...스물 이렇게 급시급시 사람들이 종로베거리 에, 동서남북으로 부터 연속해서 걸어오더니, 어느새 길바닥은 온통 사람으로 가득 찼고,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 이렇게 외치는 우렁찬 만세 소리는 땅덩어리를 흔들어 놓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언제 준비해 두었는지 군중 가운데엔 태극기를 높이 쳐들고서 흔들는 사람이 이쪽과 저쪽에 여러사람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독립국가로서 자기주권을 갖게 됐다는 기쁨과 희망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것이다. 이 때의 기쁨이야 말로... 이 때의 감격이야 말로... 이 때의 희망이야 말로 참으로 잡티가 추호도 없는 순수한 희망이요, 감격이요, 기쁨이 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민족의 대다수는 전혀 이 같은 「해방」이 닥쳐올 줄을 모르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점점 끌리어 아무래도 패전할 모양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일본이 무릎을 꿇고서 항복할 날이 미구에 닥쳐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던 만큼 8·15해방이 이 같이 실현되니까 대다수의 민중은 마치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진 행운에 정신을 잃고 취해버린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이날의 「해방」이 너무도 뜻밖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원서동 여 운형씨 덕에서는 여태까지 민족해방운동에 진심하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일부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우리민족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부가 아직 여전히 존재해 있고, 이 총독부로부터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거든 일본인이 조선땅에서 물러갈 때까지 치안을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여 운형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해보자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총독부로부터 일본이 항복한 뒤에 조선의 치안을 책임져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이것을 거절했던 송진우씨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고서 중국땅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환국

하기를 고대하면서 따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해방과 동시에 민족진영이 대체로 두 갈래의 진영으로 쪼개진 셈이다.

그런데 여 운형씨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인사들은 일본인이 항복한 뒤의 뒷처리를 총독부로부터 책임맡았다 해서 사실상 모든 질서를 재건하는데 자기들이 앞장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과시하였다. 아직 아무런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서도 제각기 붉은 형적으로 완장을 만들어 둘러고서는 일본인의 회사와 기관을 접수하러 다니기를 16일부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식산은행에 가서 은행접수를 통고하고 왔다.』 —『나는 지금 동양척식회사에 가서 접수하겠다고 통고했다.』 —『나는 지금 금융조합연합회에 갔다 왔네. 내일까지 장부와 열쇠를 몽땅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더니 그렇게 하라고... 아주 짤짤 매는데...』 — 제각기 이같이 공로를 자랑하는 판국이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여 운형씨가 지시했느냐 하면 그런일이 없다. 그들은 제각기 멋대로 행동했던 것이니 여 운형씨를 위원장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그후 일주일일이 지난 뒤였다. 그러니까 8월 15일의 그 순수한 감격과 기쁨과 희망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혼탁한 양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할 것이다. 이리해서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앉아 있던 좌익분자들은 은밀하게 획책하여 가지고 불과 두 주일 후에 「인민 공화국」의 정부각료를 선임 발표하는 연극을 해치우고, 이 때로부터 좌익과 우익의 대립 투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지금 25년이 지난 그 때의 광경을 회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비판적이었다. 올바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 정세와 주체의 역량을 냉정하게 분석 파악해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독립국가의 실현방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서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단합 집결해 가지고서 용전분투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목전의 이익만 눈에 보이고 10년후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은 서로 각기 자기가 대장이 되겠노라고 날뛰기만 했다. 이런 까닭으로 우익진영에서도 파가 갈리고, 좌익진영에도 분열이 생기고, 급기야 몇몇 지도자는 무참하게도 암살당하는 비극까지 보게 되었던 것이다. 송진우·장덕수·여운형 등의 암살사건이 그것이다.

만일, 8·15직후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있던 몇몇 유능한 인사들이 냉정한 이성을 갖고서 조용히 의논해 가지고 피차간 주장을 서로 접근시켜가며 독립을 쟁취

했다라면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도 민족적 희생은 조금 감소되었을 것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동안 여운형씨 집에 가서 보다가 18일밤에 집에 돌아온 후 이튿날부터 문밖에 나오지 아니하고서 우리의 앞날을 근심하기만 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아직 행정이나 치안의 기구도 조직되지 못했는데 제각기 각 자위대장으로 은행 회사 등을 마구 접수하러 다니고, 일본인들로부터 물자를 마구 징집해 버리는 꼬락서니를 보고서, 이래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독립국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한심했기 때문이다.

3천리 강토를 남북으로 분단 점령해 가지고 피차에 탄생작을 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을 앞에 두고서 우리민족이 단합해 가지고 독립을 하루 속히 쟁취하려고 노력한대도 용이한 일이 아닐터인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각기 제가 대장노릇을 해야겠다고 서로를 물고 으르렁대니, 이래가고^키쳐서는 하늘이 우리를 도와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때에 내가 한달동안 두문불출하고서 생각한 끝에 얻은 결론은, 우리의 실력을 충실하게 기르고, 그리고 민족성의 바탕을 훌륭하게 가꾸는 일을 앞으로 몇 10년간 정력적으로 수행해야겠다는 결론

이었다. 그렇게 하지않고서는 우리민족이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되지도 못할거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에 미군의 군정이 2년반동안 계속되다가 반쪼가리의 명목만의 독립국가가 성립되고서 그나마도 불과 3년만에 6.25의 동란이 폭발되어 가지고 3년동안에 형용할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을 겪었으며 휴전된지가 벌써 17년이나 되건만 아직도 평화아난 위장상태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일면국방」 「일면전설」을 고취하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이제 감겨어린 8.15광복 26주년을 당해서 우리가 —기성세대거나 신세대거나 —모두 다함께 명심해야 할 것은 진실과 충성을 가지고 분투노력하지 않고서 행운을 획득하려 든다면 그것은 누구나 도저히 성취하지 못한다는 진리다. 지금도 우리는 급변해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전국민이 민족적 단합을 할 생각은 안하고서 목전의 현상에 매달려 가지고 서로를 시비를 가리기에 바쁜 것 같다. 저사람이 나보다 좀 잘난 것처럼 행세할

지라도 그것이 못마땅해서 저사람과 협력하지 아니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개는 이런 경우 저 사람과 협력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나라 전체에 유익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성취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겠다고 음흉한 수단을 부려서 저 사람의 일을 까뭇게버리기도 잘 한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나라 전체에 유익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민족의 단점이 이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비평하기를 『한국민족은 사사로운 사투(私鬪)엔 용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전(公戰)엔 비겁하다』고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민족국가의 완전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력단결하는데 용감해야만 하겠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서 민족적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합심단결할 것을 다짐해야겠다.

8·15와 우리의 결의



김진복

<서울신문 논설위원>

- ...말뿐이다.
- ...과남침사태로 번지고...
- ...드디어는 6·25의 북...
- ...전개되는 민족상쟁은...
- ...말뿐, 그후 여력모로...
- ...8·15의 민족해방은...

I.

어느덧 올해로서 8·15해방 26주년을 맞는다. 말이 쉽지 26년이면 4반세기하고도 1년이 더한 긴 세월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채 26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기란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실감이 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연령상으로 보아 대체로 40대 이전의 젊은층은 8·15해방 당시 불과 10대의 소

년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족해방과 조국광복의 기쁨과 감격어린 것을 실감있게 체험못하였을지도 모를 일이겠으나 40대 이상의 속칭 기성세대에 속하는 중년층 이상은 그 당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소박한 감정일런지는 몰라도 8·15해방은 곧 통일정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담은 통일정부수립은 커녕 날이 갈수록 남과 북의 대치상태는 점차 굳어만 갔으니 8·15의 민족해방은 말뿐 그후 여력모로 전개되는 민족상쟁은 드디어는 6·25의 남침사태로 번지고야 말았다.

8·15해방부터 6·25동란에 이르는 약 5년간은 실로 민족상쟁의 예비기간이었다 해서 지나친 표현은 아닐상 싶다.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제의 총독정치와 행정권 인수작업을 위해 편의상이 땅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대한민국 통일

정부수립에 적극 도움기는 커녕 남북분단을 영구화 하는 불씨를 심어 주었다 해서 지나칠 것은 없다. 미국은 그런대로 「유엔」결의에 의해서 남북 총선거안을 적극 밀고 민주선거방식에 의한 통일정부수립에 성의와 힘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에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통일된 민주정부수립을 극력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단독 공산피괴 정권을 수립하고야 말았다.

당시의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과 업적에 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다만 어느 쪽이 통일 정부수립을 찬성했고 또 그와는 반대로 어느 쪽이 영구적인 국토분단을 획책하였느냐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긴 설명이 필요없는 줄로 안다. 이는 한 마디로 소련은 북괴 공산당들을 사주하여 통일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동시에 북한 지역에 공산피괴집단을 구성하기에 이른 사실 하나만으로 쉽게 입증된다. 소련과 그들의 압잡이인 김 일성 일당은 어찌하여 통일선거를 실시 하라는 유엔결의를 결사반대하고, 북괴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는지 그 속셈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8.15해방직후의 국민감정과 당시의 국민정치심리는 절대 다수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정부 수립을 열망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상황하에서는 공산주의가 먹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그 첫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소련은 해방직후 미·소 공동위원회나 남북정치인 협상이니 하여 공산측에 유리한 기반조성을 꾀해 보았으나 실패를 알게되자 소련대표는 고의로 미·소 공동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통일선거방식을 끝내 방해하였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평양에 공산피괴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무력적화통일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남침야욕의 구체적 행동이 6.25의 남침으로 나타났던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익혀 알고 있는 사실이다. 6.25동란 당시 처음 한 때는 북괴침략군의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유엔」군의 참전은 그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패망의 직전에서 소련을 중개자로하여 휴전협상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휴전협정의 결과는 또 다시 국토양단의 비극을 가져오야 말았다. 그로부터서도 벌써 21년이란 긴 세월이 경과 되었다. 그간에도 북괴의 간접침략과 무력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니 휴전 후 지금까지 북괴는 남한에 간첩을 남파한 사건만 해도 무려 1만 수천건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은 1.21무장간첩침투 사건을 비롯하여 삼척·울진지구 무장간

침 침입 및 허다한 무장제일라침투를 시도한 바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작년 11월 제5차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남침에 필요한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호언장담하고 북괴 주민은 모두 무기를 갖게 되었고 또 총을 쏠 줄 알게 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형편이다. 북괴가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큰 소리치는 배경에는 일견하여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례를 들면 전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군의 장비현대화, 군의 간부화 등 소위 4대 군사 노선을 완성했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갈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 국력신장면에서 북괴와 비교하여 조금도 풀리기는 커녕 그들을 능가할만큼 국력의 신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호간의 군사력 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통일 기반조성에서 어느 쪽이 보다 유리한 지반을 닦고 있느냐가 중대요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엄격히 말하여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괴는 8·15해방직후부터 적화무력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측의 평화통일 방안은 작년 8.15 기념일에 즈음하여 박 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이른 바 8·15선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북

괴는 8·15선언에 대하여 즉각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침략집단의 근성을 다시 한번 들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그토록 정 반대 의 도선을 견지하고 있을 진대 국토통일의 실현가능성은 전도 요원한 바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15해방기념을 맞는 우리의 사회는 심각한 바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8·15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또 반대로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분간해 볼 필요를 느끼게 한다. 소박한 감정표시인지는 몰라도 8·15해방으로 얻은 것은 민족해방이란 거족적인 선물이었으나 잃은 것은 국토의 절반을 공산당의 괴수 김 일성 일당에게 넘겨 주었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남북 분단은 민족 최대의 비극인 동시에 국력의 신장을 그만큼 저해하였으며 국가의 발전을 몇 10년 이상을 늦춘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해방 이듬해인 46년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남북통일 논의과정에서 미국과 우리측 민족진영이 좀더 단결하여 통일정부수립을 강력히 추진하였던들 남북통합의 길은 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6·25동란 때 「유엔」군

의 지원하에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을 때 당시의 「유엔」군 총 사령관 「맥아더」장군의 작전계획대로 전쟁을 수행했던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북괴의 꾀대를 꺾고 통일에의 실마리가 풀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하지 않는 여러가지 국제정치상의 애로와 난관이 있었음을 모르지는 않는다. 이점에 관해 지금도 석연치 않게 생각되는 바는 미국측의 대 공산권 유화정책이 결국 한국의 통일을 어렵게 만들고야 말았다는 사실이다. 평화공존이라는 미명아래 미국은 공산진영의 힘을 키워준 결과를 가져 왔으며, 6·25에서 20년이 지난 오늘날 북괴는 중공과 소련의 힘을 빌려 군사적으로 무시 못할 존재로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II.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각축과 협조 「무드」는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미국과 중공간의 급속한 접근 「무드」에서 비롯된 한반도에서의 피아간의 세력균형 변천양상은 통일에의 기운성숙은 커녕 점점 더 통일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여 잘못된 판단은 아닌줄로 생각된다. 그간의 남북간의 세력균형상황을 일일이 다 회고해 볼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남북간의 세력균형은 북방의 3각 관계와 남방의 3각 관계의 힘의 대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북괴는 소련과 중공 등 공산권의 두 상전과 각각 강력한 군사동맹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무력남침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측 역시 미국과 한·미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 역시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결함으로써 북방세력과 대치상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상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아간의 세력균형상에는 약간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결국 남북간의 세력관계는 우리측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중공간의 접근이 점차 열도를 더해가고 있으니 앞으로 세력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천될 것인지 이는 전적으로 낙관을 불허하기만 한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국제정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정확한 정세분석 평가를 통하여 탄력성 있게 대처해 감으로써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첫째는 장차 우리앞에 변동

이 닥쳐오더라도 조금도 이에 동요하지 않고 굳건히 대처해 나가는 국민의 정신 자세확립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6·25동란 때와는 모든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국내 어떤 구석진 곳에는 국난을 몸과 마음으로 막을 생각은 않고 자기만 난을 모면해서 살아 보겠다는 이기심과 개인 향락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 못한다.

되풀이 하기도 창피스러운 바 있긴 하나 지난 68년 1·21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일부 몰지각한 층에서는 마치 무슨 큰 변이나 난 것처럼 당황하여 도피할 궁리를 했다는 웃지 못할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그 후에도 그와 흡사한 사태가 버티었을 때만해도 군·경과 향토예비군은 무장공비 소탕에 비지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대간첩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공에 돈뎀이나 있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골프다주 지욕됨 속에서 거드름을 피웠더니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한바 있었거늘 그들이야 말로 공산당보다도 더 악질분자들이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정희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지금이야 말로 국민총화를 이룩하여 안으로는 경제건설과 국방강화에 한층 더 주

력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우리의 승공자세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거니와 이 말이야 말로 우리의 국가목표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보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국토통일을 위한 통일기반조성작업의 첩경인 동시에 국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근본 자세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통일기반조성이란 단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요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여건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더욱 고취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총화된 단결을 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60만 대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괴와 비교하여 비록 공군과 해군의 장비면에서는 약간 뒤지고 있다고는 하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아 그 정도의 장비차이가 결코 군사측면에서 결정적 불리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60만의 대군 외에도 후방에서 대간첩작전과 정규군의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2백 50만의 향토예비군이 전국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이아니라 약 30만의 행정요원과 5만이 상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아 북괴의 전쟁잠재력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력에 달려 있다함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신적 단결이 이룩되지 않으면 여하한 적의 침략에도 대응할 수 없다고 단정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과거 중국에서 장 개석 정권이 중공의 침공을 막을 길 없어 대만으로 망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형편이나 또는 월남의 사태귀결은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처럼 만은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면이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왕년의 장 개석 군대가 장비나 병력면에서 중공에 비해 열세한 것도 아니었고 또 월남의 군대가 우방의 막대한 군사원조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야 말았다는 사실은 한 마디로하여 국민의 정신적 자세가 허술한 탓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III.

우리의 국가 목표는 뚜렷한 것이다. 국토방위는 한·미 공동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자주국방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다짐으로써 국민총력전의 태세를 굳히는

동시에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국민의 총 「에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근대화 작업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는 국민의 의지는 통일외지의 발돋움이기도 하며 북한방에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우리측의 국력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결코 북괴가 항용 허위선전하는 싸위의 무력통일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어찌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아무리 급하고 또 전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 하더라도 무력통일을 내 세울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은 작년 8·15해방 기념일 때 박 정희 대통령 이 선포한 이른 바 8·15선언이 전적으로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토분단이 비록 「알타」 체제의 일환으로 고질화 되었다고는 하나 알타체제 그 자체가 이미 낡은 형태임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평화공존 「무드」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공간의 접근도 가속화되고 있는 판국에 한국의 통일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 우리앞에 전개될지 지금은 예측을 불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앞에 전개되던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에 대처해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항상 잊지않고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민의 빈틈없는 단결만 이루어진다면 무엇이던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의 총 단결을 촉구하고 또 가능한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차체에 옷깃을 여미고 냉철하게 반성하고 결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지금도 국민생활 속에 깊숙히 도사리고 있는 만성적인 부정부패요인을 뿌리 뽑는 일이다.

만약 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금권만능의 배금주의와 나만이 잘살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부정부패는 근치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요는 사치와 낭비의 방국적 풍조를 뜯어 고치는 국민의 정신혁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의 1인당 소득이 겨우 2백불을 조금 넘어선, 관국에 소비가 미덕이라는 풍조는 다 무엇이며 호화주택이니 「마이카」시대는 다 무엇이나 말이다. 분수에 맞는 생활태도야말로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첫 걸음이 된다.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퇴폐적인 사회 풍조를 건전화라는 문

제 역시 심각한 면을 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3강 5륜이니 하는 따위의 동양윤리 사상을 고취할 생각은 없다하더라도 문제는 싸우는 국민으로서의 최저한도 지킬 선은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도 각계각층 지도층의 책임은 막중한 바 있다하겠다. 국내 각계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한 사회정화작업 역시 극히 어려운 바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군은 국토방위의 간성이거늘 군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국민은 따라서 흔들리게 마련이고 군이 확고부동한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한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군은 국민을 기반으로 형성된 민주주의 군대임을 새삼 느껴보도록 하자. 이 말은 곧 군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의 부모, 형제 자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임을 다시한번 다짐해 보자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군은 우리들 온 겨레를 위해 존재하며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전투집단임을 상기해 보자는 뜻도 된다.

8·15해방 26주년에 즈음하여 국군장병 여러분의 건승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는다.

8·15와 해방의 기쁨



어 효 선

<아동문학가>

- 정오 방송으로 일황(日本天皇) ○
- 히로히도가 연합국에 항복했다 ○
- 는 이야기를 길에서 들었다. ○
- 그 감격, 그 기쁨! ○
- 「인제는 살았구나!」하는 생각 ○
- 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

달 그믐째였다. 일인 선생님이 K에게 물었다.

「너희 집에서는 떡을 했나?」

「네,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하나?」

「네, 어저께 합니다.」

선생님이 웃기 전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K는 산술을 특히 잘하는 우등생이었다. 우리말로 대답한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리는 없다. 하도 안하고와 어제와 내일을 혼동하는 주제에 일어를 해야 했으니 웃을 일이 아니었다. K는 일본 칠고(七高)를 거쳐 이학박사가 되었다.

중학생(그때는 고등보통학교)이 되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알기 시작했다. 물어 았으면 으레 우리 역사와 민족을 얘기하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다.

지원병 제도를 내놓고, 곧 징병제도를 폈다. 징병으로 끌려가는 날이면 마지막

어려서는 나라없는 설음을 모르고 자랐다. 보통학교(국민학교)적에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조선어 독본 시간이 없어졌다. 일어 상용을 강제했다. 우리는 서투른 일본말을 써야 했다. 말이 모자라 불쑥 우리말(조선말)이 튀어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께 이른다. 교실 벽에 붙여 놓은 그래프에 표가 질린다. 막대기의 높이대로 성적이 작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숫제 말을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입만 벌이면 우리말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때가 설

이라고 생각했다. 십년이나 계속된 전쟁은 태평양전쟁으로 번졌다.

우리는 실의(失意)의 나날을 보냈다. 영장이 나오면 입대를 해야 하고, 입대를 하면 전쟁터에 가야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것이다.

1944년 우리 멤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죽 입영, 무운장구」라고 쓴 띠를 어깨에 메고 용산 조선군사령부에 출두할 때마다 우리는 일정기를 휘두르고 일본 군가를 불렀다. 우리가 부른 군가는 장행곡이 아니라, 장송곡을 부르는 기분이었다.

계계승승하던 일본은 몰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싸워 이긴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일본이 얼른 망하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일본이 이기려나 보다고 생각했고, 이기기를 바랐었다. 일본이 이기면 우리가 자치권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들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었었기 때문이다. 독립같은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세가 자주 기우니, 이기지 못할 전쟁이라면, 차라리 빨리지면 우리가 전쟁터에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큰소리만 치고 전쟁을 그만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의 공습에 대비하여 방공호를 파게 했다. 삼자루 조차 잡아 본 일 없는 사람들이 뭉여 길가에 방공호를 파야 했다.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나온 여남은 명이 거의 여인네요, 아이들이었다.

삼은 땅에 박히지를 않고, 썩이로 적으면 끝이 탁탁 튀어 올랐다. 그래도 사람의 힘이 무서워, 며칠 만에 기름하고 깊숙한 구덩이가 되었다.

사람이 드나들 만큼만 남기고, 땅 위에 막대기를 일기설기 가로지르고는 파낸 흙을 덮고 다졌다.

서울 거리에는 좁다란 골목길에도 이러한 방공호가 총총들이로 들어섰다. 방공호가 되자 이번에는 거의 날마다 방공훈련을 시켰다. 길을 가다가도 사이렌만 울리면 방공호로 뛰어 들어야 한다.

그러나 진짜가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 축축하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남보다 먼저 들어가기가 싫었다.

그래,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달려가 주그리고 앉아서 눈치를 살피며 해제 사이렌이 울기를 기다리곤 했다.

「너는 죽고 싶으냐, 왜 안 들어가느냐」

언젠가는 순사(일인 순경)에게 들켰다.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다.

「너는 왜 안 들어가니」
소리가 허끝까지 올라왔다.

그런 뒤로는 옥먹기 싫어서 슬슬 들어갔다. 먼저 뛰어들어가면, 꺾꺾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잠시나마 답답해서 어떻게 견디랴 싶어서였다. 한동안은 극성스럽게 훈련을 시키더니, 한 두달 지난 뒤로는 뜬해졌다. 그만 하면 훈련이 되었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방공호 속이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땅보다 낮으니 종이조각, 점부라기 따위가 날아 들어가고, 아이들이 오줌도 누고, 비가 오면 구정물이 혼건히 괴었다.

외진 골목길을 가다가 방공호를 거지가 차지하고 살림을 차린 것을 보았다.
(거지가 집 장만을 했구나!)

정말 공습을 당한다면 발이 빠지는 물구덩이로 뛰어들어야 하고, 거지굴로 뛰어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자, 이번에는 방공호 청소를 돌려가며 해야 했다. 냄새나는 물건이 한 무더기 놓인 날에는 딱 질색이다.

어느 날, 공습 경보가 울렸다. 훈련이라는 예고가 없었다. 저마다 죽기는 싫어서 앞을 다투어 경총경총 뛰어 들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은 자전거를 그 자리에 뉘어 놓고, 수레를 끌고 가던 사람은 수레를 버리고, 지게를 지고 가던 사람은 지게를 내던지고.....

훈련 때는 되도록 나중에 들어가던 나

였건만은, 이 때나 그 때나 면접하지 못한 나건만은 엔간히 서둘러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 쭉그리고 앉았으려니,
(만일 죽는다면?)

점이 났다. 사람들을 불러보았다. 아무도 말이 없다. 모두 얼굴이 뻔뻔하다.
(가족들은 지금 어떡하고 있을까?)

끝에 앉은 이는 하늘을 살피는 눈치다. 귀를 기울인다. 적기의 폭음이 나타나 안 나타나 폭음이 안 나와 하겠건만 은근히 기다려지는 것은 또 무슨 심리인지 모른다. 그러다가도,

(나만 살고 가족이 모두 죽는다면 어떡하나?)

「왔다, 왔다—」

끝에 앉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어디, 어디?」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우루루 물러섰다. 나도 그 사람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쳐다보았다.

신문 사진에서만 보던 B-29! 꼬리에 흰 줄을 긋고 까방게 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까만 점 하나와 깨끗이 그어 놓은 길다란 줄이 아름다웠다.

저것이 무서운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까방게 잊고 녀을 잃고 바라보고 들 있었다.

까만 점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제자리에 돌아와 숨을 죽였다. 다시 침묵.

B-29는 정찰을 왔던가 보다. 방공호를 나오며 혼자 웃었다.

(호기심은 공포속에서도……)

전쟁을 일으킨 도오조오(東條) 수상이 물러나자, 우리는 일본이 항복하러나 보았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내각도 큰 소리만 치고는 곧 물러나고 항복하지는 않고 하여 우리는 초조하기만 했다.

그러자 스즈키 내각이 들어서고, 8월 15일 정오에 중대방송이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항복하리라는 기대는 못했었다.

그날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듣지 못했다. 우리는 방송 내용을 궁금해 하면서 시간을 마치고 오후 3시쯤 동대문케도차 정거장에 내리니 「해방 만세, 독립 만세」라고 쓴 벽보와 낯선 태극기가 걸터 있었다. 가슴이 선했었다. 일인 역장은 풀이 죽어 보였고, 일군은 총을 들고 정거장을 경비하고 있었다.

동대문 문루 위에 태극기를 든 사람이 까맣게 올라 섰고 광목으로 지은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흰 모자(미군의 평시

모 같은 것)를 쓴 청년들이 트럭을 타고, 태극기를 휘 두르며 자꾸 지나갔다.

정오 방송으로 일황 히로히토가 연합국에 항복했다는 이야기는 길에서 들었다. 그 감격, 그 기쁨!

라디오에서는 애국가가 계속 흘러나왔다.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안 재홍 씨의 목이 각각 막히는 듯한 좀 탁한 음성의 녹음이 되풀이 방송되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을 천명하고, 경거망동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그 지루하던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되었던 것이다. 「인제는 살았다. 인제는 살았구나!」하는 생각 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B-29는 그 뒤에도 몇 차례 왔지만 폭탄은 던지지 않았다.

해방되던 날, 누가 나오라지도 않았건만 모두들 삼들을 가지고 나와 예씨 판 방공호를 삼시간에 메워 버렸다.

밤에 불을 밝히지 못하고 살다가 암막을 베어내고 밝은 세상에서 살게 됨으로써 해방을 실감할 수 있었고, 방공훈련을 안 하게 됨으로써 평화를 느꼈던 것이다.

×

×

×



역사가 된 세월

—해방을 돌아보는 심정—

한 운 사

<작 가>

역사란 따로 있는 것인줄 알았더니 요즘 차츰 심정이 달라진다.

마치 나는 영원히 성년일 것이라고 믿었던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지금은 그렇고, 후회되고,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다보니까 생겨나는 것이 역사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

×

1945년 해방 때.

일본군 1등병의 복장을 몸에 두르고 현해탄을 건너올 때의 희망과 야망(野望)과 감동(感動)과 용기——, 문명한 20세기에 홀로 남의 종노릇하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해온 백성들에게 뒤집어 쓰고도 남을 영광(榮光)과 기쁨을 안겨주리라던 결심——.

그것이 나 개인으로 보아도 역사가 되었고, 그 감동이 넘쳐흐르던 한반도(韓半島) 입장에서 보아도 역사가 되고 말았다.

살다 보니까 그것들은 다 역사가 된 것이다.

모두 다 제대로의 역사가 되었는데가.

나는 그때 가졌던 결심을 펴왔으며 국가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훌륭한 발전을 거듭해 왔는가.

나 개인의 경우에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일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수의 지도자들 생각이 잠깐 잘못 돌아간 탓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그 얼마나 많으며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나타났던

까닭으로 그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공연히 앞장섰다면 다칠라 겁먹은 까닭으로 그 얼마나 많은 불의(不義)를 방관시(傍觀視) 해왔으며——. 예지할 겨를이 없을 정도다.

×

×

출자 「현해탄은 알고 있다」에서 「티노이에」로 알려진 실물(實物)이 몇해 전엔가 서울로 올라 왔다.

회쫓회쫓한 머리를 서로 가리키며, 정과 말은 엇을 잇을 수 없어 그대로 주고 받으니, 감회가 형용할 수 없음이 만큼 크다.

피차 처를 거느렸고, 자식들 수도 많다보니 홀연히 세상을 등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며 엉터리도 꽤 피우고 다니던 옛날이 꿈속의 시절만 같다.

이 얘기가 자신들의 들레에서 벗어나 국가 사회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나 라는 것이 우리들의 진실한 비탄(悲嘆)이었다.

세계 제2차대전이 노예상태에 놓여있는 한민족의 독립을 약속하며 끝난 것이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해방 후 몇 해 안가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졌고, 원수가 되어 피투성이로 싸웠고, 그리고도 20여년을 지나 아직도 모양이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나——.

무엇인가 잘 못 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5년을 가지 못할 것이며, 10년이면 그런일 저런일 자취도 없이 잊어버리게 될 임시적 조처, 무엇 그리 걱정할게 있느냐 하던 38선 문제가 아직도 저러니, 어찌된 일이나.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나. 누가 시정할 수 있는 찬스를 바보스럽게 놓쳐 버렸느냐.

정치인들을 나무래도 강대국의 횡포(橫暴)를 나무래도 끝내는 그 화살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향하고 말았다.

역사를 너무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관하지 않은 자들은 너무 자기 고집만 피웠다는 것이다. 또는 노력을 축적(蓄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대만 하고 손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숙연히 술잔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

×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살다보면 생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현재(現在), 행동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과거라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경계에서부터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먼 후일에 현재를 돌아보기 위해서 현재를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막연한 의지(意志)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중대한 문제는 바로 이점에 있다.

어떠한 일이든, 노력의 축적없이, 즉 목적을 의식하며 부단(不斷)한 노력없이 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사랑을 하고 싶다고 갈망하는 청년은, 다만 갈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야 된다.

골른 다음에는 그녀의 호감을 사도록,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쪽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저쪽을 알기 위한 공부도 하고 때로는 돈도 써야 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상상도 해보지 못한 행동도 해야된다.

반드시 마음에 맞는 일만 할 수도 없다. 가다가는 의견차이(意見差異)도 있을 수 있으며, 상호이해(相互理解)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에, 어느 날 그녀는 『당신없이 는 못살겠다』는 말을 하게되고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성장하는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만난(萬難)을 극복(克服)하며 자꾸자꾸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와 다르다. 개인은 혼자 결심하고 혼자 해나가면 되지만, 국가는 국민이라는 복합체(複合體)가 움직여야 된다.

그것은 단순한 복합체가 아니다. 의견이 첫째 통일되기 어렵고,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느냐, 그 원동력(原動力)이 또한 문제인 것이다.

<집 : 8·15해방 26주년에 부친다>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中樞的役割)을 하는 사람은 청년이요, 그 청년들은 높은 수준의 보편적 판단력(普遍的判斷力)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들은 항상 세계를 의식할 줄 알고, 그것을 내다보려고 애쓰며, 순진한 백성들이 사리추구(私利追求)에만 급급하더라도 그들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모아 돌진하는 그런 청년들이 바로 원동력의 핵(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년에 와서 우리나라의 장래는 꽤 기대를 걸 만한 활기(活氣)를 찾을 것 같다.

그 활기 속에서 역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한 학자는 그의 전공과목에서 권위(權威)를 이룰 수 있는데까지 노력해야 하며, 한 기계공은 맡은바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군인, 교육자, 노동자, 회사원 모두가 자기일에서 가치를 일정받을 만 해야 된다.

해방 26년 만에 맞는 8·15의 감개가 다소 복잡한데까지 미친 것 같다.

그것은 잃어버린 나의 청춘을 후회하듯이, 잃어버린 우리들의 어제의 공허(空虛)를 메우기 위하여 성성한 힘들에게 걸어보는 기대〔期待〕에 이르고 말았다.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들이 사는 순간순간의 축적이 어느덧 역사가 돼가는 것이다.

온갖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해방 후 세상을 맡아온 사람들은 좀 무식했고, 잘못이 많았고, 훌륭한 역사를 꾸며나오지 못했다.

공부하는 세대(世代)에 거는 기대는, 때문에 더욱 커진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결코 OBSERVER가 아니다. 그대들은 역사창조의 주인공,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10년 후의 역사는, 그대가 얼마나 생각했고, 어떻게 참여했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자책(自責)의 염(念)에 쌓인 우리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만세를 부르자

— 8.15 에 —

박 목 월

<시인·한양대 교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입이 열렸다.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나와 나의 형제를 향하여

대한 독립만세

조국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떴다.

찬란한 광명 속에 빛나는

빛과 소망이 넘치는

조국의 산하를 보았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순수를 체험했다.

사람마다 새 사람이 되어

닥치는대로 껴안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겨레의

이 위대한 유대 속에서

우리가 사루는 감격의 불길,

우리의 안을 씻어내는

뉘우침의 눈물의 강물.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

푸르게 창창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신념하며

밝은 햇살의 광휘 속에서

오늘과

오늘과 내일을

참되게 살기를 다짐했다.

조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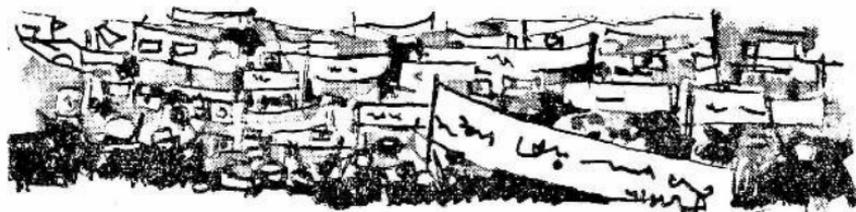
겨레를 위해서만

목숨을 바쳐

섬기고 받들기를 다짐했다.



비겁하지 않기를 다짐했다.
용감하기를 다짐했다.
헌신하기를 다짐했다.
이
새로운 소망과
보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
빛과 빛과 빛과
기름진 푸르름과
광활한 자유와
신선한 사명감으로
겨드랑 밑에는
희고 찬란한 날개가 돌아났다.
그날
우리들의
그 왕성한 의욕,
그 순결한 손,
그 맑은 음성,
그 황금의 결의와,
그 아랍들이 나무의 믿음
하늘 같은 땅 같은 단결.



바다 같은 파도 같은 감격.

이제 다시

그날이 돌아왔다.

8월 15일. 조국해방의 날이어.

8월 15일. 물의 세례의 날이어.

8월 15일. 불의 감격의 날이어.

부활과 경쟁의 날이어.

굳어진 핏줄에 뜨거운 피가 돌아 오고,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정이 울리는 날이어.

우리

다시 그날을 맞아

거듭나자.

그날의 순수한 황금의 결의로

꿈과 짓이 흐르고 빛이 넘치는

조국 대한

민주 자유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다시 목청을 돋구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자.

조국 만세를 부르자.

분수에 맞는 생활



◀의·식·주 오락면에서▶



유 한 철 <평 론 가>

분수에 알맞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각있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생활이라는 것이 의(衣)·식(食)·주(住)로 이룩되고 여기에 생활이 윤희를 갖기 위해 오락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필요하다. 요사이 레저·봄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여가(餘暇)를 즐기는 운동, 일종의 사회풍조, 시대 조류가 뚜렷해진다는 뜻이다.



일하고난 사람은 여가를 즐길리가 의당 있을 것이다. 여가를 즐기는 방법은 대부분 부담없이 행할 수 있는것, 물질적 여유로만 행할 수 있는 오락이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가치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며 그 뒤에 즐길 오락이나 논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고난 뒤 쉰다는 것 중에 오락이 들어갈 수가 있으나 오락 자체가 곧 쉬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오락에는 경제적 지출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늘 분수에 맞는 생활을 바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지도받아 왔다. 그러면 분수라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아주 궁핍할 정도로 주려진 채 살고, 있는 사람은 마음

것 입고 먹고 즐기라는 뜻이나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하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란 가정, 사회, 국가라는 큰 덩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책임이 무겁다.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반을 굳히려면 모든 국민 하나 하나가 한 목적으로 국가가 바라고 향하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러기에 필자는 구태어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기보다 분수를 따질 것 없이 국가의 형편, 국가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의·식·주 오락생활을 무리하지 않는 한도로 긴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긴축이란 억압이나 금지는 아니다. 자제하는 생활, 절제있는 생활 실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부문에 발전이 눈부시고 생산수준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된다 해도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오늘날 다소 여유가 있다고 곧 안심할 수는 없다. 개인생활에 있어 저축이 뜻하지 않은 어떤 비상사태에 큰 도움이 되듯이 국가의 지구력(持久力)은 오늘의 생산수준에만 안심않고 오히려 먼 훗날 이 나라의 평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항구적 국력의 하나인 저축이 필요하다. 국력은 곧 어떤 비상시에도 발동될 수 있는 일상시의 국가 저력(底力)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정신적 도야도 국가를 키우고 지키는 큰 원동력이기에 이 두 가지 자세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생각되고 작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오늘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고 새삼스럽게 외쳐야 하나 하는 것이다.

우리를 생활주변에 거리에서 마을에서 얼핏 보기에다 분명히 어떤 생활의 여유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도가 지나치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박 대통령이 재당선된 후 앞으로의 사년동안 기필코 부정부패와 사치풍조를 반드시 일소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사치풍조란 물질적 생활에 여유가 생길 때 나타나기 쉬운 증세이며 이것이 만성으로 습성화할 때

너도나도 어떤방법으로든지 사치생활을 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마치 오늘날의 생활철학(生活哲學)으로 당연한 듯이 전파되고 실천되어 드디어 이러한 욕구를 달성키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이 급격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질적인 성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에는 급전의 과도한 유행이 어떤 불을 일으켜 개인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대한민국은 좁은 판도 안에서 도의성과 근면을 토대로 한 국민신조로 국민의 전반생활을 지탱해 왔고 국토가 양단되면서 여러가지 시련이 깃들었고 국토를 통일하기 위해 스스로의 국력, 즉 국방력이나 생산력, 국민의 자각실력을 적극화해서 내일의 통일에 대비하려는 자세를 기르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력을 위해서도 보다 폭넓은 생산력이 필요했고 좁은 판도를 살찌게 하기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 물질에 의한 안위(安慰)로운 일상생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나 생산이 증산으로, 건설로, 수출진흥으로, 산업의 폭과 깊이가 커질 수록 우리는 보다 살기 어려웠던 지난 날을 회고해야 하고 그러기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분수에 알맞는 생활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상에서 분수에 맞는 생활의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바 있었고 현시점에서 더욱 이것을 과감한 국민운동으로 옮겨야 할 우리의 의무, 아니 국가의 방향을 충분히 설파했다. 그러나 백 가지 이론보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노력, 자세, 실천이 근본 해결의 열쇠이다. 따라서 의·식·주 및 오락이 알맞는 생활태두리 안에 살 수 있는 한도를 말해볼까 한다.

첫째, 의생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상이 필요하고 옷이 날개라 하여 단정하고 깨끗한 의상을 입어야 하지만 소위 유행에도 어느정도 알맞게 입을 필요가 있다. 다만 옷이 날개라는 뜻을 덮어놓고 잘 입어 화려하게 보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그것을 따르는데서 의상의 시대 감각을 살릴 수 있지만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이것도 유행, 저것도 유행 하면서 거기에만 치중하면 어느덧 생활태도 자체가 흔들려 변조가 오고 소비생활에만 치중하여 드디어 경제적 생활 불균형마저 일으켜 유행에 희생된 생활에 파탄이 오고 만다. 물론 의생활은 깨끗하고 정결하면 되고 남이 보기에든 기분이 좋아야 된다. 사실 일반 대중생활에서 뛰어나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불식간에 질시에 가까운 심리를 다른 사람 마음에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체 속에 지나치게 멋을 부리고 사치한 의상을 입으면 그는 이미 집단생활에서 격리될 존재이며 자기가 좋은 옷, 값비싼 옷을 입은 것이 곧 남보다 위에 서는 것이라 착각하게 되어, 그것이야말로 허세(虛勢), 허실(虛實)인 것이다. 의생활이야말로 분수에 맞는 생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다만 덮어놓고 겸소한 생활만 한다는 자신 아래 옷이 더럽혀진 것이 일하는 상징(象徴)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옷이야말로 깨끗하게 입어야 자기를 위해서 또는 남의 눈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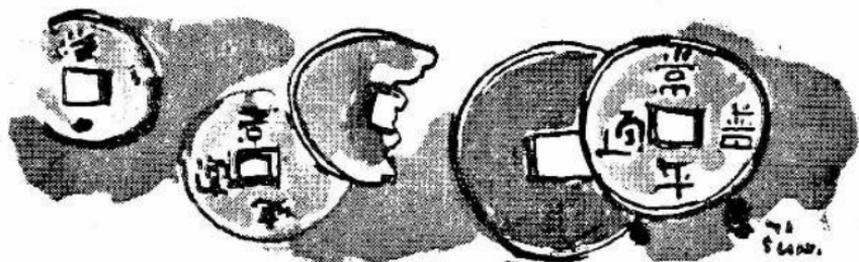
화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시대감각에도 뒤떨어지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분수에 알맞는 것이며 비록 가정에서 입는 소위 가정복도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즉 집에서 막일하는 옷이야 말로 자주 빨고 어느 정도 시대감각도 살려야 된다. 이것은 일반 직장에서의 작업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업복도 일종의 유니폼인 만치 남이 보기에 입은 사람의 어떤 정신적 자세가 깃들여 있어야 한다.

다음은 식생활인데 분명히 우리 한국사람의 식생활은 해방 전보다 고급화되었다. 음식이란 맛있고 영양가 높은 것이어야 할 것이나 우리들이 하루 세끼 드는 식사에는 여러가지 영양요소가 적당하게 자연 배합되어 있다. 영양있는 것을 골라 먹자. 맛있는 것을 찾아 먹자 하다가 미식(美食)증에 걸려 그것은 여러가지 문화병 소위 당뇨병(糖尿病)이니, 고혈압이니 하는 병을 얻어들이

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또한 건강한 생활에는 모든 음식에 식욕이 반듯이 나게 되고 섭취한 다음에 소화력도 충분하여 체내에 들어온 식물의 영양을 거의 다 섭취하여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하되 다만 지나친 미식은 미소화(未消化) 미흡수(未吸收)된 영양물을 밖으로 내버리게 된다. 식욕을 자연히 일으키는 충분한 일상활동, 기분좋은 심상으로 음식물을 대하는 것이 가장 알맞는 생활이다. 그렇다고 영양가 낮은 것을 구태어 취하라는 것은 아니며 조식(粗食)에서 오히려 각기(脚氣)같은 병이 예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주(住)생활인데 원래 한국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거의 전부를 주택에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 건축자재가 국산 고급품이 속출하고 건축방법이 기술적으로 서구화하자 분에 넘치는 호화로운 주생활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 미국 사람 격언에 테이크·엘리펀트라는 말이 있다. 뜻은 별안간 코끼리를 갖게 되자 어떻게 다룰지 모른다는 뜻인데 필경도 없는 넓은 면적의 주생활을 돌보기에 몸과 마음이 시달려 정녕 필요 없는 정력이 낭비되고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가구치우기 위한 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오락인데 가족친지끼리 손수 만든 도시락을 만들어 싸갖고 버스를 타고 가까운 들과 산으로 나가 가족들이 다 함께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아직도 소중한데 비행간 또는 고급 전용세단 자동차 그것도 이름조차 모를 오픈·카를 타고 유휴지를 찾아 한시간에 몇 천원씩 내고 모터보트를 휘몰고 소비성 강한 이모저모의 놀이로 기본배자, 먹자, 놀자 하는 것은 정녕 모처럼 건설증산 도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돈 적게 들이고 모두 즐겁게 노는 오락이야말로 오늘의 과제인 알맞는 생활에의 지름길인 것이다.



저축하는 마음

김 성 환

<한국은행 총재>

1. 머리말

1960년대 후반기부터 추진된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개발도상국가군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고도성장의 실적을 보였다.

과거 3,000만불선을 오르내리던 수출의 10억불 고지 확보와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G.N.P 성장률과 1인당 소득 223달러 등 국민경제의 양적 확대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개발노력과 우리 국민의 경제성장에 대한 뜨거운 의욕의 표현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국내저축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거니와 이러한 저축은 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액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자율 등 수익성의 보장이 또한 저축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그 밖에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량도 저축증강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우리 자신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변동과 산업생산활동 같은 측면도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안정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내자(內資)동원의 극대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적절한 저축추진정책의 전개가 요청되거나와 이에 앞서 전국민의 저축생활화 운동을 위한 올바른 정신자세의 확립이 요청된다.

2. 국민저축의 추이

일반적으로 국민경제 상의 저축은 정부저축과 가계저축 및 기업저축으로 구분된다. 이 속에서 정부당국의 재정적 수단에 의한 정부저축은 정부가 직접 동원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방법이지만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의 한계성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금융적 수단에 의한 가계와 기업의 자발저축이 필요할 뿐더러 해외저축재원이 작아지는 현 단계에서는 금융자산의 확대를 통한 국내저축이 증대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의 국민저축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융기관 저축성 예금;

1965년 9월말의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총예금은 연평균 6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971년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은 6,313억원(금전신탁 제외) 달하여 금리현실화 이전 해인 1964년말에 비하여 30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② 금전신탁;

1961년 11월 정부의 장기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신탁업 육성방침에 따라 5개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 금전신탁은 그동안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1968년 12월 한국신탁은행의 창립을 계기로 신탁수탁금리의 유리한 조건으로 그 신장도가 괄목할만 하여 71년 3월말 현재 동 수탁고는 929억원의 실적용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저축 중의 12.8%를 차지하게 되었다.

③ 생명보험;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의의와 장기적인 국민저축자원 형성의 한 Sector인 생명보험은 1971년 3월말 현재 계약고가 42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보험은 계약저축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일반대중에게 크게 「아필」되지 못한 실정이다.

④ 우편저금;

저축수단으로서의 우편저금제도는 은행점포망이 없는 전국적인 우체국망을 통하여 영세저축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 투융자기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바 이 우편저금은 71년 3월말 현재 153억원에 달하고 있다.

⑤ 증권저축;

이상과 같은 저축형태는 주로 가계와 기업부문의 잉여자금(剩餘資金)이 금융기관에 저축되어 이를 통하여 필요한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여하는 이른바 간접금융(間接金融)의 자원이 된다. 그러나 기업금융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는 증

<저축하는 마음>

권시장을 통한 주식과 유가증권의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활발한 주식의 공개를 비롯한 배당금리의 보장, 거래제도의 보완 등 증권시장의 조속한 육성을 통한 증권저축 증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저축구조의 개선과 영세

저축의 저변확대화 경향

제 1,2차 경제개발계획에 책정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예금이 기여한 공헌은 더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특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을 주축으로 한 장기성 저축성 예금의 증가와 영세저축의 비중(比重)이 증가하는 경향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우선 예금거래자의 기한별 선호를 살펴보면 최근 몇년동안 정기예금자의 80% 이상이 1년 이상 만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정기적금의 경우는 1년제 이상에 대해서 40%, 2년제에 대하여 55% 이상이 집중됨으로써 저축선호에 대한 안정적이고도 장기화 현상을 보여 주었다.

한편 금전신탁에 있어서는 3년제 이상의 장기성 수탁액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기예적금 또는 금전신탁의 장기화 경향은 소득의 증가와 물가의 안정 등 기초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다. 또한 저축구조면에서 영세저축자의 비중증대는 국내저축 증강에 고무적인 일면이 되고 있는바, 1971년 제1분기 중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이 26% 이상을 차지하여 소액예금의 구성비가 차츰 증가함으로써 영세저축의 기반이 더욱 굳혀지고 있다.

4. 저축생활화 운동

저축성 예금의 팽목할 만한 증가와 저축구조의 개선을 골로 일반국민의 저축심양양을 위한 계몽활동과도 직결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저축추진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70년 저축시범지역을 설치 그 지도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 어린이의 저축심양양을 위하여 어린이 예금 유치에 주력하여 왔다.

① 저축시범지역의 설치와 운영

우리나라 농촌의 부흥을 돕기 위해서 20개 조금 못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저축시범지역 저축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저축시범지역을 통한 저축추진은 현자 행정기관을 비롯한 여성 저축생활중앙회, 4H「클럽」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당해지역의 특수성에 입각한 저축방법, 예컨대 「절미(節米) 운동」, 「1통장 갖기 운동」, 「송아지 적금」, 「돼지세끼 적금」 운동 등 실패저축과 은행저축의 양

면에서의 「کم페인」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동지역 설치 이래 저축성 예금은 1971년 3월말 현재 약 34억원의 증가실적을 올렸고 약 55억원의 금융자금대출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였다.

② 어린이 예금의 권장

한편 한국은행은 재무부와 문교부의 협조를 얻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저축 습성배양과 영세저축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하여 1970년 4월부터 어린이 저금통을 배포하는 동시에 각 금융기관 창구에 어린이 창구를 특설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저축운동을 추진한 결과 1971년 3월말 현재 41만좌에 6억원의 예금실적을 올렸다. 이를 전국 555만 명의 국민학교 학생수와 대비한다면 13명 중 한 명꼴로 예금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저축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한국은행에서 71년 3월 중에 실시한 「저축시범지역에 대한 저축시장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가구수 중 91.0%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에 의하면 자녀에게 저축의 중요성과 검약(儉約)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가구수는 응답가구수 중 91.3%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의 저축실양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5. 맺는 말

오늘의 저축은 장차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보람찬 내일을 약속하기 위한 경제행위이다. 밝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풍요(豊饒)가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자발적인 저축생활을 온 국민이 해야 한다. 저축하는 국민은 장래에 있어 경제의 성장발전과 풍요한 복지사회의 실현이 약속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선진국의 대열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우리가 마련하여야 할 내자 31,249억원은 총투자액의 80.2%를 차지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생활을 억제하여 저축을 증강시켜야 될 것이다. 건전한 소비「패턴」의 조성은 정책 입안자의 마음 속에서만 맴돌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저축하는 마음 속에서 싹터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패전의 쓰라린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부강을 이룩한 독일과 일본의 실례를 거울삼아 우리는 오늘의 반저축생활 환경을 하루 속히 개선하여 전 국민이 합심, 저축을 통한 경제발전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과 충성심을 생활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전시켜 조국 근대화를 촉진시켜야 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여기 창의를 노력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늘의 군인자세를 더듬어 보며 우리가 할 내일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설정된 조국 근대화의 목표 60년대에 발전의 소지 마련

지금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로 민족중흥을 일으켜 낙후되었던 이 나라를 중진국 대열에 끼게 하려고 온 힘을 증산과 건설에 기울이고 있는 한편 번영되는 조국을 지키는데 그 어느 때 보다 굳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든간에 그 나라가 선진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그 대부분이 단계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쳐 공업분야에서 그 기틀을 세웠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때문에 우리는 비록 늦기는 했으나 60년에 접어들어 조국을 근대화 해보겠다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도 남들 처럼 잘 살아 보자.』

『우리가 남에게 뒤 떨어질 수야 있겠

는가?』

하는 새로운 결의가 꿈틀거리기 시작 한 것이 5·16혁명이었다.

이 나라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끌어 올려 내 민족도 다른 민족에 결코 못지 않다는 것을 과시해 보자고 일어선 것이 역시 5·16민족혁명이었다.

부패와 무능했던 과거를 깨끗이 씻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립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만 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발전「코오스」를 탈피하여 도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를 위해 박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열기를 호소했고 단결을 촉구했던 것이다.

단결 없이는 도약의 힘이 없을 것이요,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실에 있어서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요건으로는 첫째로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생산투자 비율이 연간 10% 이상 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한 개 이상의 제조업 부문이 실질적인 고도 성장을 갖어야 하고, 셋째로 정치나 사회제도가 그러한 성

◀적극적인 참여의식▶

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력을 밀어주도록 정부 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연 도약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조국을 근대화시켜 민족중흥을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귀결되는 것이다.

다행히 그 결과는 발전의 첫째 요건인 생산투자 비율이 해마다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둘째, 여건이 생산 구조면에서도 광·공업분야인 제2차 산업이 해마다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세번째 여건이 정치 및 사회 제도면에서 볼 때 박대통령이 이끄는 제3공화국 정부는 그 동안 증산·수출·건설을 국가시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고도성장을 강력히 밀고 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5개년 경제계획인 것이다.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우선 마련한다는 것이 첫째 목표였던 것이다.

그런데 위해서 우리는 저축했고, 근면했고 겸손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 전디고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내일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누워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확고한 자세로서 밝은 내일을 향하여 힘찬 전진을 다짐하며 뚝쳤다.

이렇게 보아 우리 민족은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구축한 셈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본 미국의 「W·W·로스토우」교수는,

『...가장 희망적이고 내일이 기대되는 한국은 분명히 도약단계에 들어서 있는 가장 상징적인 나라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의 도약단계의 기간을 보면 보통 10년 내지 3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완수로 다시 말해서 최단시 일인 10년으로 줄였다는 사실이다.

그 만큼 조국근대화가 앞당겨지고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펍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우리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도 부지런하면 남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된 것이다.

모든 일에 자신을 갖고 임한다는 것은 성패에 관계없이 50%의 승산은 갖고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없이 시작하는 일 보다 유리하리라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내일, 더욱 추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조국근대화의 촉진 요소가 곧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다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조국 근대화라는 대업을 성취시키는데 총진군하고 있다.

이 대열에 국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 나의 일이요 또 먼날의 후손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요, 그 촉진 요소가 바로 적극적인 참여의식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것을 사회변동 과정에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외생적인 요인이요 다른 하나는 내생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정신적인 착상을 요건으로

하고 행동양식의 변화를 선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여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이 한다고 따라간다는 식의 사고방식보다 내 스스로가 해야 하겠다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 행동과정이 역행적으로 진행될 경우는 정신기저의 허약성을 드러내기 쉬운 것이다. 알기 쉬운 실례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식민통치 내지는 신탁통치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된 많은 신생 국가들은 오랜 억압과 전제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유의 본질적 의의는 선진 「유럽」사회의 자유나 후진국 사회에서의 자유나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후진 사회에서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선진사회에서의 자유의 개념과 행동 양식면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흔히들 자유를 가리켜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고들 말한다.

「유럽」사회에서 피를 먹고 자란 나무가 마치 꽃병의 꽃가지처럼 뿌리없이 후진국에 옮겨져 왔기 때문에 그 자유의 개념은 F.W. 리그스 교수가 말하듯이 글썽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

오랜 역사적 시련 위에서 쌓아올린 그 자유를 하루 아침에 외형만 받아들이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기저는 받아들여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의 「하이드·파크」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자유와 후진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자유는 같지 않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국 근대화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데 있어서도 그 근대화를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우리는 의식적인 면에서나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물론 뚜렷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밝은 내일을 창조한다는 「비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온 국민의 잘 살아 보겠다는 의식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도 말했지만 조국근대화란 것은 표면적인 건설이나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에 의거하거나 피동적인 움직임은 절대 금물인 것이다.

자각하고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만이 알찬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해 나가야 하겠다. 근대화를 성취하려는 주체로서의 인간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요인이 근대화의 요인으로서 효소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한 외형적인 근대화는 화병의 뿌리없는 꽃가지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적인 요인이란 이것을 다시금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근대화의 기본정신 체득이요 다른 하나는 전통주의적 누습을 고수하려는 정체관념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조국근대화를 이룩하겠다는 자각과 목표가 설정되어 의식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경우와 오랜 인습에 따라 체념하고 좌시하려는 낙후된 생각의 두 가지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의 내부적 갈등은 상당한 정신적 시련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사고 방식을 전환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 그것은 사고방식에서 행동의 요인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사회변동의 요인으로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근대화의 기본정신을 알아보기로 한다.

근대화의 기본정신은 첫째, 힘과 효능의 정신, 둘째, 합리성의 정신, 셋째, 혁신성의 정신, 넷째, 보편적 공민성의 정신, 다섯째, 공공참여의 정신이 그것인데 이 다섯가지 정신은 경제·사회나 정치의 모든 영역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라고는 하나 근대화는 반드시 인간 외적 요인인 자원, 자본, 기계, 제도 등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자체의 사회적 의식적 제요인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이 국가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일에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식이 행동으로 표시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서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서 오는 모든 영향을 돌이켜 살펴 보면서 근대화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체득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근대화의 정신을 체득하기 위해 그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믿는데서 자발적이요 솔선적이요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발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창의·출선수법 책임완수는 능력개발이요, 자각의 표현

이상 여러가지 면에서 교착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생활태도는 사회풍조적인 여건에 의하여 많은 지배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외부적인 자극을 통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보다 진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며 보다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설계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그런 실례를 우리 공군부대의 생활주변에서 찾아보고 그가 군은 물론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에 기여하는 공을 찾아보기로 하자.

× ×

미 공군에 의해 창 정비 기술지원을 받아온 최신행 항공기 요격관제용「레이다·스코프」를 우리 군 기술진이 창 정비에 성공함으로써 막대한 군원예산을 절약 하게되었다.

지난 27일 공군9863부대 통신전자창 정비부 통신「레이다」반장 박성대 대위(29)가 주축이 되어 윤태만 준위, 박지환 중사 등 공군 기술진이 1천5백51시간이라는 긴 작업시간과 7백 17종의 자재를 들여 창 정비에 성공했다.

그런데 「레이다·스코프」장비는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행으로서 북괴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항공기 요격 관제용 주탐색 레이다가 부여하는 목표 물의 정확한 거리 및 방위를 제시해 주는 고성능의 장비로서 현재까지는 미공군에 의해 정비되어 왔다.

이로서 71년도부터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행 「레이다·스코프」장비는 모두 우리 기술진에 의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전우신문·70.7.29일자 3면 참조>

× \ ×

◀적극적인 참여의식▶

우리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창의와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는 곧 조국근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또한 이 나라의 부강에 적극 참여하는 건이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밝아오는 내일을 위하여 온갖 구상력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 미래의 구상은 곧 모든 개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은 그 나라 경제역량의 확대를 기도하는 개발 형태이며, 사회개발 운동은 그 나라 사회의 발전을 시도하는 개발형태인가 하면 인간에 중점을 기울여 그 능력을 배양하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인간 개발의 형태인 것이다.

근대화를 위한 그 개발대상의 분야가 어느 것이 되었던 간에 가장 중핵적인 것을 인간에게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그 활동적 의의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자원의 확대활용이나, 자연계의 변화들 응용하는 것이나, 또는 모든 물질 문명을 주도해 나아가는 주체가 바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은 인간의 위대한 창조력의 소산인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오늘날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현 시점에 서서 모든 문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군인인 우리는 무

엇으로 조국 근대화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리라.

군인의 사회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는 다른 일반 사회집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우리는 국민 그 누구보다 애국심을 행동으로서 강력히 나타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되는 일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체계적인 조직 기반 위에 집단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가만 있으면 그를 지원 한다는 정신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군인의 신분이요 청년의 기백인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무기를 다루는 기술적 관리능력을 연마하고 체득한 집단이란 것이다.

무기를 다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특수성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기에 대한 성

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사소의
방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무기의 성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발전 개발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국가를 위한 적극
적인 참여의식인 것이다.

네째로 분업적 기능 요소를 가장 잘 활
용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각각의 적
극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한 조직을 제대
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
겠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기계에서 못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보자. 그 기계는
전체의 몇 만분의 일 그밖에 안 되는 못
하나 때문에 기계가 멈출 것은 물론이
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군인들도 나 한 사람 정도야 하는 안일
하고 나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군인이
60만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것은 파괴물 의미하는 것이요 단결을 저
해하는 요소가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
연한 일이라 하겠다.

다섯째,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수용
도가 높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은 사회의 어느 부면
에서 찾아 볼 수 없으리만치 교도의 것
이라는 데 자부해도 좋으리라.

「레이다」나 「엔진」 조종 등 우리는 군

에 들어와서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통해
그것을 조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능력 그 기술은 장차 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런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임
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기계에
대하여 믿건리고 충실히 숙지한다는게
중요하다.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
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당하는 일에
자신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

여섯째로 세대적으로 20대의 젊은이의
응징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정열과
활력을 최고도로 발산할 수 있는 힘의
집단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자각있고 자율적인 행동으로
70년대에 이룩해야 조국의 근대화작업에
더욱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소원인 통일
기반을 굳건히 다져야 하겠다.

그것에는 우리 군인, 특히 젊음을 상
징하는 우리의 조직으로 국민의 앞장에
서야 하겠다. 그것이 너와 나의 사명으
로 모든 일에 적극참여하는 의식적 행동
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 전우신문 편집부실장 김 제1
취재 부장>

숙녀론



정 인 섭

<외국어대학원장>

숙녀(淑女)라는 말은 중국 시전(詩傳)의 첫 구절『요조 숙녀, 군자 호구(窈窕淑女 君子好逑)』라는 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 뜻은『요조한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라는 뜻이다. 즉 숙녀와 군자는 짝을 이르는 슬어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요조한 숙녀가 군자, 즉 요새말로 신사와 조화되는 대상자라고 해석했다.

사전에 보면 숙녀라는 뜻을『선량하고 부덕(婦德)이 있는 여성』이라고 했

는데, 서양서 숙녀에 해당하는 말이 레이디(Lady)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부라는 뜻 이외에, 귀족이나 상류의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교양과 덕행이 갖추어 있는 여자, 혹은 양전하고 아름다운 여자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때런 나는 여기서 숙녀라는 문구의 뜻을 정신적인 자세와 외모의 인상의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그래서 반드시 상류의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속녀라고 할 수 없고,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냥 속녀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연설 같은 때 맨 먼저 『신사 속녀 여러분!』하는 따위의 형식적인 인사로 사용하기에는 『속녀』라는 개념이 너무도 아깝다.

나는 속녀라는 말을 진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성은 역시 『요조 속녀』라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서 『요조』라는 말의 뜻을 우선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

어떤 국어사전에는 『요조』라는 말을 세 가지로 분석서,

- (1) 부녀의 행동이 아리땀고 얌전한 것.
- (2) 산수나 건축 따위가 깊고 조용한 것.
- (3) 사물의 이치가 깊은 것.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요조 속녀』는 말과 행동이 얌전하여 안존(安存)한 인상을 주는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인상을 주는 여성을 정신적 자세나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 설명의 편의상 나는 인생관을 소유욕(所有慾)과 애정욕(愛情慾)과 운명욕(運命慾)의 세 가지 방향을 기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소유욕에 대해서는 이기주의

적이 아니어서, 자기의 분수에 만족을 느끼면서 무리가 없는 재산처리를 하는 여성이라고 본다. 요새말로 치맛바람이 새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지나친 몰욕주의자는 속녀의 범주에 들 수 없다.

둘째, 애정욕에 대해서는 역시 수줍고 부끄러움이 있는 가운데 구원(久遠)의 애정을 품기는 듯한 여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유행을 따라서 화장이나 옷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은 속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겠다.

셋째, 운명욕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나친 허영으로 자기 자신이나 남편의 지위나 벼슬을 탐을 내서, 미신이나 망상을 위해서 집쟁이 집이나 판상쟁이들의 말을 믿어 동분서주한다거나, 교양이나 자각이나 신앙이 부족하면서 절이나 교회당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위한 천당이나 극락의 추구에 광분하는 것은 속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약 위와 같은 이상적인 속녀가 있다면, 그 여인은 남성의 영원한 애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여성의 감화로 상대방의 남자는 그야말로 신사의 지경으로 유도될 줄 안다. 여성의 의도

나 얼굴은 운명적이어서 반드시 미인이어야만 요조 속녀가 된다는 법은 없다.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면, 그만큼 위에서 말한 교양에 노력하는 결과로, 그 여인에게는 어딘지 남이 경멸할 수 없는 품격이 풍기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얼굴이 예쁘게 생겼을지라도 위에서 말한 교양이 없다면, 어딘가 칭하고도 야비한 인상을 주게되어, 양심있는 남성은 그런 여인을 영원한 애인으로 삼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교양이란 것은 그리 높은 학문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중학교만 마쳐도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대학 졸업생보다 더 믿음직한 품격을 풍기는 여인도 있다. 그와 반대로 대학이나 학위를 가진 여인이라도 속녀의 자격을 못가진 여인도 흔히들 본다.

과거의 한국 여성들은 어딘지 남성들에게 억눌리고 사회적 진출에도 기회균등이 부여되지 않았던 어두운 면이나 비굴함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위에서 내가 주장하는 속녀의 모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요, 자율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진출한다 해도, 여성의 육체적, 심리적 특성에 맞는 직업을 구해야 할 것

이며 무작정 남자와 겨누기 위해 아무것이나 뛰어들어 간다는 것은 속녀의 취할 바 길이 아니다. 소유욕에서 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현재 여자 사장들이 간혹 있는 듯 하나,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분들의 태도는 남자 이상의 배금주의(拜金主義)가 있어 오히려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다.

애정욕에 있어서 수집은 듯한 영원의 미소는 『모나리자』만의 특점이지는 안 된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자유연애 시대에 있어도 필요하다. 여성이라는 육체적 조건만으로는 진정한 애정이란 것이 지속될 수 없다. 『할·반스』에는 수집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남자의 시선을 이끌지는 모르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미련은 남기지 않는다.

운명욕에 있어서 오늘날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며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남성들과 비기게 되었다 해도, 여성의 품격을 상실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속녀의 자격으로서는 합격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는 무슨 종교적인 집단에 있어서 교주의 노릇을 하는 여성들이 간혹 있는 것 같으

나, 자기 자신이 위선적으로 구세주와 같은 행세를 하며 세상을 속이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ibi의 잡교에 불과하다. 천주교에 있어서 성모마리아를 서양 사람들은 Our Lady (우리들의 숙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 품격에는 머리가 수그러진다.

숙녀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보다, 나는 신사라는 남성과의 상대적인 존재에서 보기 때문에 남녀의 상호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남녀 관계는 받은 신비롭고 받은 노력이라고 본다. 신비롭다는 말은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는 싫다는데, 다른 남자는 좋아 죽겠다는 따위를 말한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여성이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있기는 있을 터인데, 그 여인을 발견하기가 힘든 것이다. 과연 부부가 되어서도 영원히 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여성이나 남자가 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하면, 어떤 때는 서글픈 생각이 난다고들 한다. 남녀의 개성이 각각 다르고 육체적 조건에 차이가 있어, 그 적응성이 복잡해서 천변만화일 것이므로 해서, 조화를 기대하는에는 우연한 결과를 맺는 수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미신적인 궁합이란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어 일색이더냐』하는 말이 결코 맹목적인 사랑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행복도 있겠지만, 아무리 상대방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결혼을 해도, 나중에 파탄이 생기는 일이 허다한 것도, 남녀 관계가 받은 신비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녀 사이는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수수께끼같은 숨막꼭질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여성이 위에서 내가 말한 숙녀의 세 가지 조건인, 겸양한 소유욕, 수줍은 애정욕 및 안전한 운명욕을 가진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요조 숙녀의 교양과 미덕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이런 소질은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후천적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여인은 신비로운 남녀관계에 현실적인 적응성을 가미하는 것이니, 이러한 신비와 노력의 두 가지가 잘 조화됐을 때 그 남녀 관계는 원만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다.

신사론

이 법 준



<이대 법정대 교수>

우리나라 사진을 찾아보니 신사란 ① 품행예의가 바르고 학덕 기품을 갖춘 절잡은 사람, ②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 혹은 상류사회의 남자, ③ 일반 남자에 대한 미칭, ④ 양복으로 의젓하게 차려입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되어있다. 원래 신사 즉 Gentleman의 어원은 라틴어인 Gentilis (양가출신)라고 하는데 19세기까지 영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귀족계급은 아니되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지위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신사라고 불렀으나 20세기에 와서는 연설 첫 마디에서 「숙녀 신사 여러분」하고 부르듯이 일반 남자의 호칭으로 사용되거나 지위, 재산에 관계없이 품행이 단정한 남성을 신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사의 개념은 영국에서도 시대에 따라 각기 달랐으며 오늘날 신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에 따라 그 뉴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나에게서는 「신사」의 어감이 웬일인지 차림새나 행동이나 지나치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연상시켜서 오히려 매력이 없는 남성상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신사다운 신사의 모습을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 가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택시잡기 힘든 곳에서 여성이 겨우 잡아놓은 택시를 홀랑 잡아타고 달아나는 암체족속, 말끝마다 상스런 목을 펴보는 무식한 남성, 지나가는 여성의 얼굴을 뚱뚱 쳐다보면서 가래침을 목으로 끌어올려 탁 뱉어버리는 더러운 남성, 부하를 마구 때리거나 아내를 구타하는 무지복매한 원시적 남성, 찹찹 후르후르르룩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란하게 음식을 먹는 보기 딱한 남성, 아내이건 애인이건 여성 동반자와 손을잡고 가면서도 다른 여인에게 환눈 파는 바보스런 바람둥이 남성, 교

묘한 모락과 음모로 남을 짓밟고 한 자리 한 후 거드름 피는 가증스런 남성, 나쁜짓은 말아놓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척 하는 이중인격자, 머리 기름독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과도 같이 번들거리게 빗어채친 머리에다 코를 찌르는 듯한 싸구려 향수냄새를 풍기는 질식할 남성 등등……은 나쁜 아니라 아마도 모든 숙녀들이 혐오하는 대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양복으로 의젓하게 차려입은 남자나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상류사회의 남자가 아니라 국어사전의 첫째 뜻 즉 품행에 의가 바르고 학덕 기풍을 갖춘 점잖은 사람이 곧 신사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결론에 좀 더 살을 부치고 싶다.

어느 한 신사의 말을 인용하면 남성이 바라는 이상적 여성은 「어떤가 남자가 하나 빠져서 모자라는 듯 하면서도 주어진 일에 능률적이며, 똑똑하고 영리하면서도 따지지 않는 바보스런 면이 있는 여인」이라고 한다. 몹시 이율배반적이며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인상인 것 같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바라는 이상적 남성 또는 이상적 신사형은 지나치게 말쑥하게 신사차림을 하고 지나치게 완전무결하여 실수라곤 저질러 본적이 없는 무미진조한

남자나 아니라 예의범절에 철저하면서도 인간적인 요소를 상실하지 않으며 박력이 있으면서도 초연한 듯한 남자. 확고한 주관과 자신으로 사소한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 남자, 교양미를 상실하지 않고도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남자, 그야말로 말로서는 형용하기 힘든 그 무언가 신사다운 멋과 기풍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의 몸가짐에서 은근히 풍겨나오는 남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사의 본질은 Fair play원칙을 몸도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Fair play 정신이 강한 신사는 연애를 하는 데에도, 가정을 다스리는 데에도 성공할 뿐 아니라 남의 비난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남성일 것이다. 바로 이 Fair play 정신에 익숙한 신사의 수가 많아진다면 남성만의 특권을 고집하여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에서 헤어날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풍토도 개선될 것이다. 바로 이 Fair play rule을 지킬 줄 아는 신사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건전한 정치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신사란 숙녀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한 남성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제관계에서의

소련과 중공



이 영 희

<합동통신 조사부장>

작년 봄, 소련은 서독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때 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주한서독대사관을 찾아간 기자가, 소련이 서독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고 묻자 「빌프레드·사카신」 대사는 서슴치 않고 『중공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어떤 국제정치분야의 전문가가 『내년(1972)의 미국대통령은 미국의 정당이 지명하거나 미국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 태동이 지정한 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의 평이 사실의 전부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와 국제관계, 심지어는 웬만한 국가들의 내정의 방향까지도 이제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이 크게 좌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다.

최근 앞을 다투어 중공승인과 중공과의 외교관계수립에 뛰어드는 많은 나라들이나 미국정부의 잇달은 대중공미소(微笑)정책은 중공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설명의 여지없이 말해준다. 삼년여에 걸친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끝내고 국제정치의 무대에 다시 나선 중공은 이미 4년전의 중공이 아니다. 그 여파는 한국에까지 벅차게 미치기 시작하였다. 1, 2년전까지만 해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듯이 생각하고 국제사회를 살아보려던 우리 정부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까지도 이제는 중공의 압력을 생활에서 뿌듯이 느끼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세계의 초강국으로 등장했거나 그것이 되려고 하는 중공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소련이다(한국 등 인접 약소국가는 논외로 하고).

4, 500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유에서나, 같은 사회주의 체제이면서도 세계의 3분지1을 접하게 된(인구로서는 2분지 1) 사회주의 세계의 주도권을 다투는 뜻에서나 소련과 중공의 관계는 한 때의 「동맹」이기 보다는 「가상적국」 내지는 무서운 경쟁자적 관계로 변질했다.

1. 현상유지 국가와 현상타파 국가

국제 사회에서의 중·소관계는 한 마디로 현상유지국가와 현상유지타파 국가 간의 전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모두 사라졌거나 현존하는 국가에게 적용되어온 법칙으로서 중·소 양국의 관계도 협조이기 보다는 대립의 측면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는 이론의 토대가 되어준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미·소의 양대국가에 의해서 전후 30년 가까운 세계 권력질서가 개편단계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미국이 지배하던 이른바 서방세계 즉, 자본주의 세계도 프랑스의 「드골」을 비롯하여 중간질서적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의 「팍스·아메리카나」를 거부하고 나섰듯이 사회주의 세계 질서를 지배하던 「팍스·루시아나」도 강력한 중공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통털어 핵 군사력과 그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어루어졌던 전후세계의 「팍스·롯데—아메리카나」는 중공이 이것을 「팍스·시누아—롯데—아

메리카나」로 개편하려는 과정에서 삼각형의 상호색인과 상호억제의 역학관계를 전개할 것이다.

소련과 중공의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세계적 차원과 규모에서 「참피온」과 「도전자」의 관계를 구성하게 마련이다. 어떤 「참피온」도 끝까지 싸우지 않고서는 그 패자의 지위를 내놓으려 하지 않기 마련이다.

소련이 이미 구축하고 소련에 유리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과 이것을 깨려는 노력은 모든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중·소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그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주의 세계의 지도권 쟁탈전

최근 (1971년 6월) 중공을 방문한 「루마니아」 국가원수 「초세스쿠」가 북경을 떠나면서 발표한 양국 공동성명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상호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특히 강조했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은 어느 국가의 경우나 국제사회생활의 기본원칙이 되어있는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 루마니아는 그보다 더 독립적(또는 친중공적)인 알바니아와 더불어(그리고 「유고」와 마찬가지로) 소련을 사회주의 국가의 후진국으로 확립하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거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회람의 사회주의적 혁명이 일어났던 1947년에 「트루만」 미국대통령이 선언한 「트루만 독트린」이나, 1955년 「레바논」정변 때 우익 자본주의 정권이 좌익세력에 의해서 전복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력으로 이에 간섭하겠다고 선언한 「아이젠하워 독트린」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대해 「드골」 프랑스가 도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질서파괴」행위이다.

사회주의 세계는 크게 나누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와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로 분열되어 있다. 소련과 중공은 이와 같은 지역적 「헤게모니」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상대방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침투와 유

인환동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와 국민들이 점점 「나쇼나리즘」 사상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은 중·소 양대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주도적 위치나 우월한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도록 강요했다. 공식적으로는 「모스크바」와 북경은 사회주의의 「백카」도 성지도 아니다. 그러나 강대국 「에고이즘」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와 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동구의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소련권에 위치하면서 차라리 중공에 가깝거나 중·소 사이에서 자주적 지위를 승인받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크게는 중공권이라고 볼 수 있는 「아시아」의 월명이나 북한은 최근 중공과의 결속을 강화한 듯 하지만 전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앞으로 소련과의 유대를 도의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중간적이거나 자주적 입장을 취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소 양국의 권내의 교전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조세스쿠」의 평양방문에서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이 그 제3항에서 『세계의 사회주의에는 그 중심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언명한 것은 그들이 중·소 양국에 예속되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결의를 선언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소련은 일단 동구 국가들의 결속과 지역적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최근 소련이 동서양대 군사동맹의 해체, 기지의 철수, 쌍방 진영의 병력감축 및 군비축소를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소련과 소련권의 서쪽 지대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중공과 면하는 동쪽, 즉 대중공관계에서 안전과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몇 년전에 소련이 미국과의 전략(핵)무기감축회담을 개시하고 얼마전에는 공·방양면의 전략무기 제한원칙에 미·소가 구체적인 합의를 본 것도 미국을 소련의 편에 끌어들이어 대중공관계를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중공은 갑자기 대미관계 개선에 대담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소련의 노

◇국제관계에서의 소련과 중공◇

력을 상쇄하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 양대사회주의 국가의 이와같은 의도를 적절히 감안, 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면 중·소간의 재접근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구주 국가들과 중공과의 국교확대, 중공시장의 대서구 개방정책 등은 소련을 견제하는 주 은래 외교의 가장 뛰어난 포석이다. 이와 같이 하여 중·소양국은 미국과 서구의 제 3자를 상대로 하는 국제정치의 무대에서도 그 경쟁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3. 제 3 지역에서의 정치적 투쟁

중·소의 각축은 당연히 약 80개를 헤아리는 이른바 비동맹 중립국가들에서 한창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이 제3지역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제도적 외교에서이고 또 하나는 그들 국가 내의 혁명민족해방 운동들과의 관계에서이다.

A. 제도 외교의 지원

아시아·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과 중남미의 중립 또는 비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소련과 중공의 협조관계는 62년으로 끝났다. 주 은래 수상이 55년의 「반동」회의의 성공은 소련은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적지않게 작용했다. 62년 인도지나 분쟁을 해결한 제네바 국제회의는 주 은래 중공 수상의 무대였지만 그것도 소련과의 긴밀한 협조로써 가능했다.

결정적인 귀결은 62년 11월, 중공과 인도사이에 국경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련은 중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인도의 편을 든 것에서 시작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충돌에서 중공은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반면, 소련은 인도에 기울면서 양국 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사교 나쳤다. 소련 영내의 「타시켄트」에서 도인 인·파 양국 수뇌가 이른바 「타시켄트」 회담으로 논쟁의 잠정적 휴전을 성립시킴으로써 소련은 중공에 외교적인 일격을 가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그후 「파키스탄」과 중공과의 관계는 인도와 중공과의 관계에 반비례해서 급속히 밀접해지고 현재 중공은 「파키스탄」에 대해

주요 경제, 군사지원국이 되어있다. 아대륙의 이 두 대국은 중·소관계의 향상없이 그 관계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며, 인·과 양국의 관계변화는 그대로 중·소관계에 반영될 것이다.

중동전쟁은 아랍 국가들에 대한 쌍방의 공식의 교전에 일단은 역관계의 승부를 낸 격이되었다. 논쟁당사국들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소·중관계는 표면적이기보다는 내면적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군사력, 이들 국가에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소련의 정치, 경제적 기득권 때문에 당분간 이 지역은 중공이 미치지 못하는 소련의 영향권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집트」와의 사이에 체결된 소련의 상호원조협정은 제도적 외교면에서는 일단 소련이 지역국가들에 작용할 수 있는 중공의 기회를 크게 봉쇄했거나 제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B. 상황외교의 차원

중공은 제3지대에서 소련보다 우세한 지위를 누리는 국면이 있다. 비합법적 민중운동이나 식민지 인민의 민족해방 운동이 그것이다. 미국의 반공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는 아시아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 약 5분지 2의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쿠바와 「치레」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국가와도 정식국교관계가 없는 중남미 지역 20여개 국가에 중공외교의 초점은 맞추어져 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는 정권의 비민주성, 보수성, 경제적 빈부의 극심한 격차,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제도를 외부세력의 물리적 지원으로 유지하려는 반식민지적 정세때문에 이에 항거하는 강력한 좌익 세력 또는 혁명적 민족해방 운동이 존재한다.

중공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의 인민의 무력혁명에 의한 해방과 민족독립을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은 소련보다는 중공쪽에 더 관심을 갖게된다. 이 경우에 소련은 급격한 변화가 소련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않는다는 현상유지국가답게 현지정권의 편에 서게 된다.

◇국제관계에서의 소련과 중공◇

2차대전 종전 후 초기에 회랍, 「이란」, 「시리아」에서 소련이 혁명운동을 묵살하거나 오히려 현지정권을 도와 혁명운동을 말살한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당시에는 중공은 아직 그와같은 운동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때라 이 문제에서 중공과 소련의 대립관계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은 달라졌다. 중공의 능동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정신적 표본을 중공에게서 찾으려는 세계 각지의 혁명, 민족해방운동은 소련이 그들 운동에 소극적이면 소극적일수록 친중공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비집권 공산당 또는 혁명세력의 분열은 바로 그 국가나 지역에서 중·소이념분쟁의 축소판을 재연시킨다.

대 「이스라엘」전쟁에서 요르단 정부를 상대로 하는 많은 「파레스타인」분쟁 단체들이 더욱 극렬화하는 경향의 한 요인이 여기에 있다. 소련이 「아랍」 현지정권을 무마하면서 미국과의 협조로 사태확대를 저지하려는 정책을 쓸수록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에데르기」는 친중공적 노선으로 기울고 있다.

인도에서 부재지주 토지를 실력으로 강점하려는 최근의 「나사카이트」농민운동, 「캄보디아」의 망명, 「시아누크」정권이 소련지도자들의 푸대접으로 북경에 망명정권을 수립한 것, 「아프리카」의 「포르투갈」형 인민의 민족해방투쟁 그리고 소수 백인지배 체제의 남아에 대한 흑인항쟁 등은 그중 좋은 예가 된다. 월맹과 월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 그리고 「라오스」의 「파택트·라오」가 그 막대한 소련의 군사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욱 중공에 기울게 되는 데서도 중·소의 긴장관계는 더해가고 있다. 중남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해서 만제·반식민·반봉건의 기치아래 혁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세계 도처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중·소는 충돌하게 마련이다. 보다 많은 국가와의 제도적 외교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중공이, 앞으로도 계속 혁명운동을 성원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어하든, 이념에 충실하자니 많은 그와 같은 정부와의 공식관계를 희생해야 하며 공식관계를 확대하자니 민족해방운동을 묵살하게 되는 위험, 이것이 바로 제3세계외교에 임하는 중공의 큰 「디렘마」이자 중공외교의 「아키텐스」진 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보르세비키」혁명과 제2차대전사이에 많은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묵살함으로써 자본주의 정부의 포위와 공격을 회피하느냐 세계혁명을 위해서 그들 혁명운동을 지원하느냐의 양자택일의 「디렘마」에 처했던 과거의 소련의 입장과 상통한다. 소련은 일단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 많은 혁명운동을 무마하고 묵살하는 길을 택하므로 오늘을 이룩했다. 중공이 어떻게 이 「디렘마」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 할 것인가는 중·소관계의 뜻을 떠나서도 지극히 흥미있는 문제이다.

4. 경제 · 무역 · 원조 · 경쟁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중간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소관계의 이념적 정치적 긴장, 경쟁관계는 무역기술지원, 경제원조의 실질적분야에서도 꾸준히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중공의 경제력이 현재와 같이 급속도로 강화발전한다면 이 분야에서의 중·소경쟁은 마치 미국과 소련이 지난 20여년동안 제3세계를 상대로 전개한 것과 같은 치열한 원조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소련의 이 분야에서의 활동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주치의 사실이다. 중공의 이 분야에서의 진출은 지난 3년동안에 놀라울만하다. 그것은 이미 소련을 당황케 할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나 그밖에 후진대륙에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권을 뿌리박고 있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비치고 있다. 중공의 경제는 그 군사력 이념에 못지않게 국제적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은 후진국가들 상대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정상무역의 분야에서 중공무역의 약 80%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소련으로서는 경계할 만 하다.

중공은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던 1966년 사상 최고인 43억불을 기록했다가

◇국제관계에서의 소련과 중공◇

68년 37억불까지 떨어졌던 국제무역을 작년 70년에는 66년선을 초과, 45억 불로 확대한 것으로 서방전문기관들은 집계,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소련이 주도하는 「코메콘」 국가인 「헝가리」와의 교역은 70년도에 37% 증(增), 「포란드」와는 20~25 증(增)을 기록했다.

한 때 소련의 경제원조와 특혜적교역조건으로 지명하다 시피하던 「쿠바」와는 1억 삼천만불로 유지되었다.

그 반면 소련과 중공의 교역은 69년의 5,600만불과 별 차이가 없는 6,200만 불인 것으로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이것을 일본과의 8억 2천만불에 비하면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념분쟁 이후 소련이 취한 대중공 경제봉쇄정책은 거꾸로 중공시장으로부터의 소련배제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중공은 작년(70)년 한 해 동안에만도 24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중 소련과는 「빠타」지불협정 하나 뿐이며 그 액수도 미미하다. 대부분은 종래 소련의 경제권인 동구의 자주로선국가나 소련과의 정치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간지대국가들이다.

소련의 입장에서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중공의 대외경제원조의 급격한 확대이다.

70년도의 중공의 대외경제원조는 그 적극적인 정치, 외교정책을 반영하여 공산권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쿠바」 이외에는 종래는 거의 영이던 상태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까지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중공은 그 중공의 피원조국 16개국과의 사이에 작년 한 해 동안에만도 35건의 경제원조협정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관계를 더욱 긴밀히했다. 그리고 이 한 해에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조인된 원조 및 차관액은 9억 7천 2백 5십만불에 달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중공의 대외경제 및 차관총액은 3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조 분야에서의 이와같은 확대는 소련에게는 강력한 「라이벌」일 수 밖에 없다.

그중 특기할 항목은 「루마니아」에 대해서 70년 5월 그 수해복구비로 2,100

만분 상당의 물자를 무상제공했을 뿐 아니라 11월에는 2억 4천 4백만분의 무이자 차관제공을 약속했다. 「루마니아」가 소련에 대한 정치적 자립노선, 「와르샤바」동맹체에서의 사실상의 탈퇴 등으로 동구의 반소세력의 선두에서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구공산권 국가들에게 중공이 소련을 대치할 수 있는 경제적 강국임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밖에도 중공은 소련이 그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조를 제공키로 되어 있다.

파 키 스 탄—{무상원조<2,100만불>
장기무이자관<2억4,400만불>

세 이 론—장기무이자관<890만불>

아프가니스탄—물자구입차관<240만불>

남 예 멘—각종공업건설차관<4,070만불>

수 단—경제 및 기술협조<4,200만불>

탄자니아, 잠비아—대 철도건설 무이자관<4억불>

이 밖에 작년도에 기니, 마러, 콩고(브라자빌), 소마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동안 건설중이던 차관 또는 무상원조에 의한 각종 공물, 시설이 준공되었다.

이상과 같은 중공경제원조가 소련은 물론 서방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더욱이 분제되는 점은 그것이 거의 무이자이며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상환 조건인데다가 수원국가의 현지산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연결, 관통하는 철도는 「아프리카」 최대의 대철도로서 순전히 중공기술 중공산물자로 추진되고 있다. 「탄자」평화철도라고 불리우는 이 건설원조는 소련원조에 의한 「이집트」의 대 「아스완·댐」 건설과 맞먹는다. 소련이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이룩한 20년의 노력을 중공은 중·남 「아프리카」지역에서 불과 수년 사이에 이룩한 셈이다. 경제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계를 뒤따르게 한다. 아프리카는 정치 이념면에서 뿐만아니라 경제와 정치면

에서도 소련과 중공이 대등하게 거루는 무대가 될 것이다.

5. 아시아 세력권

「뉴욕 타임스」의 저명한 국제문제평론가이며 공산권 문제의 국제적 권위자인 「해리슨·솔즈베리」는 「파시픽·커뮤니티」지 (4월호)에 기고한 「아시아의 3각관계—중·소·미」라는 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거 1년간이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은 분명히 미국과 소련의 손을 떠나 확고하게 중공의 손에 쥐어진듯 하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 3개국 간의 역(力)관계의 기초를 결정하는 것. 북경의 정책이 아니고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월남전쟁의 차래를 좌우하는 공산측 주도라는 이미 소련이 아니라 중공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정세진전이 입증하고 있다. 인도지나반도르 전쟁이 확대하면 할 수록 그 지역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중공의 위치는 소련을 크게 능가하게 되었다. 월맹의 군사장비 가운데 고도의 정밀무기는 아직 소련의 지원에 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월맹,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상전이 주요무기와 장비는 점차 중공제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과 싸우는 중동의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중·소의 역관계를 역전시켜 놓은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동에서 소련이 당연히 우월한 경제자인 것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은 중공외교를 상징하는 주 은래 수상에 손에 쥐어진 것 같다는 관찰은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보아도 분명하다.

문화대혁명과 홍위병운동이 수습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그의 외교정세가 전개되었다. 그것은 가장 비타협적이고 자주적이라고 외부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북괴로부터 착수되었다. 주는 작년 5월 스스로 평양을 방문하여 한동안 중·소의 사이에서 자기 길을 가던 북괴와의 사이에 우호, 협력의 기

반을 닦는데 성공했다.

「아시아」에서의 오랫동안 평화상태를 보여온 중·소의 역관계는 「캄보디아」에 대한 미군침공을 계기로 급속도로 중공에 기울었다. 중공은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라오스」의 「수파누봉」, 월맹의 「판 반동」 그리고 월남민족해방전선(또는 월남임시혁명정부)를 결속시켜 반제연합전선을 결성했다. 또 북괴와 이 인도지나 반제세력을 규합하여 일본에 대한 반일본군국주의 전선을 결성했다.

중공의 중매역할로 이루어진 이 극동 및 동남아 좌익세력은 각 세력 사이에 처음으로 공동의 입장과 정책을 다짐하는 하나의 힘으로 뭉쳐졌다.

이 세력은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 움직임과 중공의 성공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정한 목표는 차카리 소련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소련은 이 공동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린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해 회의의 사전 사후 일체의 통고도 안 했으며 소련신문 특파원의 취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각국 및 각 세력을 대동단결시킨 협정과 성명들은 분명히 중공을 동남아와 극동 전지역의 후견자적 지위에 올려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남으로 캄보디아에서 북으로 평양에 이르는 광범한 대미공동전선이 형성되었지만 그것은 중·소간에서 분명한 입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이들 국가와 세력을 당분간 중공의 세력권으로 굳혔다고도 할 수 있다.

「아시아」와 극동에서 형성된 이 정세는 소련의 현상유지 정책과 「아시아」공산세력의 현상타파로선의 긴장, 대립, 투쟁의 기초이다. 소련은 작년 4월 「시아누크」공이 국외로 나가있는 틈에 일어난 「쿠데타」로 실각 한 후 중공과의 공동행동을 거부했다.

소련은 「아시아」의 제도적 외교의 발판을 유지하기 위해 「론놀」정권과의 외교관계 단절 압력을 거부했다. 그리고 소련협력세력인 동구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도 외교관계의 유지를 강요했다. 「루마니아」만이 중공의 즉각적

◇국제관계에서의 소련과 중공◇

인 결정과 보조를 맞추어 단교하고 북경에 세운 「시아누크」 혁명정권을 승인했다.

금년 3월 「시아누크」가 비로소 공개한 바에 의하면 소련지도자들은 그가 실각 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자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권했다고 한다.

「아시아」의 현존권력질서를 유지하는데서 이익을 보는 소련과 그것을 타파 개편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중공과의 긴장은 이렇게 해서 어찌면 소련의 퇴조로 결말이 날지도 모르겠다.

「브레즈네프」가 재작년(69년)에 제창한 동남 「아시아」 중립대안이 중공 영향력의 이 지역에 대한 확대 강화를 억제, 봉쇄하려는 구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듯 꾸며진 이 안은 앞서의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극동반제공동전선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듯 하면서(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진실은 소련을 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공을 향해 있음이 분명하다.

「타이」, 「필리핀」, 「말레이야」, 「인도네시아」는 물론 심지어는 대만(국부)에 대해서까지도 소련은 정치, 경제, 문화적 접촉을 확대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해 시베리아 공동개발이나 빈번한 중공의 기선을 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70년 활발히 전개된 것은 특기 할 만한 사실이다.

소련의 「아시아」외교는 전투함정 95척, 핵잠수함 30척, 재래식잠수함 70척의 막강한 극동함대를 뒷받침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중공에 대한 동남쪽으로부터의 군사적 견제도 아울러 노리고 있다. 또 일본을 상대로 한 중·소외교는 일본의 경제력과 전략적 요인을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인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소련이 총액 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시베리아」의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의하는 것과 같은 의도에서 중공은 소련과의 교역을 6,200만불로 억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연간 8억2,000만불(70년)의 교역으로 중공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6. 국경문제

69년 3월초 「우스리」강에서 일어난 소련군과 중공군의 충돌은 국경문제 그 자체로서도 중대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모든 측면에서의 긴장된 중·소 관계가 마침내 군사적인 형태로 폭발했다고 본다면 사실은 한결 심각하다.

호지명 월맹대통령의 유지가 계기가 되어 양국은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69년 10월 21일 북경에서 시작했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성과도 발표된 바 없다.

국경회담을 열기 위해 양국은 3년 가까이나 계속된 국교부재 상태를 다소 개선하여 69년 말 각기 대사를 부임시켰다. 그리고 국경회담과 병행하여 하천항행 이용문제가 토의되고 있고 70년도 무역협정이 체결되기도 했지만 그 성과는 무역액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부정적인 듯 하다.

회담개최시에 소련은 양국 공산당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당분간 보류하자고 제의했지만 중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중공은 자발적으로 이념적 비난을 삼가하는 눈치였지만 소련은 중공과 미국과의 타구의교를 들어 다시 비난선전을 재개하였다.

국경분쟁은 그것이 8,000km의 긴 국경선이라는 사실보다도 중공(국)측 입장에서 그것이 실지라는데서 더 문제는 날카로워 진다. 진보도 충돌사건으로 외부세계에 알려진 중·소의 국경분쟁은 사실은 양국의 이념분쟁보다도 뿌리가 깊다.

「호루시초프」 회고록에는 그가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북경을 방문했을 때 (54년 가을) 모택동이 국경수정을 제의했다는 귀절이 나온다. 49년 12월 중공정권수립 직후 신공화국주석 자격으로 「스타린」을 모스크바로 방문한 모택동이 이미 국경수정을 요구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국경문제는 단 문제와는 달리 과거의 동맹국 관계(50년 2월 14일에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은 아직도 살아있다)를 군사적 가상적국으로 변질시켰다.

소련은 충돌 직후 중공의 서부와 신강성, 그리고 동북부(만주) 접경지역

◇국제관계에서의 소련과 중공◇

에 80만의 정예병력과 최정예의 기계화부대, 공격용「제트」공군, 「미사일」 및 포병부대를 긴급 배치했다고 한다. 중공 역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이 국경분쟁은 또 소련과 중공 쌍방 내부권력 체제에서 강변과 군부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공은 국경회담 계획에 앞서 불평등 조약으로 제정노서아가 중국영토를 강점한 역사적 사실을 시인한다면 그 불평등조약을 그 이상 문제삼지 않고 그 조약을 토대로 하여 부분적 국경수정만을 요구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으나 소련은 그 시인을 거부했다.

1858년의 애취조약에 의해서 노제에 넘어간 흑룡강 이북과 우스리강 이북의 연해주를 별도로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1846년 로제 군사위협으로 이리조약을 강요하여 점거한 서북부 천산북로의 이리지방만도 2백만평방리에 이른다.

내란과 외우의 틈을 타고 허약, 부패한 청조로부터 전쟁위협으로 뺏어진 광대한 영토는 이미 역사적인 기정사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민족으로서서는 잊을 수 없는 민족적 치욕으로 길이 가슴에 새겨질 것이 틀림없다.

중공이 군사적으로도 소련과 대등한 실력을 갖추는 날이 오며는 영토문제에 어떤 해결방안을 들고 나올 것인지 세계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8,000km에 걸친 국경선의 공기는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지열을 품은 채 냉랭하기만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소·중 관계는 당분간 급속한 해빙이나 화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보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어떤 폭발을 예상케 하는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자기 국내적인 큰 시련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형성되는 세계의 삼각질서의 성격이 중·소간에도 어느 정도의 억제작용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있는 극동정체는 중공이 「이니시아티브」를 쥐는 가운데 미·중·소·일의 사각질서의 균형을 찾는 역사적 격동기에 접어들었다 할 것이다.

일·중공의 —

대(對) 아시아 정책

— 70년대 극동안보의 전망 —



고 명 식

<동양통신사 방송뉴스 부장>

외신보도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10일 중공 수상 주 은래는 중공을 방문중인 일·중공농민교류 제2차방문단을 맞은 자리에서 앞으로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으로서 첫째로 한반도를 지적하고 이어 대만 말라카해협 주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는 이어 만일 일본이 이같은 전쟁에서 미국의 대역을 맡고 나선다면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화할 것이라고 경고를 발했다 한다.

주 은래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탁구선수

단이 그 전달에 중공을 방문하고 20여 년간 동결상태에 있던 미·중공 관계가 거의 하루 아침 사이에 해빙의 징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던 때인 만큼 특히 한국의 입장으로서 놀라운 발언이었다.

주(周)의 이같은 발언에 이어 일본의 사토 수상은 자민당의 중공방문사절단장으로 내정된 노다·다케오씨에게 일·중공 정치가들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중공요인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 자리에 동석했던 호리 관방장관(官房長官)도 노다 사절단의 중공방문이 실현되는 경우

<일·중공의 대 아시아 정책>

중공수상 주 은태를 포함한 중공요인을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5월 15일에 외신에서 전해졌다.

이어 5월 17일에는 북평을 방문한 일본 교원노조의 사토·노리오씨는 중공수상 주 은태가 만일 나가소네 일본방위청 장관이 진정으로 중공방문을 원한다면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로부터 10여일 후에 나가소네 일본방위청장관은 중공과의 평화공존을 촉구하면서 일본은 중공을 둘러싸는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며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중공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다.

한반도를 사이에 둔 아시아의 양대국은 일본과 중공 사이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 때 36년간의 일본통치를 받았고 이어 한국전쟁 때는 중공군의 대거 개입을 경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로서는 착잡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정세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본군대가 한국에 상륙할 지도 모른다는 풍문이 나돌았을 때 이승만 전대통령은 이 소리를 듣고 펄쩍 뛰면서 그렇다면 자기는 우리나라 군대에게 총부리를 오히려 일본군에게 돌리라고 명령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로부터

20여년이 지만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칼로마 위에 올려놓고 일·중공 간에 또 다시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사회체제를 달리한 국토의 양단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정세변동이라고 할 것이다.

중공 외교의 제일목표가 대만의 중국적인 해방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은태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을 한반도라고 지적할 때 이는 중공이 대만보다도 북한의 공산정권을 제1차적으로 방위하겠다는 중공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아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발하려는 다분히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선전적 선택의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방관계의 전문가들은 양극화의 현상을 보이던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국제정세가 60년대 후반부터는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공산권 내부의 통일도 소련과 중공을 중심으로하여 분열되어 있고 또한 자유진영 내부에서도 자유대공산의 이데올로기적 이념에서 보다는 자유제국이 제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의 이익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따라

서 아시아 특히 극동에서는 미국, 소련, 중공, 일본 등의 여러나라들이 공산 대 자유의 입장에서 보다는 오히려 자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적어도 극동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4대국이 이 균형을 깨뜨릴만한 행동을 취하기를 삼가하고 있고 또한 이 균형을 깨뜨릴만한 우려를 다른 나라들에게 자아낼만한 일이 있어서는 상호간에 어떤 목적적이거나 동의를 항의를 필요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1968년에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괴에 납치되었을 때 소련과 중공이 보인 신중함 태도라든가, 이어 미 정찰기가 북괴 공군기에 의해 격추되었을 때 소련해군이 미군의 수색활동에 보인 협조적인 태도 및 이 문제를 둘러싼 판문점유전회의에 나타난 중공군 대표가 보여준 이해적인 신중함 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제 북괴는 소련과 중공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이 균형을 깨뜨릴만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오히려 소련이나 중공은 북괴가 4대

국 간의 이같은 균형을 깨뜨릴만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견제하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실상 이같은 국제정세의 배경에 대해서 북괴는 북괴대로의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미·일 협정에는 한국, 자유중국 지역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전문에 명문으로 삽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있으나 1969년의 사또·닉슨의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또한 일본의 제4차방위계획이 일본을 다시 아시아의 강력한 군사국가로 등장시킬 것이라는 등의 전망에 자극되어 평양을 방문했고 중공 수상 주 은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공동투쟁을 벌인다는 북괴와의 공동성명을 내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입장으로는 월남전의 축소와 아울러 아시아 대륙에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서서히 빼 내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른바 「닉슨 독트린」에 입각해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되 아시아 자유제국의 방위는 그 책임을 제1차적으로 그 나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선을 뚜렷이 해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 4월 10일 미국 무성이 황해나 동지나해협에서의 석유개

<일·중공의 대 아시아 정책>

발증지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걸프석유회사가 첨각열도(尖閣列島)에 있던 해저석유개발 조사선을 철수시킨 것은 아시아에서 중공, 대만, 일본, 한국 등의 이권이 얽힌 분쟁가능성이 있는 문제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미·소·중·일의 4대국 관계로 더욱 복잡하게 따라서 앞날의 귀추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적어도 한국의 눈으로 볼 때—사태발전의 하나는 탁구외교에 의한 미·중공관계의 해빙기운과 이를 계기로한 미·일 간의 대중공 시장경합 상태이다.

한국전쟁에 이어 미국이 대중공 고립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에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중공과의 교류를 유지해온 일본으로서도 미국이 하루아침 사이에 대중공정책을 바꾸어 일본이 중공행 버스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하나의 악몽과 같은 우려였었다.

4월에 미국의 탁구선수단이 중공을 방문하게 될 뒤를 이어 미·중공 해빙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진전되고 있어 이에 뒤지지 않으려고 일본도 중공과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월남전을 계기로 한 미국의 국제수지의 악화에 이어 미구 내에서는 무역보호주의가 고개를 쳐들어 그 첫 대상이 일본

의 대미석유수출규제문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문제의 협상 과정에서는 이것이 미·일 전쟁 나아가서는 3차대전의 실마리가 된다고까지 하는 불안스러운 소리조차 들려 왔으나 이는 일본측의 양보로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었으나 2차대전 후 미·일 무역에서 출초를 기록하던 미국이 65년부터는 일본측의 출초로 전환되었으며, 68년 후는 3년 간을 계속해서 일본의 흑자폭이 연간 10억불을 초과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은 미국대로 교역확대의 대상을 중공시장에 찾으려 할 것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의한 미국시장에서의 타격과 손해를 중공시장에서 회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중공무역은 70년도 중 통관베이스로 사상 최고의 8억 3천만불이 있으며, 71년도에는 이를 10억불 규모로 늘일 것이라고 하니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중공 자세에 있어 무역통상문제가 앞으로 크게 클로우스업 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중공의 유엔 가입이 조만간에 실현된다면 중공의 최대의 외교목표는 대만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월남전쟁을 통해 물자, 무기의 지원을 했으나 실지로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고 현지 월남인들에 대한 배후

지원에만 주력해온 중공으로서는 중공주변에서의 국지분쟁에 있어서는 중공이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의 이른바 「주체자력」을 등장시키는 중공판 닉슨 독트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공은 표면상으로는 일본의 제4차방위계획이 방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내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도 현재로서는 중공을 포위하는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닉슨」독트린과 중공판 「닉슨」독트린이 작용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의 문제는 극동의 4대국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 주민자들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적어도 현재와 같은 4대국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4대국의 어느 나라엔 불리하고 어느 나라엔 유리하게 되는 사태가 좀처럼 해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그 여파가 4대국 전체에게 똑같이 파급되어 자연히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아울러 이같은 움직임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열강들의

힘의 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로 있을 수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이 정신을 차릴 사이 없는 동안에 한반도 내의 정세가 어느 일방에 의해 기정사실로 성립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반도 내에서의 어느 일방에 의한 기습작전으로 4대국이 개입할 여유없이 그 결과가 기정사실로 굳어 버리는 경우이다.

역사적으로 되돌아 보면 1950년 6월의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결성을 보지 못했다던가 또는 유엔군이 한국에 도래하기 전에 전쟁의 결말이 났었다 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습도 격퇴할 수 있는 우리 한국측의 강력한 방위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국 국방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와 아울러 이에 못지않게 요청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침공도 침공이러니와 우리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침식해 들어오는 간접침략 또한 외부로부터의 간접침략은 아니더라도 이에 못지 않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체제 내부의 부패와 부정울 일소하는 일이다.

<일·중공의 대 아시아 정책>

따라서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소련·중공을 일방으로 하며 미국과 일본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4대국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현실하에서는—더우기나 소련·중공간의 국경분쟁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중공시장에 대한 미국·일본의 경합이 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견가능한 장래에 있어서는—한국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외교, 군사, 내정 등 다각적인 우리의 태세완비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첫째로 외교적으로는 4대국간 이익의 균형을 찾아내고 이를 우리의 국가이익에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제정세의 인식에 입각한 외교활동이 요청된다.

이와 아울러 군사적으로는 또 다시 6·26와 같은 열세를 재현시키지 않을 만한 자주적인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물론 오늘날의 전쟁이란 군사적 수단으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단결을 총집결시킬 수 있는 내정의 해신은 더욱 그

필요성이 촉구된다.

4대국의 힘의 균형하에서 우리의 태세가 힘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한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것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현상유지의 힘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면 이 때에는 한반도내의 정세도 큰 텀비아대학의 공산권문제 전문가 브르지젠스키 교수의 말처럼 군사적인 대립경합의 상태로부터 선의의—동서독의 경우와 비슷한—경쟁단계에 돌입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른다.

실사 복귀가 4대국의 힘의 관계를 무시하고 부력으로 통일을 기하려 한다면 이불 국제적 유대에 의해서거나 또는 자주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면 선의의 경쟁상태의 도래는 그의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 먼 훗날의 일도 아닐 것이다.

일제 36년간의 통치를 겪었고 또한 중공군의 한반도 개입을 경험한 한국국민으로서 70년대를 맞이한 앞으로의 역사적 과제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예지와 총력의 발휘를 요구하는 엄숙한 시련이 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것이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령 문 무 길

사실, 남의 홍보는 재미도 알아 주어야 합니다. 별로 악의 없이 우리는 남의 얘길 많이 하지않습니까? 내용을 본다면 생각하면 결코 유쾌하진 않지만 자신을 반성하면 홍보고 다니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인 제위께서야 다 남편들에 대해서 그런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대견스럽고 무엇인지 호뭇하시기까지 하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인들께서 믿고 싶은 것 처럼 그렇게 호뭇하고 대견스러울 정도의 존재는 못됩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여인이 남자들에게 그런 것에 못지 않습니다. 역시 그것이 자연스런 것일까요. 그래 조금도 어려움 없이 우리 남편들에 대한 홍보를 털어 놓음으로서 부인

여러분께 유익한 뉴스와 전략 진술 수립의 요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헛개비 남편들의 등을 짚고 올라 서서 당당한 여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치사하지만 부인 여러분의 환심을 사볼까 생각합니다.

첫째 얘기 :

『아휴 피곤해 휴——오늘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탄데다 오후에 운동시합을 했어! 휴——뭐...나보고 작전실 환경을 고쳐보라고 하지 않아! 그래 어떻게 해? 그림 그리는데는 능이 별로 있어야지 그래 내가 했지.....어——이 피곤하다』 부인의 반응을 슬쩍 한번 체크하고 『밥 다 됐지? 어이 배고프다.』이런 스타일의 퇴근길 남편을 경험 하셨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체격도 크고 근육도 더 발달되어 있어 치 자식 먹여 살리도록 조물주

<공군의 아내에게 부치는 글>

가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육체적인 힘이 세다 하여 정신의 힘도 강하며 또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에 대해 굳건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기엔 남자가 그 힘과 지혜를 이용하여 한 집안을 구제하여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하고 게으른 것은 정말 남자들 쪽입니다. 팔씨름엔 질지 모르지만 한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는 여인의 힘은 더욱 센 것이며 모든 걱정을 견디어 나가는 여인의 의지는 남자들의 그것에 비할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남자들에게 콩나물과 연탄걱정을 하라 하고 아이들 빨래를 포함해서 훗이 불에 이르기까지 반찬거리 등……잔신경을 쓰라면 며칠 안가서 다 졸도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따라 다니는 잘자구레한 생활배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존,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이것이 도를 넘을 때 감정을 마구 자극하여 천만조각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강하고 남자는 약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사 일체에 시달려 돌아가는 부인에 비해 부대에서 틀 있으면 장구나 바둑까지 두는 여유를 가

졌던 남편이 일요일이면 낮잠으로 뉘엿하는 위인이라면 결코 힘세고 부지런한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둘째 얘기 :

한 밤중 밖에서의 이상한 인기척에 놀라 깨 부인이 신경을 언제 곤두 세웠는지 자기도 모르게 바짝 긴장하고 밖의 동정을 살피던 중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도둑임을 확인하고 『여보 여보……』 깨사람도 안들릴 정도로…『여보…』 재연발과 함께 남편의 넘적다리(피부는 볼품 없으나 껍질 건강한)를 꼬집었습니다. 코고는 소리가 후닥닥 끝나면서 놀라 깨 남편에게 『도둑……도둑놈이 왔어…요』를 겨우 전달하였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남자의 형태는 이런 경우 칙칙히 일어나서 하다못해 키타라도 들고 살살 밖으로 나가 무례한 침입자의 뒷통수에 도전할 것이라 믿겠지만 들어 보세요 이 녀의 남편은 『응…? 뭐? 도둑?…가만 있어 들어 오면……기냥…』 좀 떨리는 목소리이긴 하였으나 말의 내용은 꽤 위세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위세있게 버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부인은 속으로 웃음을 의식하였읍니다. 남편의 다리가 체통없이 부인의 가냘픈 다리 곁에서 몹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고 연약해 보이긴 했어도 안정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부인의 다리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고' 침착한 척 해도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불안정한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겁니다. 남자들 사이에 도 지나치게 설치고 떠들석한 친구일수록 겁쟁이 일정도로 나약하고 담담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도사린 담니다. 남자의 허풍과 허세를 어찌 여자가 따라 올 수 있었습니까 정말 침착하고 용감하며 결단력 있는 측은 결코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세째 얘기 :

『남자일런 중천금이야 왜 이래? 그러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뭐……부대에서 공제하는 것이 좀 많아야지 그놈의 봉급 올리나 마나라구!』
『술집에 열려서 맥주홀로 2차행 갔던 것이 유죄로 이번 봉급에서는 5천원의 축이 났던 것입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값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문자를 써 설명하면서까지 맥주홀로 자취를 감춘 돈의 행방을 열정한 부대에도 뒤집어 써우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물론, 부인들께서 과 한단의 값을 놓고도 싸다 비싸다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쓰는데 기원월을 하루 저녁 사이에 맥주홀에 뿌렸다 생각하면 거짓말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지만 그럴것을 한 것은 더욱 똑똑치 못한 일이구요 또 그랬으면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랬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똑똑치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것은 확실히 남자쪽이지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남편 몰래 별다른 '계'가 깨져서 만성화된 거짓이 들롱이 나게되는 부인들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도 그것은 좀 잘 살아보려는 아름다운 노력과 의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남편의 경우는 알뜰하고 살뜰한 마음에서가 아니었고 『한번 슬쩍……』 새어 불려는 아슬아슬한 마음에서였지 않았습니까? 장가들기 전까지는 꽤 경쾌하고 솔직하며 정말 정직하였던 청년들이 『남편』이라는 딱지를 부치고 나더니 그럴 수 없이 치사하고 비겁해졌습니다.

네째 얘기 :

부인! 부인의 남편들이 상관 앞에서 술데없이 웃으며 어울리지 않는 교태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입맛이 없으시죠? 옛부터 종족 관념이 깊이 뿌리 박은 사회 속에 선후배, 상하급자, 주인과 종, 그리고 연장자와 연소자의 지나친 구별을 의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상급자 모실 줄 모르고 선배 몰라보는 사람은 우리사회에서 유리되게 마련입니다. 뒤에 돌아 서

<공군의 아내에게 부치는 글>

서는 무슨 소릴하진 뒷사람 앞에선 덮어 놓고 거역(?)에 속하는 자기 발표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뼈속에 깊이 스며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주판없이 그저 비실비실 웃음이나 만들어 짓고 어른답지 못하게 감사하고 친한 모서리를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소신을 피력하면서 사회에 적극 협력하는 개성있는 남편들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뱃포없고 소심하며 호리몽당 합니까? 개성있고 자기표현이 뚜렷한 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보다 여자이신 부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움짱달짝 못하는 주제들이 아래에 대하여는 무자비하기 이틀데 없습니다. 나보다 계급으로나 나이로나 힘으로나 조금만 낫다 생각하면 상대에게 일각의 여유도 주지 않고 가히 말주변도 없으면서 나 잘났다 침 튀기며 열변하는 것이 남편들이며 이 주책스런 행동의 단계를 넘어서 아랫사람이라면 속된말로 『깔고 뭉겔랴』 하는 것이 소위 졸속 남편들입니다.

이 모든 남편들이 다 힘세고 부지런하며 용감하고 침착하고 늘 솔직하고 정직하며 항상 여윌고 개성적이라면 그들은 생활 속에 허세나 자기 과신이나 과격한 표현을 구사하지 않을 겁니다. 담담

히 자기 일을 처리해 나가는 평온한 감정의 연속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약하고 못난 남편들은 자기의 열등의식을 높아지는 것과 돈 버는 것 또는 유명해 지는 것 등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어깨 밑의 꾸집한' 근육이 모든 것보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남편들은 자기의 건강과 가족 전체의 안녕이 어떻게 해서 유지된다는 것도 모르고 성공과 성공만의 길로 쉬지 않고 줄달음 치려고 합니다. 적당히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말합니다. 적어도 남자라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야 된다고 자신을 체찍질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정신적 압박감과 감정의 불안정 속에 위험한 인생의 곡에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피곤하다고 틈만 있으면 눕고 운동부족으로 몸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사장타임이라고 만족하고 있다면 자기가 바보인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과잉의욕에서 오는 신경피로에 근원한 것이며 이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악화되어, 무엇을 초래하리라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인 여러분들만이 이 못난 남편들이 이 지옥행 소용돌이에서 건져 낼 수 있는 유일의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못났지

만 그래도 남편이 아닙니까. 도와 주셔야지요 오래오래 살도록 말입니다. 저희 남편들을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인들은 확실히 남편들보다 지혜롭고 사회적 압력에 대하여 내성이 강하시니 말입니다.

첫째: 너무 따지거나 비판을 가하지 말어 주십시오.혹시 꼭 따져야 하거나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남편이 충분히 쉬고 난후나 기분이 편상쾌해 보일 때를 택하십시오. 왜 흔히 박아지 굶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독약보다 더 나쁩니다. 남편의 기분을 저하시키고 피로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둘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용모나 재산 혹은 직위 때문이 아니고 남편의 인간성을 좋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자기라는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인을 가진 모든 남편들을 일단 행복한 것입니다. 남편에 뒤질새라 집안 혹은 바깥일을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는 따뜻한과 희생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너무 부인과 함께 있기를 강요 마셔야 합니다. 남자들끼리의 모임에도 아무 부담없이(부인에 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할 때는 역시 혼자 있도록 아이들도

격리시켜주는 등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네째: 아이들과 즐기고 싶어하는 눈치가 있거든 어린애처럼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와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는 가정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사회생활에 피로하여진 남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짧은 시간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의 굴레를 벗어나 부인과 단둘이만 호젓이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좋습니다. 이는 남편의 수명을 몇 년은 더 보장할 것입니다.

여섯째: 부인들께서는 남편들의 성격이나 취미파악을 확실히 하고 셋방이라도 좋으니 그 방에 남편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온하여지고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밖에서 쌓인 갈등과 피로가 집에서 별개의 것의 의해 다시 피로가 축적된다면 이것을 벗어나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라고 특별히 화장하고 단장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고 깨끗한 용모와 옷차림으로 늘 청초하고 지성이 있는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일곱째: 남편이 주정을 하건 화를 내건 침을해 하건 조금도 개의치 말고 전

<공군의 아내에게 부치는 글>

부들 잘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음날의 생기찬 재출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백의 가정에서 최고의 어른은 남편으로, 철저히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부인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보다도 남편에게 늘 우선권을 두고 그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자기의 결에는 사랑하는 부인이 늘 편들고 있다는 의식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남편의 피로를 덜고 의기백배하여 진정한 의미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두 분의 좋은 결합은 두 분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며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번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불행해 하거나 하질 않으실 겁니다. 가정의 모든 긴장을 제거하고 가족들의 사기를 높인다면 남편이 속하여 있는 사회도 명랑하여 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열심히 돕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인간을 사랑하시고 물질과 직위에는 무관심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 대통령 문언록>

◇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평화와 공영의 기반을 더욱 넓혀 우리 인류사회를 하나의 [세계 가정]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조국의 근대화는 비단 경제건설만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합리화를 이룩하는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가 조국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비능률, 비민주, 비합리를 모두 추방해 내자는 것이다.

◇ 새 역사 창조에 국민적 대열에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으니 그것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잔존하고 있는 수구(守舊)와 파쟁이며 시기와 모함이며 독선과 아집이며 단견(短見)과 무정견 등 전근대적이며 비생산적인 요소이다.

아 내의 행복



박 경 자

<박 정석 소령 부인>

녹음이 짙어지는 6월! 화사한 햇살이 눈이 시리도록 하늘과 땅에 활짝 퍼져오른다.

지금 내 가슴 속에는 활기찬 의욕과 희망과 사랑이 담뿍 옮겨 들고 있다.

환한 태양아래 가만히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응시하는 습관이 지금은 버릇처럼 되고 말았다.

구름이 일고 빗방울이 창가에 함초름히 젖어드는 날이면 나는 어린 아이처럼 마냥 기쁜마음 금할 길이 없다.

역시 빠른 것은 세월인가 보다. 그이와 약혼을 하고 결혼의 부푼 가슴에 마음 설레이든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큰 아이가 유치원 간다며 종알대는 아침이고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된다.

우리들이 보금자리를 꾸민지 7년! 나는 이제 겨우 조종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군의 가족이 된 것이다. 결혼 후 1~2년은 군인의 생활이 어떠하며 말로만

듣던 조종사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보다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동안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모른다.

나는 그이를 이해하기 전에 무조건 그이를 믿고 하나 하나 이해의 문턱을 향해 쌓아 올려 왔었다.

오직 그이의 부지런함과 성실을 자산으로 묵묵히 노력하여 왔다.

광열한 6월의 햇빛 아래 짐게 탄 그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무한한 행복감에 사로 잡힌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그이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드려 마련하는 저녁 식사는 나의 기쁨으로 충분하다. 남달리 의식을 지극히 싫어하며 술과 담배를 즐겨하지 않는 그이가 때때로 붉어진 얼굴로 귀가하는 날이면 어떤 기쁜 일이 있었을까 하는 기대에 흐릿한 마음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그이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해

에 아담한 「우리 집」을 장만하였다. 이제 뜰에는 파란 잔디가 탐스럽게 자랐고 3살박이 꼬마는 날이 갈수록 귀엽게 자라 요지음은 엄마뚱을 떠나 밖에 나가 놀기에 한창이다.

나는 두 아이가 잠든 조용한 밤이면 희망과 행복에 가득찬 미래를 향한 생활 설계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야겠다는 의무감과 그이를 어떻게 단족스럽게 내조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며 잠을 청하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조종사의 아내! 남들이 흔히들 말하는 특수계급이 아니다. 남과 달리 지상을 떠나 3만피트 상공을 나르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군인의 아내일 뿐이다.

인공위성이 달을 정복하고 고도로 발달된 오늘의 과학문명시대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극히 보편화된 사실이다. 구태여 다르다면 호화스러운 대형 여객기가 아닌 전투기이며 전투임무 수행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그이의 직업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강하게만 여겨진다.

그이의 과묵한 성격과 같이 하늘을 날르는 조종사들의 성품은 한결같이 착하고 온순하면서도 불의를 용납못하는 불

같은 성격이 공통적이라고 할까?

가정을 무척이나 위하는 그이, 그래서 나는 더욱 조심이 되고 그이의 일거일동에 남 달리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조식으로 준비하는 식탁의 메뉴며, 그이가 즐겨하는 간식이며, 커피의 설탕량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고된(?) 생활 속에서도 나는 마냥 즐겁기만 하다.

남들처럼 부귀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미래를 향하는 우렁찬 기계의 움직임 같은 「남다른 행복」이라고나 할까?

나는 몇 주일 전 대간첩작전 중 피격 희생된 C-46기의 신문기사를 읽고 얼마나 가슴아파 했는지 모른다.

두 아기의 아빠, 가족을 대구에 두고 타향에서 파견근무 중 불의의 사고를 접한 아내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해서이다. 나는 6월 1일 새벽의 일을 기억해 본다. 이른 새벽 전화 벨소리가 곤히 잠든 내 귀에 울릴 때 나는 긴장감에 소스라쳐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이가 통화하는 짙막한 음성을 엿들었다. 몇 마더 주고 받던 그이는 곤히 잠든 세 식구가 새벽잠에 깰까봐 조심스레 옷을 입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들

끄러미 내려다 보며 자는척 누워있는 내
이마에 따뜻한 입술로 안녕을 이야기하
던 그이를 보았다.

이윽고 문탁한 군화 자욱소리를 내며
나가시는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활주로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마
루에 나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비행장을
응시하고 있어야 했다.

천지를 진동하는 듯 폭음을 남기고 뜨
고 또 뜨는 비행기를 보며 나는 마음 속
깊이 그이의 안녕을 두 손 모아 빌었다.

정오가 지나고 Radio에서 흘러나오는
잘막한 C-46기의 피격 뉴우스를 듣고
전디다 못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에서 들리는 굼직하고 조용한 그
이의 음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기만 하다.

퇴근길에 침울한 얼굴을 한 그이를 향
한 내 마음은 어쩔지 미안하지만 하고
긴장된 마음은 굳어 가는 듯 하였다.

『아빠! 지금 돌아오세요』 하며 애교
를 부리는 큰 딸애의 머리를 쓰다듬으
며, 오늘도 잊지 않고 커다란 조종복 주
머니에서 카라멜을 꺼내는주 그이를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 눈물이 왈칵 쏟아지
는 것을 웃음으로 대신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토방위에 여념
이 없는 그이와 같이 나도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되새겨본
다.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며, 그이의 건강
유지를 위한 길이 비행안전을 돕는 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황금제일주의니 뭐니 하고 떠
들어 대는 현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기보
다 현실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진심으로
위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굳건한 정
신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
의 중요한 자세일 것이다.

그이가 출근을 하고 없는 한가한 시간
을 하는 일 없이 소일하는 것보다도 어
떻게 하면 건전한 가정의 안전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자치회라도 가졌으면 한다.

이렇게 참되게 생활하는 주부야 말로
발전하는 가정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큰 내조자가 될 것이 아닐까?

이제 지루하게 내리던 장마도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에는 그이들 만의 환희
와 용솨음치는 평명의 불꽃이 마음껏 펼
쳐지리라.

행복!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귀한 것이라!

황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오색 무지개로 아롱져 그이와 길이 행
복할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한여름의 광상곡

대 위 박 경 석

계절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불운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봄은 사람에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하고 가을은 거들 것은 거두고 사라질 것은 사라져 가는 절실의 계절이며 앙상한 가지에 짙짙하고 빈곤한 계절인 겨울은 인내와 동면의 특색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각기 그 맛이 다르고 향취도 다양하지만 여름만큼 더 풍성하고 푸짐한 계절은 없으리라.

모든 것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려있고 낙과 행복이란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추구하여 얻는 것이라는 말이 다시 상기된다. 여름이란 풍성하고 너그러운 만큼 인간에게 주는 교훈도 다양하다. 녹음방초 우거진 그늘 밑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노라면 곤충에서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의 역사는 그야말로 괄목할 만하게 만만치가 않다. 우연히 노쇠한 나무그루터기 주변에서

조그마한 개미굴을 발견한다. 자신도 모르게 개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된다. 가냘픈 허리와 조그마한 몸집으로 자기 몸에 몇 십 배나 되는 먹이를 베를지어 포기함이 없이 끌고간다. 여기에서 개미떼들의 불굴의 투지와 희생적인 협동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끊임없고 실 새없는 개미떼들의 활동과 노력은 마치 돌아올 겨울을 예견이나 하는듯 하여 짐짓 경이의·한숨이 흘러나온다. 이곳 저곳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꿀벌들에게서 근면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시원한 그늘을 찾아다니며 요란하게 울어대는 메미는 여름철의 풍류색인양 호탕한 인상을 받는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모기에게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죽엄의 불사란 용기가 있다. 하루만 살면 그 생명이 끝이 난다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바라지 않고 생을 단격하겠다는 저돌적인 공격력을 발견할 수가 있다. 수풀이 무성한 곳에서는 파충류들의 동면을 위한 영

양보중이 한창이다. 이렇게 하여 석류의 활동은 부단히 계속되고 추진되는 것이다. 천태만상의 생활과 다양각색의 특색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낸다. 여름은 이와같이 모든 생물의 운동이 심하여 더운 것일까. 계절은 계절마다 그 특색이 있고 모든 생물들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 나름의 독특한 노력과 활동으로 생활의 다양함을 구사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참으로 자연의 섭리는 혼돈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 것 같다.

이러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양악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지난날이 깊은 회오와 반성으로 접철되어진다. 식물에서 미물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독특한 양식과 폭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인간 자신에 관한 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낡을 때 혼자 몸으로 왔다고 복잡한 교계와 사고과정을 거친 후 혼자서 가야 하는 인간에게 독특한 자유와 개성이 있어야 할 법 하다.

개인의 독특한 성격과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멋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의 본능이야 미물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으랴. 사람이 언어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동, 식물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인간 자체에도 조화있는 화음이 나올 것이 아닐까.

그러나 불화음의 연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인간을 상실하고 있고 멋을 찾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인간의 멋이란 첫째, 인간의 사고과정에 관한 문제요, 둘째, 인간성 자체에 관한 문제며, 셋째, 인간행동과 관련되는 문제인상 싶다.

현대는 인구폭증과 지식의 폭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있으며, 제도와 법규에 의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체포된 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이 드물게 될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 아래서 「상실된 인간성의 재회복」이 있어야만 인간은 미물에서까지도 찾을 수 있는 독특성과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산림이 울창한 산이 있다고 하자. 예술가가 이 산을 보면 미의 극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이요, 문학가는 나무들의 함취 및 시냇물의 속삭임을 귀담아 들으려 할 것이고, 건축가가 보는 것은 제목의 유용성 및 산장을 지을 장소의 적합성을 생각하여 구도의 적부에 신경을 쏟을 것이로되, 군인은 전략, 전술상의 요새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따질 것이다. 인간은 미물이 사시사철의 감각을 피부를 가지고 느끼는 만큼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까. 과거의 쓰라림을 잊고 현실에 타협하기에 급급하고 미래를 부정하는 상태까지 가서야 어

켜 살아있는 것이 풍길 수 있단 말인가.

계절은 계절마다 그 특색이 뚜렷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은 생물마다 그 생활양식이 다양하기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미소한 모태알이 모여서 백사장을 이루고 이것이 이질적인 시멘트, 자갈, 물이 합쳤을 때 비로소 견고한 콘크리트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애까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에게서는 인간이란 공통함수 이외에는 전부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장하는 만큼 남의 의사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주체성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합쳐질 때 우리네들 주변은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 생각해 진다.

지난 여름 학교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이라 기억된다. 플라타너스 그늘 밑 벤취에 앉아서 무로한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K군이 만취된 상태로 옆에 앉게 되었다. 펍 흥미로워 보여 그 이유를 물으니 고교시절에 매우 친근하였던 P군이 대학생활 3년만에 장족에 발전을 하여 자기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해졌다고 한다.

P군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사회과학을 화제의 대상으로 하여 대화를 독점하였고 K군은 대화를 처음

부터 끝까지 듣는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 틀림 없었다. 자연과학을 하는 K군은 P군의 화술에 압도되어 자신의 방향을 의심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심사숙고하던 끝에 K군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여 주었다.

앞으로 P군을 만날 때는 화제를 인간의 건강관리와 보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보라고 일렀다. 며칠 후 P군을 다시 만났을 때 K군은 매우 상쾌한 기분과 자신에 넘쳐흐르는 표정을 짓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K군은 P군을 만나서 인체에 관한 이야기며, 질병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허약성 등에 관한 내용을 화제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던 결과 그 자리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 왔노라고 했다. 이질적인 것을 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런 생각이 아닐까 한다. 여성은 여성으로 여성다워야 하며,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전공과 직업선택에도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여름은 덥고 지루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름의 병폐가 있는 만큼 많은 교훈과 혜택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운 여름의 활발한 활동은 시원한 가을에 뿌집한 결실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소련의 군사 전략
.....
⑩

중
령
이
종
학
(편역)

국가와 군대의 전쟁 준비에 있어서 자국은 경제, 과학, 산업기술 및 문화의 성과를 고려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잠재 적국의 전력과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전쟁을 위한 국가의 조직적인 준비는 언제까지나 침략자를 격퇴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핵에 의한 맹렬한 보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단시간 내에 승리를 획득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적으로부터 대량의 핵공격을 받아도 최소한의 손실로 견디는 힘, 그리고 국민의 마음 속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높은 사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전쟁 준비는 세 가지의 주요 분야, 즉 군사력, 국가경제 및 국민의 준비에 의해서 달성된다. 이 때 무력투쟁 수단의 발달과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군사력의 준비

평시에 있어서 군의 준비야말로 현재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침략을 격퇴하는 국가의 준비

현대 전쟁수행의 특성과 방법은 전장(前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국가와 군대가 완전한 시기(時機)를 잡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생각할 수 없다.

군대의 준비 내용은 정치적 정세와 경제적 정세, 과학, 산업기술, 공업의 진보, 전투의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최근의 전쟁—2차대전—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의 군대의 준비는 전시, 평시의 편성과 조직의 결정을 포함하며, 동원을 준비하고, 군을 높은 수준의 전투 준비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 군대의 준비에는 각 군종의 역할과 임무에 응하는 끊임 없는 발달, 군사 행동 수행을 위한 물질적·기술적 보장, 국토 및 군사작전지역의 준비, 전략적 정보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군의 동원과 전투준비

각국 정부는 군대의 평시 병력과 편성을 결정한다. 적의 현대무기에 의한 대량파괴 기습공격의 위협을 고려하고, 이 기습공격을 위해 동원을 완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리라는 부수적 상황에 비추어 전쟁 초기에는 추가의 동원을 실시하지 않고, 주요한 전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시의 병력을 정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군대를 이러한 수준에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능력이 허용치 않는다. 그래서

평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의 핵공격에 대처하고, 공중으로부터의 기습공격을 격퇴, 적극적인 지상과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며, 그동안에 추가의 동원 병력을 전투에 참가시켜 초기 작전병력의 증강을 조속히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시 병력은 개전 벽두부터 전략적 주도권을 잡고, 전략상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우리들은 계속 전투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부대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무기의 방과 편성, 전국에 걸친 방공조직, 기타 군종의 약간의 부대, 즉 지상군, 해군, 공군 및 민간 방위의 구조와 복구의 부대를 유지함으로써, 대량전술(前述)한 규모의 평시 병력을 유지한다.

전시에 있어서 군대 조직의 결정은 정치 및 군사상의 지도자에 있어서 중대한 임무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모든 동원의 방법은 이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군대의 동원 또는 동원 전개는 전쟁계획에 바탕을 두고 평시 대세로부터 전시 태세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동원은 현존하는 군대에 대하여 전투훈련을 받은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충족하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병력의 신규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부대의 기간 요원은 보통 현존 부대에서 차출된다.

평시에 전쟁 전체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병력의 정확한 규모를 예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개전 당초에 서로 사용하는 핵무기가 근본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 비추어 미리 만들어 두었던 계획에 바탕을 두어 동원이 실시되는 동안에 새로운 부대가 군대의 그 후의 증강을 위해 창설될 것이다. 그러나 부대의 중요부분은 관리업무를 통하여, 현존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고려한 가운데 만들 것이다. 동원실시의 수단과 방법으로 보아, 오늘날 군대의 동원은 총동원, 일부동원, 공개동원, 비밀동원이 있다.

비밀동원은 현재도 실시할 수 있으나, 종래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실시될 것이다. 서로 싸우려는 쌍방의 관계가 점점 긴장함에 따라, 개전 초기의 임무를 담당할 부대를 서서히 전투준비 태세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략정보 수집의 방법으로 본다면, 광범한 동원은 가령 비밀히 할려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주요 연합국가는 그 군대에 최고도로 준비된 전투태세를 유지토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쟁 중 보충하는 부대의 규모와 중요성은 2차대전 에 있어서 독일군의 경우, 잘 나타나고 있다. 1942년, 독일군의 보충교체 요원은 월 평균 25만에서 30만이 었다. 1943년에 이르러, 군에 조직적으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국가 능력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결과, 독일군의 보충률은 1개월 15만명으로 저하되었다. 같은 시기에 소련은 엄격한 중앙집권적인 계획 때문에, 보충률은 전쟁 전기간을 통하여 감소하지 않았다.

핵공격에 의하여 평시의 동원 계획과 예상은 파괴되고, 분명히 동원에 관리업무상의 지도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동원계획은 당시의 정세에 응하여 변경과 수정을 가해야 한다. 그러니 평시 개발되는 동원계획은 유연성(柔軟性)이 풍부하고, 공개동원이나 비밀동원, 총동원이나 일부동원이든 실시하는데 적합토록 해 두어야 한다. 각 동원종류가 담당의 부대를 만드는데 최대의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요구의 전부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다.

동원부대를 편성하고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적당하게 배당한다는

<소련의 군사전략>

저은 동원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계획 담당자는 전쟁 전기간에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젊은 연령층의 적령자 전원을 최초의 동원에서 소집해서는 안된다. 그 가운데의 일부는 전쟁의 진행 중 군에 보충할 수 있도록 보유해 두어야 한다.

군대의 전쟁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방법의 직접 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작전, 전투 및 정치적인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훈련의 기본적 목적은 군대를 고도의 전투 준비 완료의 상태에 두는 동시에 주요한 전투법을 전하고 전투, 작전 및 무력전 전반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새로운 방법과 전시의 계획과 예상의 실시 가능성을 개발하여 시험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부대에 정치적, 군사적 교육을 가르치는데 있다.

부대의 훈련은 병술(Military art)의 이론과 실계가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하는 동시에, 언제나 상호지원의 기초위에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작전상, 전투상 및 정치상의 훈련에서 얻은 경험에 기반을 두어 통칙(通則)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병술의 이론 개발을 촉진한다. 일방적인

결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작전과 전투의 훈련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적을 심중히 연구하고, 적의 군사작전 실시상의 사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술의 이론과 부대훈련의 실시는 국가의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가 요약하여 반영해 둔 각종의 공식적인 교범, 규정 및 지시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서류를 적절한 시기에 만들고, 전투 수단의 개발에 수반되는 개정 부대의 이러한 서류의 철저한 연구는 군의 준비의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평시 소련군의 개발은 일정한 기간에 계획되고,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계획, 무기와 군사 산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상의 선공, 그리고 국제정세의 특징에 관련을 갖는다. 정부가 승인한 군의 개발에 관한 장기계획은 전투방법의 질적·양적인 개발, 군의 조직기구, 전쟁에 있어서의 군의 운용, 무기, 장비 기타 물자의 예비 창설, 훈련을 필한 인원과 기간 지휘요원의 준비를 결정한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장기계획은 다른 추가 사항도 포함한다.

나. 소련군의 물질적
기술적 지원의 준비

소련군의 무기, 편성, 훈련 및 전투준비가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군사작전 실시를 위한 자재와 기술지원이 평시에 있어서 조직화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소련군은 부여된 임무를 실시할 수 없다.

현대전쟁의 초기의 성격으로 보아 초기작전에 필요한 자재를 평시에 준비할 뿐만 아니라, 대원폭 방위(Antiatomic Defense)의 요구에 응하여 이러한 자재를 분산한다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더우기 필요한 자재의 예비는 국내 깊숙한 동원부대의 위치에 비축해 두어야 한다. 손해를 보충하는 예비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소련군의 자재(資材)의 예비는, 그 사용 목적에 의해 종류별로 나누어 진다. 이 종별은 긴급용과 동원용의 비축, 전략상과 국가의 예비이다.

긴급용 비축은 대소의 평시부대가 직접 이것을 저장하며, 그 수량은(만약 알고 있다면) 동원·전개계획에 응하도록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각 부대가 특정한 기간동안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원 비축은 전쟁 초기의 작전간, 소비자재와 손실자재를 보충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동원 비축의 품질과 분배는 전쟁 초기에 전투하는 소련군의 필요

한 어림에 바탕을 두고 정한다.

전략 자재의 예비라는 것은 최고 통수부의 제량으로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예비를 의미한다. 기타 모든 자재는 국가의 예비가 된다.

전략 예비와 국가 예비의 규모는 공업 동원의 생산이 예정된 전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소련군에의 계속적인 보급의 필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다. 2차 대전의 경우, 이 수준에 도달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공업을 국내 깊숙한 곳으로 소개시키는 경우 6개월에서 9개월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소련군의 자재의 소요는 전쟁 개시 때의 최초의 작전과 전개한 부대, 또는 동원계획에 의거 새로 편성된 부대를 위한 보급에 대해서는 약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기타의 모든 계산은 전혀 가정에 지나지 않으며, 소련군의 자재와 기술지원의 계획을 개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다음에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군수상의 목적을 위한 평시 생산의 수준과 개전시의 공업동원 계획이 결정된다. 소요량에 관한 모든 계산은 물자가 부대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손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유있게 결정한다. 이러한 손실의 정도는 분명히 2차대전 당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종래의 전쟁에서는 철도가 국내나 작

<소련의 군사전략>

전장에 있어서 주요한 수송의 수단이었다. 오늘날 가령 철도가 파괴의 중심목표가 되어도, 수리를 위한 공업적 방법의 이용과, 침목(Roadbed)과 다리의 자료를 준비해 줌으로써 노선을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구는 하루에 40~50킬로미터 이내이며, 한편 교량의 복구는 하루 120~150미터 이상은 할 수 없다.

오늘날 전장에서 철도는 완전히 물자들 부대에 수송하는 것을 보장 못한다.

그래서 자동차 수송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동차 수송과 더불어 파이프라인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일방면군의 일회적 공세작전에도 매일 보급창에서 부대까지 2만 5천톤의 연료와 윤활유를 필요로 한다. 이 분량의 연료를 3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하는 데는 1만대 이상의 5톤 트럭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불경제일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적다. 근대의 제일선의 작전의 전 중심에 연료와 윤활유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트럭의 수는 수백이 될 것이다. 공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에 작전장에 있는 지하 파이프라인과 본관(本管)의 저유장에서 연료와 윤활유를 공급하는 문제는 급유하는 야전용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야 비로소 해결된다. 이 파이프라인은 전진하는 부대의 후방에 설치되며, 비행장과 해군기지에도 신장된다.

장래는 비행장에 의존하는 종류의 수송기가 물자 수송에 대단히 유익한 이동성이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보급작전에 있어서 항공기의 역할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항공기의 전제량이 불충분하며, 복잡한 비행장 시설을 필요로 하며, 비행중은 호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 전략 정보

평시에 있어서 소련군이 조직하는 전략 정보도 전쟁을 위한 중요한 준비의 하나이다. 그것은 소련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중요하다. 전략 정보에 의해서 잠재 적국의 계획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편의 전쟁준비를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적의 공격전에 대응 준비를 위한 시간의 여유를 얻을 수 있고, 적대 행동의 발단에서부터 작전실시의 적절한 결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고도의 기술적 개발이 없이는 오늘의 전략 정보에 대해서 기습공격의 준비를 완전히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정세를 비교하여 연구하면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징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조직된 전략 정보는 정부와 최고 통수부에 대해 정치 및 군사상의 얼마간의 준

비수단을 실시하는 가능성을 보증해 준다.

평·전시에 있어서 전략정보는 잠재적국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및 산업기술 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잠재적국의 군사능력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소련의 정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보와는 그 정보의 특질, 주어진 임무의 내용, 임무의 실시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략정보의 전반전 조직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는 군사전략정보는 국가의 전 정보근무의 일부이다. 그것은 좁은 군사문제의 연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정치문제, 군사·경제문제를 포함하며, 따라서 정치정보와 경제정보를 연결하게 된다.

군사전략정보의 기본적 임무는 타국의 군사·정치계획과 동원방법에 관한 자료의 입수, 외국의 군사, 정치 및 경제적 잠재력의 평가, 군사작전에 있어서 군대의 편성기구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광범한 연구, 잠재적국의 군사학의 연구, 전쟁 초기에서의 적의 군사작전의 계획안 입수, 군사상의 무기와 장비의 개발과 개선에 관한 자료의 획득, 군사작전과 그 시설의 자료에 관한 정보의 입수와 연구, 군과 국민의 정치적 사기의 상황에 관한 연구이다.

이상의 임무는 결코 정보활동의 범위 전체를 완전히 논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보활동의 기본적인 방향을 개관한 데 지나지 않는다.

국제법에서 시인되고 있는 합법적인 재외기관은 육·해·공군 부관과 공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는 군사고문단의 단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방측의 재외 부관실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정보작업은 개인의 관찰, 부대와 군사기관, 연습, 열병식, 군대 의식의 공식적인 참관, 국내의 시찰여행, 신문·잡지의 연구이다.

무선과 무선기술정보는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이 정보활동은 계절, 시간, 천기와 거의 관계가 없고, 연속적으로 비밀히 실시된다.

군대 내에서 전자장치를 광범하게 사용하면, 지상, 공중 및 해상 부대의 위치와 이 부대가 사용하는 무선통신에 관한 무선과 무선기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평문과 암호로 통신하는 대단히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공중으로부터 실시하는 전략정찰은 특히 전시에 있어서 정보를 얻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평시에 외국의 상공을 비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국제항로에 국한되어 있다.

정보 문서부는 신문과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및 TV 방송, 연구의 대상이

<소련의 군사전략>

되어있는 국가의 영화 등, 모든 합법적인 정보원(情報源)을 사용한다.

모든 합법적으로 공표된 자료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조직적으로 연구하여 이것을 조직적으로 처리해서, 비합법적인 정보원에서 얻은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평시에 있어서 전쟁준비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정보분석부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2. 국가경제의 준비

가. 공업의 준비

전시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업의 준비는 국가경제 전체의 준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사 생산량은 군사작전 개시와 동시에 급격히 증가된다. 예전대 2차대전 의 경우를 회상하면 충분하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은 29만 6천대의 항공기, 8만 6천대의 전차, 36만 3천문의 대포와 박격포를 생산했다. 소련은 1941년부터 45년까지 15만대의 항공기, 11만대의 전차, 9만문의 대포와 박격포를 생산했다.

무기와 군의 장비의 증가는 이것에 응하는 전력과 전략원 자료(戰略原材料)를 가지는 공업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새

로운 군용 무기(미사일 및 초음속 항공기 등)는 특히 안전성이 있는 합금을 필요로 하며, 많은 비철금속과 희금속과 더불어, 충분히 개발된 기계와 공작기계공업이 군수생산에 필요하다.

국가경제와, 특히 전쟁을 위한 공업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지도의 임무는 전쟁의 초기, 군수자재의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거의 전쟁에서 실시한 것처럼 개전 후의 새로운 군수생산의 대규모 개발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전쟁초기에 필요한 예비는 평소에 비축해 두며, 적당한 생산 잠재력과 전원(源電)은 개전시 전시의 군수생산 태세로 빨리 옮기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특수한 방위사업에는 예비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 예비능력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산업의 약 50%에 달한다.

평시에 미리 공업동원을 신속히 최후의 상태(전쟁의 위협을 받든가, 전쟁이 개시되는 상태)로 끌어 올리는 방법이 검토된다. 이에 관련하여 군수와 민수(民需)의 자재 설계를 규격화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 그 이유는 특수한 제품의 대량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제품의 생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꼭 장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업의 급속한 동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군대에 공급하는 물품의 규격화이다. 많은 다른 모델은 급속한 대량생산에 적합하도록 수계의 모델로 변경되어야 한다.

전쟁을 위한 공업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공업, 특히 중공업과 방위산업의 생존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전쟁에서 이 문제는 적의 공격이 성공한 경우, 공격하는 적의 항공기나 지상부대가 도달할 수 없는 국내의 깊숙한 곳에 중요한 공업시설을 지리적으로 적당히 분산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리적으로 분산해도 적의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공업의 잔존력(殘存力)은 강제 분산, 생산의 중복과 핵방위 대책에 의해서 확보해야 한다.

나. 농업의 준비

전국에 식량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업의 준비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물론 농업생산의 상황은 농업노동력의 큰 부분과 농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많은 부분이 소련군에게 흡수되기 때문에, 개전과 더불어 크게 변하할 것이다.

평시에 있어서 농업의 준비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첫째, 전쟁의 경우, 농업이 대량의 식량과 원재료의 예비를 만듦에 있어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개발한다는 것.

둘째, 소련군의 동원이 쉽게 행할 수 있도록 농업이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전 당초부터 농업은 국민의 현재의 수요를 채우고, 소련군을 위한 식량과 공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생산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농업의 발달은 기계공업, 건축, 식품가공공업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평시에 있어서 이러한 산업시설은 준비되고, 개전 당초부터 동원을 위해 농업에 사용되고 있던 기계나 노동자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다. 수송기관의 준비

평시에 전지를 위해서 수송기관을 준비해 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수송기관은 평시의 마찬가지로 공업과 경제 전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헌해야 한다. 더우기 수송기관은 새로이 동원된 부대와 각종의 군수품을 소련군에 후방지역에서 제일선지구까지 운반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부대는 대단히 큰 자재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화물수

<소련의 군사전략>

송의 방향을 대규모로 바꾸게 된다.

평시의 수송기관은 철도, 도로, 수로, 파이프라인 및 항공로의 신설과, 개선 각종 수송업무의 기술 및 경제적 개선, 적의 핵공격에 대한 잔존력을 증가시키고, 파괴에서 빨리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개발되어 간다.

전시수송의 요구에 대한 준비로서 철도, 수로 및 비행장에서의 이동수단과 연료의 예비, 도로, 교량, 통신선, 방파제, 비행장의 복구자재, 철도차량, 선박, 군용 수송기의 예비자재를 비축하게 된다. 수송기관의 수리와 복구를 위해 특수 기술자의 간부요원을 훈련해 두어야 한다.

전쟁을 위한 수로수송의 준비도 대단히 중요하다. 육군부대, 화물 및 해군부대라 할지라도 국내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나 적국 내의 수로에서 수송을 할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자동차 수송의 개발은 군사작전장에 있어서 소련군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어서 철도의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거기다가 자동차 수송은 철도수송 보다 잘 손상되지 않으며, 또 수로수송의 가능성을 때때로 제한하는 계절에 의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현재 연료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경제적이며, 또 핵폭발에 의해서는 잘 손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경우, 파이프라인은 석유 및 석유제품을 예상되는 군사작전장과 주로 공업지구에 보내는데 주역을 담당할 수 있다.

항공수송의 중요성은 설비가 좋은 비행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탐재량이 큰 헬리콥터의 건조에 의해서 증대될 것이다.

3. 국민의 준비

병시에 있어서 국민의 전쟁 준비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 지도 요령에 의해 실시된다. 첫째, 국민정신의 정치적 준비. 둘째, 국민 스스로가 대량파괴의 무기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러한 공격의 결과에 대처하는 준비로 일반적으로 민방준비라고 불리우고 있다. 셋째는 국민의 군사준비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준비는 서로 연관이 있고 또 서로 보조하기도 한다.

가. 국민정신의 정치적 준비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의 대량파괴 무기의 사용은 대단히 큰 요구를 국민의 정신상에 과하기 때문이다.

소련 국민정신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준비는 주로 그들에게 소련을 사랑하는 정신, 조국과 공산당을 사랑하는 정신을 반복 가르쳐,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준비를 주입시킨다.

전쟁에 대한 국민정신의 정치적 준비는 공산당과 소련정부에 의해서 지도되며, 그리고 국내의 모든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과 공보의 각 조직에 의해서 실시된다. 이것을 위해 모든 선전과 자국의 방범정(정기간행물, 과학, 문학, 영화, 연극 등)이 사용된다.

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국민의 방위 준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즉 사전에 국민에게 절박한 위협, 일부의 소개, 퇴피호의 건설을 경고하고, 개인에게 보호수단을 주며, 물과 식량을 공급해 주고, 국민이 지켜야 할 적당한 주의 사항을 시달하며, 질서를 유지해서 공황(恐慌)의 발생을 방지한다.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경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국민에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받는 손해를 간소시키는 수단을 강구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을 경우, 또는 전쟁 초기수 수일간, 대도시 및 국경지

대에서 주민을 소개시키는 계획은 사전에 상세히 세워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 국민의 군사교육

현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그것은 전쟁 중 소련군의 보충을 위한 것만도 아니다. 군사교육을 받은 국민은 사보타주를 하는 자나 대간첩부대를 조직하고, 또 영토 내에 침입해 온 적의 단독부대에 대한 결정적 빨치작전을 실시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현대의 보병 무기, 대전차 무기 기타 군사장비에 대해 가능한 한 이해해 두어야 한다. 적이 실시하려는 작전방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기치 않는 작전으로 혼란의 야기를 방지해 둘 필요가 있다.

4. 민 방

현대전에 있어서, 국내의 후방지역이나 전장에 있는 군대에 대해, 대량파괴 무기가 사용된다는 위협은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새로운 전략적 보호방식을 낳았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민방」으로서 알려졌다. 그래서 최근 모든 국가가 민방의 준비와 조직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컨대 영·미는 정부 당국자를 장으로하는 특별한 민방행정기관

〈소련의 군사전략〉

을 창설했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직접 많은 원폭경보의 연습을 감독하고, 대규모의 핵공격에 대한 피피소를 준비하며, 국민의 군사훈련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민방은 특히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그 유효한 기구와 기능은 후방의 방위뿐만 아니라, 개전 당초의 군대의 동원 실시에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민방의 기본적 임무는 전쟁 중 국가의 모든 지도기관이 병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유효한 경제생활을 보증하는데 있다. 이것은 대량 파괴무기에 대한 국민의 최대 보호, 희생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한 구호, 적의 핵공격에 대한 피해의 급속한 제거에 의해서 달성된다.

이상 열거한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가지 과업의 실시는 다른 일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민방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어느 민방의 수단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적 규모로 실시될 것이다. 예컨대 국민의 일부 소개(疎開), 투신연락과 통제물 확보하는 수단, 특별 민방부대의 창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의 수단은 특정한 정부부서(예컨대 국, 성 등)의 명령으로 실시된다. 이것도 국가 전체에 대해서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제 3의 무리의 수단은

도시, 공업의 공장과 연구시설에 권한을 분산시켜 실시한다.

이처럼 민방은 대단히 다양한 수단을 통합한 것이며, 그 실시는 정도의 차는 있어도 소련정부 및 경제기관의 임무이다. 모든 민방수단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가와 그 경제의 조직과 지령에 있어서 전반적 문제에서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다.

소련의 민방조직은 엄격한 중앙집권지도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조직은 국가의 민방에 대하여 전연방사령부의 지휘하에 있다. 더우기 각 성(省)의 대표로서 구성된 전국 지방 및 시에는 사령부가 있다. 이러한 사령부 산하에 의료, 식량보급, 수송, 경보, 통신, 기타의 특별기관이 있다. 그리고 참모가 각각의 지휘중추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방의 편성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성(省), 국(局), 부(部) 기타의 기관에서 계획에 바탕을 둔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운영을 확하는 책임이나, 국민의 수요를 채우고, 시설을 준비하는 책임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前述)한 것을 요약한다면, 민방을 조직함에 있어서 중앙의 통제, 지방에의 권한의 위임, 모든 수단에 대한 열성적인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해 둔다. (다음호에 이음)



미국의 우위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모

<Armed Force Management>에서

김진화 <역>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되어 온 미·소 양대진영의 치열한 군비경쟁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판가름 해 보기에 앞서 우리는 지난 10여년간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켜 왔지만 미국은 지난 10년 전의 원점에서 맴돌고

있으며 그 당시의 출발점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할 정도로 담보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공산권의 군사세력, 급후 약 3년 동안에 미국이 기여코 확보해야겠다고 하는 증강된 전략부대의 전력규모 그리고 미국의 기본군사

<미국의 우위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도>

전략을 뒷받침하는 대비태세 등 지금까지 미국의회에 제시된 온갖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50년대에 겪었던 「미사일·갯프」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미사일·라운치·갯프」의 시대에 와 있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운반가능한 유효화력의 총화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아직도 우세한 입장에 있으며 각종 유도탄을 비롯한 위력적인 보복전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보복능력(전력)은 MIFV (Multiple Independent Fe-entry Vehicle)라는 약칭을 가진 다탄두 유도병기와 전략폭격기(사람이 타고 조종하는)를 주축으로 하는 강대한 전력으로써 유사시에 즉각 출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가공할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억제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자유세계의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다.』

전쟁이란 워낙 불합리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아무리 선의의 인간들이 모여 전쟁합리론을 주장하고 전쟁의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일찌기 손자로부터 클라우즈비츠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또한 병법이요 괴도(詭道)로 통해 왔으며 비

록 그것이 암담하고 처절한 것일지라도 전쟁은 하나의 기술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우리 인류역사를 돌이켜 볼 때 살상과 파괴를 일삼는 전쟁의 무익론을 주장한 사람은 많았고 그런 주장을 측근자들에게 설득하려고 애쓴 사람도 역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전임 미국방장관 「로버트·S· 맥나마라」씨가 바로 그런 인물중의 하나이었다.

그는 핵무기경쟁을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이성을 되찾도록 근 7년동안이나 양심과 지성에 호소해 온 사람이었다.

1969년 국방예산증 전략부대 전력증강비로 요구한 예산총액은 96.18억불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는 1964년 이래 최대 예산규모로서 1968년 예산보다도 22%나 더 많은 것이었다. 연차적으로 살펴볼 때 1966에 66.85억불이 영달되어, 최저 기록을 보였고 이어 1967년에는 68.93억불 그리고 1968년에는 78.84억불이 각각 영달되었다. 소련의 미사일라운치 전력이 놀라운 증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공의 미사일 전력도 70년대에는 크게 늘어나리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 미 국방당국은 더욱 초조해졌고 1968년도부터는 많은 결단을 내리는데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으며, 앞으로 물론 공산진영의 미사일라운치 전력이 계속 증강되리라는 가정하에 더욱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리라고 한다.

이입하는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1969~1973년도 5개년 국방운영계획(예산사업)을 상징하는 자리에서 지난 7년간의 전략부대 전력증강계획과 그 실적을 세부적으로 또 조심성있게 공개한 바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우리가 착수한 대부분의 과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 전 그 당시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과응보격(因果應報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소련은 대규모의 ICBM전력을 이미 확보하였고 이를 완전 요세화돼 지하발사 사일로 안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약간 외람된 것 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미국이건 소련이건 간에 먼저 상대방을 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격 후에 올 무서운 보복과 그 막대한 피해를 생각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리 기습 공격이 완전무결한 성공을 거둘 수 있더라도 이미 승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소 양국은 이미 상대국에 대한 반격능력(초격 또는 피격 후 상대방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 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므로 무모한 공격은 서로 피하려 할 것입니다.」라고 맥나마라씨는 피력

했다.

그는 또한 이 자리에서 「최대예상위협」과 「예상한 것보다 더 규모가 큰 위협」에 공히 대처하여 완전격퇴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규모(안)를 제시하고 그 전력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적하기들 현재 예산조치된 전력만 확보된다면 미국의 국가 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 명시된 최대예상위협(Highest Expected Threat)에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이 7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도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지닌 대규모의 ICBM전력과 거대한 ABM망 조직을 가진 소련의 위협에 맞서 이를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규모가 더 큰」공방 합동전력의 대거 투입(이 위협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시 이에 맞설 수 있는 대등한 전력으로 우리는 핵탄두를 완전무장한 Poseidon유도탄과 장거리 폭격기 침투보조장치(이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택일하는 재량이 1970년에 반영된다)를 채택한다면 미국이 기습공격에서 받은 피해를 수습하고서도 능히 이 전력으로 소련인구의 18내지 25%는 살해할 수가 있고 산업능력의

<미국의 우위전략과 전략무기의 진모>

2/3내지 3/4정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신중을 기한다고 하다 시기를 놓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일은 거의 가망이 없기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큰 대규모의 공세(위협)가 불의에 닥쳐올 것을 예상해서 미국의 보장된 격퇴능력(U.S. Assured Destruction Capability)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맥나마라는 미 국방성이 채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추가 제시했던 것이다. 그 방안중 대표적인 것을 열거해 보면 (1) 모든 현존전력을 Minuteman III으로 전환하는 방안 (2) Minuteman 유도탄의 대당 운반가능 탄두수를 늘이고 모든 Minuteman III 전력을 초경화식 사일로 안에 넣어 지하화, 요새화 하고 ABM망으로 Minuteman 전력을 방어하는 방안 (3) Poseidon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해서 배치하고 새로운 지상기지유도탄(Land-Based Missile)을 개발생산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유인폭격기전력에 관해서 살펴 볼 때 소련이 앞으로 배치할지 모르는 고성능 요격기(신형)에 대항하려면 폭격기의 전력발휘를 위한 침투작전용 보조장치가 있어야 할지 모르니 이런 병기도

개발해야겠고 폭격기의 기종도 한 가지를 확정지워 신기종을 개발해야겠다고 주장했다. 맥나마라는 국회증언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각종 유도무기와 선제공상이 되어 있는 여러 기종의 [폭격기는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위협]을 조성하는 적의 가상 통합전력을 상대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협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해 질 때까지는 이 전력을 일선에 배치할 필요가 없으며 또 배치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을 거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 우리는 개발과 생산 그리고 전력배치에 따르는 일련의 선행기간을 설정해서 항상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 병기 제작에 대한 일정계획을 상대방의 위협이 진전되는데 따라 주도면밀하게 짜나 가야겠고 그 실천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피해제지전력」(Damage Limiting Forces)의 증강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맥나마라는 미국의 군사력이 지니고 있는 「보장된 격퇴능력」(Assured Destruction Capability)과 유사시에는 이런 종류의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적의 침략적 기도를 제지해 왔음을 역설한 바 있었다. 그도 역시 소련의 유도탄공격에 따르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방도가 없음을 지적하였지만 중공의 유도탄공격은 Sentinel 유도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는 장담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주요도심지 외곽에 Nike-X 유도탄을 배치하자는 방안은 다만 군비경쟁을 가열시키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맥나마라는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ABM 방어전략을 에워싼 논쟁이 이제는 다 해소되었다고 진술했으며, AWACS(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항공기탐재레이다를 이용한 방공관제 체제)와 현용 F-106 요격기를 새로 개조한 F-106X를 활용하는 대폭격기 방공망 강화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1967년도에 미 국방당국이 제시한 전략유도병기전력규모는 Minuteman이 1,000기 Poseidon이 496기 그리고 Titan II가 54기에 이르고 있었다. 1968년도에도 이와 대등소이한 전력규모가 되겠으나 이 해에는 특히 전력배합안(기종과 파일로트의 효과적 배합)이 제시되었고 모두 83.09억불에 달하는 예산이 영달되었다.

1967년도 4월경에 1,000기의 Minuteman이 설치 완료됨으로써 당초 요구 예산에 반영된 계획은 완성을 보게 되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소련 역시 1968년 여름까지는 미국과 동등한 수량의 유

도탄(지상에 기지를 둔)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967년도의 국방 5개년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맥나마라는 「1970년도 초까지도 우리는 숫적으로나 전반적 진투역량으로나 소련을 계속 능가하고 전략적 우위를 견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이 기대치는 바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656기의 Polaris 유도탄을 장비한 잠수함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발사가능 유도탄수가 소련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1968년도에 맥나마라는 국회보고시 이런말을 진술한 적이 있었다. 「매년 우리가 미국에 대한 전략 핵무기의 위협도를 측정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할 때마다 감히 제가 몇 마디 경고를 해왔읍니다만 우리가 눈앞에 박두하고 있는 상황이나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제법 자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나 그 미래의 시계(時界)가 밀어질수록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되는데 역시 먼 장래의 정세판단이란 자연히 그 불확실성에 지배되고 만다는 것을 이번에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헛점은 물론현행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969년도까지의 정세판단은 그래도 비

<미국의 우위 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모>

교적 확실성이 있다고 하겠읍니다만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한 정세판단은 점점 그 확실성이 흐려져가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계획기간중에 포함된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 생산과 배치에 따르는 선행기간을 설정했을 경우 그 기간을 초월한 미래의 어느 시점을 대상으로 무슨 계획을 한다면 거의 확실성이 없는 판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꼭 1년 전 백나마라는 소련의 ABM방공태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공격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그때부터 미국은 Sentinel유도탄 생산을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 유도탄으로 말하면 중공의 ICBM공격을 저지할 목적에서 고안된 미국의 ABM체계인 것이다. 1967년경 미국의회는 소련의 막강한 ABM망에 대처할 전력부대의 공격능력을 강화하여 전력증강을 도모하려면 구형인 Minuteman II 미사일을 Minuteman III로 대체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는 보고를 여러번 받은 바 있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소련의 ABM 배치계획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진척이 빠른 것은 아니었으나 미국방당국은 Minuteman III을 수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으로 예산책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1969년 예산사업중에는 또한 Minuteman을 위해서

이중의 목적을 가진 초경화 사일로(Super-hard Silos) 또는 지상에 기지를 둔 새로운 AICBM(Advanced ICBM)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 AICBM에 대한 검토는 1967년 여름에 완료되었고, 1968년 예산에는 이 AICBM 기술개발비로 5,600만불이 인가 책정되어 있었다. 3단 로케트추진체의 세번째 부분(Third Stage)을 개량한 Minuteman III은 고성능 칩투보조장치와 다량의 탄두를 적재하고 이를 운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개발 초기의 진척은 전체계획이 예상 외로 오래 걸리게 된 관계로 예정보다 몇 달은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Minuteman I 전력의 Phase-out계획도 늦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Minuteman II는 회수차량(Re-entry vehicle: 발사한 로케트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한 비행체부분으로서 동력추진에 의하여 목표물에 유도된다.)과 칩투보조장치가 개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Minuteman III과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총액은 대략 3.15억불에 달하고 있는데 Minuteman III의 칩투보조장치 개발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54기의 미사일을 가진 Titan II 전력 만은 수명이 유별나게 길었던 것

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1969~1970년 사업계획상의 조변량이 근소해진다 매년 실시하는 발사시험(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겠는가를 테스트 하는)마저 연 6회에서 4회로 줄게 되어 현 보유전력의 규모는 늘리는 대신 그대로 현 상유지가 될 것이며(1970년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야겠다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라운처에 장착하여 항시 발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Polaris-Poseidon전력에 있어서도 라운처 댓수는 달라지자 않고 그대로 현상유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운영중인 총원 41척의 잠수함 함대를 국방당국은 본격적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은 고도로 현대화된 Poseidon C-3 미사일이 31척의 핵잠수함에 적재운반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척의 잠수함 중 585급잠수함 5척과 598급 5척에는 성능이 개선된 Polaris A-3T 미사일이 장치되도록 함 내 구조변경을 위한 개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10척의 잠수함은 선체 중간부분을 통채로 갈아치우지 않고는 Poseidon을 장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선체 중간부분을 갈아치우려면 잠수함 한 척을 새로 사들여 오는 거나 맞먹는 비용이 든다고 하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조를 해 놓아도

른 31척의 잠수함과 똑같은 능력이 갖추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5척의 598급 잠수함은 이제 A-3형 Polaris 유도탄을 장비하고 있으며, A-2형으로 무장하고 있는 5척의 608급은 두번째 오우버홀(廠再生)기간중에 모두 개량된 A-3T형으로 바뀌어놓게 될 것이라고 한다.

1969년 요구 예산에 반영된 조함 및 함중전환비에 6기의 Poseidon C-3 전환과 동할 6척의 사전 조변을 위한 소요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967년 10월 1일 펜타곤의 정보소식통은 미국이 모두 1,710기의 장거리유도탄을 ICBM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소련은 모두해야 750기 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다. 1967년 한 해 동안 소련은 쉬지 않고 매일 한 대 꼴로 미사일 보유댓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증가속도(증가율)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지상에 기지를 둔 소련의 미사일라운처 전력이 1968년 여름까지는 미국과 맞먹게 되므로 역사상 최초로 「미사일격차의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만이 독점하고 있는 Polaris 함대 덕분에 아직도 1.5 대 1이라는 우세한 입장을 미국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이상 그 미사일격차의 「완전해소」란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국미

<미국의 우주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모>

이 ICBM 미사일라운치의 신규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또 소련이 약간 느린 속도로 생산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 소련과 미국과의 미사일격차는 금후 3년, 기러니까 1971년경에나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더 재미있는 일은 1969~1973년의 5개년간 미국의 전략공격전력(Strategic Offensive Force) 계획에 따르는 예산편성내용을 볼 때 미사일만이 유일무이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근 700대의 B-52폭격기가 미국의 전략적 방어전력의 일익으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파괴용 무기류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각종 운반수단(Vehicles)을 모두 합쳐본다면 미국은 소련에 4.5대 1강이라는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미 국방당국의 공식 추계이며 이는 미국이 완전무장한 병기체계(Force loading)(탄두의 수량을 단위로 표시한다) 4,500개를 보유하는데 소련은 겨우 1,000개 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 국방성은 장거리폭격기(유인)의 전력규모를 계속 680대에서 700대 정도로 현상유지할 것을 제외해 왔다. 따라서 C에서 F형까지의 B-52 폭격기 3개 대대는 1972년까지 존속될 것이다. 폭격

기 전력구조는 중국에 가서 281대의 B-52G/H와 253대의 FB-111을 보유하도록 T/E상에 인가되어 있으며 예산조치도 완료되어 있다. 맥나마라의 보고서에 의하면 또한 FB-111의 전환(도입)계획에 차질이 생겨 B-52의 연(접)차적 폐기계획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규모의 B-58전력은 예정대로 Phase-out 되리라고 한다.

맥나마라는 국회에서 이렇게 진술한 바 있었다. 이 「분야의 예산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70년대 중반에 크게 증강될 소련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적 후방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폭격기(유인)의 능력이 확보가능한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예의검토한 바 있으나 결국 중요시되는 것은 어떤 신기종을 선택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우수한 침투 보조장치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압축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FB-111의 도입이 확정되고 B-52G/H의 계속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기종의 폭격기를 생산해서 일선에 이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그리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한 맥나마라는 현재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70년대에 소련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은폐효과나 위장전술에 착안하여 새로운

보조장치(Sub-System)를 개발하고 이를 구형(현용) 또는 신형 항공기에 그대로 장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

유인 폭격기의 중요성이 새삼 클로즈업되고 있다는 증거는 또한 미국방당국이 제시한 SRAM(Short Range Attack Missile)이라고 하는 단거리 공격미사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가를 봐도 알 수가 있다. 1967년에 맥나마라는 말하기를 B-52에다 SRAM을 장비할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나 배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장비(Avionics)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SRAM을 운반할 수 있게 B-52 몇 대를 개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SRAM 개조 이외에도 월남전과 같은 국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전무기(Electromagnetic warfare devices)를 광범위하게 연구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던가 실현성이 다분히 있는 AMSA의(Advanced Manned Strategic Aircraft)전력화를 위해서 엔진과 전자계통을 일원화하려는 진일보한 개발계획 그리고 좀더 진보된 폭격기의 침투보조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의 기본 방향은 현용 B-52와 앞으로 도입될 FB

-111에나 새로 개발될 AMSA 등에 다 같이 고용할 수 있는 기체의 내부계열화 및 서브시스템의 설계제작에 두고 있는 것이다.

AMSR가 현용 폭격기와 기종전환을 할 수 있게 될 시기는 빨라야 1976년도 가 되리라는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미국방성과 공군당국은 SRAM을 현용 하운드·도 그 부대의 전력보강용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하운드·도 그와 SRAM미사일은 둘 다 목표파괴용으로 쓸 수 있고 적지 상공의 방공망을 뚫고 침투할 폭격기의 침투능력을 보조해주는 여러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1969년 요구예산에는 ABM방공망에 약 12.32억불, Sentinel 배치 계획에 6.51억불(1968년 예산은 2.29억에 불과했다.), Sentinel 연구개발비로 3.13억불, ABM신기종개발(Nike-X 프로젝트로 불린다)에 1.65억불 그리고 Defender용으로 1.03억불이 각각 책정 포함되어 있었다. ABM의 단독개발 및 생산을 위한 예산은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1969년 예산으로 별도 책정되어 있었다.

「대중공 ABM방공망 설치안을 확정 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타의 전략적 방어계획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맥나마라는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는 이 주장을 관철시키

<미국의 우위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모>

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다. 먼저 Sentinel 시스템을 위해서 계획된 PAR(Perimeter Acquisition Radar)은 현재 BMEWS(유도탄 조기경보망)가 맡고 있는 몇몇 임무를 인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새로이 개발된 지평선 넘어 탐지가능한 오우버·더·호라이즌·레이다(Back Scatter)는 적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야 말로 이 잡다한 시스템을 서로 관련있게 재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맥나마라는 권고한 것이다. 이 거창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는 미 합동참모본부에 「합동대륙방공체제 통합기획참모단」(Joint Continental Defense System Integration Planning Staff)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지하였으며, 이 기구를 통해서 모든 방어체제의 전시운영문제를 포함하는 제반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미국의 대륙방공체제가 난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으나 여기서 그 한 가지 증거를 들추어 본다면 가령 BMEWS계획만보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우버·더·호라이즌·레이더(Forward scatter; 전방경계용) 프로그램 만은 그 사이트워치선정에 있

어 몇 가지 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로 취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OTH(후방경계용)레이다는 대륙격기방어용으로 고안한 것인데 머지않아 그 레이더망의 첫번째 구성부분이 설치완료될 것이며, 전리층이나 그 밑을 통과하는 미사일(주로 해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서 SLBM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포착하는에는 전방경계용 레이더시스템보다 더 성능이 우수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PAR(변방탐지용레이더) 외에도 Sentinel ABM망은 MSR(Missile Site Radar), 장거리 Spartan유도탄(지역방공용)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늦게 확보가 되겠지만 국지방공용 Sprint유도탄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비교적 원시적인」 중공의 ICBM공격을 받게 되는 날 Sentinel시스템은 아마 미국의 사상자 수를 100만명 내외로 억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맥나마라는 '자신만만하게 말한 적이 있다. 여기에 조금씩만 돈을 더 들여 이 Sentinel시스템을 유지해 나간다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무난히 중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주요도시 외곽에 Nike-X를 배치하여 소련의 ICBM위협을 막겠다는 생각은 그다지 실용성 있는 것이 못된다고 믿어 왔지만 이임하는 국방장관

으로써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타
개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술개발프로젝
트를 계속해 주도록 권고하였다. 고도
기술연구프로젝트담당국(Advanced Re-
search Project Agency)이 맡고 있는
Defender 프로젝트와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ABM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두
예산조치가 완료되어 있었다.

맥나마라는 진술하기를「지금까지 작성
된 청사진에 의하면 Spartan 미사일은
3단로켓 추진체를 갖고 있는데 고성
능 최신행 탄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 백마일을 초과하는 사정거리 내에서
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으며 대기권
밖의 고공에서까지 적기를 요격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만으
로 만족하지 않고 소련의 FOBS(Fracti-
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를 반격할 수 있도록 Spartan의 성능
을 개량하고 그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계속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물론 ABM이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
기는 하지만 유인폭격기의 위협이 다분
히 증가하리라는 가능성을 경시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한다. 펜타곤의 정세판단
에 의하면 소련의 중폭격기전력은 ICBM
전력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감소될 것이
라고 한다. 소련측에서 앞으로 더 이상

폭격기를 개발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미사일의 경우처럼 우리는
7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폭격기 위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이 아무리 희박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는 큐바나 제3국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
올지 모르는 전투기나 폭격기의 공격에
도 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라고
맥나마라는 미국의 방공전력증강계획
을 브리이필하는 자리에서 진술하고 있
다. 맥나마라의 설명에 의하면 새로운
AWACS의 타당성(실현성)이야말로 침
체된 미국의 방공(방)체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실시한 테스
트결과에 의하면 지상을 벗어나 어떤 고
도에서 날고 있는 항공기라도 이를 탐
지할 수 있는 항공기탐재용 하방경계메
이더의 개발이 이미 그 성공을 보장받
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무엇이건 가능하게 되었으니
모든 문제를 통털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다.

70년대의 방공체제확립을 위해서 맥나
마라는 가능성있는 여섯 가지 목표를 제
시하면서 전력구조로써 세 가지 대안을
열거하였으며 그는 이 대안을 서로 절충
하도록 권고하였다. 극단적인 두 가지

<미국의 우위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모>

방안으로서 (1)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현존 방공전력을 그대로 현상유지하는 안과 (2) AWACS를 동원하는 방공관제망형성으로 현 방공전력을 현대화 내지 증강하고 요격기로는 F-12를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3안으로서 국방성이 밀고 나가려는 것은 AWACS를 확보함은 물론 하방경계용레이다능력과 섀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하여 좀 더 강력한 화력제어계통을 갖춘 요격기전력으로 F-106의 능력증강을 기하는 방안이었다. 이 전력증강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0년간의 소요예산은 123억불에 달하게 될 것이며 F-12 전력증강안이 137억불인데 비해 경제적인 방안으로 판명되었다.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공관제 임무에는 F-106X가 안성맞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탁강하고도 효과적인 ABM망능력(이 능력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다.)을 수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공체제라 할지라도 소련의 공격에 대한 피해억제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저울질을 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AWACS/F-106X 전력구조가 그래도 가장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맥나마라는 말했다.

F-106X가 될지 F-12가 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중 어느 한 가지의 방공체

제하에서 운영되더라도 앞으로는 SAGE/BUIC지상정보망은 모조리 해체되고 미국연방항공국(FAA)이 운영하는 레이다가 평시의 공중감시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OTH(후방경계용) 레이다가 여기에 추가되어 항공기에 대한 조기경보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 요격기전력의 해체는 196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ANG(Air National Guard)의 F-102대대는 탐색레이다망과 더불어 하와이 공역에 대한 국지방공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될 계획이라고 한다.

맥나마라는 또한 미국이 카케더정부와 절충한 결과 북미대륙의 방공에 카나다는 계속 참여하여 공동방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언약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방위계획(Civil Defense Program)을 위해서는 모두 7,700만불의 요구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미국의 안보와 국방문제의 초점이 아직까지도 동남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방어태세와 전력현황이 어찌면 60년대의 공백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인상이 오늘날 여러 식자들 간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큰 관심사로 등장되고 있는

〈미국의 우위 전략과 전략무기의 전모〉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토방위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공산권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은 마땅히

미국과 소련의 힘의 균형에 쏠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진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 표〉

미·소의 대륙간 핵전략무기(전력) 대비표

	1966. 10.1현재		1967. 10.1현재		증감률 (%)	
	미	국 소 련	미	국 소 련	미	국 소 련
ICBM라운저	934	340	1054	720	+13%	+112%
SLBM라운저	512	130	656	30	+28%	-77%
총 미사일 보유댓수	1446	470	1710	750	+18%	+64%
대륙간전략폭격기	680	155	697	155	2.5%	0
총 운반가능전력	(1966년도의 미국방성)		4,500	1,000		
(대략적 탄두보유수)			공식추계는 없음			

〈위인 일화〉

루이 12세가 아직 올주레안공으로 있을 때 어느 시종 한사람이 농민을 학대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왕은 그 시종의 식탁에는 빵은 놓지 않고 고기만을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시종은 불평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 소문을 들은 국왕은 그를 불러놓고

「가장 필요한 식량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빵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럴것이다. 그렇다면 어찌서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을 학대하는가?」하고 크게 꾸짖었다 한다.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 전망

중령 ·

조

옥

찬

1. 우주수송비행체의 필요성 과 그 개요

지난 1960년대에 있어서 우주비행분야에서 얻어진 성과들은 과학발달과정의 어느 시대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집약된 거대한 기술업적을 보여 주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무인 유인 인공위성의 이용이 인간생활에 직접 기여하게 됨에 따라 우주를 이용하려는 목망이 커졌으며 지구 이외의 태양계의 혹성인 화성 및 금성에 대한 탐색우주비행체가 많은 과학적인 유용한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되어 유인위성으로 탐색비행이 가능하도록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달세계를 정복한 Apollo 계획은 우주이용도를 확장시키려는 방향을 자극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확장되어가는 우주이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지구주위의 무인, 유인 인공위성을 올려놓아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며 또한 계속적으로 달여행이나 혹성에 대한 탐색비행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당면하게 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성 즉 투자비인 것이다. 만일 더 많은 우주비행체를 발사하여 인간에게 보다 크게 기여하도록 하자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같은 비행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궤도상에 준어진 임무를 가진 비행체를 올려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의 하나가 바로 우주수송비행체(Space Shuttle)(Space Shuttle을 우주수송비행체라고 번역한 것은 필자의 소견이며 문교부용어제정에 의해 아직 정하여진 것이 아님)이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미 19

6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되어 미국에서 우주비행의 새로운 단계로 등장하였고 많은 연구성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우주수송비행체라고 하면 우주비행체를 다시 이용하여 보려는 재이용성(FEUSABILITY)에 특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우주비행과정에서 어떤 목적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사용된 동력체는 자체의 동력비행만 끝나면 회수되지 못하고 내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 이같이 회수되지 못하고 소모되는 동력체의 비용이란 하나의 우주비행을 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낭비가 보다 많은 우주비행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우주비행과정에서 동력체의 지금까지의 개념을 버리고 재이용할 수 있는 비행체, 즉 우주수송(Space Transportator)을 주임무로 하는 우주수송비행체를 발전시켜 보려는 것이다.

우주수송비행체를 우주비행에 사용하게 되면 다음의 다섯 문제의 이점을 갖게 된다. 첫째, 비교적 고가인 상승동력비행체(Booster)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고 다시 회수되어 재이용하게 되므로 인공위성발사에 필요한 경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둘째, 사람, 물자, 연료를 적은 비용으로 지구상의 우주기지에 운반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방

법인 우주정차장계획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전체계획예산의 약 70%가 조립물자를 수송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우주기지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물자의 수송비가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만일 적은 비용으로 수송비행체를 제작하여 이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넓은 우주비행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하여 우주수송비행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따로 우주에 대한 과학적 및 상업적인 이용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 지원하게 되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셋째, 인공위성을 지상에서 자기 발사할 필요가 없이 우주수송비행체가 여러 목적의 인공위성을 싣고 필요한 궤도에 올려놓게 되며 우주에서의 수리, 우주기지의 지원, 우주구조 등이 실제로 가능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우주비행에 대하여도 연료보급, 필요한 하중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넷째, 우주수송비행체가 그 자체 내에 우주연구실을 설치하여 단기간 비행하면서 지구자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나, 천체관측을 하는 일을 수행하다가 필요할 때에 지구로 귀환하도록 하는 우주실험실로서도 아주 적합하다. 다섯째, 우주수송비행체는 항공기발달에서 대륙간극음속항공기나 동력상승활공비행기를 개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전망>

발하는 분야에 직접 공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무에 적합한 비행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NASA의 유인우주비행연구소의 관리하에 여러 연구기관이 동원되어 1960년대 후반을 A단계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공기역학, 구조, 재료, 동력학 및 추진기관 등의 각분야에 걸쳐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설계-제작-운영에 대한 자료를 얻었으며 1970년대 초기에 들어와 B단계연구기간에 우주수송비행체로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하여 합축된 계획이 수립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단계연구에 제시된 우주수송비행체의 요구조건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 (1) 산소와 수소의 추진제를 사용한 로켓엔진을 장치하여 완전히 재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상승동력비행체(Booster)와 궤도비행체(Orbiter)로 된 2단비행체이어야 한다.
- (3) 55도경사된 270N·Mi궤도까지 2만 5천파운드의 하중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4) 궤도비행체는 원통형으로서 직경이 15FT, 길이가 60FT인 크기의 적재실을 가져야 한다.
- (5) 3g의 가속도범위 내에서 수직으

로 상승하고 귀환시에는 수평비행으로 육지에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

(6) 궤도에서 7일간을 자체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우주수송비행체의 종류와 그 성능

앞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에 알맞는 우주수송비행체는 평행으로 결합된 2단의 비행체이며 제1단비행체는 모선의 역할을 하는 상승동력비행체(Booster)라고 칭하며 제2단비행체는 자선격(子船格)으로 적재물을 운반하는 궤도비행체(Orbiter)라고 칭한다. 상승동력비행체와 궤도비행체는 모두 고성능의 액체수소와 액체산소로 된 추진제를 사용하여 로켓엔진을 작동토록 장치되어 있으며 각기 자체의 비행임무를 마치고 대기권으로 되돌아 와서 발사기지 혹은 육상의 활주로에 바퀴를 사용하여 착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승동력비행체는 궤도비행체에 수송물자 즉 어떤 하중을 적재하고 있는 제2단을 업고 수직으로 발사된 후 궤도비행체를 충분히 궤도속도를 얻을 수 있는 고도까지 가속시키는 비행을 한다. 이 비행을 끝내면 제2단을 궤도에 비행

시키고 대기권으로 재 진입비행을 하여 공기역학적인 선회비행을 하면서 공기 흡입식 터보엔진을 사용하여 아음 속의 비행속도로 마치 비행기와 같은 방법으로 발사기지에 착륙하게 된다. 한편 궤도비행체는 상승동력비행체에서 분리되어 자체의 로켓엔진에 의하여 비행에 필요한 궤도속도까지 가속비행을 하여 주어진 궤도에서 임무에 따르는 우주작업을 수행하며 즉 적재하고 온 하중을 옮겨놓고 난 후에 다시 자체의 로켓엔진을 작동시켜 감속비행을 하면서 지구로의 귀환비행에 들어간다. 대기권재진입시에 거의 마하 25 범위에서의 속도로부터 아음속비행속도까지 감속시켜 활공비행을 하기 위해 공기역학적인 제동(Brake)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궤도비행체도 역시 지구의 발사기지에 착륙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선정되어 개발중인 우주수송비행체의 제1단인 상승동력비행체(동력체라고 약칭함)로서는 대형의 두 종류와 소형의 두 종류를 소개하기로 한다. 대형의 두 종류로는

첫째, 대형비행귀환식 상승동력비행체(Large Fly-Back Booster)이며 지난 수년간 McDonnell Douglas 회사에서 깊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비행체는 로켓추진기관으로 궤도비행을 하

며 연소가 끝난 후 다시 터보제트엔진을 작동시켜 발사기지로 귀환비행하여 수평으로 착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동력체는 궤도상에 수송할 수 있는 하중이 4만파운드이며 2단의 무게가 59만 5천파운드, 1단의 무게가 293만 4천파운드로 발사기지에서 상승비행 전 전체무게는 352만 9천파운드가 된다.

둘째, 대형회수식 상승동력비행체(Large Recoverable Booster)이며 수직상승의 비행을 마친 후 탄도에 의한 재진입비행을 하도록 하며 낙하산을 사용하여 해상이나 육지에 안전하게 착륙시켜 회수하는 비행방법의 비행체로 이 회수된 것을 다시 정비하여 재이용하도록 한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전체상승중량은 350만파운드가 되며 전자의 경우보다 연료비가 크고 구조효율이 좋아 더 많은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음의 두 종류는 소형의 궤도체나 적은 하중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비교적 전체상승중량이 적은 비행체인 것이다.

셋째, 소형비행귀환식동력비행체(Small Fly-Back Booster)이며 첫째의 동력체와 비행방법은 같으며 자체의 연료로서는 2만파운드의 하중을 실을 수 있고 만일 외부보조탱크를 장비하는 경우에는 5만파운드의 인공위성, 물자, 장비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진망>

등을 수송실에 싣고 비행한다. 제2단에 하중을 실은 중량은 46만 7천파운드, 제1단에 짐을 실은 무게는 224만 2천파운드로서 상승비행 전 전체무게는 271만 8천파운드가 된다.

네째, 소형공중전인식 상승동력비행체 (Small Aerial Towback Booster)이며 수직상승비행을 마친 후 제1단 전체가 무인활공기와 마찬가지로 비행하게 된다. 큰 조종실이 필요없으며 대형의 공기흡입식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아음속비행에서 양항비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D-5A와 같은대형함공기가 공중에서 동

력체를 단나서 견인비행을 하여 기지에 착륙시켜야 한다. 전인되기 전까지 얼마동안 공중에 체공하기 위하여 로켓엔진이나 제트엔진을 작동하며 비행시킬 수도 있다. 셋째의 동력체와 마찬가지로 보조연료탱크를 장치하면 5만파운드의 물자를 궤도에 수송할 수 있으며 이때 제2단의 무게는 47만 8천파운드가 되고 제1단의 무게는 157만파운드로 상승발사시의 전체무게는 204만 6천파운드가 된다.

이 동력체는 셋째의 것보다 가볍고 비행방법이 간단하여 개발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시일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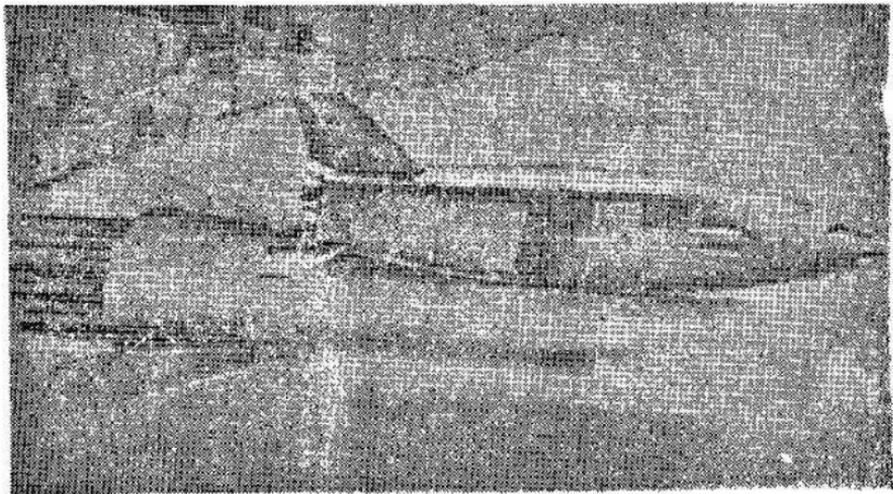


그림 1. 우주수송비행체의 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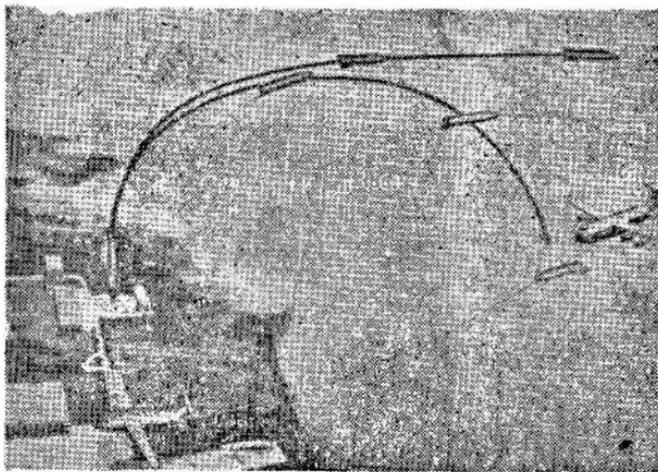


그림 2. 건인식 동력체의 비형방법

다음에는 우주수송비행체의 수송의 최종 임무를 수행하는 제2단인 궤도비행체

(Orbiter)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하기로 한다. 궤도체는 외형과 크기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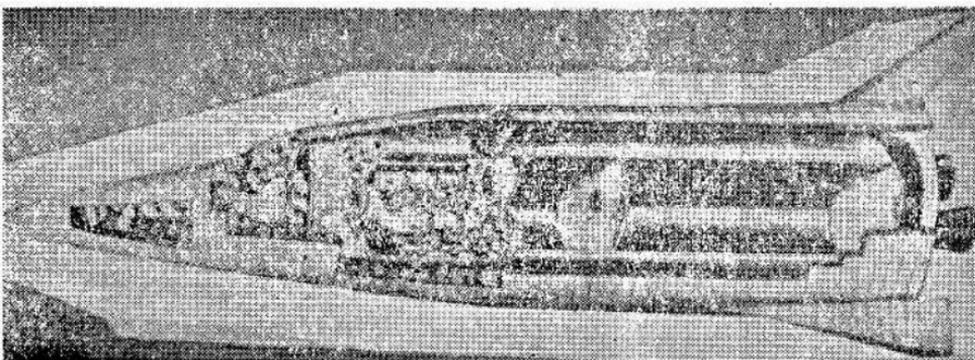


그림 3. 소형궤도비행체의 구조

많은 종류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 그림 3은 소형인 궤도체로서 인간과 물자를 2만파운드 운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체내에 길이 60

Ft, 직경 15Ft인 원통형으로 된 적재실이 있고 적재실의 앞 25Ft에는 물자를 싣고 뒤 36Ft에는 추진제를 싣게 된다. 그림 4는 소형의 궤도체에 외부보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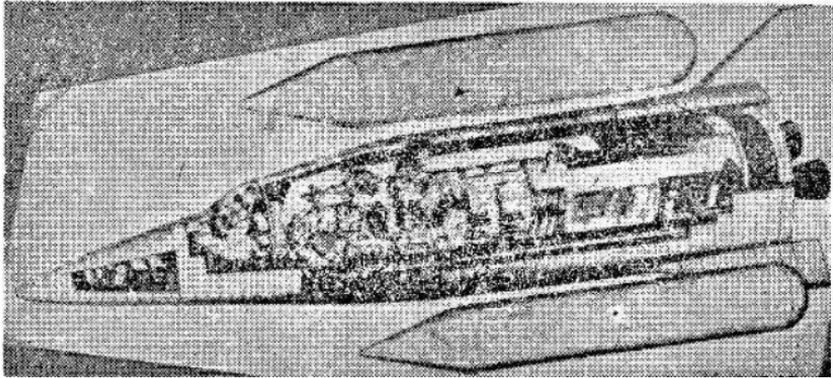


그림 4. 보조연료탱크를 장치한 소형궤도체

보조연료탱크를 장치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5만파운드의 하중을 실게 된다. 이 보조연료탱크는 비행임부에 따라 적재실로 내치할 수도 있고 혹은 지구귀환비행시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대로 우주에 남겨둘 수도 있다. 궤도체의 외부형태의 결정은 귀환비행에서 일어나는 공기

역학, 열분해, 구조, 안정성에 따라 그 중요도를 비교하여 얻어지게 된다. 대체로 고정직선날개로 된 것, 가변날개로 된 것, 양력발생체인 것, 별타날개인 것, 퍼달는 날개(Drawbridge Wing)로 된 것들을 들 수 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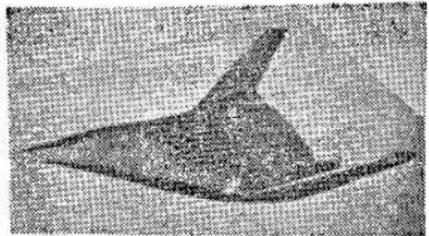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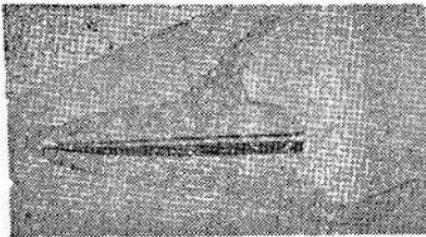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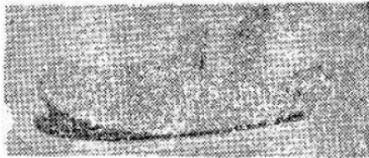


그림 5. 양력발생궤도비행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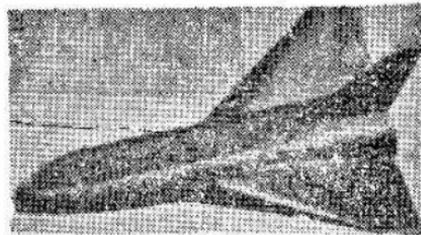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전망>

여기서 위에 말한 상승동력비행체와 궤도비행체중에서 어떤 종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용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개발투자비, 운영비, 공학적인 문제 등의 관련되는 사실들이 많아 선정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지만 소형 궤도비행체에 보조연료탱크를 장치한 궤도체와 대형비행귀환식동력체로 된 비행체가 크지 않은 전체상승무게로 많은 하중을 궤도상에 운반할 수 있는 비행체가 되리라는 결론을 가져 본다. 즉 큰

궤도체와 같은 체적의 무게로 제작한 것에 비하여 보조탱크를 사용한 소형궤도체가 적은 무게비와 좋은 구조효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며 소형궤도체는 궤도비행에 있어서 대형에 비하여 단점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형동력체가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고고도의 궤도에 그 궤도경도가 크고 궤도비행중에 변이가 많은 인공위성을 궤도상에 올려놓기 위하여(예로서 현재의 NIMBUS 기상위성의 경우) 대형의 동력체가 아니고서



고정직선 날개



델타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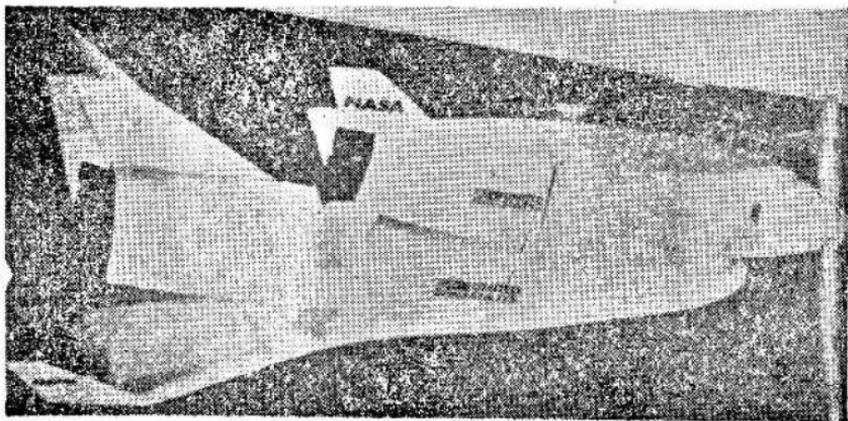


그림 6. 퍼달는 날개의 궤도체와 동력비행체의 여러 모양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진망>

는 이같은 궤도에 소형궤도체를 운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투자될 연구개발비를 비교하여 보면 대형동력체에는 65억불, 소형비행귀환식에는 50억불, 소형견인식에는 40억불이 소요된다. 운반비에서는 1개의 비행체가 대략 백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따지게 되면 최초 1회궤도비행체의 비용의 Recycle Cost가 대형인 경우 0.9%, 소형비행귀환식인 경우 0.5%, 소형견인식인 경우 0.9%가 된다. 다시 말하면 보조연료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제1회비용이 약 파운드당 250불이 되고 천회의 추가비용으로는 파운드당 80불이 된다. 소형인동력체가 대형보다 개발투자비가 적게 들고 궤도체에서는 보조탱크를 장치하는 경우 하중 5만 파운드를 궤도에 운반하게 되므로 대형의 것과 비슷한 파운드당 경비로 궤도 운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무인견인식동력체에 보조연료탱크를 갖춘 궤도체가 먼저 개발되어 실험될 것으로 본다.

3. 우주수송비행체 개발에 수반되는 공학문제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이용가능하고 투자비와 운항비면에서도, 실현가능한 것을 신중하여 설계, 제작, 운항

하여 실용되기까지에 수반되는 공학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기술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학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분야로는 공기역학분야 구조와 재료분야, 동력학 및 항공탄성학분야, 추진기관분야, 전자 및 동력분야, 인간보존 및 안전운항분야의 7개로 나눌 수 있다. 이미 이 7개분야에 대하여 NASA와 국방성에서 추진된 기술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기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문제중에서 몇 가지 사실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공기역학분야에서 우주수송비행체가 제1단과 제2단이 평행으로 조립된 상태로 아음속에서부터 극음속까지의 비행속도 범위를 비행하게 되며 이때 이같은 대형의 비행체 주변을 흐르는 공기에 의한 경계층의 변이와 난류에 의한 열문제가 공학분야에서 완전히 해결된 학문이 아닌 것이며 특히나 비행체가 최대의 효율비행을 하게 하는 최대양항비의 고도와 최대양력계수로 대기권의 진입의 가능성의 문제가 미해결되어 있는 분야이다. 이같은 공기역학분야에서의 문제들이 다른 것에 비하여 먼저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 선정된 비행체의 형태와 성능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많은 수정을 가져오게 된다. 이같은 흐름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전망>

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의 모형을 가지고 흐름의 방향, 흐름의 분리현상, 상호간섭, 충격파층들의 영향을 찾아내고 있다. 경계층의 변이에 따르는 공기역학적인 가열로 인한 표면온도의 분포와 세기가 비행조건에 큰 차이가 있어 비행체표면에 대한 표면온도를 결정하여 열방지를 위한 재료의 선정이 요구된다.

둘째, 궤도비행체가 분리비행시에 흐름의 모양과 경계층의 상호간섭이 생기며 정상단 비행상태에서 즉 마하수가 10이상의 높은 속도와 낮은 동압에서는 분리비행에서 공기역학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낮은 고도와 큰 동압조건에서는

공기역학적인 힘의 간섭이 전체비행체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분리비행시 정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행상태에서의 분리비행의 안정성문제들이 넓은 속도범위에 걸쳐 충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이같은 비행을 조종하기 위한 기계적인 상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학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셋째, 이 비행체에 사용될 추진기관에 대한 문제이다. 1969년도의 A단계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우주수송비행체에 사용될 엔진은 Apollo에 사용된 것에 비하여 훨씬 발달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무게는 가볍고 고성능이며 재이용할 수 있고 연료보조장치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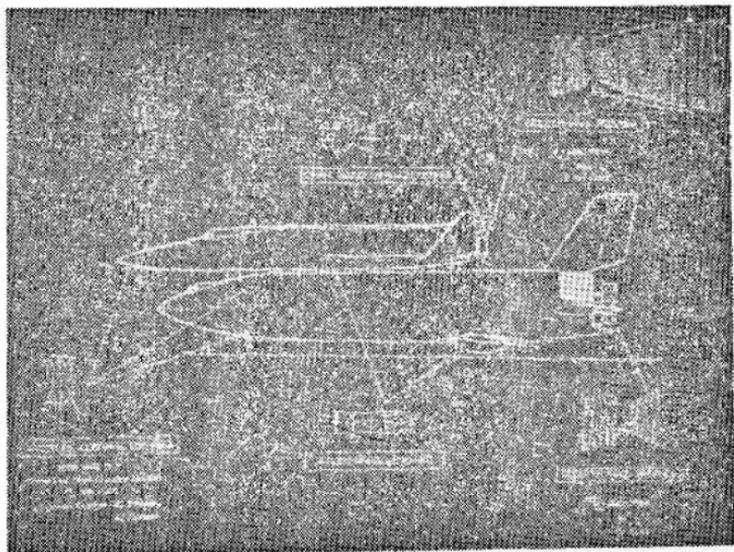


그림 7. 추진기관의 배치

<미국의 우주수송비행체의 개발전망>

이에 따라 B단계연구가 계속함에 따라 이 비행체에 적용될 기관으로서의 주추력 엔진과 보조추진엔진 그리고 공기흡입 추진엔진으로 구분하여 각기 동력체와 궤도체에 장치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림7은 추진기의 배치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동력체의 주추력엔진은 혼합상 추진제상태에서 작동하면서 정격추력하에서 55만파운드, 최소비력적 394초, 혼합비 6대 1, 면적비 약 35 대 1, 사용시간 7시간 반의 성능을 가지며 궤도체의 주추력엔진은 진공중에서 정격추력 68만 9천파운드, 비역적 456초, 혼합비 6 대 1, 면적비 150대 1, 사용시간 7시간 반의 성능을 가진다. PRATT & WHITNEY 회사에서 XLR-129엔진이 25만파운드의 추력을 얻는데 성공하여 주추력엔진에 알맞은 엔진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 한편 단계연소 방법이 엔진에 적용가능하도록 개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조추진엔진으로는 주로 비행체의 자세조종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동력체에는 자세조종추진기관이 액체수소와 산소로 된 추진제를 사용하게 되든가 혹은 가스추진제를 사용하든가 하여 엔진의 연소실 압력이 최저 150PSia에서 최고 300PSia 범위가 되어 추력은 1500파운드 정도를 띄하게 된다. 궤도체의 보조엔진은 궤도기동비행추진엔진이라고 칭

하며 동력체의 보조엔진과 같은 것이다. 공기흡입식 추진엔진으로서는 현재 JP계통의 연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수소엔진이 낮은 연료소비율을 갖고 있어 이 계통의 엔진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많고 엔진의 종류는 FANJET나 Turbojet로 선정될 것이다.

내재, 이 비행체가 비행하는 특수성에 따라 구조에 있어서의 관성하중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며 공기역학적인 가열에 대한 열방지를 위한 재료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비행체의 비행추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구조분석에 있어서 전 비행체에 대한 응력과 변형 진동모드와 주파수, 여러 반응을 조사하여 1973년까지 실제설계에 필요한 구조시험을 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열방지방법으로는 침식방법 금속방열방법 비금속방열방법과 냉각절연방법으로 현재 우주비행체에 사용되는 것보다 높은 효율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재료분야에 있어서 내열성재료에 대하여 최소한 2000° 화씨에서 100회 비행에 이겨낼 수 있는 강도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1800~2200° 화씨의 범위에서 여러 비행횟수에 이겨내는 재료가 중요제로 되고 있어 TD-Ni Cr (Ni-20%, Cr-2.5% ThO₂)의 합금이 1600-2200°에서 켈럼비움(Cb)합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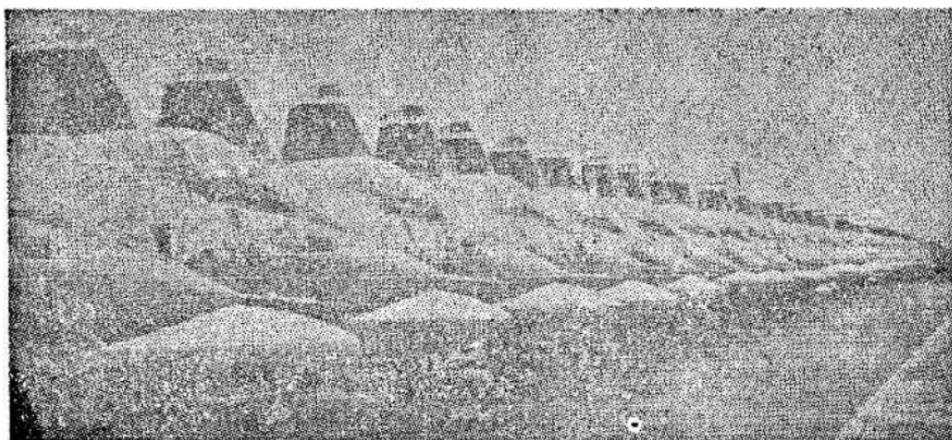
2000~2500°에서 많은 비행횟수에 내열성이 좋은 것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제작비를 고려하여 비행체의 부분적인 면에 열방지방법과 합금재료를 같이 사용하려는 연구가 발전될 것으로 본다.

기타의 문제에 운할유로서 새로운 것의 하나인 CaH_2 고체운할유가 약 1600°의 높은 온도에서 베어링으로 스며들게 한다면 밀개방법으로 자동으로 된 Lift Pad Seal이 교압의 산소와 수소의 기체 누출을 최소화 하는 것 등이 연구되고 있다. 진동문제에 있어서 비행체의 동력학적인 운동과 공기역학적인 힘에 의한 진동현상 뿐만 아니라 높은 주파수의 연소현상에서의 불안정성과 연료보급과 구조와 상호결합된 불안정성에 의한 진동 즉 POGO 현상도 이 비행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아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4. 결 론

우주이용을 확장하여 인간생활에 큰 기여를 하도록 우주비행을 계속하기 위

하여는 우주수송비행체의 실현이 필요하게 된다. 투자비와 운반비를 저렴하게 하는 요구조건에 맞는 비행체로는 5만 파운드의 하중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궤도비행체와 소형전인식 자동비행체로 된 것으로 총 상승무게가 350만 파운드가 되는 거형의 우주비행체가 될 것이다. 이미 A, B단계의 연구가 진행중이며 1973년도까지는 구조 재료의 연구가 끝날 것이고 C단계의 일부 연구가 72년도에 시작하여 궤도비행체의 기본설계가 75년에 동력비행체의 제작이 되어 종합적인 비행시험이 1977년에 시작된다. 78년에 운항비행을 하기로 계획되고 있다. Apollo계획이 1960년 초반에 시작되어 1969년에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수송비행체를 이용한 우주비행도 1970년 초에 시작되어 78년에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아마 이같은 성공은 우주비행의 새로운 응용도를 인간에게 주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참고>본 논문의 자료는 Astronautics & Aeronautics지 1970년 8월호와 1971년 2월호에서 얻어진 것임.



세 계 의 공 군 력 ②

일 본 ←→ 극동 소련

일본의 항공자위대의 주 임무는 방공에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이나 국방의 기본방침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3차방위까지 정비해온 내용과 「실력」이 방공중점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위협의 대상으로서 두려워했던 것은 극동에 있는 소련 공군이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상, 습공 등의 침공이 가능한 장비,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련군 밖에 없다.

일본의 방공에 관해서는, 3차방위에서 미 제 5공군의 F-102등 방공전투기가 철수하고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일본열도의 방공상의 특징은 지형으로 보아 종심성(縱深性)이 없는 것. 그러나 이

러한 결점은 제쳐놓고서라도 거꾸로, 국토가 좁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은 레이더나 대공미사일망의 밀도가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전국 24개소의 레이더 사이트는 대부분이 BADGE(자동반공경계관제조직)으로 자동화 되었다.

현재 레이더·사이트의 자동화가 완성된 있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와 일본 뿐이다.

대공미사일도 중거리 대공 나이키가 수도권을 비롯하여 서너 곳에 배치되고 가까운 장래에는 “한신”(阪神)지구를 비롯하여 몇 곳에 전개된다고 하며 동시에 수도권 등 중점방위 지구에는 나이키부대를 증설하여 방위를 철저히 할 계획이 있다.

한편 소련에서 완전한 대공 미사일망이 있는 것은 모스크바 주변으로 보인다.

광대한 소련과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과는 방공에 대한 기본관념이 다르며 통상병기에 의한 국지전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본의 특수성도 있다.

그러나 레이더와, 대공미사일망은 제법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공군의 발전(發進) 기지는 율로시로프, 하바로스크·사바이칼·오리가·유지노 사하링스크·에트로프에 전개시키고 있다.

내습이 가능한 거중중 특히 초음속 폭격기 Tu-22, 전투폭격기 MIG-19, MiG-21, Su-7이 주목된다.

이중 MiG와 Su-7은 호위전투기로써도 사용된다.

이들의 초음속이나 몸체가 가벼운 전투폭격기로 저공에서 침입하는 것이 상식이다.

레이더·사이트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세계 각국이 다같이 220nm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가 고공을 날르는 경우이며, 1만ft에서 침입하면 받은 100nm까지, 3,000ft이면 65nm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캐취할 수 없다.

이쪽에서의 레이더에 걸리기 전에 고도를 낮추고 침입하면 항속거리가 짧아진다.

그래도 최근의 소련은 전투폭격기의 성능향상으로 혹가이도에서 도후구(東地)까지 행동범위로 들어갔다.

만일 연해주의 기지에서 Su-7이나 Tu-22가 1만ft의 고도에서 혹가이도 옌샤이(千歲)를 목표로 침공해 오면 레이더가 발견하는 것은 거의 일본해의 중앙이다. 이 부근에서 초음속으로 가속하여 내습하면 북해도 센사이기지에서 스크램블을 걸어도 적과 만나게 되는 것은 일본의 영공에서 아슬아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심성이 없는 방공상의 약점이지만 항공자위대는 사전에 CAP(전투 공중

◀ 세계의 공군력 ▶

초계)로 대기할 것이다.

혹가이드오 동부의 방면은 쿠나시리·에트로후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사태의 경우에는 일본의 항공 우세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소련측이 처음에 레이더·사이트의 공격을 노리면 현재로서는 혹가이드오의 사이도는 제법 피해를 받아 기능이 정지될 것이 예상된다.

그대로만도 중심성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레이더·사이트가 파괴되면 센사이기지 자체가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센사이의 F-104J의 2개 비행대 중 반수는 처음부터 미자와(三澤) 기지에 이동하는 등의 조도는 고려된다.

이에 대하여 방공이라고 하는 즉, 수비하는 측에 유리한 것은 레이더에 의한 지상에서의 유도(요격관계). 소련이 AWACS나 AEW, 또한 ECM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않는한 지상에서 적을 만나기까지 유도되는 항공자위대기의 편이, 일반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또한 나이키나 호크 등 대공미사일의 수비범위와, F-104 요격기의 조합에 의한 보탬도 많다.

소련측이 혹가이드오 도후구 등의 레이더·사이트, 항공기지 등 중요목표 수개소~10수개소를 2~3기의 소편대로 동시에 반복 공격하였을 경우 일본측은 레이더·사이트나 항공기지의 일부에 피해를 받아 사용불가한 부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CAP에 의하여 요격 등에 의하여 상대에도 제법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내습할 수 있는 비행기를 연 500기라고 하면 그중 2~3할은 격추될 것이다 즉 상대는 상당한 손해를 작오하지 않으면 공격개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방공에 철지를 기태왔다고 생각되며 이로서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억지력”이 제법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사시에 있어서 재일(在日), 재한(在韓)의 미항공력의 원조나 존재자체가 전제로 되고 있다.

소련측은 발전기지를 공격당할 염려가 없으면, 방공의 전투기 등도 전투폭격기로 돌릴 수 있으며 내습기의 종류도 늘어난다. 또한 미 제8함대의 항공모함에 대하여도 항공병력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때문이다.

이러한 헛점을 메우기 위해, 항공자위대와 AEW, 레이더의 이동경계대(移動警戒隊) F-4EJ 등의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이것이 형체를 갖추기까지는 아직 7,8년 후일 것이다.

중 공 ← → 극동소련

국경분쟁이 계속되는 중공·소련의 양국의 항공병력은 압도적으로 소련이 우위에 서고 있다.

국경분쟁이 표면화한 1965년 제부터 양국의 병력 배비(配備) 강화가 시작되었다. 소련은 국경군의 지상병력의 증가와 더불어 항공기지와 미사일기지의 건설을 행하였다.

우선 바이칼호반(湖畔)의 산업지대의 방위를 생각하여 1966년 5월에 몽고정부와 체결 우란바토의 동방에 최초의 미사일기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서부 정면의 국경에 만하는 신강성변에는 중국의 핵 제조시설을 목표로 미사일 부대를 이동시켰다.

또한 극동군 관구에도, 미사일부대를 전개하고 현재 동방면에는 중거리 미사일기지가 400이상, 전투기, 전투폭격기 등 500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극동 사바이칼, 중앙아시아의 세 개의 군관구(軍官區)를 합하여 1,6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중공측도 국경강화를 행하였으나 소련이 가지고 있는 공군과 기계화 부대의 전력 앞에는 장비가 뒤지는 중공군은 어느 쪽이냐 하면, 인태전술적인 병력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중공북부의 지상군에는 수백기의 항공기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체는 연료부족과 전자기기(電子機器)의 불량, 가동율은 아주 떨어지고 있다.

중공이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신강지구. 핵시설과 병기, 항공기 공장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지구에 있던 중거리 미사일(사정 1,200km)의 거의를 이 지구에 이동시켜 현재 200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 세계의 공군력 ▶

신강지구의 중공 공군은 전투기를 중심으로한 400기를 배치시키고 있다 한다. 중공·소련 국경에 있어서의 지상병력은 소련 65만인, 중공 80만인으로 추정되나 양국의 항공력과 화력의 차는 역연하다.

중공의 중요방어지역인 신강지구에 대해서까지 「중공측은 무방비에 가깝다고」 까지 극언을 하는 전문가가 있다. 예를 들면 중공측의 발표를 빌리면 중공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핵 연구와 실험장에서 25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점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스리」에서 양국이 격렬한 유혈사건을 일으켰을 경우도 중공측의 항공기지는 현장에서 25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다.

한편 똑같은 거리의 범위에 소련측은 50개소의 비행장이 있었다고 한다.

소련측은 가끔 전술정찰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제공권이 따르는 위력정찰(威力偵察)이라고 보아 족할 것이다.

핵 병기에 있어서 소련은 압도적이나 다소 견해가 다르다.

중공의 핵 병기는 200개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미사일의 사정은 2,000Km까지 늘고 있다.

수량과 운반수단에서 소련과 비교될 바도 아니지만 올라지오스톡, 나호토카, 콤스폴리스크, 이루쿠쿠 등의 극동에 있어서의 소련의 중요한 발전소를 위협하기에는 충분하다.

자유중국 ↔ 중 공

자유중국과 중공의 양 공군력은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상호 대치하고 있는 한국 사태에 비하면 자유중국과 대만의 현상은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중국 공군의 주력은 사이드와인드 장비의 F-104요격기로서 F-5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자유중국 공군은 한국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F-4 펜텀의 도입을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F-5는 F-104보다 신형이지만 항속거리, 기타 면이 F-104보다 뒤지고 있다.

F-5로서는 중공 대륙에서의 내습기를 심문 요격할 수 없다고 한다.

자유중국 견해로서는 약 1,000기의 중공의 전투기 내지는 전투폭격기가 대만으로 내습가능하며 MIG-17, MIG-19 외에 수 10기의 MIG-21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미 군사고문단의 의견은 대만에 대한 중공에서의 중대한 공격이 감행되었을 경우 미 공군이나 제 7함대의 항공병력의 지원이 있으면 현재의 장비로서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F-4 팬텀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대만에는 미공군의 전투기 등 전술공군은 상주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자유중국 공군에 폭격기와 강력한 F-4 팬텀이 1~2 비행대 만이라도 공여된다면 중공대 자유중국의 항공력의 균형은 크게 무고질 것이다.

중공 공군은 장비면에서 보아도 극히 방공중점이다.

주력인 MIG-17, MIG-19, MIG-21, 또는 MIG-15 등 MIG전투기의 배치는 대륙 각지에 분산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보아 한 성(省)에 3~5개 기지로 추정된다. 각 기지에는 MIG기 수기식 비상탈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분산되고 있다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기는 굴속에 있는 격납고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대만에서 중공본토에 접근하는 자유중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비상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해협의 제공권은 대만측(제 7함대의 기동력도 포함)에 있다.

또한 금문(金門), 마조(馬祖) 두 섬을 연안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공 해군도 금문, 마조를 경계로 하여 양분상태에 있다.

중공 공군기의 가동율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공은 소련의 MIG-15에서 MIG-21까지 복사생산이 가능하지만 그 성능은 100%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소련의 MIG 전투기는 폭발이나 야전의 간이비행장에서도 발착가능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트엔진에 돌이 하나 들어가도 틀 수 있는 정비도 아주 쉽게 설계되고 있다.

이것은 반대로 미국제 제트기에 비하여 내용(耐用)연수가 짧다는 것이다.

중공은 비행기 수로 말하면 세계 제3위의 공군력이나 초기의 MIG기는 아주 노후하

◀ 세계의 공군력 ▶

여 가동율이 아주 낮다.

이삼 불과 400여기의 자유중국과 2,800기라는 숫자의 증공공군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증공측의 장비와 방공증점, 자유중국측의 F-104, F-5의 무수한 기종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묘한 균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 공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성립한 1953년에서 1958년의 5년간에, 소련과 증공의 원조로서 북괴 공군이 세워졌으며 MIG-15와 IL-28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증공에서 MIG-17을 도입하여 1960년경부터 MIG-15, MIG-17의 요격사단과 MIG-15, IL-28의 전투폭격사단을 편성하고 있다.

1965년 5월에 소련과 군사협정을 체결, MIG-21을 장비함과 아울러 MIG-17을 전투폭격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작전기는 580기로 보이며 병원은 3만명, MIG-17의 4개 전투비행단, MIG-21의 1개 요격비행단, IL-28의 전술폭격, 정찰의 2개 비행단 편성이 중심전력이 되어 있다고 한다.

사용기(使用機)

요격기 : MIG-21(90), MIG-19(20), 전투폭격기 : MIG-17(340), MIG-15(60),
정폭격기 : IL-28(70), 수송기 : An-2, LI-2, IL-12, IL-14(합계 30), 헬리콥터 :
MI-4(20), 연습기 : yak-9, yak-11, yak-18, MIG-15, IL-28(합계 70)

자 유 중 국(대만)

1949년, 국민정부는 증공군에 밀려 대만으로 옮겼으나 이때 F-51D, F-47D, C-46 등 160기가 새로운 중화민국(자유중국) 공군으로서 재전되었다.

1951년에서 미군사교분단의 관리하에 증강이 시작되어 1954년의 금문도를 에워싼

격전 후 미·중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결과 미 제13공군과 제7함대가 이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F-86F 전투기의 제트화가 시작되어 1960년에 F-104A 전투기 100기, F-100A 45기, 다시 F-100D, 전천후 전투기 F-86D도 받고 있다.

현재의 자유중국 공군은 1963년 12월에 시작되는 F-104G의 2개 비행대, 1965년부터 도입된 F-5 전투기 3개비행대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F-100A, F-86F의 전투폭격기가 추가된다. 전술정찰기는 락다넬 RF-10171와 RF-104G의 각 1개 비행대가 있으나 대륙정찰기인 로키트 U-2, 마친 RB-57BA 약간 있다.

수송기는 웨어 차일드 C-119G의 공여를 받아 C-46, C-47, C-123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 작전기는 413기로 병력은 6만 5천을 보지하고 있다.

사용기

전투기 : F-104G(45), F-104A(18), F-100A(90), F-86F(150), F-5A(70), 정찰기 : RF-101A RF-104G(합계 40), EB-57B/D, U-2(소수기) 수송기 : C-46(30), C-47(50), C-119(40), C-123(10), 연습기 : T-33A, T-28D, T-6, F-100F, TF-104G.

중

공

공산정권을 수립한 1949년 당시, 중공 공군은 국민 정부군에서 뺏은 F-51D나 소련에서 공여한 yak-9, La-11 등 구식기 뿐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과 더불어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어 익년 1951년에 처음으로 MIG-15 제트전투기가 인도되고 있다.

그후 MIG-17, IL-28기가 도입되어 다시 MIG-19와 약간의 MIG-21이 인도되었다.

중공, 소련 관계가 악화하여 MIG-21 등 신예기의 공여가 중단되었으나 MIG기의 복사(複寫) 생산의 기술과 공업력을 갖는 중공은 1965년에 월맹에 MIG-15, MIG-가울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MIG-21에 대해서는 중공과 소련관계의 악화에 의하여 타의 공산제국과 같이 소련

◀ 세계의 공군력 ▶

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미 35기 정도 국산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963년에 미군의 월맹폭격에 의하여 월맹의 MIG-21이 국경 가까운 중공 기지에 피난했기 때문에 기술상의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Tu-16 맞자의 복사생산을 하고 있다.

현재 중공 공군은 작전기 2,800기, 병력 18만, 방공지상부대 8만 5천명, 숫자상에서는 미·소 다음가는 세계 제 3위의 공군이다.

<사용기>

요격기 : MIG-21(35), MIG-19(100 이상), 전투폭격기 : MIG-17(500), MIG-15(1,000), 폭격기 : Tu-16(약간), Tu-4(B-29의 모조 15), IL-28(150), 수송기 : IL-18, IL-14, IL-2, Li-2, Tu-70, An-2 및 민간수송기(합계 330), 헬리콥터 : MI-4, 연습기 : MIG-15UTI, IL-28U, yak-18, yak-11(합계 200).

이 외에 연안의 육상기지 해군 항공대가 약 500기의 항공기를 갖고 있다.

이것은 IL-28 어뢰적재폭격기 100기와, MIG-15, MIG-17 전투기의 상당수가 포함된다. 이들의 전투기는 해군에 소속되지만 공군의 방공체제내에 완전히 통합해 있다.

일 본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 안에 총사령부를 두고 3개의 방면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즉 북부, 중부, 서부의 각 항공방면 대 예하에 6개의 항공단이 있으며 비상사태에는 비행교육 집단사령부에 속하는 교육훈련용의 1개 항공단을 합하여 7개의 전투항공단이 된다. 내역은 F-104 J요격기가 7개 비행대, F-86 지상공격기 4개 비행대, RF-86F 정찰기 1개 비행대. 그 외에 수송기, 연습기, 헬리콥터 등을 합하여 960기 한편 해상자위대는 대잠기에 중점을 두고 S2F-1, P2V-7, P-2J 등 108기를 중심으로 하여 약 260기가 된다.

<사용기>

전투기 : F-104J (192), F-86F(150), 지상공격기 : F-86F(140), 정찰기 : RF-86F(18), 수송기 : YS-11(7), C-46(41), 연습기 : F-104DJ(19), T-34(106), T-33(188),

T-1(58), 헬리콥터 : V-107(9), S-62(8), H-19(16), 대잠초계기 : S2F-1(55), P2V-7(55), P-2J(6), PS-1(2), 대잠헬리콥터 : HSS-2(28), HSS-1(12).

소 련 • 극 동

소련 공군은 병력 48만, 작전기 1만 2백기, 기능상으로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다.

① 장거리 공군(장·중거리 폭격기), ② 전술 공군(전투기와 경폭격기), ③ 방공군의 항공대(요격전투기), ④ 해군항공대 ⑤ 항공수송대(공정사단용의 독립대를 포함).

장거리 공군의 대륙간 폭격기는 140기로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의 3분의 1 이하이다. 그러나 중형폭격기가 강력하다. Tu-20 베아, Mya-4 바이손중 약 50기는 공중급유기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Tu-20의 3분의 2는 캅갈 ASM을 장비하고 있다.

Tu-16 밧자의 반수는 켈트 ASM을 장비하고 초음속중형폭격기 Tu-22 브라인다의 대반도 ASM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폭격기중 극동배치는 25퍼센트 정도이다.

전선 항공부대인 전술 공군은 과거 1년 간에 다소 강화되어, 4,000기 이상 MIG-17, MIG-19 등 구식기도 포함되나 주력은 MIG-21 요격전투기와 Yak-28 화이바, 지상공격기 Su-7 윗타, 초음속경폭격기 Yak-28 부류아, 또한 새로운 정찰형 MIG-21이다.

지상폭격기는 다종의 전술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다. 1967년 7월의 모스크바 공쇼우에 나타난 미국의 F-111과 비슷한 가면익기 등 수종의 전투기와 폭격기 중 MIG-23 웨스बाट의 초음속 공격기 개조형이 다분 실용화된 것으로 보인다. 방공군의 주력은 MIG-19, MIG-21 및 Su-9 윗시붓트이다.

소수의 MIG-28 휘이드라가 있다.

Su-11 후라곤 A가 실용화되고 있으며 MIG-23 웨스बाट도 드디어 비행대에 배비될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조기경계기로서 Tu-114를 개조한 기체가 있다.

◀ 세계의 공군력 ▶

해군항공대는 약 500기의 폭격기와 기타의 정찰기, 헬리콥터 등 500기, ASM 장비의 Tu-16 batches 300기와 정찰, 급유 임무의 100기, 장거리 해군정찰에는 Tu-20의 50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소련 공군기중 극동에 배치되고 있는 것은 10~15퍼센트 정도이다. 기수에 있어서는 1,600기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기>

전투기 및 전투폭격기 : MIG-21, MIG-19, MIG-17 (합계 500), Su-7(150), 폭격기 : Su-16(130), Tu-20(40), Tu-22(80), yak-28(50),

미 국 · 극 동

태평양 항공군단하에 있는 제 5항공군과 제 13항공군의 일부가 극동에 있어서의 미 공군력이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병대 항공부대와 제 7함대의 항공모함 항공병력의 전개에 의하여 공산권 항공력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의 항공병력을 소련, 북괴, 중공과 대비할 경우, 극동에 있어서의 항공대를 도의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우선 제 5항공군은 일본의 도오코오와 후주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 일본, 오키나와를 커버한다. <이하 보안관계를 고려해서 생략한다 : 역자 주>

<사용기>

전투기 및 전투폭격기 : F-4C, F-4D, F-4J (합계 약 230), F-102 (25), F-105 (25), 공격기 : A-4(35), A-6A(13), 정찰기 : RF-4C(40), 수송기 : C-130(약 60).

또한 제 7함대의 항공병력이 F-4, F-8, A-6A, A-4, A-7 (합계 200~300)

동 남 아

SEATO, ANZUS, AMDA, ANZAM 등의 집단방위기구, 기타의 방위협정에 의

하여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지일랜드 정도로서 각기가 독자적 방위구상을 갖고 있으며 그 노선은 일정하지 않다.

예를들면 중립의 인도는 소련과 방위협정을 체결하고는 있지 않으나! 군사원조를 받아서 중공에 비치하고, 파키스탄은 SEATO에 가맹하여 미국의 원조를 계속하여 받으면서 소련으로부터도 원조를 바라고 있고, SEATO로부터 서서히 손을 빼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뉴우지일랜드는 미국과 체결한 ANZUS에 의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한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부대를 파견하여 방위선을 훨씬 멀리 북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 중에서 각국이 어느 것을 지향하는가는, 그 군용기의 균형을 보며 거의 명확히 알 수 있다.

각국의 특징, 장래의 방침은 생략하고, 소유하고 있는 군용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형〕 필리핀, 태국, 라오스, 월남

〔소련형〕 인도네시아, 월맹, 아프가니스탄.

〔영국형〕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복합형(複合型)

오스트레일리아(미, 영, 불), 뉴우지일랜드(미, 영), 버마(미, 영, 소), 인도(미, 영, 소), 파키스탄(미, 소, 중, 불), 캄보디아(미, 소, 불)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병력 2만 2천 6백, 전투 항공기 211기, 칸베라 B, 20 경폭격기 1비행대, 밀라슈ⅢO 오격, 공격기 3비행대, F-4E 펜덤 24기, P-3B 오라이온, P-2H 대잠기 각 1비행대, 경공격 및 연습기 87기, C-130 24기, CV-2B 22기 UH-1 헬리콥터 2비행대, 시민 공군 900인

육군: 스·알에트 II 헬리콥터 약 50기, CH-47 12기.

해군: 항모 1척, 구축항모 1척, A-4G 스카이호크 1비행대, 트락카 대잠기 1비행대, 웨섹스 대잠헬리콥터 1비행대.

◀ 세계의 공군력 ▶

현용기는 이상과 같으나 오스트레일리아는 군용기 양산국 이외에서는 특히 신예기에 흥미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밀라주 F-1, 막다넬 더글라스가 개발 중의 미군 차기 전투기 F-15, 그리고 C-5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영국이 68년 1월에 발표한 스에즈 이동(以東)으로부터의 철병을 완료하는 71년말 이후 이 공백을 메꿀 것으로 보인다.

뉴 우 지 일 랜 드

병력 4천 5백, 전투용 항공기 33기, 칸베라 B, 12, 경폭격기 8기, 판바이아 FB, 9 전투 폭격기 10기, P-3B 대잠기 5기, C-130 5기, 메본 15기, 브리스틀·마크 31 9기, UH-1 헬리콥터 14기, 스-13기, 그 외에 해군의 와스브·헬리콥터 2기. 오스트레일리아와 일심동체, 동남아시아에는 싱가포르의 창기에 공군 기지를 두고 있다.

필 리 핀

병력 9천 9백, 전투용 항공기 45기, F-86F 전투기 25기, F-5A 전투 지상직협기 20기, C-47 30기. UH-21, H-13 헬리콥터 계 20기.

미국과의 사이에 99년간의 방위조약(1951년)이 교환되었다.

클라크기지에 미공군이 주류하고 있으나 72년 말까지 점차 철회하고 현재의 절반 1만 3천 5백명 정도가 된다.

버 마

F-86F 12기, T-33 무장 연습기 10기, C-45 4기, C-47 6기, 오타 6기, 브리스틀 170 2기, 스, 헬리콥터 6기; 허스키 10기, 알에트 III 8기, 소련제 밀 3기.

사회주의국가인 버마가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드린 것은 중공, 파키스탄에 둘러

싸인 지리적 조건에 의하지만 최근 미국 일변도(一邊倒)로부터 소련계 헬리콥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탈피를 꾀하고 있다.

인 도

◀ 공군 ▶

병력 9만명, 전투용 항공기 626기, 켈베라 B.1 경폭격기 3비행대, SU-7 전투폭격기 4비행대, HF-24마루트 1A 전투기 2비행대, 한타 F.56 전투폭격기 6비행대, 미그 21 요격기 6비행대, 나트 F.1 요격기 8비행대, 칸베라 PR.57 정찰기 1비행대, 반바이아 전술정찰기 2비행대, L-1049 스콧·콘스트레이슨 해상정찰기 1비행대, C-47 60기, C-119 60기, IL-14 24기, AN-12 30기, 오타 30기, HS-748 25기, 카리브 15기, 밀 헬리콥터 약 100기, 알에트 III 120기, 벨 47 12기, 그외에 보조 공군 7비행대, SA 2 가이드라인 지대공 미사일 50기

◀ 해군 ▶

함모 1척(1만 6천톤), 시호크 공격기 35기, 알리제 초계기 12기, 알에트 III 헬리콥터 10기

최근의 군용기 장비에서 보면 극히 소련에 접근하고 급속한 확장을 꾀하고 있다.

대(對) 중공 및 파키스탄의 긴장에 의한 것이나 가까운 장래에 전투용 항공기를 900기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MIG-21M의 기체와 탑재미사일을 국내생산, 국산 HF-24 전투기의 엔진강화 개발을 진행시키는 등, 항공기 공업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1970년의 국방지출은 14억 6천 7백만불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 2위이다.

또한 건디수상은 최근 소련의 원조로서 관측위성과 핵의 연구개발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중공의 핵에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 도 네 시 아

◀ 공군 ▶

병력 5만, 전투용 항공기 180기, TU-16 중형폭격기 25기, IL-28 경폭격기 30기

◀ 세계의 공군력 ▶

B-25 경폭격기 15기, F-51D 무스탕 경공격기 15기, 미그 15 약 20기, 미그 17-40기, 미그-19 35기, 미그-21 15기, IL-14, C-130, C-47, AN 12, 등 수송기 약 60기 MI-4, MI-6, 알에프 II, 헬 47 등 헬리콥터 약 30기, 기타 SA-2 가이드라인 SAM 기지 3개소

<해군>

미그 19, 21 요격기 20기, HU-16 알바트로스 PBY-5A 카다리나 대잠기 5기, S-55, S-58, MI-4 헬리콥터 약 12기.

스카르노 시대는 거의 소련하고만 접근하였던 관계로 소련의 냄새가 짙다.

아시아에서는 전략폭격기(TU-16)와 공대지 미사일, 거기에 지대공 미사일까지 장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군 작전사령관이 「이 이상 소련비행기, 무기는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방향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말 레 이 지 아

전투용 항공기 30기, 병력 4,500, CA-27 전투 폭격기 10기, CL-41G 테브안 공격, 연습기 20기, 기타 수송기 10기, 헬리콥터 30기

전면적으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던 방위가 영국의 철퇴로서 자주방위가 흔들렸다. 70년도의 군사예산은 작년도의 50%도 끌어 올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CA-27 전투 폭격기를 935만불로 구입하는 등 정비물 서두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유대는 이후로도 강해지나 말레이시아로서는 한 나라에 기대는 방위구상을 피하여 미, 일, 소, 중공 등에도 제법 접근을 기하고 있다.

파 키 스 탄

전투용 항공기 270기, 병력 4천 5백, IL-28 경폭격기 1비행대, B-57 칸베라 경폭격기 2비행대, F-86F 전투폭격, 요격기 7비행대, 미그-19 5비행대, 미라쥬 III 전투폭

격, 정찰기 1비행대, F-104A 요격기 1비행대(10기), FT-33A 정찰기 5기 C-47 및 C-130 각 8기, 연습기(T-6, T-33, T-37B 미라쥬 IID) 약 80기, 헬리콥터 25기 등

CENTO, SEATO에의 가맹국이면서도 최근은 서서히 양 조약에서 손을 떼고 양 대국 틈에 끼어서 균형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도의 긴장이 보신정책의 주요한 동기이지만 이미 MAP에서 공여된 미국제기외에 최근은 불란서에서 미라쥬 III E, 중공에서 증공제 MIG-19, 그리고 소련에서 IL-28 경폭격기를 분산구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의 채무는 35억을 가까이 상승하였다. 파키스탄은 개발도상 국가이지만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아 프 가 니 스 탄

미그-21 요격기 30기, 동 17 전투폭격기 80기, IL-28 경폭격기 50기, IL-14 수송기 1기 이상, IL-14 25기, 연습기는 YAK 11, 18, 미그 15UTI, 헬리콥터 MI-1/SM-1 6기, MI-4 18기. 미그-21은 AAM 장비. 그외에 SAM 가이드라인 120기 이상.

종래의 영국식 장비를 1955년 이래 소련식으로 변경. 소련은 1억 9천 5백만불이 넘는 군사원조, 군사교문단을 파견하여 훈련하는 외에 비행장건설 등에도 힘을 빌리고 있다.

싱 가 폴

BAC 167 스트라이크 마스타 대지지원기 10기, 세스나 172 8기, 알에트 III 헬리콥터 8기.

말레이시아와 운병공동체외의 형식으로 권외세력으로서는 영군 외에 뉴우지일랜드가 기지를 가지고 있다. 영군철폐에 따른 군비확장은 말레이시아와 같음.

태 국

전투용 항공기 101기, 병력 2만 3천, F-5A, B 전투폭격기 17기, F-86 전투폭격

◀ 세계의 공군력 ▶

기 14기, RT-33A 정찰기 5기, T-28D 대(對) 게릴라기 45기, T-6 게릴라기 20기 수송기(C-45, C-47, C-54, C-123 등) 33기, 헬리콥터(CH-34, H-19, S-51, S-55) 70기.

그외에 해군용의 UH-16 알바트로스, S-2 트라카의 해상정찰기 1비행대.

대(對) 게릴라기가 많은 것이 태국 공군의 특징. 북부 게릴라 대책의 표현이지만 공산군의 침투에 신경을 쓰고, T-28 게릴라용 전투폭격기 5기를 캄보디아에 제공함과 아울러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영내를 폭격하는 등, 인도차이나 반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태국의 군사력을 생각할 때 미군을 태국에서 매놓을 수 없으나, 방콕 북방 100Km 에 있는 타리크 기지에서 F-105 4비행대.

라 오 스

T-28 경공격기 약 60기, T-6 6기, C-47 등 수송기 약 20기, 헬리콥터 약 15기 (알에트 II UH-34 등).

이상은 정부군만의 항공병력이며 바테트라오에 항공병력은 없다.

월 맹

병력 4천 5백, 전투용 항공기 133기, IL-28 폭격기 10기, 미그-21 요격기 30기 (AAM 장비), 미그-17 요격기 60기(동장비), 미그-15 요격기 40기, AN-2 수송기 8기, AN-24 3기, IL-1440기, LI-2 3기, IL-12 6기, 헬리콥터는 MI-1, 4, 계 30기 또한 SA-2 가이드라인 SAM기지 약 50개소, 1기지에 4~6기의 발사대가 있다.

월 남

병력 2만 3천. 전투용 항공기 2백기, A-1E 스카이라이다 경폭격기 3비행대, A-37

전투폭격기 3비행대, F-5 전투기 1비행대, O-1 무장경비행기 80기, RC-47 정찰기 약간, 수송기 120기(C-47, C-119, 가리브 스카이와곤 등), 헬리콥터는 CH-34 20기 UH-1 100기.

남·북 베트남의 항공세력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북베트남이 거의 자력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대하여 남베트남은 자국 공군의 외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 공군이 공동으로 작전하고 있다.

남·북 베트남의 항공세력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북베트남이 거의 자력으로 월남측을 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 공군이 공동 작전하고 있다.

이것이 양국의 GNP에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이 21.3% 대 13.6%와 북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이다.

그러나 양쪽의 항공세력 균형을 일견하여 발견되는 커다란 상위점은 월맹의 군용 기중 요격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높고 월남 수송기 및 헬리콥터가 압도적으로 많다.

월맹의 군사항공력은 남하를 전제로 하여 편성돼 있고 있는데 비하여, 월남의 항공력은 국내에서의 병원(兵員) 수송에 중점이 되고 있으며, 북쪽으로의 진공(進攻)은 요격기, 지대공 미사일망에 걸려서 월남 내에서 분쟁이 일어난 지점으로 공중기동으로 대량으로, 또한 신속히 병력을 수송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캠 보 디 아

병력 2천 3백, 전투용 항공기 64기, 미그 15, 17 전투기 24기, A-1 스카이레이더 대지공격기 20기, C-47 12기, AN-2, 비바 MD 315, IL-14를 포함한 수송기 약 25기, 연습기 36기, 헬리콥터 20기

1970년 봄의 군사혁명 및 미국, 월남 정부군의 지원공격개시 이후, 정부군 항공부대는 월남공군과 협력하여 대(對) 게릴라 공격 및 월맹에서 침입하고 있는 공산군과 대전하고 있다.

장비는 순차적으로 미국제 비행기로 전환할 예정이다.

동양 사 상 의 원 조

공 자(孔子)

— 편 집 실 —



공자(孔子)는 지금으로부터 2천 5백년전 중국의 노나라에 태어났다.

이름을 구(丘)라 부르고 자(字)를 중니(仲尼)라 일컬었다.

오랫동안 번영을 자랑하던 주(周)나라가 쇠퇴의 기미를 나타내자 천하가 난맥을 보이기 시작하던 춘추의 세상이었다. 부친은 칠십세 노인이었고 모친은 이십세 쯤 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소년시대에 대하여는 세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조두(俎豆)라는 제사에 쓰는 도구를 만지는걸 좋아했다는 두 가지 사실밖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15세가 되도록까지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하였다고 한다.

「두는 15세에 학문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공자가 그 나이에 학문을 하려고 결심하였던 건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공자에게는 이렇다할 뚜렷한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공자는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냈다.

옛날사람들이 쓴 기록을 검토하는게 그 첫째,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장점을 보고 모범을 삼는게 그 둘째, 세번째는 자신의 매일의 행동을 반성하는 일이었다. 공자는 결코 자신을 천

재라고는 생각치 않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은 상(上)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공자는 자신이 「교안해 낸 방법으로 한걸음 한걸음 학문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좀 더 쉬운 것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여」 배워서 끊임없이 되짚어 나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배워도 생각하지 않으면 앞이 어둡다. 생각을 해봤자 학문을 하지 않으면 도움될 게 없다.」

이런 말들은 공부하는 공자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하여 배워서 생각하는 생각하고 배우는 공자의 마음에는 과거의 위대한 요(堯)시대, 순(舜)시대 같은 이상적 국가가 떠오르고 문(文), 무(武), 주공(周公)의 훌륭한 길이 비쳐지고 있었다.

공자는 옛날의 훌륭한 국가 제왕이 보여준 길 속에 인간이 걸을 길을 발견하였다. 시간은 흐르고 세계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영원한 길을 그곳에 깊이 구한 것이다.

청년시대에 생긴 일은 결혼, 첫 아들의 출생, 첫딸의 출생, 그리고 노나라의 판리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떻든 「삼십이 되어 홀로 서기」까지의 사이에 음악을 배우고 시와 서(書)를 읽고 역사의 연구에 열중하였다고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禮)에 중점을 두고 배운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고대정치에서는 예가 음악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고의 예란 곧 하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예제(禮制)가 가장 발달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중요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넌 예를 배웠는가?」고 자기 아들에게 물었다.

「아직 못배웠습니다.」하니까 공자는 「예를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서 입신해 가지 못한다」고 깨우쳐 주었다.



이처럼 공자는 예는 인간의 질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여 권력과 법률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예와 덕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을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공자의 정치철을 예치주의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중요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자는 음악을 존귀하게 여겼다. 음악은 음의 조화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곳에는 자연과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음악의 역사는 수 천년 전의 옛적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인 것으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통되는 고대의 정치에는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었다.

중국 고대의 유명한 정치가는 모두 유명한 음악가였다.

그리고 음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공자는 또 당연히 자연을 존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항상 만물을 낳고 자연을 낳고 키워가는 자연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자연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공자는 누구보다 이 평범한 진실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을 알고 자연 그대로를 행할 뿐이고 그 위에 예를 가지고 절도를 가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하다.」

공자는 단지 자연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로 향하는 선한 자연과 밑으로 향하는 악한 자연을 구별하여 악한 자연과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30이 되어 선다」고 한 공자에게는 삼십이 넘어서부터 제자가 따르게 되었다. 남을 가르칠 때 공자는 자기가 강인한 심정으로 분기하여 배웠던 탕으로 진정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결코 제자로 삼지 않으려 하였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공자는 이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의 것을 아낌없이 넣어 주었다. 교육자로서의 공자는 처음에 제자의 성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사람에게 꼭 알맞은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서른 다섯 살 때 공자는 주나라의 수도 낙양에 여행을 하였다.



노자(老子)를 만나 자기의 스승이 되어달랄 참이었다.

「달리는 짐승에는 밧줄 걸 수 있고 해엄치는 물고기는 낚을 수가 있고 날으는 새는 화살로 쏘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나 용이라면 날으는 풍운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데 나는 그 길을 모른다. 노자란 그 용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공자는 뒤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공자는 그때까지 노자의 학문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공자의 명성은 차츰 높아가고 제자는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왔으나 노자의 사상을 이해하기에 아직 젊었던지도 모른다.

공자는 군자(君子)라는 말을 잘 썼다. 이 시대에는 군자란 보통사람 위에서는 자, 고귀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다. 군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상 치국평천하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치국의 경륜을 가진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공자는 치국할 위치에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는 사람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군자라 일컬었다. 그리고 공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역시 치국평천하의 위대한 꿈이었던 것이다.

「군자란 어떤 것입니까?」

「몸을 굽히고 겸손하는 것이니라.」

「그뿐입니까?」

「몸을 감추고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것이니라.」

「그것 뿐입니까?」

「몸을 낮추고 만민을 안심케 하는 것이니라. 몸을 낮추고 만민을 안심케 하는 것은 요임금 순임금 등 이상의 나라에서도 지향하던 목표였더니라.」

이것은 제자의 자로(子路)와의 문답인데 공자의 가르침은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의 말처럼 몸을 스스로 지니는 데서 시작하여 시국평천하까지 널리 확대시켜 가는 것이다.

정치에 대하여 공자는 백성보다도 제왕에게 그리고 관리에게 중점을 두었다.



국가를 통치하는 자의 길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는게 보통이었다. 공자는 말한다.

「정치란 바르게 다스린다는 말이다.」

「위에 서는자가 예를 사랑한다면 백성이 애경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는 자가 정의를 사랑한다면 백성이 쫓지 않을 리가 없다.」

「덕으로 백성을 이끌고 예를 가지고 백성을 규율한다.」

이것이 공자의 예치주의적 사상의 근본적인 특징이었다. 이렇게 하여 국가를 증성하게 하고 인민을 교육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위 나라에 갔을 때 제자인 「염유」에게 말했다.

「인구를 느낄까?」

「인구는 많습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백성을 살찌게 하자.」

「이미 살찌 이상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을 가르치자.」

공자는 이러한 왕자의 길을 지니고 원대한 이상을 품고 여행을 떠났다.

공자의 사상을 썬주고 공자를 썬 줄 훌륭한 군주를 찾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걸어다녔다.

「나를 썬주는 사람이 있다면 1년이면 족하다. 훌륭한 정치를 해보자. 3년이면 완성해 보일 수가 있다.」

「40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는다」는 공자는 자신에 넘쳐 있었다.

「군자란 말은 느리게 하고 실천은 빨리 하려고 원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정치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공자의 이러한 꿈은 기어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긴 20년의 나그네 걸음이었다.



산둥(山東)의 동쪽에서부터 남쪽인 호북(湖北)까지 황하 유역으로부터 양자강 유역에 걸쳐 나라가 있는 곳 문화가 존재하는 곳, 공자는 제자를 데리고 정처없이 돌아다녔다.

제, 노, 위, 진, 채, 진, 초……대국도, 소국도, 공자를 쫓아주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어느 때는 악독한 야심을 가진 자라고 오해받아 죄없이 남들의 원망을 사고 때로는 도적의 무리에 몸을 띠고 사생지간을 해매고 69세의 노령이 되어 허무하게 고향에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공자와 같은 내인물을 쫓아내 나라가 없었던가.

공자는 「아침에 인간의 도를 깨웠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기 몸의 안전을 유지하기에 애를 썼다. 「천하를 구하는 것은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천하를 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정치가로서의 결점이 있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뀌어 말하면 공자는 소극적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대표적인 동양인의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또 이 시대는 이욕고 전국(戰國)의 시대가 시작되려는 춘추의 말기였기 때문에 천하가 난잡하게 흐트러지고 공자의 가르침에 있는 인간의 길, 정치의 길 등이 행하여 지기에는 부적당한 시기였다는 사실도 커다란 원인이었다.

「나라에 길이 없으면 들어가 숨는다」고향인 노나라에 돌아온 공자는 교문격으로서 정치를 비판하고 정치가들을 교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유하면서 교대의 시를 모아 시경(詩經)을 만들고 음악이나 예제를 정비하고 역(易)의 연구를 하며 그 위에 12대의 노나라 역사를 춘추(春秋)에 기록했다.

꿈은 깨어지고 나이를 먹어 노쇠한 공자이긴 하였으나 「군자는 상송한다」는 말대로 배움을 죽기까지 그치지 않았다. 최후의 완성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노력을 쌓아갔던 것이다.

지자(智者)로부터 인자(仁者)로



이것이 최후의 길이였다.

「인(仁)이 왜 먼단 말인가. 인을 구하는 자는 인이 주어질 것이다.」

이미 공자 앞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인자란 완성한 인간을 가르키며 성자를 말한다.

「지자는 물을 즐겨하고 인자는 산을 즐겨한다. 지는 동(動)이요 인은 정(靜), 지자는 즐기고 인자는 연구한다.」

공자는 지자를 물에 비유하고 인자를 산에 비하였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실패고 하여 남을 세우고 스스로 달하려고 하여 남을 달하게 한다.」고 가르친 것도 모두 인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이것을 사랑하는 자 보다 못하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즐기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즐기는 자의 세계, 여기에 공자가 도달한 높은 경지가 있는 것이다.

「내게는 한줄기 곧은 길이 있다」

지금 공자에게는 그 길을 거의 끝마친 느낌이 있다.

어느 날 강 위에 선 공자는 층일거리듯이 혼자 말했다.

「길 가는 자는 이런 것일까? 낮이나 밤이나 쉬지를 앓는구나」
잠자코 한줄기 개울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던 공자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조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걸어온 인생의 멀리 흘러간 나날을 상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자의 만년에는 여러가지 불행이 겹쳐 일어났다. 부인이 일찌기 세상을 떠나고 아들인 배어(伯魚)도 공자보다 먼저 죽고 애제자 안회(顏回)가 또 죽어갔다.

「아아, 하늘이 나를 망쳤다. 하늘은 나를 멸했다.」 안회가 죽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공자의 제자는 3천이라고 일컬어 진다. 진정한 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제자 가운데는 공문(孔門)의 십철(十哲)이라고 불리워졌던 안회, 자로, 자공 등의 훌륭한 인격들이 있었다.



여 가 와 향 락 주 의



— 군 목 · 집 국 진 —

(1)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생동안 해야 할 일거리를 숙명적으로 부여받고 태어나는지도 모르겠다. 성실한 노력을 생의 미덕으로 간주한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적막과 비애가 앞서는 것 같다.

사람이 그의 생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들이 수 없이 많다. 그 것들은 저급한 것이나 고차원적인 것이나 대부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욕망충족을 위한 노력은 생존경쟁에서 실로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지쳐서 그들의 노력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쉬고 싶은 충동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노력의 본능과 휴식의 본능은 인간의 속성 속에 공히 도사리고 있는 욕구들이

다. 휴식에는 역량을 넘는 업무량에서 오는 단순한 휴식이 있고 바라고 추구하던 모든 욕망들이 충족된 후에 오는 휴식이 있다. 인간의 심신은 고통이나 불쾌가 없는 소극적인 휴식에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쇼펜하우어(Schopenhauer)나 스토아(Stoa) 학파들처럼 자족이나 무욕으로 정신적 독립상태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집념하던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여가를 얻었을 때에 잠들었던 온갖 쾌락의 욕구가 활개를 치고 일어난다. 이를 따라 향락주의에 젖어드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인간의 노력은 끝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억울하고 고달픈 노력에 시달리다가 얻은 휴식이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여가이리라. 현대인은 그의 지친심신을 퇴폐적인 쾌락으로 보상하고자 하며 정신적 불안과 불만을 육체적 쾌락으로 저항하려

고 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만족한 상태의 휴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여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질서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육체적인 욕망체계에서 정신적 욕구질서로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무엇인가 값진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다. 인간 자신이 새로운 질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2]

여가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즐기는 요람이다. 따라서 여가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형태이건 향락주의에 젖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고대 쾌락주의 학파인 키레네(cyrene) 학파에서는 순간적일망정 감정적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고 까지 주장했었다. 그들은 인간행위의 모든 것들이 적어도 가치가 있다면 쾌락을 출산하는 효용성 때문이라고 했다. 키레네 학파의 유명한 아리스티푸스(Aristippus)는 행복은 쾌락의 총계라고 말하면서 최선의 사람은 여러가지 원천에서 오는 쾌락에 민감하여야 하며 최대량의 쾌락을 얻게끔 행동하도록 식견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물론 그의 쾌락이 순간적인 덧없는 흥동을 신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초월적 쾌락도 아니었다. 육체적 쾌락을 포함한 부와 명예와 교우관계, 지적인 담론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학파에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은 이성은 감각적인 현상을 넘어서 모든 감각보다 앞서는 궁극적 원자에까지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온갖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 영속적이며 따라서 최선의 쾌락에까지 침투한다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쾌락, 대부분의 육체적 쾌락이나 감정적 쾌락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욕망에 매혹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자연의 전체적인 진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할 때 따르는 평화롭고 잔잔한 쾌락을 권장하였다. 선한 생활이란 격동의 생활이 아니라 지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만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용한 안정의 생활이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피쿠로스는 자신은 적의에 찬 세상, 인간의 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거나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그는 인간의 선한 생활이란 외적인 변동이나 내적인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사람이 참다운 이성작용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을 지배하여 간다면, 마음의 동요 없이 알뜰하게 살 수 있는 크나큰 행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의 안정과 쾌의 느낌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향락주의자들의 주장들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 일반적인 것과 정신적 내지는 교차원적인 것으로 분류해서 우리의 의도를 정리하고 싶다. 인간은 육체적인 질서와 정신적인 질서의 혼합체이므로 어느 한 쪽만의 만족한 상태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다운은 정신적인 것일 수 있으나 보다 절실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오히려 육체의 기본적인 요구인 지도 모른다. 어느 예술인은 가장 육체적인 것이 가장 정신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정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육체적인 구체감 없이 정신적인 「이미지」를 발전할 수 없으며 육체적 욕망이 충족된 후에 비로서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인 듯 하다.

그러나 정신적 요소가 결핍된 육체적 향락은 영구적이 될 수 없으며 순간적이고 권태의 몸부림으로서 후회와 환멸의 연속일 뿐이다. 돈·후앙이 1003명의 여인을 농락하며 환락의 율작을 거듭한 것 처럼 그것은 실로 욕구불만의 지옥이

요 불행한 일이다.

반대로 금욕주의적 쾌락주의 역시 불완전한 것으로서 특수한 일부 층에 가능할지 모르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네오 플라톤주의나 극단적 보수주의 기독교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초현실적 종교적 연락도 역시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참된 행복은 육체적 욕망충족과 아울러 정신적 세계의 만족감이 균형과 질서를 이룰 때 비로서 성취되는 것이다. 플라톤이나 스피노자의 주장들 처럼 자아인격의 전체적 연속적 만족을 목표로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3)

현대사회는 전체적 인간 이해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는 인간을 관조하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엔 너무나 분주하다. 분업화된 직업 형태와 기계에 의한 노동 혁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를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없고 오히려 현대라는 괴물에게 알맞도록 찢어서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치사스러운 생존권은 유지할 수 없이 되어 있다. 핵무기의 위력과 분열과 전란의 공포 앞에서 인간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순간적이고 퇴폐적인 육감적 쾌락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여유라던가, 여가라던가 한가하다던가 하는 개념은 아예 고전적 어휘로 퇴색하였으며,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분명한 중에 「틈」을 얻으면 포식하고 취하고 덩구는 것이 소위 현대인이 아닐까. 여유, 사색, 낭만 이같은 어휘들은 어언 그 옛날 어느 시대의 신화처럼 되어버린 지 오랜듯 하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고 구차스런 목적과 동물적 본능만을 위해 탐닉하는 괴상한 동물로 전락된 것 같다. 이같은 현실에서 인간만이 독점하고 있던 여가와 향락의 뜻이 있을 수 없다. 여가는 인간의 지성이 지니는 멋이요, 향락은 그의 감정이 누리는 낭만이다. 지성의 여유가 없는 곳에 감정의 낭만이 깃들일 수 없다.

(4)

「여가」 혹은 「한가」라는 말은 그리이스어로 스킨레라고 한다. 이 스킨레(Schole)가 영어의 스쿨(School) 즉 학교라는 말의 근원이 된다. 인간 정신문화의 요람인 학교는 그리이스의 유한계급인 자유민의 연장자들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다. 먹을 것을 쌓아두고 할일 없는 한가한 시간이 오늘의 이 문명과 문화의 마친루를 가져온 요람이

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때의 정황과는 달리 우리의 욕망도 마친루보다 높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자연적인 여유를 얻을 길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 같은 여가를 오늘에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비록 잠들고 쉼해 가는 것 일지라도 우리의 지성에 호소하는 길 이외에 현대 일의 여유를 만들 방도가 없을 것 같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동물적 충동으로 살면서도 높은 감정의 희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조지·산타야나(George Santayana)는 「사람을 위한 좋은 생활은 자연적 충동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고 발전할 때 그 결과로 생긴다」고 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충동과 관념화 하는 두 개의 작용이 있다. 충동이 그 의도하는 바와 가능한 결과들 이해하지 못하고 서두르면 짐승과 다름 없는 행위로 나간다. 관념화 하는 작용이 물리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의 동적인 세력과 연결짓지 못하면 난폭하고 병적인 공상을 일삼게 된다. 이 두 요소가 생활 속에서 효과 있게 결합되면 인간의 합리적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은 나면서 소유

하거나 타고 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훈련과 수업과 오랜 경험으로서 자율적인 개인의 여러가지 재주를 찾아냄으로서 오는 것이다. 「산타야나」는 「좋은 생활은 하나의 기술이다. 그것은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기술이다. 어떤 활동이든지 그것이 그 목적을 의식하고 하나의 건전한 이론에 의하여 그 이상적 결과를 향한 올바른 진전을 할 수 있을 때 하나의 기술이 된다」고 했다. 그 기술들이 인간 생활을 장식하며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같은 정신적 생활은 이상사회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득불 당면하는 모든 현실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험이 최초에는 감각, 정서, 관념, 및 충동의 하나의 혼돈체이지만 그것들이 관심과 욕망의 갈등에서 합리성의 자극을 남기며 단편적 생의 지혜들로 구성되었다가 합리적 지성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현대인이 당면한 엄청난 난제들 앞에서 도 우리는 인간의 특성마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성의 특성을 잃지 않을 때 여유를 찾게되고 그 후에야 우리는 기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지 수단이 아니라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이체는 자신이 거리에 나서면 인간을 만나고 인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의 파편들을 만난다고 고백한 일이다. 우리의 지성은 존엄한 인격이 희롱당하고 또 인간을 이용해 먹고 하는 슬픈 현실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그 슬픈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앞에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무의미한 망아의 쾌락이 자신과 사회에 비생산적 요인임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만회한 여유와 한가한 시간에 최소한 자신의 취미나 오락을 통하여 자신을 현연시킬 수 있는 도락적 쾌락(Diletantism)이라도 연구해 보아야 함은 물론, 스피노자(Spinoza)가 우리에게 일러 주는대로 「고요한 행복은 영원한 것의 통찰인 까닭에 외부로부터 오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생활과 여가와 신앙



영 호 · 김 목 · 군

1. 인간의 번진된 생활과 여가

사람의 생활을 크게 나누면 ① 의식주의 직접적 충족을 위한 생리생활 ② 생활자원의 획득을 위한 노동생활 ③ 여가생활로 三分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생활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 힘을 안배해서 이 세 가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삶의 맛과 멋을 낸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활동이 배분되는 구조와 비율이 다르다.

가. 고대사회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식사나 수면 기타 신변에 관한 생리생활이 중심이 되어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이 함께 융합된 형태였다. 노동 속에 여가가 있었고 생리생활 속에도 여가가 밀착되어 있어서 여가자체가 별도의 것으로 의식된다는 것이 일반 평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평민의 공식적 여가라 할 수 있는 일년의 3~4회의 명절도 간접적으로는 농경생활 그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 근대사회

근대사회에 이르면 점차 여가생활이 물적자원 획득을 위한 생산적 노동활동으로부터 분별된다. 여가를 노동의 적극적 보충물이라는 지위로부터 소극적 지위로 떨어뜨린다. 여기선 여가가 노동의 보상으로서의 휴양, 휴식,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2차적이고 도 부분적인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다.

다. 현대사회

현대사회에 이르면 테크놀리지의 발달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 유통, 운수, 서비스업 등의 제3차 산업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업이 대중 소비와 대중 오락 전제로 해야만 성립되고 보면 오락이나 소비가 도리어 목적시 되는 가치

결환이 이루어진다. 생산과 결부되었거나 보조물로서의 여가생활이 생산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자체가 독자적 세계를 갖는 새 현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작업조직이 기계화 되고 세분화 됨으로서 노동이 자기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노동에 대한 기쁨을 잃을 뿐더러, 인격적인 충족감과 연대성마저도 퇴락하게 만든다. 이런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의식을 심각하게 느낄 수록 여가나 오락에 자아의 지주를 찾고 기대보려는 심정이 강력하여져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개인을 위한 것으로 있지 않고 사회체제가 개인의 희생을 최대한도로 요구하고 보니 개인은 자기세계를 여가 속에서 찾고 오락이나 취미에 탐닉하는 가운데 자아실현의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위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인은 어떤 사회에 속했든지 자기 소외감을 절감하고 여기에 여가와 오락이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기계문명 외에도 조직의 거대화화 와 관료제화도 인간소외를 촉진한다. 왜냐하면 조직은 능률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조직이 기계화 되고 거대화하면 조직체의 공동목표로 설정된 사실들이 조직자체의 요청으로 돼버려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 규범으로 되어버려 조직 앞에 개인은 자

연 무력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노동시간의 감소가 여가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대적 경향인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주 40시간 노동에 5일제(制)를 택하고 있어 일반대중은 연 평균 3,700시간의 자유시간을 갖고 있고 Twenty Century Fund의 조사에 의하면 20~30년 내로 전 인구의 2%가 나머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노동생활에서 소외감을 절감하는 현대인들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2. 여가 주변의 문제들

아놀드 토인비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의 문명은 계속 발전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자동화시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문제는 미국인들이 그들의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서너시간 일하게 되면 여가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여가를 텔레비전을 보거나 <코리트>게임을, 하면서 보낸다면 미국문명의 장래는 별로 밝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가에 대한 내일의 전망은 일에 대한 오늘의 문제보

다 더 클지도 모른다. 한 정신병 학자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가의 의미와 선용의 원칙과 근본적 문제 서술을 통해 여가생활의 정도(正道)를 논해보자.

가. 여가의 의미

여가란 일반적으로 일에서 벗어난 시간이나 조용하게 명상하고 쉬는 것, 의무에 예속되지 않는 시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조오지 쏘울이란 학자는 『레저』(Leisure)란 말에는 재래적 뜻이 연상되어 오해되기 쉬우니 새롭게 「Unpaid time」이란 말 사용이 더 옳게 전달된다고 했다.

「여가」란 단어가 풍기는 뜻은 중요하지 않은, 노동에 종속된, 쓰다남은,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이므로 산업화와 자동화의 소산인 「새로운 여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서술하기엔 적당치는 않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엔 「자기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또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으로 풀이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은 여가를 즐기롭게 쓰는데 있으며 여가는 모든 일이 운행되는 중심점』이라고 하여 여가의 중요성과 위치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오늘날 여가를 일과

대치하거나 일에서 쉬는 시간 내지는 노동의 댓가로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 시대착오적 해석이 된다. 여가는 인생에 있어도, 없어도 좋은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찾고 자기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귀중한 황금과 같은 시간이며 청장을 위해 배우는 기회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여가의 기능과 선용의 원칙

가. 생리적 기능: 휴양, 휴식같은 피로회복의 기능과 육체의 생리적 능력올 높이는 기회로서 수면, 목욕, 일광욕, 영양섭취 등이 여기에 속한 것이 될 것이다.

나. 심리적 기능: 일에서 생긴 심리적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의식과 해방감을 느끼게 하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즉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취미나 기호를 만끽하므로써 삶의 보람과 멋을 느끼고 자기과시의 위안을 느끼게 하는 기능 또한 중요하다.

다. 사회적 기능: 여가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능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한다든지 집단이 더불어 즐기므로써 가정이나 속해 있는 집단의 연대감을 공고히 하는 등등의 기능이 있다. 남이 하는 일은 나도 하고 남이 갖는 물건은 나도 갖는다는 현대인으로서의 자격이 구비된다는 동조이식은

여가의 대중화와 집단성 오락을 흥성케 한다.

근. 문화적 기능: 생활관습으로부터 학문,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문화제를 취하고 감상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간성의 충족과 발전 및 문화제의 의식적 창조라는 적극적인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여가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여가는 단순한 소모적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을 통해 얻지 못하고 만들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을 여가생활에서 찾아야 한다. 전문화된 기술사회의 일로 볼 수 없었던 삶의 진폭과 전체적 균형을 가져오는 기회가 된다. 즉 놀이는 남과 더불어 전체의 조화를 가지게 하며 그 속에서 자선을 만끽하는 자기형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문명비평가 마셜 맥루한은 「우리들은 여가의 놀이에서는 전체적 인간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일하는 데서는 자기의 극히 적은 부분만 사용하고 뿐이다」고 한 말은 여가선용의 기본적 원칙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가는 쉬도록 허용된 시간이나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소극적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택하고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의 결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간인 것이다.

다. 주체성이 상실된 여가

사실 우리는 여가 속에서 찾아야 하는 원래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여가자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로 피로한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여가에서 자아를 개발해야하나 노동에서의 피로가 과대하기 때문에 여가를 단순한 생리적 기능의 의미로서만 소모해 버리거나 직장에서의 정신적 긴장이 크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서도 긴장이 지속되어 여가를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내 버리거나 비용이 없어 재대로의 소일(消日)거리를 찾지 못한채 그야말로 저급의 여가행태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군복을 입고 있는 경우 더 그러하다. 또 저급을 고급의 여가로 향상시키려 해도 매스컴을 비롯한 대중문화, 군대에선 부대나 내무반의 풍조의 범람속에 휩쓸려 진정한 자기 여가를 가지기가 힘든 것이다. 여가를 즐기는 장소에 상하관계나 적대관계가 개재되거나 거대화면 조직인 경우 도리어 인간성이 압박받게 된다. 생활의 기계화가 여가에도 침투되어 인간의 개성적 능력을 살리는 여지가 없어지고 인간의 풍부한 능력은 희생되어 인간성의 상실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짙다.

노동생활에서 소외된 인간이 주체성을

회복하려고 나아간 여가활동에서 다시 주체성이 상실되고 후회되는 여가 중의 자기의 어두운 생활들이 제2의 소외감을 맛보게 한다. 현대적 조건에 대결하는 길은 도피나 되는대로나 파괴가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쳐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우려 새 가치 체계를 확립하고 현실의 자체인식을 솔직히 해야한다. 여가사용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이방면의 일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한국적 현실에 맞고 레저산업의 지나침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기풍이 조성되는 것이다.

3. 성서적 여가 이해와 교회의 역할

성서에는 여가에 관한 문제에 자세한 언급은 거의 없다. 성서에서 일(Work)은 458회 사용되나 「여가(Lesisure)」는 1회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산업사회나 기술사회에 해당되는 새여가에 대한 직접적 교훈은 찾기힘들을 알 수 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안식일은 노예나 낮선 길손이나 가축까지 쉬는 혜택을 입고 있다(출 2: 10, 11)는 것과 이 안식일이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된 것은 우연한 것은 아니다. 노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가장 중심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도 옛새동알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운명에 깊은 암시를 준다. 인간의 휴식은 하나님의 안식과 같이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귄인 예배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상태를 새 차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시간을 내어 명상과 기도를 하였고 휴식과 사회적 레크레이션도 취하였고 그의 첫 목회는 가나안 결혼잔치의 참여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주까지 제공했다. 그는 노동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 철저히 소외된 죄인과 병자들을 가장 가까이 하였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것을 조금도 사양치 않으셨다(마 9: 11, 눅 5: 29).

여가가 가져온 문제점이 많다. 인간보다 근본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 교회에서는 여가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현하도록 그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해수욕장, 산, 클럽 운동장에 가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줄 책임이 있다.



나의 친구



군목·이 성 환

공자님 말씀에 이르른 친구가 셋이 있고 해로운 친구가 셋이 있다 하였고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에 양반을 사귀면 좋은 칭찬을 받지만 상놈을 사귀면 욕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되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교훈인줄 안다. 사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안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 생각한다. 동양에 관자와 포숙이의 깊은 우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서양에서 전해오는 크리스토퍼스의 예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로마시에서 동북 편으로 수 천리 가서 오스트리아 지방에 한 농부가 있었다. 이 농부는 매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요 취미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천만 뜻밖에도 로마의 최고 법정에서 출두하라는 호출장이 왔다. 그 호출장은 법정의 호출장이지만 형사 피고에게 오

는 호출장이 아니고 민사의 증인으로 호출한 것이었다. 증인이란 것은 정직하고 명확하게 증거만 대면 그 뿐이고 아무 벌이나 징계를 받을 염려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촌담이 판청에 들어 간다는 격으로 지방의 한 농부가 로마시의 대법정에 간다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법정의 호출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되는 법이었다. 생각하다 못하여 끼기는 가야 했는데 처음으로 먼길을 떠나 가는데 대도시를 자기 혼자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와 동행하여 주기를 간청하게 되었다. 그의 친구는 함께 가 주고는 싶지만 발을 사기로 약속한 일이 있는데 그 발 값을 치뤄야 하겠고 그토지를 경작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섭섭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

인지라 인사를 하고 돌아오려는데 그 친구가 여행갈 준비가 다 잘 되었는데가고 물더니 의복 한 벌과 담요 한 장을 주면서 이것이나 받아 달라고 한다. 대단히 고맙다고 사례를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금 꼼꼼히 생각한 결과 물째로 가는 친한 친구를 또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였다. 이 친구는 함께 가면 좋기는 하겠는데 마침 아내가 병이 나서 누워 있으니 의사도 청하여야 하겠고 약도 써야 하겠으니 아무리 하여도 동행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고 보니 섭섭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 또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선다. 돌아설 때에 그 친구는 밤이 깊고 길이 험하니 집에까지 만이라도 동행하자고 하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갔다.

그날 밤에는 싱송송하하여 잠이 오지 아니하여 한 잠도 못자고 일찍 일어나서 행장을 준비한다. 그런데 아직 새벽 미명에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대문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었다. 시끄러워 귀찮게 생각하며 마지 못하여 나가서 대문을 열었다. 대문을 열고 보니 누구인지 알 사람인데 그다지 친밀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찌기 찾아 왔는가고 물어 보았다. 그 친구는 당신이 로마로 간다는 막

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 먼길에 동무하여 함께 갈 사람이나 있는가고 물어보러 왔노라고 한다. 그래서 같이 갈 친구가 있을까 하여 어제 두 곳이나 찾아 갔는데 이상 스럽게도 두 사람이 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 이제는 별 수 없이 혼자서 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길 「그러면 내가 얼마 후에 로마로 갈 일이 있는데 당신을 위하여 좀 일찌기 미리 갈 수도 있으니 함께 가면 어떡냐?」고 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어찌나 고맙고 감사한지 측량할 길이 없어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였다.

크리스스토름은 이 이야기 뒤 끝에다 몇 마디 해석을 붙였다.

세상 사람의 첫째 친구는 과연 누구냐? 이 사람도 돈, 저 사람도 돈, 이집에도 돈, 저집에도 돈, 그저 돈돈 한다. 이 세상 사람의 첫째 친구는 과연 돈이다. 그러나 돈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떠날 때에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친구가 의복 한 벌과 담요 한 장을 준 것 처럼 돈은 명의(冥衣) 한벌과 널(棺) 하나 밖에는 주는 것이 없다. 그밖에 제사를 하든지 기념식을 하든지 다 자기네를 위하는 것 뿐이요 세상 떠난 이를 위하여서는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 사람의 둘째로 친한 친구는 누구냐? 이 사람도 내 부모, 내 자녀, 형제 자매하고 저 사람도 내 부모, 내 자녀, 형제자매하고 이집에서 내 가족, 저 집에서도 내 가족, 가족 가족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족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친구가 어두운 밤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서는 돌아간 것 처럼 가족은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 무덤까지 동행하여 줄 뿐 무덤에 가서 흙은 파고 묻은 후에는 저희들 끼리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의 셋째 친구를

마지막 나의 친구가 될 만한 이가 누구인가? 이 친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는 너무나 성의 없이 되는대로 믿지만. 우리의 마지막 길에 하늘나라까지 동행하여 주실 친구는 오직 우리가 믿는 주님 뿐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좀더 사랑하고 그 뜻을 좀더 잘 순종하여야 마지막 날에 과히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요 15:13-14),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였다.

병영 생활 과 종교



범사·이 인 수

인간으로서 가장 패기만만하고 의분에 넘쳐있고 역사 의식과 국가 의념이 가장 강렬한 병영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자기포기와 자기 외면의 날들로 몰입해 버리려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자각인 동시에 자기 극복의 부재에서 오는 무한한 생명의 발로 그것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젊음의 속성인 패기와 정의감과 희망 대신 실의와 비굴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때가 많다.

가장 순수하고 지혜로와야 할 병영 생활에서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무기력한 회

색의 생활로 퇴화하기 쉬운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삶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가치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문제가 그림자 처럼 우리를 추적하면서 가끔 머리를 드는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내가 뭐냐 하는 물음은 곧 자기 외면의 시대에 살아 왔다는 걸 뜻하는 것이다. 그 때마다 우리는 저 파우스트의 고뇌를 치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의 존재는 현실사회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다.

사람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사회는 우주처럼 광대무변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접촉하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항상 만날 수 있는 몇몇 얼굴과 음성 그리고 대개는 신문이나 잡지 혹은 라디오 텔레비로서 보고 듣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혼자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만남은 사교와는 다르다. 그것은 개안(開眼)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탄생되고 재 구성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나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것이 만남이 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고 만 것 한 말로 해서 구도적인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전에 반드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어야만 개안을 할 수가 있다.

종교는 일종의 만남이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인 해후인 것이다.

적어도 불교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을 요구한다.

일상적인 자기가 본래적인 자기어로 전환되도록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들의 일상적인 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면 종교는 필요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은 항상 전변무상하고 부자유하고 허구이기 때문에 보다 영원하고 자유롭고 진실한 세계를 찾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요구이면서 또한 우리의 생명의 요구인 것이다.

흔히 종교를 일상적인 세계에 대한 부정으로 속단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보다 온전한 일상을 위해서이지 부정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場)은 그 일상생활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출가(家出)라는 말도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일상적인 세계를 떠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났던 세계로 귀환하는데 보람이 있는 것이다.

물론 돌아 왔을 때는 떠나기 전과는 판이한 개안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만약 아폴로 8호가 지구를 떠나 달의 궤도를 선회만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문제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곳에 떠났던 것이 지구로 다시 돌아왔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종교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병영생활도 다시 말하면 출가와 같이 떠났던 것이 다시 개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병영생활도 하나의 만남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세계 안에 국가 안에서 살고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세계

의 문제는 곧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현장의식 내지는 역사의식이 희미하다면 그것은 곧 내 자신이 희미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깥세계에 대해서는 곧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려든다. 이 내면세계는 바깥 세계에 못지 않게 다양하고 심오하다.

어떤 의미에서 외부 세계는 이 내면세계의 표상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또는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내면세계의 응시를 통해서 보다 원만하고 조화된 일상생활을 이루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때 병영생활에서 생기가 돌아 환희의 생활로 탈바꿈 하게 된다.

슬기롭고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생명의 요구가 우리들로 하여금 종교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다.

종교는 모든 생활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좌담회> 여가선용

때 : 1971. 5. 21.
 곳 : 공군본부 군종감실
 나온사람 : 김 상 진 신부
 이 재 덕 목사
 김 특 중 목사
 사 회 : 이 영 렬 목사

사회 : 요즘 구미 각국에서는 한창 「여가」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만, 우리 한국도 이쯤엔 상당수가 「여가」를 놓고 생각 하게끔 됐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가」를 무로하게

소도해 버리지 않으면 왕왕히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고 해서 과연 우리는 이 여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자 이 도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여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옛날보다 지금 달라졌다면 어느 점이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상 : 그전에는 일하는 시간과 여가를 누리는 시간이 달로 구분됨이 없이 지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회생활이 복잡함에 따라서 일을 하면은 그 다음 쉬는시간 곧 여가를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가를 「갖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시간적인 구별점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재 : 옛날에는 두 가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는 마지거나 있고 재산이나 있는 층의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여가」의 의미와는 다른 「무위도식」이라 할까 하는 층이 있겠고, 그 반면에 워낙 가난에 쪼들린 사람들에게는 먹고 자고 하는 시간 이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려 「여가」를 갖을 수 없었던 층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한가」한 시간은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여가」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까지 논의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을 본테서 온 소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는 어떤 일을 능률적으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하다는 경영학적 판단에까지 발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누리는 사람의 편에서는 「어떻게 효과 있게」

「여가」를 이용하느냐? 하는데까지 관심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득: 특히 「여가」란 문제가 요즘 클로우즈·업 된 것은 우리 생활이 기계화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 작업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 그럼 「여가」를 누리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극소수의 지주층이 「여가」라기 보다는 「한가」한 시간을 지냈다고 믿고 거의 대부분이 「여가」를 향유치 못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대중화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상: 물론 옛날보다야 대중화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보게 되면 주말에 본인 자유로이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될 전망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네 실정에서는 「여가」를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니만큼 「여가」에 대해서 질적 효율을 기대하는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여가」시간에 어떻게 효과있게 즐길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거기에도 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따갈 불죠.

사회: 그러니까 「여가」는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그 밖에 환경의 조성, 이런 것들이 따르는게 아닙니까?

김상: 환경문제는 많이 조성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시간과 돈은 「여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팔수

요건이겠죠.

이재 : 그런데 「여가」의 「효과적 활용」이란 말보다는 「여가」의 효과적인 「방법」이 문제가 아닐까요? 일주일에 몇 시간 혹은 하루에 몇 시간, 시간이 있다면 그 「여가」를 어떻게 질적으로 잘 보내서 자기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재창조하고 축적하면서 모든 피로를 풀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회 : 그런데 여가문제가 그런 철학, 곧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갖는다는 의식 속에서 갖게 됩니까? 여가는 『어떤 생활을 위한 요소로서 다음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여가」를 갖는다』 그런 낭만이랄까 의지에 따라서 갖는 것입니까?

김상 : 생활의 일부죠. 일에 지쳐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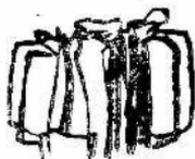
이재 : 그건 자연적인 흐름이고, 사실은 아무리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여가」로 말미암아 「일」에 지장을 가져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김득 : 저도 「여가」 문제는 경제적 뒷받침에 따른 「엔조이」 일변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한 벌이에서 잠시 쉬으로써 새로운 삶의 힘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도 「여가」 문제는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재 :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은 여가는 오락과도 관련이

있기 마련인데 오락이란 글자는 제집녀(女) 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락은 여자와 더불어 즐긴다는 향락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서양에서는 오락을 Recreation이라고 해서 Re(再) Creation(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락을 할 때 꼭 그런 「재 창조를 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힘은 아니더라도 쉬고 고단함을 풀어서 새 힘을 얻어 나가자는 목적의식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 않다면 「향락」의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되니깐요.

김상 : 지금 향락이란 말을 썼는데 향락이 그렇게 소극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사회 : 「여가」는 「휴식」도 들어가고, 「오락」도 들어가고, 「향락」도 들어가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점은 지양되어야 하고 어떤 점은 권장해야 하고 하는 것이라 생각되죠. 그러니까 여가=오락, 여가=향락라고 한이꺼번에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속담이 아닙니까?

이재 : 그런데 여가=향락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상 :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일종의 생리현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너무도 생활에 지치니까 여가를 즐기려는 의욕이 거의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회 : 여가라는 것은 일정한 직업에서의 시간적인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시간적 공백에다가 재정을 투자해서 자신에게 즐거움을 산다는 말인데 그 재정투자의 경향이 그릇된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런 경향을 좀 분류해 볼까요?

김상 : 누구든지 여가를 갖는데 있어서는 준비를 갖춰서 즐기는 것과 그러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층이 있겠죠. 학생들의 여가는 계획적인 것으로는 기껏 등산 정도 외엔 별반 없죠.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영화를 감상한다는 것 등은 그저 지나다가 들리는 정도의 것일 뿐이죠.



이재 : 「여가」활용은 오히려 직업인들이 학생보다 더 계획적이고 또 기회도 많다고 봅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깐요.

김상 : 직업인이라 하더라도 공장, 직공의 경우는 좀 다르죠. 고되니까 여가를 잡자는 걸르 지내는 그들에게는 여가=휴식 이랄까...

사회 : 주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옛날과 달라서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식모가 있어서 훨씬 여가를 갖출 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재 : 여유있는 주부들 중에는 취미에 따라서 꽃꽂이, 요리강습 등에 나가서 「여가」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스호텔이나 나가서 향락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죠.

김상 : 주부들에게는 「여가」라고 하는 시간적 구분이 없죠. 또 그들에게는 천성적으로 살림을 통해서 여가를 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청소를 하는 것도 그게 곧 그들에게는 여가선용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는가 보아요.

사회 : 그러니까 대개는 여가를 계획적으로 환용하는 주부는 적다는 거죠.

이재 : 있다면 불건전한 향락으로 빠지는 경향이 더 많다는 거라고 봅니다. 가령 일부 파월기술자나 군인가족 중에는 「여가」가 남아돌아가서 맨스호을이나 찾아가서 남편이 번 돈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수가 곳곳이나 강습에 나가는 사람 수 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요.



사회 : 맨스호을에 가는 것은=향락이고, 향락=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득 : 향락이란 곧 사회적인 윤리기준을 넘어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재 : 사회 윤리규범을 벗어나 탈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곧 향락이라고 봅니다.

사회 : 그러나 탈선이라고 하는 선이 옛날보다는 많이 복잡했다고 할까, 전진했다고 할까, 이동된 것 만은 사실이고, 윤리규범이란 것도 명문화 된 게 없는데 어떤 선이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재 : 윤리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변동하기는 하지만 그때 그때 그 시점에서는 그때포의 사회윤리규범이 없겠어요?

사회 :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동했다는 말이죠. 문제는 선을 어디다가 긋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목사님의 경우는 선을 이만큼 긋고 내 경우는 선을 저만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목사님의 경우는 넘었다고 보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 안 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득 : 주관적일 수 없죠.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 의하여 그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 :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맨스호텔에 다니면서 탕진하고, 남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놀아나서 살림을 망친다 하는 것 통은 탈선이 아니겠습니까?

사회 : 향락=탈선, 탈선=죄악 이런 공식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남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놀아나다던지 재산을 탕진한다던지 하는 것은 마땅히 탈선이라고 보아야 하죠, 하지만 과부가 된 몸, 또는 남자가 장기간 해외에 가 있는 여자의 경우, 남자는 얼마든지 생리현상을 푸는 것이 당연지사로 동정도 하고 관대한데 반해서 여자는 요리강습이나 가고 꽃꽂이나 가야지 맨스호텔에 가는 것을 그토록 죄악시 할 수 있겠어요?

김득 : 그러니까 향락은 곧 탈선을 지향한 쾌락추구라고 해

두죠.

사회: 그럼 군대사회에서의 여가는 어떻습니까?

김상: 군대사회도 경우가 각각 다르죠. 영내자, 영외자 주
문지에 따라서도 다르구요.

김득: 영외자들은 일반과 같다고 보고 영내자들도 「여가」
라고 하면 외출시간을 말할티인데 이것도 역시 특출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에서 「여가」를 어떻게 선
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득: 「여가」는 곧 쾌락 충족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이 말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또 우리는 마땅히 그런 방향
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 「여가」를 무계획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는서 순간적으로 사회에 불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
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여가」를 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 일에 너무 지친 사람은 피곤을 풀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 자체도 「여가」를 선용이라고 봅니다.

김상: 휴식 중에도 소극적인 휴식이 있어요. 토요일 오후
나가서 누구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마음으로는 생각

하고만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한 번 들어 누우면 딱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득 : 「여가」선용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서 여가의 의미를
인식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재 : 너무 한 쪽으로만 기울려 질 때 그걸 교정시켜서 자
기 스스로를 개발시켜 주는 것도 선용하는 방법이죠.

사회 : 환경과 프로그램 조성이 더 넓게 보급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선용 못하는 사람 중에는 경제 여건이 여의
치 않거나 클럽형성이 안 되어서도 그렇거든요. 전에 YWCA에
서 포크댄스 프로가 있었는데 이런 건전한 프로그램은 보다
넓게 갖어졌으면 싶어요.



대체로 봐서 지금 우리들은 「여가」를 계획성 있게 짜 임새 있
게 효과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고 특
히 타후된 가정주부들의 「여가」문제는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주
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 빈약한
사람에게도 고루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조성을 적극적
창조해 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럼 바쁜시간에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
합니다.

X

X

X



□ 단 편 □

신(神)과 인간

김 병 로

그는 캄캄한 방에서 모으로 꼬부렸던 몸을 돌이키며 반듯이 누었다. 그리고 마음껏 사지를 뻗치며 기지개를 켜다. 삭신이 다무지근하고 손끝 발끝이 파르르 떨리며 기운이 속속들이 빠져 나가는 것 같았다. 방바닥에 몸이 찰싹 달라붙으며 친근으로 무거웠다. 포르르 잠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깜박 잠에 빠졌다가 날이라도 밝으면 낭패라 하였다.

실은 날이 밝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비까지 억척으로 퍼붓



는 외진 곳 캄캄한 밤중에 단 들이서만 방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사람보다 하느님을 두려워 했다. 사람은 못 봐어도 하느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똑똑히 봤을 텐데 어떻게 그냥 버티고 있느냐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까 여전도사가 방을 나갈 적에 통금이 해제되기만 하면 곧바로 떠나자 했던 것이다.

머리맡에 내려 놓은 야광시계가 세시 십분을 가리키고 있다. 밖엔 비가 멎었는지 피과하고 방안에도 칼각거리는 탁상시계 움직이는 소리 이외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바닥에 달라붙은 듯 무거운 손을 움직여 시계 옆에 놓였던 손전지를 들었다. 그리고 누은 채로 그걸 켜서 휘방안을 한 바퀴 살폈다. 서가며 풍금, 캐비닛이며 테이블 등이 보였다. 모두 아끼는 것들인데 버리고 갈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한숨이 섰다. 특히 서가에 그득한 책들은 아직도 포기되지가 않고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일어나 떠날 준비할 생각을 했다. 몸에 원기가 좀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는 쾅쾅대며 일어났다. 몹시 힘이 들었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몸에는 자신이 붙어 있었었는데 막상 이성관계를 하고 나니까 형편없이 축쳐졌다. 아마 오랫동안이라서 너무 설쳤는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쾅쾅 일어서서 캐비닛 쪽으로 갔다. 손전지를 켜고 캐비닛을 연 다음 트렁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여기저기서 중요한 물건들을 골라 넣기 시작했다. 예금통장, 현금, 옷 등을 추려서 넣었다. 넣다보니까 갖고 가고싶은 물건들이 넘쳤다. 그는 고민했다.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가려던 당초의 계획을 바꿔 보따리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다. 그래도 남았다. 그는 용단을 내려 끊었다.

보따리 꾸리길 마치고 그는 신 장로에게 한 마디 떠나는 말을 적을까 망서렸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 없기로 했다. 야간탈출하는 사람이 이렇듯



저렇듯 변명조의 쪽지를 적어 놓고 간다는 것이 꼭스러워 뵈었다. 기왕 탈출하는 것 깨닫기 하자 였다.

그는 보따리에 기대 누웠다. 마음 속에 다시금 두고 가는 물건들에 대한 아쉬운 생각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얼른 여전도사의 피둥피둥하던 몸둥아릴 생각했다. 그건 아찔하도록 탐스런 욕체였다. 근 이십년 만에 안아보는 여인의 욕체인 까닭도 있었겠지만, 여전도사의 그것은 실제적으로 너무 싱싱하고 풍요했다. 그는 정말이지 그녀의 젖무덤 사이에서 치자꽃 향내를 만끽하면서 미친듯이 몸부림 쳤던 것이다. 그 순간엔 그 몸둥아리이라면 뭐든지 서슴없이 내던지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이 일단 끝난 순간 그에게서 그런 욕망이 약간 느뻐졌다. 이성을 되찾으면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앞날을 염려하게도 되었다. 탈출을 결의했는데도 알금알금 미련이 일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또 피둥피둥했던 여전도사의 몸둥아릴 생각했다. 그걸 영원히 차지하는데 망설망설할게 뭐냐 하였다.

이윽고 통금 해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후닥닥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문을 열고 짐을 밖으로 내놓았다. 그는 뒤돌아 방을 한바퀴 살펴보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축축한 대기가 피부에 부딪혔다. 그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살핀 다음 빠른 동작으로 변소 쪽엘 갔다. 어둠 속이었지만 양쪽 손에 보따리 들고 허겁지겁 걸어오는 여전도사가 인지되었다. 그는 얼른 맞달려가서 짐 하나를 받아 쥐고 자기 짐 있는 곳으로 쩍싸게 걸었다. 정말 쩍싸게였다. 낮에 목사로서 거닐 때와는 판이하게 쩍싸게 움직였다. 우스운 일이었지만 서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교인들 때문이었다. 극성스러운 패거리들은 통금 해제가 되기 무섭게 교회당으로 달려 오는데 그들과 맞부딪혔다간 차라리 안 떠났던 편



만 못한 결과가 된다. 목사가 여전도사와 짝꿍이 되어서 도망치다 잡혔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신세는 망치는 것이었다. 그게 사실이지만 일단 도망친 다음에 소문이 나드래도 나가야지 했다.

교회당 울타릴 빠져 나온 들은 필수룩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가가 드문쪽 골목길을 골라 걸었다. 그래야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교인들과 맞부딪치지 않을 것 같아서 였다.

그렇게 걸으면서도 그는 가슴이 떨리렷다. 영똥한 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였다. 평소에 잘 다니지 않던 길에 불쑥 들어서는 교인이 있다면 낭패이겠기에 그랬다.

여전도사도 떠는 눈치였다. 힘에 겨운 보따릴 양쪽 손에 들고 그에게 바싹 붙어 걸으며 그녀는 자꾸만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들은 종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큰길가까지 나올 수 있었다.

큰길엔 아직 택시가 드물었다. 들은 택시를 잡는 동안에도 초조해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다가 요행히 택시를 잡아 댔을 적에 들은 기뻐서 저절로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어딜 가자느냐 묻는 택시 운전사에게 무조건 서울역으로 가자 하엿다. 간밤에 일이 끝난 다음 여전도사와 합의하길 무조건 서울에서 만난 뜨자 하엿기 때문이었다. 서울을 뜨자면 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벌써부터 이런 일을 가상해 보긴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서울역으로 가고 있지만 갈 곳이 전혀 막연하지만은 않았다. 그렇다고 갈 곳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단 말은 아니고 다만 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겠느냐, 하는 점만 미리 생각해 뒀단 뜻이다.

그는 조용한 시골로 가리라 하엿다. 아주 벽시골은 곤란하고 조그만 교회 하나 정도는 개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다음은 자기를 알만한 사



람들이 없는 곳, 있더라도 수가 적은 곳이 좋겠다 하였다. 그런 조건만 허용되면 어디든 가서 교파를 초월한 아담한 교회를 세우고 여전도사와 힘을 합해 아기자기하게 전도사업을 하리라 하였다. 목회방법도 지금까지의 것과는 달리 부드럽게 하리라 하였다. 특히 육지기로 일관하던 설교법을 버리고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향으로 설교하리라 하였다.

목회법이니 설교법이니 하는 말이 나왔지만 그는 지난날에 너무 엄하게 그리고 딱딱하게 했다고 후회했다. 자신은 어이없게도 신(神)이고자 바둥댔고, 교인들은 너 잘 한다로 신이여라 강요하고 들었었다. 저네는 아들 딸 거느리고 깨알이 쏟아지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복에 두고 단신 남으로 와서 근 이십년을 흠아비로 사는 목사는 소위 세상맛일랑 단념하시고 신이여라 강요하고 들었다.

이런 교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그도 할 말이 없긴 했다. 자진해서 신이고자 나선 사람이 그러라고 박수를 보내는 교인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본의 아니게서리 팍팍대며 교인들에게 훈계만을 일삼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그의 설교는 언제나 어름장같이 차거웠다. 음성까지 쇠소리가 나서 더욱 차갑게 들렸는데, 그는 교인들의 약점을 끈아틀고 재미스레 차근차근 헤집고 들었다. 그건 교인들에게면 면도날로 생활을 에이는듯 아팠다.

그는 설교하러 강대상 앞에 나오면 우선 돗수질은 안경을 통해 장내를 구석구석까지 한바퀴 휘 둘러 본다. 망팔막한 키에 반짝이는 이마를 하고 뒷집을 진 채 착 가라앉은 몸가짐으로 장내를 두루 쏘아 보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장내엔 싸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그의 망팔막한 몸 자체가 어름장인가 싶게 누리가 원통 얼어들었다.

그가 쏘아 보는 동안 그의 눈길과 눈이 마주친 교인들은 마치 최면술에



결린 닭처럼 목을 꺾곤 했다. 이렇게 해서 삼백이 넘는 교인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듯 조용해져야 그는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교인들의 약점을 추켜 들고 앞금앞금 해집어 나갔다.

· 십일조(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일) 안 내는 교인을 그는 하느님의 돈 도둑하는 도둑이라 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예를 들어가며 그는 하나님의 것 도둑하는 사람은 죽는다 하였다.

어느새 고개 들고 그의 말을 듣던 교인들이 그의 이런 말에 그만 다시 고개들을 숙였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머릴 숙였다. 십일조 안 바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증거였다.

그 앞에선 십일조 못 다 바치면서 바치는 척은 못했다. 개인이 내는 연보의 액수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집사들이 들리는 연분대에 살짝이 넣는 것이었지만 그는 용케도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육년 동안이나 한 교회에 있는 탓도 있었지만 그의 눈치가 비상하게 빠르기도 했다.

이렇게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하는 날엔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예배시간을 머리숙이고 보내야 했다.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란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날엔 장사꾼들이 머릴 들지 못했다. 주일날 교회당에 나오면서 가갯문 열어놓고 나오는 사람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는 잔라 말했다. 주일날에도 돈을 벌겠다고 할 만큼 돈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는가 하였다. 그렇게 되면 돈은 그에게 우상이 되고 그걸 숭배하는 그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 하였다. 속으로 우상숭배 하면서 겉으로 하나님 경배한다고 나온 가증스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 하지않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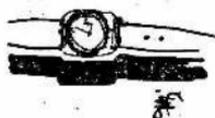
것이라 하였다. 마음은 가게에 가 있고 걸점테기만 교회당에 와 앉았는데
회안한 꼴 보기싫다고 짱짱 소릴 질렀다.

계와 고리대금업 하는 교인들도 그냥 두지 않았다. 돈 가지고 그런 재주
부리면 믿음에 손상 간다고 성경이 막는 짓을 왜 싹 끊지 못하고 계속하
는가며 이런 경우 그는 매서운 눈초릴 주로 부인석에 쏘다.

계하다 빵꾸가 나서 울고 불고 싸우고 찢고 하던 사람들이, 고리대금업
하면서 이자 제때에 안 낸다고 저당 잡은 물건 빼 먹어 남을 울리던 사람
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가고 힐문했다. 그런것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비는가고 비소했다. 이쯤 되면 부인들은 이맛박이
마루바닥에 닿도록 머릴 숙이게 된다.

사업가들도 그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사업가가 부모의 묘소 치
장에 억대의 돈을 쏟아 부었다며 교인들 중에 그런 썩은 정신으로 사업하
는 사람은 없는가고 반문했다. 총대가 손에 짹짹 얼어 붙을 만큼 추운 일
선고지에서 나라며 겨레를 지킨다고 애쓰는 장병들이 있는데, 무더운 월남
땅 정글 속에서 베프콩 잡는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병들이 있는데, 그
들에게 위문대 하나 제대로 보낼 생각은 않고 죽은 사람의 묘소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퍼붓는 따위 이기적인 사업가는 여기 없는가고 따졌다.

그는 그게 효도가 아니라 하였다. 살아 생전엔 오만 못된짓을 해서 부모
의 속만 썩히다가 죽은 뒤에 그런짓 한다고 효자가 되는 것 아니라 했다.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국가나 민족을 위해 또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 써
야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는 결과가 된다 하였다. 자기집 강아지를 위할 망
정 이웃을 위해 돈 쓸줄 모르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서도 밀
무역을 하고, 음식물에 유해색소를 섞는다 하였다. 그런 사람일 수록 자식
들을 멀리 외국으로 도피시켜 군문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하였다.



이런 설교할 때에는 주로 남자 쪽에서 고개가 숙여졌다.

이밖에도 그의 설교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많았다. 공무원도, 교육자도, 군인도, 학생도 힐책의 대상이 되었다. 부정에 빠진 공무원들, 학생들이 머리수를 돈의 액수로 아는 교육자들, 탈선하는 군인들, 건실치 못한 학생들은 무참히 얻어 맞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동역하는 목사들까지도 그 양두질 않았다.

그는 목사를 네 가지 부류로 나눴다. 교회를 기업체인양 생각하고 자진 대표이사로 아는 부류, 세습적으로 물려 받은 탕으로 선조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영부영 붙어 있는 목사, 탄길로는 출세하기 곤란한 삼류인생들이 그나마 하나의 출세로 알고 나선 부류. 그리고 자기와 같은 진짜 목사 등 네 가지라 했다. 근데 네째 부류를 빼고 나머지 세 부류에 속하는 목사들은 모두 들파리라 하였다. 교계에 자꾸만 분쟁이 일고 분파가 생기고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모두 그들에게 있다고 단정했다.

그는 교인들의 목사 대접하는 모양도 좋지못한 점이 많다 하였다. 안 모신다면 모르지만 하느님의 사자로 모시는 이상 하느님께 하듯 좋은 것으로 먼저 대접해야 한다고 대담스레 주장했다. 그는 자길 무대접한 어떤 집사의 이야길 되풀이 하면서 그랬다.

교인의 가정을 심방한다고 거리에 나섰던 그는 길거리에서 양과점을 경영하는 집사를 만났다. 간단한 인사가 교환된 뒤 집사는 다짜고짜로 그를 양과점으로 끌고 갔다. 마침 손님도 없고 한가한 시간이어서 케이크 좀 얻어먹고 잘만하다 느꼈다. 평소에 여간 아닌 인색꾼인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던 그는 게서 특특한 푸대접을 받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집사가 점원 한 사람을 불러서 뭐라 지시를 했는데, 점원은 곧 양과자 한 접시와 차를 들고 왔다. 그는 케이크를 살필 사이



도 없이 우선 머리 숙여 식기도부터 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집사의 권을 따라 포오크로 케이크 한 개를 떼어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집사님께서 장사하는 상품인데 내가 이렇게 공짜로 먹어서 되겠는가, 인사치레의 말을 했다. 그때였다. 그의 인사말을 받아서 집사가 답하는 말이, 이 케이크는 상품이 아니고 만들다 파 난 것을 모아 뒀던 것이니 안심하고 먹으란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하마트면 떼어 들었던 케이크를 접시 위에도로 놓을뻔 했다. 그러나 그는 얼른 돌이켜 케이크를 한 입 넉석 베어 물며 그렇담 마음 놓고 먹겠다 하였다.

그렇게 얼버무리긴 했지만 그는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었다. 비위가 확 뒤틀리면서 목구멍이 막혀버렸다. 더구나 접시에 놓인 케이크들의 모양새가 찌그라지고 외그라지고 도서리가 떨어져 나간, 병신꼴들이어서 그것들을 보고싶지조차 않았다.

그는 어저지로 케이크 하나를 깃털어 넘기고 찻물을 마신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끔 설교 때에 이 경험을 예화삼아 말하며 그는 이 교회엔 그런 집사 없는가고 발을 굴렀다. 목사를 찌꺼기 처리하는 사람 정도로 나지리 보는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뿔하겠다는 건가고 쇠소릴 질렀다. 하느님의 사람인 목사는 처음 것. 숫것. 새 것, 제일 좋은 것, 받을 자격이 있는데 지나는 거저에게 하듯 파 난 빵조가리나 던져 주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 단정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 뻔에 그가 강단에 설 때마다 교인들은 시종 고개를 들었다 꺾었다 해야 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힐책이 쏟아질 적엔 목고결 숙였다가 아널 때엔 들곤 했다. 싸늘히 얼어붙은 분위기에서 그런 목운동만 하면서 큰 두 시간 동안을 앉아있잠 이만저만 고된 것이 아니었다.

육년 전 처음 그가 교회에 부임해 왔을 적에 그의 그런 도도스럽고 차거



운 설교때에 교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설교 때마다 그렇게 교인들의 약점을 해집을 수 있는가 하였다. 복 받으러 교회당에 나오는게 아니라 목사한테 욕 먹으러 나오는 셈이라 하였다. 어떤 교인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 숫제 공갈이요, 협박이라 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했다. 난 목사로서 그걸 소개하면 임무는 끝난다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안 믿으면 이리이러한 벌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공갈범이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다.

세상을 안다는 신중과 교인들은 목사이지만 입 조심 해야지 설화(舌禍) 입는다고 염려했다.

강경과 교인들 중에선 교회에 나오길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다. 욕이나 먹을 바엔 숫제 나가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반발이나 염려쯤 그는 문제로 삼지도 않았다. 자기 설교를 욕으로 듣는 교인은 속에 마귀가 들어 앉은 사람이라 주장했다. 동시에 올바른 신앙을 지닌 사람은 그런 설교가 욕으로가 아니라 꿀맛같이 단 하늘의 말씀으로 들릴 거라고도 했다.

마귀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 사람은 갈때면 가라 하였다. 교회당이 텅비는 한이 있더라도 자긴 할 말을 한다 하였다. 한 달에 쌀 대두 한 말이면 사는 험험단신인데 교회를 떠난다 해도 못 살 형편은 아니라 하였다.

이쯤 되니까 교인들은 차차 그는 그런 사람이라 인정하게 되었다. 불평 불만을 앓게 되고, 교회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되돌아 왔다. 교인들중에는 심지어 힐책하는 설교만 듣다 보니까 거게 맛이 붙어서 부드러운 설교는 싱거워서 들을 수가 없다고까지 했다. 맵판 한국 음식에 인박힌 사람이 달짝지근한 왜식을 꺼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아름든 그는 이렇게 교인들의 인정을 받게되면서 더욱 기증을 부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은 신이고자 발버둥친 결과가 되었고, 교인들은 인간의 위치에 그냥 머물러서 인간으로서의 온갖 재미 다 보면서 그더러는 신이여야 강요하고 있었다. 그가 때로 인간스런 행위를 하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경악해 했다.

그런데 그도 애초부터 그렇게 강경한 목사는 아니었다. 신앙이 좋은 편이었고 교집이 유달리 센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괴팍스럽진 않았었다.

그가 그렇게 철두철미 신이고자 바둥대기 시작한 것은 소위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목사, 장로, 집사들의 재혼문제에 관여하면서부터 였다.

6.25 때에 그를 포함한 많은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집사들이 가족을 몽땅 북에 둔 채 남으로 내려왔다. 유엔군이 후퇴할 적에 우선 남자들은 피신해한다 해서 그들은 가족을 집에 둔채 단신 떠났다가 아주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딴 생각 일체 않고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목회에만 열중했었다. 그러나 일단 휴전이 되어 휴전선이란 장벽이 굳어지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은 동요되기 시작했다. 애초에는 두고 온 가족과 영이별이 된다 하여 비통에 잠겼겠지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진 못했다. 거칠디 거친 현실과 부딪치며 허덕이는 사이에 그들도 할 수 없이 망각병에 걸리고 말았다. 가족들을 잊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아주 잊은 것은 아니고 이따금 희미하게나마 생각이 나긴 했지만 전처럼 생생하거나 아프지가 않았다. 그보다는 현실생활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게 맞았다.

휴전 후 몇 해 안 지나서 하나 둘씩 재혼하는 자가 생겼다. 성경 원리대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



엔 집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차차로 장로나 목사 가운데서도 이탈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의 재혼을 철두철미 반대하고 나섰다. 복에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아내를 두고 재혼을 하는 건 어김없는 간음행위라 하였다. 제 칠제명을 어긴 셈이니까 교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자들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실제로 몇몇 그런 교인을 출교시켰다.

당시엔 교계에서 그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되려 대부분의 간부들이 동조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의 기세는 드높아 졌다. 더욱 실컷다. 일약 교계의 유명인이 되었다. 아니 교계의 괴물이 되었다 해야 옳았다.

괴물이 되면서 그는 재혼문제 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러 교리에 대해서까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경해졌다. 철두철미, 교리 고수자가 되었다. 때문에 동역하는 목사들까지도 그 앞에선 슬슬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러나 교계는 그 한 사람의 열의에 의해 마음대로 움직여질 만큼 단순한 곳은 아니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넓고 복잡하고 다원적인 곳이었다. 또 시간도 무시 못했다. 시간은 교계의 간부들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세월이 가면서 놀랍게도 많은 목사 장로들이 은연중 재혼을 묵인하는 태도로 나오게 되었다. 물론 재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거게 많이 끼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재혼하는 목사 장로들의 소식이 들렸다. 그것도 몇몇하게 『나는 재혼하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질구질한 이유를 붙여서였다. 어디서 고향사람을 만났는데 아내가 죽었다더라, 헤어질 때에 증빙을 앓고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 등, 자기 정당화를 피하며 척척 재혼을 했다.

그는 바짝 약이 올랐다. 만사 제쳐놓고 쏘다니며 재혼자들이 내세운 변



명이 사실 아님을 캐내어 공포했다. 교제에 책벌소동, 파면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재혼목사들은 날쌔게 소속했던 교단을 떠나 새로 교단을 형성하고 안주했다. 초교파적인 선교장인 군대로 뛰어드는 목사도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는 닭 쫓던 개가 되었다. 요리조리 다 피해버리니까 그랬다.

그러나 그는 재혼방지운동(?)을 중지하지 않았다. 재혼하고 만테로 냅다 뺀 목사들은 멸망당할 자라며, 아무리 친한 사이였더라도 깡그리 단교를 하고 계속 강경을 부렸다. 그러나 재혼바람은 자지 않고 점차 심해만 갔다. 아주 늙은 목사를 빼고 조금이라도 재혼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모두 재혼하려 들먹였다.

그는 그들에게 절 수 없다하여 더욱 열을 올렸다. 말과 행동으로만 모자라서 글까지 동원하여 총 공세를 취했다. 이러다 보니까 그는 신이 된 착각 속에서 깡깡 쇠소리만을 지르게 되었다.

그의 억벽같은 고집이 약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홀아비 목사들이 재혼을 끝낸 무렵부터였다. 상대할 사람이 부족 줄어들니까 그의 열기가 약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열기가 식으니까 이성이 되찾아졌다. 이성엔 자아를 살피게 했다. 내가 뭐냐, 하였다. 가족 없는 외롭, 서글픔, 불편함을 지레밟고 아득바득 재혼반대를 댈 내가 뭐냐 하였다. 재혼한 목사들은 벌써 아이까지 낳아 놓고 단란하게 사는데 나만 외고집스레 버티어 봐야 무얼 하느냐 의아했다. 또 휴전선 넘어에 있는 아내야 죽은 걸로 쳐서 무방하지 않은가 하는 수정안도 속에서 들먹였다. 생전에 만날 가망이 거의 없는 사이인데 여기서 여기대로 새로이 가정을 꾸며야 하지 않느냐 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아니라 하였다. 이제와서 그게 무슨 망발이냐 하였다. 이제와서 마음 바꾸면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라 하였다. 또 자기에게서 고집 빼 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하였다. 그러니 최후의



보류로 남는 도리 밖에 없다 하였다.

이런 그의 외교집에 결정타를 안긴것이 여전도사의 출현이었다.

지난해 봄 설혼 다섯살의 과부전도사가 온다 하였을 적에 교회의 중진 가운데에는 할아버지 목사 있는 데에 곤란하지 않느냐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우리 목사야 목석보다 더 싸늘한 분인데 과부 아니라 처녀전도사가 온다면 무슨 상관이었느냐 하는 수석장로인 신 장로의 말에 골 동조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전도사는 무난히 부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자신은 젊은 과부전도사가 온다 들었을 적에 걸으론 태연을 꾸밈지만 속엔 약간의 호기심을 품었었다. 그러나 그녀로 해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었다.

한데 막상 여전도사가 눈 앞에 나타났을 적에 그는 자신도 놀랄만큼 심한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여전도사의 몸매는 봄철의 버드나무처럼 운기가 활활 흐르고 싱싱했다. 예쁘다기보다 부गत집 말며느리스레 투실투실 복스레 생긴 얼굴에선 흔히 여자들에게서 보는 독살스러운 구석을 엿볼 수 없었다. 알맞게 크고 굵은 몸피에 곡선미가 곁들여서 한결 육감적이었다.

그런 여전도사와 인사를 나누면서 그는 그답지 않게 얼굴을 붉히고 수줍어 하기까지 했다. 입때껏 느껴보지 못했던 스트레스 같은 걸 느끼면서 그는 그자리에서 찢찢했던 것이다. 뒤에 느낀 일이지만 그 순간에 벌써 그의 외교집은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었다. 다만 그는 조각난 고집을 침녕물로 깨진 용기 엷매듯 체면이란 줄로 그걸 엷매어 가지고 일년 남짓 버티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의 동요는 점점 심해갔다. 여전도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복에 두고 온 아내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사실 복에 두고 온 아내는 목사의 내조자로선 적합치가 않았다. 외모부터 단정치가 못하고 말수덕이 많고 주변머리 없고 성질이 사납고 몸이 약해 일 년이면 반은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적에 장가 잘못 들었다고 속으로 늘 한탄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걸 자기 신앙생활의 가시로 여기고 극복하느라 애썼던 것이다. 그런 탓인지 그는 지금도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은 간절해도 아내에 대해선 시들했다. 이런 아내에 비하면 여전도사는 교역자의 아내로서 흠 잡을 데가 거의 없었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외모, 말 없이 묵묵히 실천하는 행동, 도타운 믿음, 교인들 누구에게서나 숭앙을 받는 너그러운 인품, 무엇 하나 허술한 데가 없는 짜임새 있는 일솜씨 등, 모든 여건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뿐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그의 마음을 끈 것은 여전도사의 목사에 대한 절대복종의 태도였다. 항용 목사와 여전도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감정의 대립 같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녀는 무조건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은연중 목사의 뒷바라지를 많이 하는 것이었다.

교회 경내에는 집이 두 채 있었는데 하나는 목사관이었고 하나는 여전도사와 사찰 그리고 목사의 식사 시중을 하는 식모가 사는 집이었다. 목사관에는 그가 혼자 기거했고 여전도사는 육십이 넘은 사찰노파와 열 일곱살 짜리 처녀식모,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 살았는데, 식모애가 만드는 식사나 빨래의 실제적인 코치를 여전도사가 하는 것이었다. 손수 바느질을 하고 다리미를 드는 것이었다.

전에 없이 맛 있어지는 반찬을 먹고 가끈해진 옷을 갈아 입을 적마다 그는 여전도사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가슴이 찢릿해지곤 했다. 문득 여



전도사 같은 여인이 영원히 내 뒷바라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혼자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여전도사에 대한 야릇한 친근감이 다시 그를 멍청하게 만들곤 했다.

따지잡 그는 여태껏 참된 내조자의 혼온한 손길에 젖어보질 못했었다. 본처가 그런 모양이어서 늘 쓸렁한 환경에 살아야 했고, 월남 후에는 혼자 떠돌이 하면서 되는 대로 살았었다.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 특히 여교인들의 도움을 안 받는건 아닌데, 모두가 쓸렁하니 해줬다. 식모애의 뒷바라지는 더욱 씨가 먹질 않았었다.

이런 그에게 여전도사의 숨어서 보내는 부드러운 손길은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건지 몰랐다.

그는 여전도사의 그런 손길이 결코 직업적이 아니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가 되어 혼자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녀가 주님의 대리자이면서 역시 외롭게 사는 홀아비목사에게 보내는, 진실함이 담긴 손길로 느껴졌다.

이런 둘의 관계를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한 덕이 없었다. 특히 눈치빠른 신 장로가 그냥 넘길 덕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도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런 사이가 빚어진 건 여전도사의 일방적인 태도에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 장로를 위시한 교회의 간부들은 은근히 여전도사를 단테로 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두어서는 신령한 목사의 영력(靈力)을 감할 염려가 있다 하여서였다.

이럴 즈음에 일이 터진 것이었다.

그날은 종일 비가 유난스레 내렸는데, 초저녁에 뜰해 지길래 인제 그만 두려는가 했더니 밤이 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밖에서 억벽을 쏟아지는 빗소릴 방에 혼자 누워 들으며 그는 짙은 고절(孤絶)감을 씹



고 있었다. 밖의 무엇과도 강그리 단절되어 혼자 고립해 있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전도사를 포함한 신 장로 일행이 나타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렇듯 심한 비바람 속을 그들 다섯 사람은 당신은 결코 고절되어 있지 않소, 하는 듯이 느닷없이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이유가 있었다. 어떤 토박이 부자집에서 교회에 나오겠다며 잡신타파 요청이 왔는데 원하는 시간이 내일 이른 아침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목사에게 알리기 위하여 비바람을 무릅쓰고 밤중에 찾아 온 것이었다.

잡신타파에 관한 의논은 쉬 끝났다. 여러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 내일아침 일찌기 모여서 그 집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다. 가서 귀신당 직들을 끄집어 내어 도조리 불태우면 되었다. 의논이 끝났을 무렵에 마침 비가 뜸해졌기 때문에 신 장로 일행은 서둘러 목사관을 나섰다. 들에서 인사말들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에 여집사들을 배웅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여전도사가 비에 젖겨 목사관 처마 밑에 들어섰다. 남의 우산을 빌려 썼다가 여집사들 편에 보냈기 때문에 비에 젖긴 것이었다.

마루에 들어섰던 그는 여전도사를 보는 순간 낮에 그가 주례했던 신혼부부가 인사하러 오면서 가져다 놓은 여전도사에게 주란 선물이 생각났다. 아까는 깜박 잊었었는데 그때에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여전도사더러 잠깐 처마 밑에 기다리라 하고 방으로 바빠 들어갔다. 선물꾸레미 들고 다시 나와 마약 여전도사에게 전내려는 무렵에 그만 깜박 정전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전도사가 비명 비슷한 기성을 올리는 순간 그는 벌써 여전도사의 손목을 짊 잡고 늘어졌다.

「들어오라우요!」.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열미고 있었고 몹시 떨리고 있었다.

「안되요, 목사님!」.

여전도사가 필사적으로 뿌리쳤다.

「안되긴?」.

그는 이제 쏟아진 물이라 생각하며 힘껏 여전도사의 팔을 끌었다. 여전도사는 한사코 버티며 맞섰다. 그러나 힘이 부치는 그녀는 종래 마루 위에 엎어져 끌리기 시작했다. 큰소리는 못 지르고 계속 기어드는 소리로 안되요만 웨치며 그랬다. 캄캄한 어둠 속에 두 물체는 격렬하게 움직였다. 밖에서는 그걸 부채질이라도 하는 듯이 빗소리가 더욱 드세어 갔다.

여전도사는 종래 굴복했다. 슛째 마루에서 일을 내리는 그더러 이제 뿌리치지 않을테니 방으로 들어가자 하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 앉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를 넘어뜨렸다. 그리곤 정신없이 광란을 부렸다.

바로 이때 여전도사는 이렇게 되길 바랐다고 치어스레 말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적에 그는 곧 떠난다는 남행열차의 차표를 샀다. 무조건 종착역까지 끊었다. 도중에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그랬다.

그는 개찰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차에 오른 뒤에도 혹 아는 사람이 없는가 하여 몹시 신경을 썼다.

그녀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자꾸만 땀을 흘렸다. 날씨는 무더운데다 밤잠을 못자고 신경만 쓰니까 몸이 허해졌는지 자꾸만 그랬다.

그는 문득문득 새벽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염려하고, 목사와 전도사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신 장로 이하 많은 교인들이 뭉여 범석대는 모습을 상상하고 쪽 땀을 흘렸다. 잠신타파하려 못 간 죄책도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교계 중진 목사 장로들, 특히 미리 재혼하고 자기한테 흑독스레 지탄받던 목사 장로들의 냉소를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졌다.



「……저두 그러는 놈이 그렇게 극성스레 끌어? 우린 대낮에 뒹뒹하게 나 장가들었지. 전 뭐야, 비겁하게 여전도사와 야간탈출을 하구……비겁한 놈?」.

매스컴의 떠들석임도 마음에 걸렸다. 필시 기자들이 냄새를 맡을 터인데, 힘껏 막아 줄 사람도 없고 보면 신문에 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시쳇말로 증발이니 뭐니 해서 주먹만한 활자로 타이틀을 붙여 보도해 버리면 자기는 천하의 비굴자가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홀아비목사와 과부여전도사 증발하다! 특호활자로 된 이런 타이틀이 눈 앞에 어른거리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의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는 그날 저녁손이 되어서야 갈아 앉았다.

그때 그는 손님이 드문드문 앉은 시골을 누비는 지선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저녁노을 아래 펼쳐지는 시골풍경을 보다가 저절로 마음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꼈다. 저절로라기 보다 지선을 타고 시골로 접어들면서, 찌는듯 덥던 더위가 가시고 저녁의 선들바람이 불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있었다고 봐야 했다.

본선을 타고 남하하다가 아무렇게나 내려서 지선을 타기까지 들은 무려 네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차시간을 맞추지 못한데다 기차가 연발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되었다.

지선을 타면서부터 그는 안도의 숨을 쉬기 시작했다. 저급껏 처해있던 각박한 현실에서의 해방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방감은 기차가 산골 쪽으로 점점 깊이 들어감에 따라 그 농도를 높혀갔다. 신 장로를 위시한 교회의 간부들과 많은 교인들의 비난이 예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았고, 신문기자들이 아무리 비꼬아 대드래도 자기와는 무관할 것 같았다. 교계의 중진들의 조소도 이 산골까지 따라 오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이쯤 되니까 그의 쪽은 한결 가벼워졌다. 비로소 맞은편 의자에 비스듬



히 누워 자고 있는 여전도사의 모습이 다정스레 느껴졌다. 땀에 찌들고 피로에 핏색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이 측은히 뵈고, 가슴이 찢릿하는 애정이 느껴졌다. 바쁘던 마음이 가라앉고 뽕뽕히 당겨졌던 신경줄이 늦춰지면서 그만큼 여유가 생긴 것이었다.

기차가 더욱 산골 쪽으로 기어 들어갔을 적에 그는 거의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여전도사를 차지하기 위해선 지금껏 자기가 지녔던 모든 것을 버리든 좋단 생각이 들었다. 목사의 길 그만 두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목사란 타이들이 있어야만 교회일 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산골에 가서 소박한 시골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야 목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교과도 필요없고 사람이 조작해 놓은 여러가지 교회의 기구들도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그들에게야 말로 순수한 하느님만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졌다. 그들 앞에서 자기는 신이하고자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이 자기더러 신이어서 강요 하지도 않을 걸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지금껏 자기를 얽매던 모든 줄에서 벗어나 훌가분하게, 그리고 순수하니 전도하여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전도사가 서울에 사 놓았다는 집을 팔고 자기가 예금했던 돈을 찾아내면 시골서 집 사고, 조그만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돌이 일할 만큼 땅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돌이서 농사 지어 먹으면서 전도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이 된 착각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위치에서 말이다.

기차가 갑자기 속력을 늦췄다. 그는 창문을 통해 앞을 봤다 먼발치로 산기슭 평퍼짐한 곳에 웅기 종기 모여 붙은 초가집들이 보였다. 게가 역인 모양이었다.

그는 내리리라 생각했다. 더 멀게 갈 수 있는 차표를 가졌지만 그만 내리고 싶었다. 맞은편 여전도사를 흔들며 깨웠다.



『다 왔어요, 내려요!』

여전도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예가 어디냐 했다. 그는 우리가 내릴 곳이라 했다.

『종착역이어요.』 여전도사가 물었다.

『아니요.』

『그럼…… 목사님. 미리 오실 자리, 다 봐줬었군요.』

여전도사가 입가에 웃음을 띄며 말했다.

『나 목사 아니요. 목사래두 당신한테 당신이란 소리 듣구파요…….』

『그래두…….』

『그래두레 뭐이야요? 남편 보구 당신이라구 하는 건 당연하디…….』

『아이, 목사님두…….』 여전도사는 새색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 했다. 그는 얼른 여전도사의 손목을 덩석 쥐었다.

『당신, 이제 우리끼리의 세상이야.』

그는 이윽히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어서 내릴 준비하자, 말하며 여전도사의 손목을 놓고 일어섰다. 여전도사도 따라 일어섰다.

기차는 이제 거의 정차단계에 있었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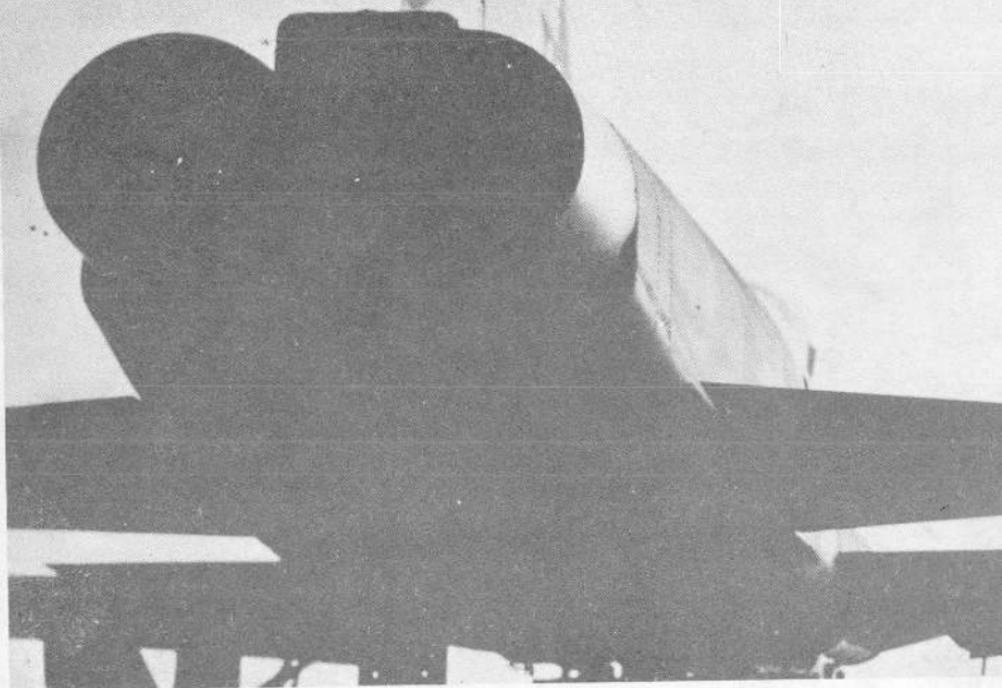
- …시간이 유전하여 8·15광복 26주년을 맞는다. 1945년 8월 15일—
있을 수 없는 그 날의 감격! 태극기, 만세소리 친지를 뒤흔든 그 날이 바로
어제만 같은데 이젠 한낱 역사가 되고… 오 시근시월(時近時遠).
-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닉슨대통령의 중공방문계획을 비롯한 남북 가족찾
기 운동 제의 등, 예측할 수 없는 급변양상, 우리 침착히 동향을 냉철하며,
특히 우리 자신의 임무에만 전념해야지…
- …오늘 말복—. 염제(炎帝) 물러가고 황금물결아 금수강산에 굽어쳐라! <준>



명화감상 : 최후의 심판 <중앙상>

미켈란 제로(1475~1564)
로마 시스틴 성당 벽화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정 병 강 군



임전태세확립